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44 2024. 6

CONTENTS

Distribution pattern and Meaning of Ancient tombs and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in the center of Gyeongju During that Shilla was formed — Lee, Won-Tae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 Jung, Ik-Jae

Types and Implications of Tumuli in the Eastern Middle Nakdong River Basin — Park, Hyun-Jung

The historic chronology and character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as seen by the excavated a records — Lee, Ju-Heun

Characteristics of Daegu Dalseong through Comparison with fortification in Korea — Lee, Hyeok-Hee

An Archaeological Comparative Study on Ice-storage in Korea, China and Japan — Yu, Byoung-Rok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propeller-shaped bits on the Eurasian continent — Jung, Suk-Bae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Khureet Dov, Mongolia, Xiongnu capital — Oh, Jae-Jin · Kim, Sang-Lok · Song, Sang-Woo · Enkhbold Sanjperlee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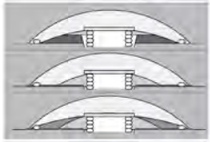
中央考古研究 第44號 2024.6 中央文化遺産研究院

eISSN 2713-8054

中央考古研究

第 44號 |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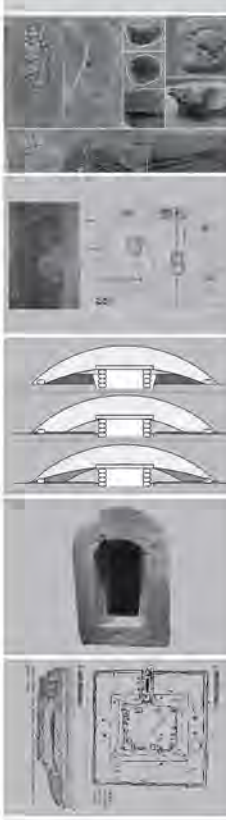
연구논문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 · 생산유구의 분포양상과 의미 | 이원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 | 정익재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유형과 함의 | 박현정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 이주헌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 이혁희
古代 韓中日 氷庫의 고고학적 비교연구 | 유병록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 정석배
흉노 도성지 몽골 후레트 도브의 성격과 구조 | 오재진 · 김상록 · 송상우 · S.엥흐볼드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中央考古研究

第 44號 | 2024. 6



연구논문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 · 생산유구의 분포양상과 의미 | 이원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 | 정익재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유형과 함의 | 박현정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 이주헌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 이혁희
古代 韓中日 氷庫의 고고학적 비교연구 | 유병록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 정석배
흉노 도성지 몽골 후레트 도브의 성격과 구조 | 오재진 · 김상록 · 송상우 · S.엥흐볼드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中央文化遺産硏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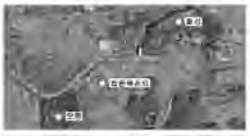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硏究 -第 44 號-

인쇄일 2024년 6월 25일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등)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中央考古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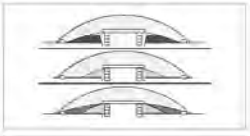
第44號 | 2024.6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 · 생산유구의 분포양상과 의미 ····· 1
이 원 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 ····· 35
정 익 재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유형과 함의 ····· 75
박 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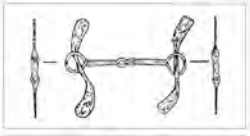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 107
이 주 헌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 143
이 혁 희



古代 韓中日 氷庫의 고고학적 비교연구 ····· 179
유 병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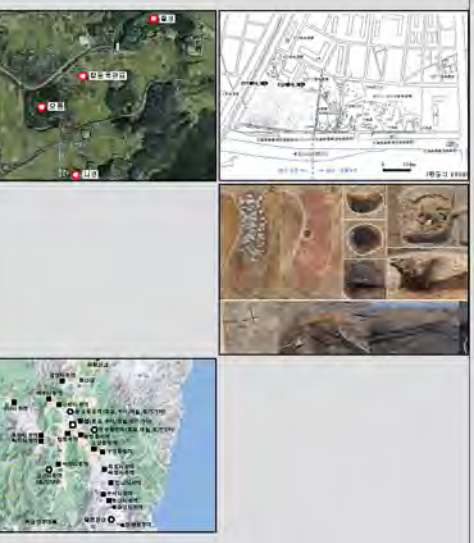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 205
정 석 배



흉노 도성지 몽골 후레트 도브의 성격과 구조 ····· 245
오재진 · 김상록 · 송상우 · S.엥흐볼드

中央文化遺産研究院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생산유구의 분포양상과 의미

Distribution pattern and Meaning of Ancient tombs and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in the center of Gyeongju During that Shilla was formed

이 원 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Ⅰ. 머리말

Ⅱ. 대상자료

Ⅲ.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의 분포양상

Ⅳ. 공간적 의미: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 순으로 검토하고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를 연계하여 공간적 의미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경주 도심지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에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원삼국 전기는 탑동 1호 목관묘 등으로 볼 때 탑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여 이미 월성은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조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된 묘역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특히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되어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즉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에서 생산된 철기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남부지구의 상신리 유적에서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어 덕천리 집단으로 토기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그들에게 독점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달천광산도 포함된다.

결국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경제·정치적 성장에 형산강길 등을 공간적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주제어 :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월성,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 형산강길

Ⅰ. 머리말

경주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는 목관묘, 원삼국 후기는 목곽묘, 신라 조기는 주부곽식목곽묘로 변화되어 신라형성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사로국부터 신라 조기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가 왕성하게 진행되었다(이청규 2005; 李熙濬 2011a; 김용성 2015; 최병현 2015, 2018; 이재현 2016; 尹溫植 2019; 장기명 2023a). 즉 북토리, 구어리 산65-4, 모량리, 화천리, 검단리, 하구리유적 등을 비롯해 조양동, 사라리, 덕천리, 황성동, 구어리유적 등의 목관·목곽묘 자료 덕분이다. 한편 사로국은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 경주 분지의 대부분 지구에 성립하고 구성한 읍락(그 중심지)은 경주 도심(월성 부근?), 서부(사라리?), 남부(덕천리), 동남부(죽동리)에 각각 소재하였고 북부 안강지구(안계리), 울산 동천 유역지구(중산리)도 뒤이어 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李熙濬 2011a). 그 중 경주 도심지구의 고고자료가 빈약하여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 사로국~신라 조기 등에 해당하는 고분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최병현 2016a, 2020, 2023). 특히 경주 도심지구의 소규모 국비발굴(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2017a, 2017b, 2018a, 2019, 2023)이 마치 탐색Trench 역할을 해서 거시적인 양상 파악이 가능해졌다.

결국 사정동, 교동, 탑동, 황남동, 인왕동 등의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철기~신라 조기 분묘와 생활유적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쪽샘지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2016, 2021, 2023) 발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에 사정동 114-1번지 유적의 1호 수혈에서 점토대토기와 교동 158-2번지 유적 주거지에서 노형토기 등이 확인된 점을 비롯해 황남동 95-4·6번지, 인왕동 790-2번지 유적에서 신라 조기의 목곽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결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분묘와 생활유구 자료를 통해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경주 도심지구는 사로국과 신라 조기의 고분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간의 핵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 순으로 검토하고 공간적 의미를 월성과 황성동·천군동 생산유구를 연계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주 도심지구의 범위는 북천, 남천, 서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핵으로 하는 현 시내를 기준으로 한다(李熙

濬 2011a: 141). 다만 경주 도심지구와 주변지구와의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천 이남의 탑동 일대와 보문 일대의 천군동유적 등도 포함한다.

논의에 앞서 신라 형성기의 그 시간 폭은 대개 신라 성립 시점으로 잡는 기원 300년 즈음으로(이희준 2011b: 610) 본격적인 신라는 기원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전엽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주류이다(김용성 2011: 105). 특히 기원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전엽까지를 사로국 시기와 신라 조기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신라 조기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최병현 2018: 109~117).

Ⅱ. 대상자료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은 목관 · 목곽묘의 분묘유구가 중심이고, 생활유구는 주거지와 수혈이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자료에 의한 유적을 성격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신라 조기까지 확인되지만 초기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활유구는 초기철기 수혈 3기가 확인되는 한편, 원삼국 전기는 공백이고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의 주거지는 확인된다.

1. 분묘유구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에 탑동유적에서만 확인되는데, 3기의 목관묘 중 21-3번지 1호 목관묘는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부장품의 기종구성 등이 많이 닮아 있어 존재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탑동유적은 원삼국 전기에 국한되고 원삼국 후기와 신라 조기의 분묘유구는 탑동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절적이다.

원삼국 후기는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에서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등이 잘 알려져 있고(具滋奉 1997) 인왕동 807-4번지(남시진 1993)와 인왕동 주유소 부지의 자료도 일부 소개되었다(최병현 2014: 129). 최근에 황남동 95-4, 6번지, 인왕동 814-3, 4번지, 쪽샘 C지구에서 목곽묘가 확인되어 원삼국 후기의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의 부장품 등이 다른 목곽묘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표 1] 경주 도심지구 분묘 및 생활유구

연번	성격	시기	유적명(위치)	유구	출토유물
1	분묘유구	원삼국 전기	탑동 21-3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재갈, 철복, 철검, 철모, 철촉, 세형동검, 칠초동검, 일광경, 방제경, 호형대구, 동포, 경식 등
2			탑동 20-1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양뉴부호, 완, 철검, 철모, 청동검파부 철검, 일광경 등
3			탑동 20-6번지	목관묘	주머니호, 철부(편)
4		원삼국 후기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등
5			인왕동 807-4번지	목곽묘?	고배
6			인왕동 주유소 부지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7			쪽샘 C지구	목곽묘	노형토기
8			인왕동 814-3번지	목곽묘	인골
9			인왕동 814-4번지	목곽묘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유개대부직구호, 철모, 철부, 철촉, 철겸, 도자, 유자이기, 경식 등
10			황남동 95-4번지	목곽묘	파수부호, 침저양이부호, 철모, 따비 등
11			황남동 95-6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대부호, 장동옹, 옹, 철부 등
12		신라 조기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	목곽묘?	?
13			인왕동 · 황오동 4호	목곽묘	고배, 단경호, 대부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등
14			인왕동 790-2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고배, 대부호, 소옹, 양이부호, 컵형토기, 통형기대, 토제 구슬 등
15			월성로 가지구	목곽묘, 적석목곽묘	노형기대, 단경호, 대부호, 대호, 통형기대, 철부, 철촉, 철정, 단갑편 및 소찰편, 등자, 석천, 곡옥, 관옥 등
16			황오동 385-10번지	목곽묘?	고배 등
17			쪽샘 B지구	목곽묘	단경호, 파수부옹, 옹, 완 등
18			황남동 95-4번지	목곽묘	노형기대, 개, 단경호, 호, 불명철기 등
19			황남동 95-6번지	목곽묘	노형토기, 노형기대, 대부직구호, 양이부호, 고배, 컵형토기, 옹, 철모, 철겸, 따비, 도자, 유자이기 등
1	생활유구	초기 철기	사정동 114-1번지	수혈	점토대 옹 구연부편, 무문토기 옹 등
2			교동 158-2번지	수혈	점토대 옹, 무문토기 저부편 등
3			나정	수혈	점토대 옹, 두형토기 등
4		원삼국 후기	월성 북서편 95-1번지	주거지, 수혈	노형토기, 시루 등
5			교동 158-2번지	주거지	노형토기편, 호편, 장동옹편
6		신라 조기	인왕동 472-2번지	주거지	통형고배 등
7			월성 3호 해자 북편 95번지	주거지	고배, 단경호, 대부단경호, 통형기대, 컵형토기, 광구소호, 파수부호 등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	주거지	통형고배 등

신라 조기는 월성로(가지구)가 대표적이고(國立慶州博物館 1990) 황오동 385-10번지,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에서 신라조기양식 토기들이 확인되어(최병현 2014: 130) 그 존재감은 있다. 최근에 황남동 95-4, 6번지, 인왕동 790-2번지, 쪽샘 B지구, 인왕동 · 황오동[A지구]에서 목곽묘가 확인되어 신라 조기의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인왕동 · 황오동[A지구]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가 진행되면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목곽묘의 실체를 증명할 가능성이 큰데(그림 1), 현재 진행 중인 쪽샘지구 발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주 도심지구의 분묘유구 증가는 사로국~신라 조기의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인왕동 · 황오동 A~I지구 구획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2. 생활유구

생활유구는 초기철기에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에서 수혈이 1기씩 확인되지만 주거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경주 도심지구에서 최초로 생활유구가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즉 초기철기 관련 자료는 대부분 경주 도심지구를 벗어난 주변지구에서 확인되었고 그나마 분묘자료가 월등했기 때문이다.

원삼국 전기의 생활유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탑동 일대에서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가 확인된 점은 앞으로 생활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어 자료증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 북서편 95-1, 2호 주거지와 수혈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 교동 158-2번지 유적(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주거지에서 노형토기편, 호편 등이 확인되어 경주 도심지구에서 취락의 분포범위가 확대된다.

신라 조기는 월성 3호 해자 북편 95-1호 주거지가 일부 확인된 정도이다. 아직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신라 조기로 추정되는 주거지 2기가 인왕동 471-2번지의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그림 2). 유물은 통형고배 등이 출토되었고 주거지 내부에서 소토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주변으로 소토가 다량 확인되어 인접한 범위에 주거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2]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이상에서 원삼국 전기 경주 도심지구에서 분묘유구는 탑동에서만 확인된다. 원삼국 후기는 인왕동, 황남동, 쪽샘지구에서 확인되고 신라 조기는 최근 월성로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분묘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또 생활유구는 초기철기에 사정동, 교동, 나정에서만 확인되고 원삼국 전기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초기철기 자료로 볼 때 앞으로 그것이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의 생활유구는 교동, 월성, 인왕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뚜렷하다.

Ⅲ.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의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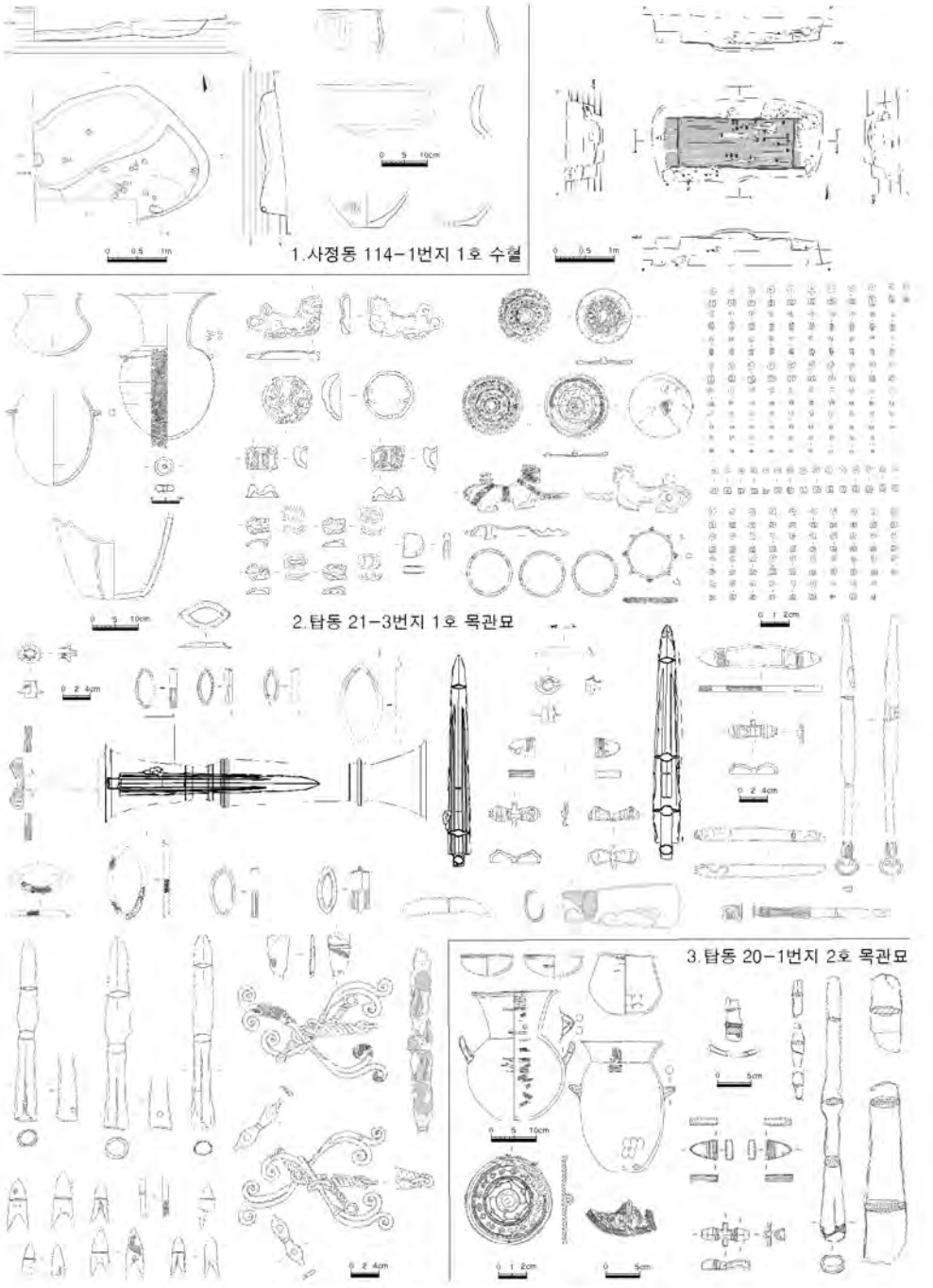
1. 초기철기~원삼국 전기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3]과 같다.[1] 분묘유구는 원삼국 전기에 오릉과 인접해서 탑동 21-3번지(1호), 20-1번지(2호), 20-6번지(3호)에서 목관묘가 1기씩 확인되고, 생활유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에서 초기철기 수혈

1) [그림 3, 6, 9]의 유적 분포도는 최병현(2014)과 허재민(2022)의 논문을 참고한 후 최신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 초기철기 수혈 및 원삼국 전기 목관묘 분포양상



[그림 4] 초기철기 수혈(1) 및 원삼국 전기 목관묘(2, 3)

이 1기씩 확인된다(그림 3, 4).

〈초기철기〉 경주지역은 초기철기에 목관묘가 등장하는데, 하구리, 조양동, 구어리 산65-4번지, 북토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북토리 39-1번지 유적(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등으로 경주 도심지구를 제외하고 확인된다. 따라서 경주 주변지구를 중심으로 목관묘가 형성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주 도심지구의 사정동 114-1번지 유적에서 평면형태 부정형에 길이 274㎝, 너비 215㎝, 깊이 20~40㎝의 초기철기 수혈 1기가 확인된다. 유물은 점토대 옹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옹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호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저부편 2점이다(그림 4-1). 또 교동 158-2번지 유적의 수혈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평면형태 원형에 지름 72㎝, 깊이 15㎝로 유물은 점토대 옹 2점, 두형토기 1점, 석촉 1점이다.

나정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8)은 4차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차 시설은 수혈을 중심으로 주혈, 구상유구, 목책 순으로 배치된 일렬 구조로 점토대 옹 1점과 두형토기 1점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의 左下). 물론 경주 도심지구에서 거주의 흔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초기철기 주거지가 아닌 수혈이 확인되었지만 도심과 주변지구에서 동시에 사람이 정주[2]했을 가능성은 커서 주목된다.[3] 앞으로 경주 도심지구에서 초기철기 주거지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의미가 있다.

〈원삼국 전기〉 원삼국 전기의 목관묘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중엽의 탑동 20-6번지 3호 목관묘이고 다음이 기원전 1세기 후엽의 탑동 20-1번지 2호 목관묘(그림 4-3) 그리고 기원 1세기 후엽의 21-3번지 1호 목관묘(그림 4-2) 순이다. 따라서 원삼국 전기의 경주 도심지구는 기원전 1세기 중엽의 목관묘가 탑동에서 처음 확인되고 기원 1세기 후엽까지 존속하지만 탑동 일대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탑동 목관묘 중 탑동 21-3번지 1호는 경주 서부지구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항상 비교된다. 즉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부장품의 기종구성이 흡사한데, 바닥면에 깔린 판상철부만 차이를 보인다.

---

2) 경주 도심지구의 토지활용은 북천의 범람 우려가 해소된 기원 6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정동 114-1번지 유적은 장기 정주보다는 임시 캠프적 성격도 고려된다.

3) 경주 도심지구를 제외한 주변지구의 생활유구는 화천리 산251-1유적(주거지 10기, 수혈 31기, 주구형유구 4기, 구상유구 19기, 폐기장 3기 등: 嶺南文化財硏究院 2011), 보문동 336-1번지 유적(수혈 1기: 韓國文化財財團 2017c), 죽동리 653 · 654번지 유적(수혈 4기, 구상유구 2기: 韓國文化財財團 2018b), 망성리 612-1번지 유적(구상유구 2기: 韓國文化財財團 2022) 등이다. 특히 화천리 산251-1유적은 주거지를 비롯해 구릉 정상부에 의례유구(주구형유구) 등이 확인되어 당시 취락 양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경주지역 초기철기 분묘와 생활유구를 종합한 논의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하튼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고고자료는 주변지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조사의 부족 탓인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최근에 초기철기 수혈의 존재는 당시 생활상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경주 도심지구의 명확한 실상은 앞으로 자료 증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표 2] 사라리 130호와 탑동 1호 목관묘 출토유물

유물 유적	청동기			철기							장신구	토기 (토제품)
	세형 동검	동경	기타	철검	철모	철촉	판상 철부	단조 철부	환두 도자	기타		
사라리 130호	2	방제경 4	호형대구2 동포9 청동천12 청동지환17 유문동기 청동마구	1	2	24	70	4	소도4	철복 재갈3 철겸	경식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주머니호 개 소옹 대호 연질호
탑동 1호	2	방제경 일광경	호형대구2 동포5 청동천4 불명동기	1	3	7	·	1	삼엽문 환두도 도자 소도	철복 재갈 철겸 철사 철착	경식 구슬2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주머니호 양이부호 방추차

중요한 점은 경주 도심지구의 원삼국 전기에 탑동에서 확인된 수장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같은 기원 1세기 후엽의 목관묘로 당시 경주 도심지구와 서부지구의 수장묘지만 연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두 목관묘 부장품의 기종 등이 유사한 점에서 당시 매장의례의 동일성도 간취된다(표 2). 즉 매장의례의 공유는 당시 지구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라리 130호와 탑동 21-3번지 1호 목관묘를 버금가는 무덤은 영남지역으로 넓혀 보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막대한 권력을



[그림 5] 나정-오릉-탑동목관묘 위치도

가진 수장의 영유를 뒷받침해 줄 주거지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문점이 남는다.

이상에서 초기철기~원삼국 전기는 경주 도심지구에서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부터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조선 유민이 경주지역의 산골짜기(山谷之間)에 들어와 6촌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재지민은 경주 도심지구에 이미 초기철기부터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의 서성벽에 인접한 월정교 남쪽의 남천변에서 초기철기 원형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 등이 출토된 포함층이 발굴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병현 2016b: 62). 특히 원삼국 전기의 탑동 21-3번지 1호 목관묘는 당시 경주 도심지구의 위상을 대변하는데, 주인공을 국제적 인물로 한군현, 북방과 교역을 담당한 주체인 한편 나정-오릉-탑동유적과 연계한 제의의 공간에 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양수 2022, 2023). 이렇듯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나정-오릉-탑동목관묘 일대(그림 5)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2.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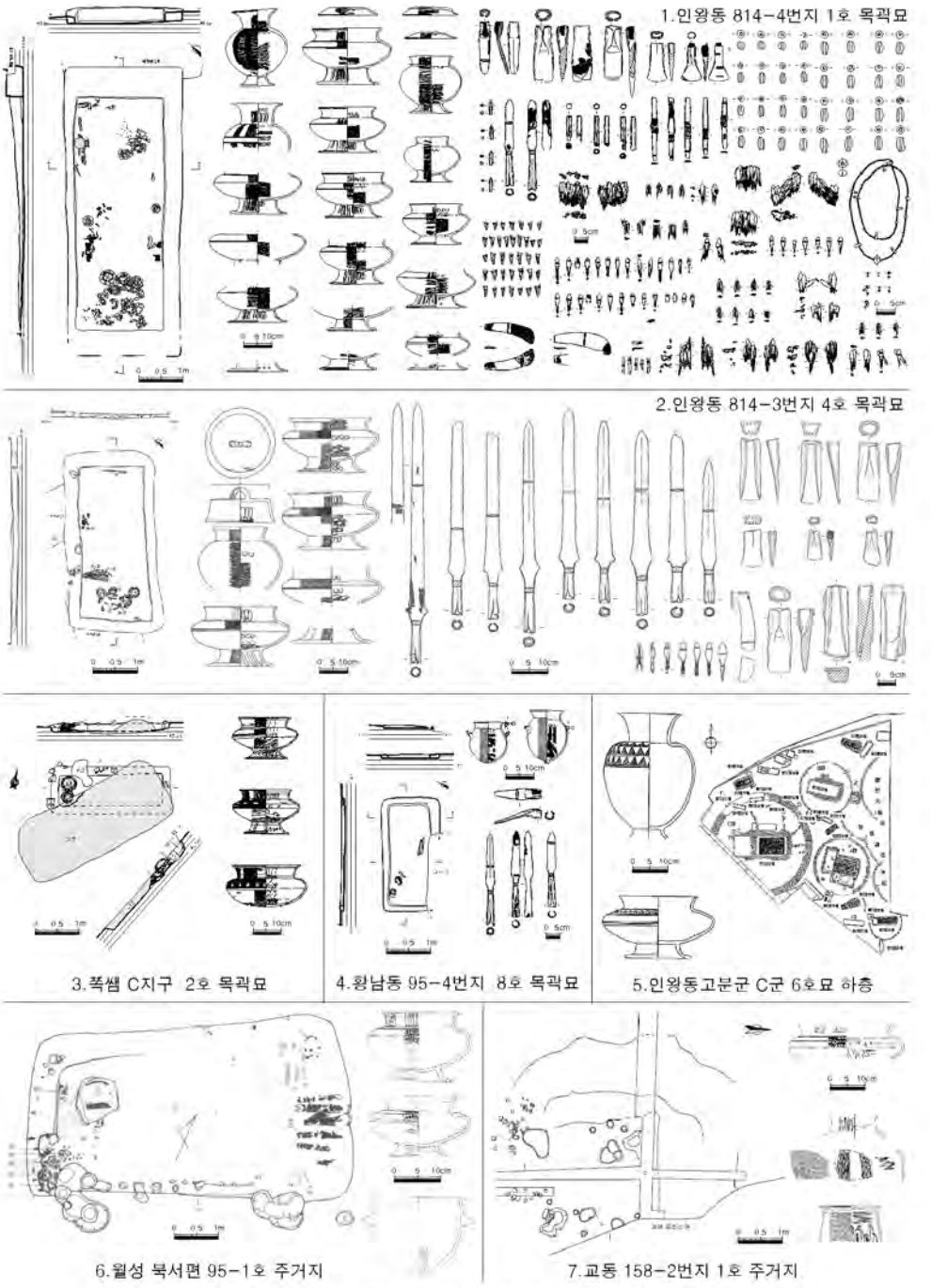
신라형성기 경주 도심지구의 원삼국 후기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6]과 같다. 분묘유구는 인왕동, 쪽샘, 황남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생활유구는 월성과 교동에서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된다(그림 7).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의 분묘는 오릉과 월성남구역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생활유구도 사정동과 교동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 분묘는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생활유구도 월성남북구역에서 주거지가 최초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원삼국 후기〉 경주지역에서 원삼국 후기에 목곽묘가 등장하지만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왕동고분 C군 6호묘 하층(그림 7-5), 인왕동 807-4번지, 인왕동 주유소 부지의 출토 대부광구호, 노형토기, 고배 등의 보고를 통해 인왕동을 중심으로 늦어도 기원 3세기부터 목곽묘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원삼국 후기의 분묘 구조와 여러 양상을 구체화하기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문화재재단의 소규모 국비발굴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쪽샘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인왕동 814-3, 4번지, 황남동 95-4, 6번지, 쪽샘 C지구 등에서 원삼



[그림 6] 원삼국 후기 목곽묘 및 주거지 분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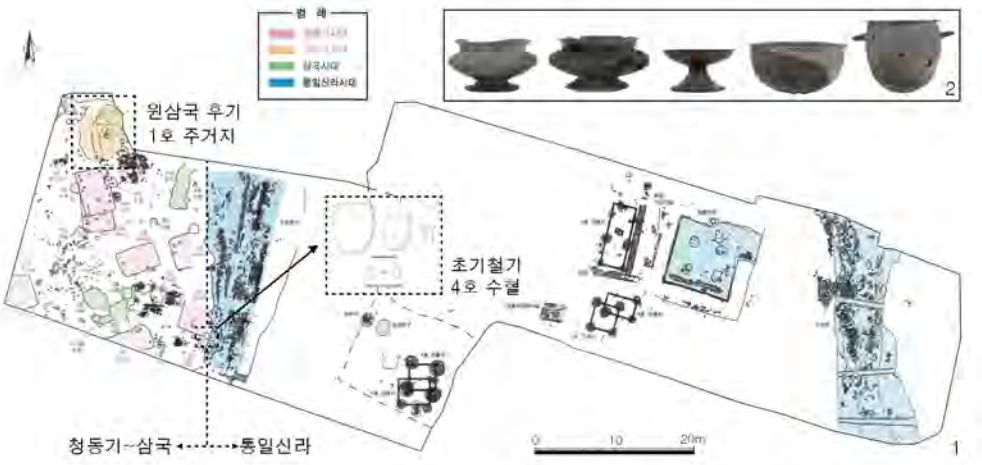
[그림 7] 원삼국 후기 목곽묘(1~5) 및 주거지(6, 7)

국 후기의 목곽묘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소규모 국비발굴은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곳에 대한 당시 상황을 큰 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그림 7-1)와 814-3번지 4호 목곽묘(그림 7-2)가 보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중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는 상층 유구 등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잔존 길이 668㎝, 너비 262㎝, 깊이 31㎝ 정도이다.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 등 총 263점이 출토되어 현재 경주 도심지구에서 기원 3세기 전엽을 대표하는 목곽묘이다. 반면에 황남동 95-4번지 8호 목곽묘(그림 7-4)는 평면형태 장방형에 길이 257㎝, 너비 131㎝, 깊이 13㎝ 정도이고,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가 총 6점이 확인되어 대조적이다. 또 쪽샘 C지구 2호 목곽묘(그림 7-3)는 평면형태 장방형에 길이 274㎝, 너비 110㎝, 깊이 25㎝ 정도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3점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원삼국 후기 경주 도심지구의 목곽묘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규모와 부장품 등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아직은 자료가 미약한 편이지만 인왕동 814-4번지 1호 목곽묘 등으로 볼 때 이제 원삼국 후기부터 이곳에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은 분명해졌고 더욱이 월성북고분군에 초대형 목곽묘가 존재하고 있음도 드러나는 것이다. 원삼국 후기 최고 위계의 목곽묘가 바로 이곳 월성북고분군에 자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최병현 2021: 169).

주거지는 기존에 월성 북서편에서 확인된 주거지(그림 7-6)가 잘 알려져 있지만 주거자료는 상당히 희소하다. 다행히 최근에 교동 158-2번지에서 원삼국 후기 주거지 1기가 확인되어(그림 7-7) 당시 거주 공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상층 유구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길이 327㎝, 너비 182㎝, 깊이 71㎝ 정도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장동옹 등이다. 또 삼국시대 주거지 1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 수혈, 통일신라 적심건물지 등이 확인되었고(그림 8-1), 신석기시대 즐문토기편도 수습된 점으로 보아 선사~고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성 남성벽 취락 대지조성면(그림 8-2)에서 기원 3세기대의 노형토기 등이 출토되어(장기명 2023b) 원삼국 후기의 자료가 더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월성과 교동 일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자료 증가를 통한 명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교동 158-2번지 유적 유구배치도(1) 및 월성 남성벽 취락 대지조성면 출토 토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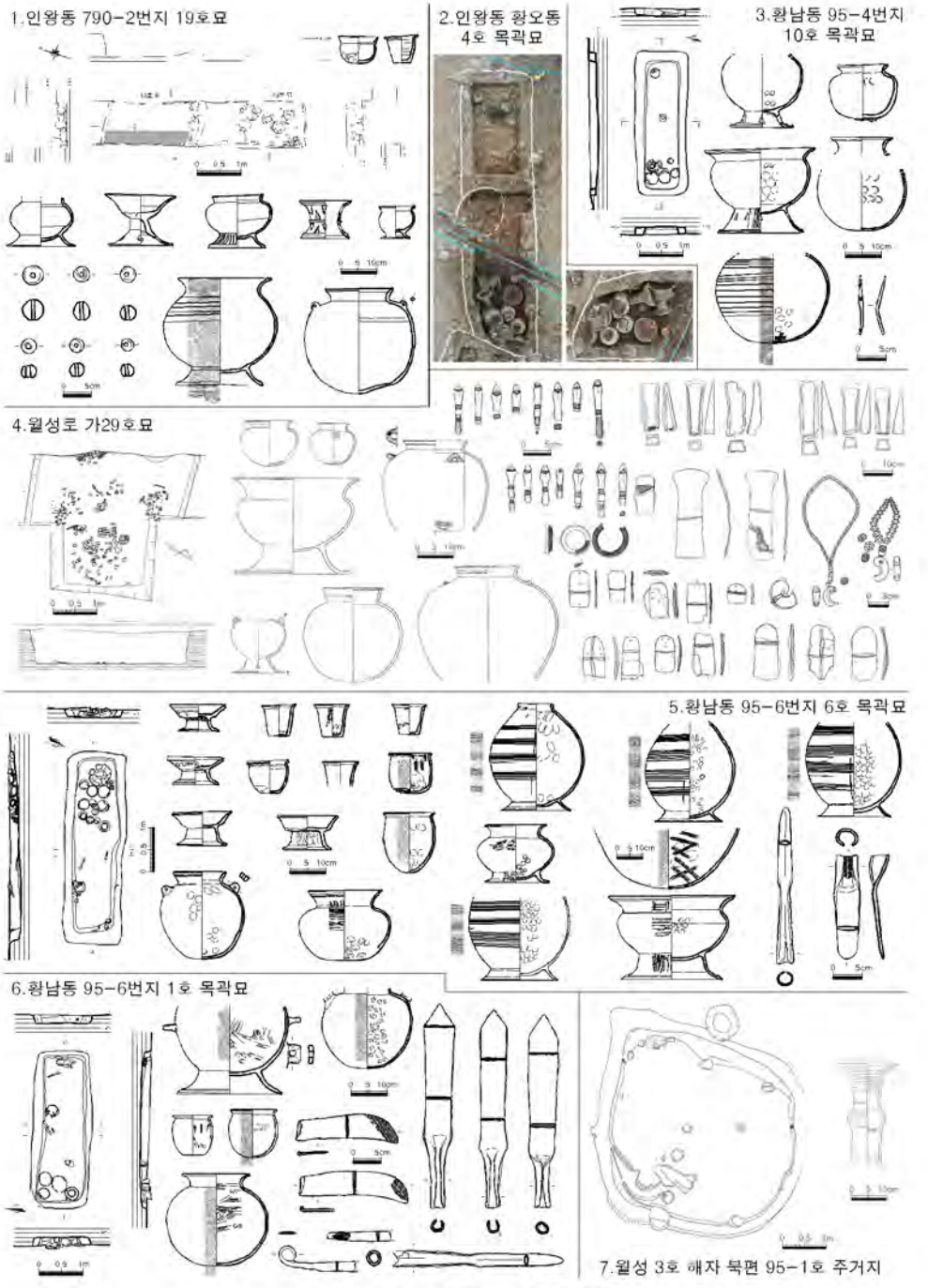
이상에서 원삼국 후기가 되면 경주 도심지구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단편적이지만 월성 주변에서 이미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월성 주변의 경주 선상지가 농업적 기반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중심취락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주체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재현 2016: 98).

〈신라 조기〉 신라 조기의 분묘와 생활유구의 분포양상은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림 9]와 같다. 분묘유구는 인왕동, 월성로, 쪽샘, 황남동, 황오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생활유구는 월성북구역에서 주거지가 확인된다(그림 10).

경주지역에서는 원삼국 후기에 이어 신라 조기에도 목곽묘가 지속적으로 조영되지만 원삼국 후기와 마찬가지로 경주 도심지구의 유적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경주 도심지구의 고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다. 물론 월성로(가지구), 황오동 385-10번지, 인왕동고분 A군 3호묘 호석 하층에서 신라조기양식 고배 등이 확인된 예는 있다(최병현 2014: 130). 그 중 월성로(가지구) 29호묘(그림 10-4) 등은 발굴조사범위의 한계로 정확한 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확인된 유물만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 등 총 67점 정도라서 신라 조기의 경주 도심지구를 대표하는 목곽묘 중 하나이다. 최근에 경주 월성로와 차선이 이어지는 인왕동 790-2번지 분묘(그림 10-1)가 확인되었는데(계림문화재연구원 2019), 전선지중화공사 구



[그림 9] 신라 조기 목곽묘 및 주거지 분포양상



[그림 10] 신라 조기 목곽묘(1~6) 및 주거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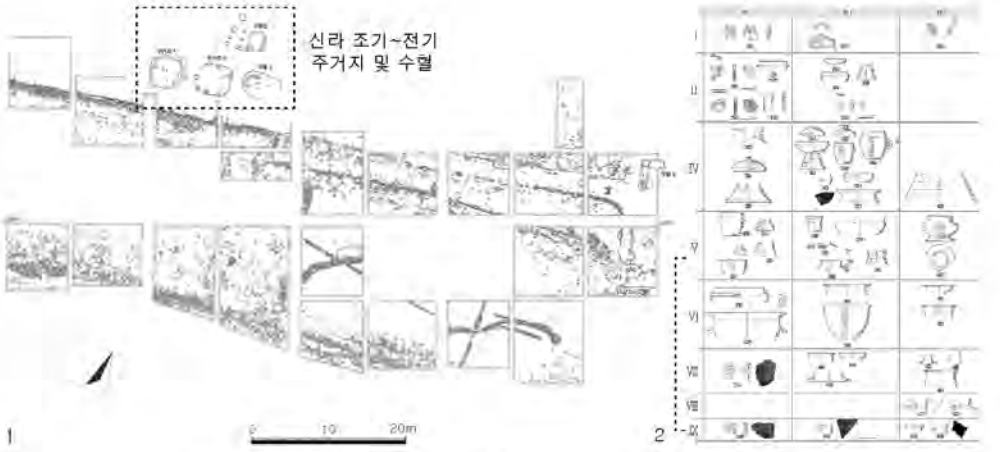
간의 조사범위 한계로 구조 등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배, 소옹, 양이부호, 기대, 토제 구슬 등이 확인된다. 또 황남동 95-4, 6번지 유적, 쪽샘 B지구, 인왕동 · 황오동[A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조기의 목곽묘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월성로와 인왕동 790-2번지 유적과 달리 평면형태와 구조 등을 알 수 있어 신라 조기 목곽묘의 양상을 점검하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황남동 95-4번지 10호 목곽묘(그림 10-3)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가깝고, 유물은 단경호 3점, 노형기대 1점, 대부호 1점, 호 2점, 호 저부편 1점, 불명철기1점이다.

황남동 95-6번지 6호 목곽묘(그림 10-5)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유물은 노형토기 1점, 노형기대 1점, 고배 4점, 컵형토기 4점, 옹 2점, 파수옹 1점, 양이부호 1점, 대부호 3점, 철모 1점, 따비 1점이다. 1호 목곽묘(그림 10-6)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유물은 노형기대 1점, 양이부호 1점, 단경호 1점, 옹 2점, 도자 1점, 판상철모 7점, 철모 1점, 철겸 2점, 유자이기 2점이다.

인왕동 · 황오동[A지구] 4호 목곽묘(그림 10-2)는 정식보고되지 않았지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유물은 고배, 대부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소형기대 등 토기류 12점과 철기류 1점, 구슬 등이다. 특히 기대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는데, 그 중 통형기대는 포항 마산리 149-4번지 것과 많이 닮아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인왕동 · 황오동 A~Ⅰ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일대의 부족했던 고고자료 확보를 가정하면 신라 조기 분묘에 대한 양상 파악이 기대된다. 한편 신라 조기 경주 도심지구의 목곽묘는 규모와 부장품에서 차이가 확연하진 않지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인왕동 · 황오동[A지구]의 것이 약간 우세하다.

주거지는 월성 3호 해자 북편 95-1호 주거지(그림 10-7)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고 규모는 길이 550㎝, 너비 470㎝, 깊이 20㎝ 정도이고, 내부에 주혈과 추정 벽체시설 그리고 목탄과 바닥면에서 소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컵형토기 1점, 완 1점, 단경호 3점, 통형기대 1점, 대부단경호 1점, 파수부호 1점, 방추차 4점이다. 1호 주거지와 인접해서 2호 주거지가 위치하는데, 출토 고배로 볼 때 신라 전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파악된다(그림 11-1). 아직 정식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인왕동 471-2번지의 동부사적지대 발천유적에서 주거지 2기가 확인된 정도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주거지 주변으로 소토가 다량 확인되어 인접한 범위에 주거군이 존재했을 것이다. 발천을 중심으로 남천에 이르기까지의 미고지에 기원 3~5세기대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그 시기에 부합



[그림 11] 월성북편 전체 유구배치도(1) 및 월성 C지구 테스트피트 출토 토기(2)

하는 토기가 다수 분포하는 현상을 기초로 할 때 주거지가 밀집되어 신라 초기의 고대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성윤 2023: 76). 따라서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월성 C지구 테스트피트 결과(그림 11-2) V층의 일부 토기와 VI층을 기준으로 그 아래층에서 대부호와 옹이 중심인 기원 3~4세기의 타날문토기들이 확인된다(최문정 2021). 또 동궁과 월지 A건물지의 남편트렌치 조사결과 기반층과 대지조성층의 성토방향과 두꺼운 뻘층을 확인하였는데, 뻘층에서 기원 3~4세기대 타날문단경호 등이 확인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8: 135).

이상에서 신라 조기의 경주 도심지구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된 묘역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또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된 것을 의미하므로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李在興 2009a: 161). 특히 월성북고분군의 공동묘지 조영은 집단의 구성원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 집단적 무덤을 조성한 것으로 조상과 토지와 산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가시적인 행위이다. 즉 영역 내 혹은 경계에 공동묘지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자원의 이용 및 통제, 이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어(李在賢 2003) 월성북고분군 집단의 세력을 반증한다. 물론 중심고분군은 이혈주부곽식목곽묘-동혈주부곽식목곽묘-목곽묘, 주변고분군은 동혈주부곽식목곽묘-목곽묘의 구성을 보

여서 이는 이혈주부곽식목곽묘가 최상층으로 보고 있다(車順喆 1999: 103~105). 하지만 신라 조기의 경주 도심지구에서 명확한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의 존재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최근에 보고된 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L17호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를 통해 머지않아 그곳에 이혈주부곽식목곽묘의 등장을 예상하게(최병현 2021) 되어 중심고분군의 면모를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Ⅳ. 공간적 의미: 월성과 황성동 · 천군동 생산유구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신라 조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이 국읍의 역할을 한 중심지 월성과 생산시설에 초점을 맞춘다. 즉 월성과 인접한 황성동유적(그림 12-1)과 함께 최근에 보고된 천군동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23)의 제철유구를 대상으로 공간적 의미에 접근한다. 왜냐하면 신라의 경우 제철과 철기제작은 기원 3세기 중엽 이후 이전보다 한층 조직화되고 더욱 다양해진 생산체제를 이룬다. 이러한 제철의 조직화를 통한 내부통합의 가속화는 고대국가 형성에 주요한 동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李熙濬 2004).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은 황성동 · 천군동유적의 제철 집단과 궤를 같이 해서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황성동유적의 고고학적 연구는 제철유적(金世基 1994; 孫明助 1997)과 함께 분묘군의 변천(安在晧 1995; 車順喆 1999; 黃昌漢 2001)이 집중되었고 이후 생산 · 생활 · 분묘의 단계별 공간구성을 통해 황성동 집단의 성격(崔景圭 2004; 林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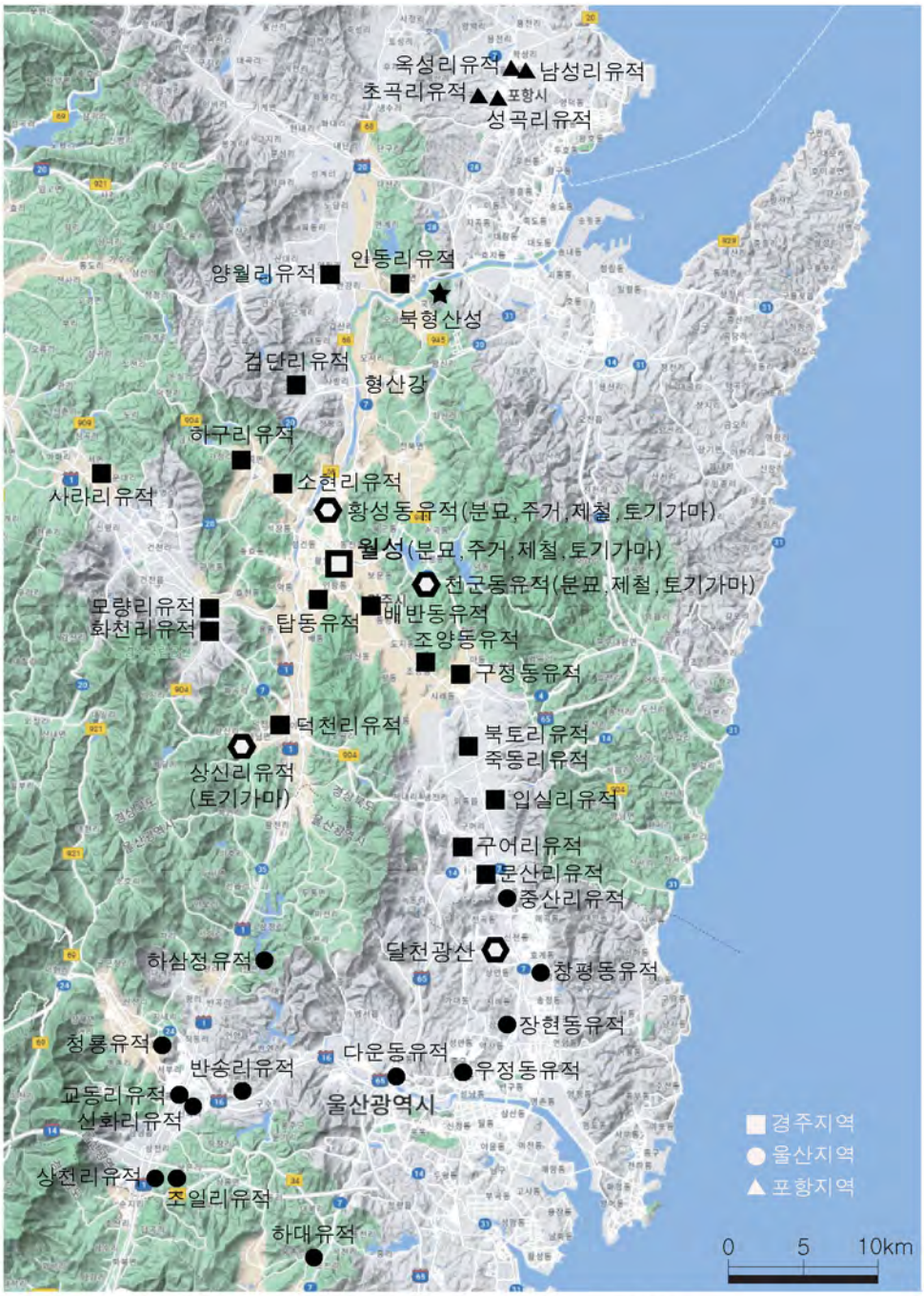
[그림 12] 월성과 황성동유적 위치도(1) 및 황성동 일대 유적 분포도(2)

在 2005)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황성동유적 발굴 20주년을 기념해서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에 대한 학술대회(嶺南文化財硏究院 2009)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가 주제별로 논의되었다(김권일 2009; 김나영 2009; 우병철 2009; 이재흥 2009b; 이제동 2009; 한도식 2009). 최근에 황성동유적의 세밀한 토기 편년(安在晧 · 韓丞鉉 2015)도 진행되었고 원삼국 후기의 Ⅱ나-13호 토기요(長友朋子 2019, 2020; 李盛周 2020)의 존재도 밝혀졌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은 생산 · 생활 · 분묘가 함께 조성된 복합유적(그림 12-2)이어서 한국고고학에서 단일유적을 대상으로 고고학적 논의가 왕성한 곳 중 하나지만 그곳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뚜렷하지 않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 요인은 기본적으로 취락, 무덤, 토성, 생산시설, 교통로 등의 공간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취락은 산 자의 공간이고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다. 또 국읍이 「國」을 단위로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읍락에 존재하지 않았을 토성(權五榮 1996: 113)과 생산시설, 교통로 등은 정치체의 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이다. 그 중 앞서 언급했듯이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접근하고자 하는데, 월성과 경주 인접 지역 목관 · 목곽묘 및 생산유적 분포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동안 황성동유적은 철기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지만 여기서는 최상위의 무덤이 없어 상위 국읍세력의 통제를 받는 전문수공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할하던 중심세력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으로 보고 있다(이재현 2016: 102).

중요한 점은 제철은 철산지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원료의 입수단계부터 광역적인 교역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제작에도 고도의 기술과 생산체계가 필요해서 개별읍락단위에서 행해질 성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대규모 제철유적은 철기 생산의 주요한 거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계는 하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광석의 확보, 목탄의 공급,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다양화된 제철 생산체제를 통제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경주 도심지구에 거주하는 지배층의 기능이다. 또 지배층은 제철 생산체제의 통제와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적인 철기보다는 무구처럼 한층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부 고급철기의 생산에도 개입(李在興 2009a: 171)했을 가능성이다.

결국 경주 도심지구의 월성북고분군 세력이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희귀한 자원이나 생산요소의 독점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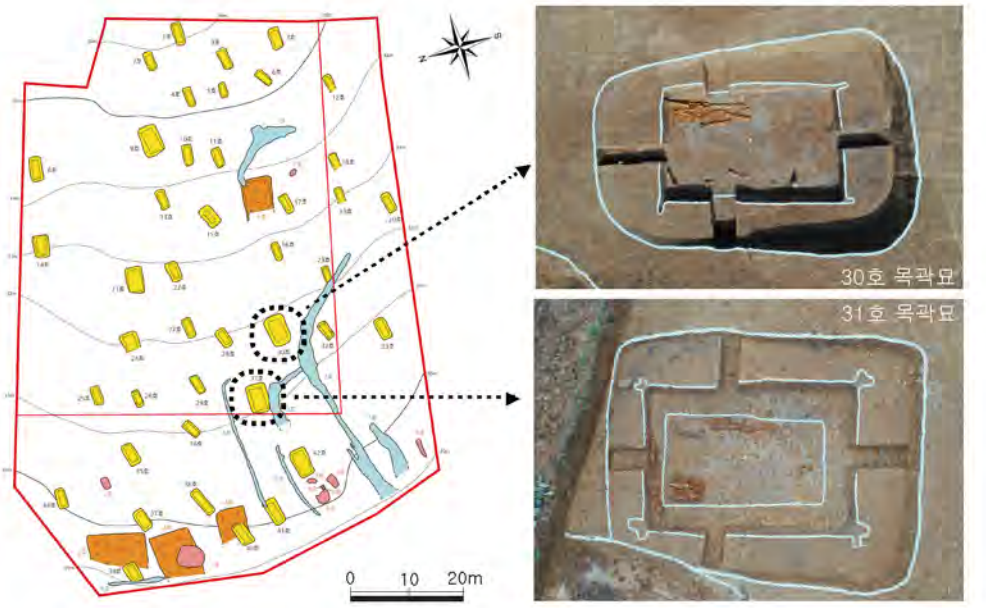


[그림 13] 월성과 경주 인접 지역 목관 · 목곽묘 및 생산유적 분포도

원이나 요소를 사용하는 산업은 독점화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 제철유적을 통한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정치적 성장에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다. 즉 철은 다루는데 고도의 특수 기술이 필요해 아무 집단이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한편으로 집단들을 연결함으로써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權五榮 1996: 109~112). 또 정치체의 성장과 관련해서 교통로와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이점이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인데, 그 중 철의 확보가 막대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지리 관계 때문에 종국적으로 교통, 경제 교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우열이 생겨났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희준 2007: 177). 따라서 황성동유적의 공간적 의미를 교통로와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이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황성동유적은 형산강과 인접한데, 형산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에서 발원하여 경주시와 포항시 도심을 관통하여 영일만을 통해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따라서 경주와 동해안(영일만)과는 이 형산강을 통해 교통이 매우 용이해서(李炯佑 2000: 181) 교통망의 구조와 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공간구조가 형성되며 교통망 체계의 발달은 정치체의 성장과도 직결된다(이희연 2011).

주목할 점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라 하여 나라에는 쇠가 나는데, 마한 · 예 · 왜 모두가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철은 「國」단위로 교역되었고 그 형태는 철광석보다는 중간소재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權五榮 1996: 108). 즉 변진의 철이 대외적으로 수출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진한의 철 수출도 개발 가능한 철산지의 분포로 볼 때 활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희준 2007: 183). 어쩌면 황성동유적에서 생산된 철은 형산강길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주변국과 교역했을 가능성인데, 황성동유적이 그곳에 위치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4] 왜냐하면 제철유적과 큰 하천은 인접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형산강은 선박의 출입이 가능하여 수운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金權一 2020: 43). 물론 형산강을 통해 수운이 가능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소규모 선박의 수운이 가능하였다(김종원 2016: 45). 특히 江上交通路와 海上交通路와의 연결이 중요해서(李健茂 2023: 15), 소규모 선박은 형산강의 江上交通路를 이용해서 철을 해안까지 운반한 후 큰 선박으로 옮겨 海上交通路로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로의 개척과

4) 교역로는 다양할수록 유리해서 동천과 울산만, 낙동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역했을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형산강도 다양한 교역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성은 있다.



[그림 14] 경주 인동리 400번지 유적

확보는 경제 · 정치적인 효과가 커서 국가의 성장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경섭 2016: 241).

아울러 형산강 유역은 왜의 침입이 잦았고 동해안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하는데, 왜의 침입은 기원 3세기 말~4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이현섭 2023: 57). 따라서 형산강이 철을 수출하는 길인 동시에 왜의 침입을 받는 길이어서 왜와 연결된 길로 추정된다. 최근에 보고된 인동리에서 원삼국 분묘 42기(그림 14)의 군집묘가 확인되었다(서준교 2022). 이곳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유로가 급격히 꺾이는 곳에 위치해서 아마도 왜의 침입과 관련된 방어적 성격 등을 내포하는지도 모르겠다.[5] 특히 인동리유적이 인접한 북형산성(그림 13 참조)은 기원 673년에 축조되어 시기적으로 차이는 크지만 그곳에 산성이 위치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황성동유적과 인접한 용강동유적에서는 제철 조업을 하는 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조괭이 거푸집 폐기장 및 송풍관편, 철재 등의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황성동 일대만이 아니라 형산강 지류인 용강동 일대까지 넓게 형성되었다(신동조 2014: 502). 최근에 용강동

5) 기원 2세기 중엽~3세기 초의 목곽묘에 다량 부장된 철모는 무력 기반의 확립을 의미하는데(李熙濬 2011c), 30호 목곽묘(철모 16점)와 31호 목곽묘(철모 19점)의 철모 부장량(그림 14의 右)은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5] 천군동 토기가마와 제철유구(1) 및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토기가마(2)

1151-1번지 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에서 목곽묘 1기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그 가능성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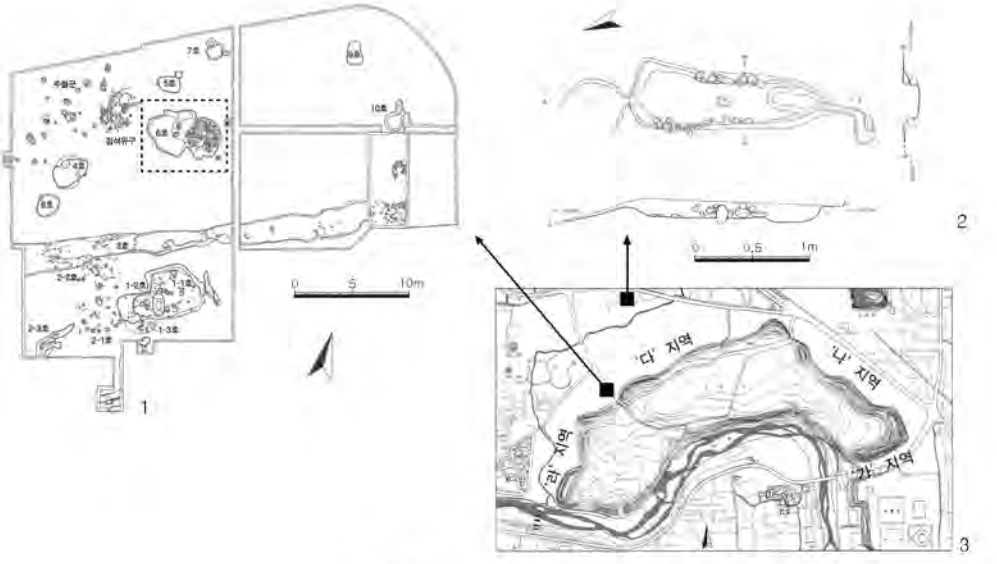
천군동유적은 제철유구 8기(그림 15-1 右)가 확인되어 그동안 황성동에만 의지하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기는 전반적으로 용해로의 구조가 비슷한 황성동 Ⅰ-가-9호 용해로와 황성동 590번지 유적 2호 용해로를 참고하면 기원 2세기 후반~3세기로 보이는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A.D.1~A.D.210(88.7%)으로 도출되어 참고된다.

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는 배수가 양호하고 침식이 거의 없어 작업공간의 확보가 유리하고 배후 산에서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주변에 백탄요가 많아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이다. 제철유구의 연료가 되는 백탄요는 서라벌문화재연구원(2018) 15기, 진흥문화재연구원(2018) 12기, 홍익문화재연구원(2018) 11기로 총 38기가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들에 의하면 삼국시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천군동유적Ⅱ에서 확인된 제철유구를 감안할 때 동시기의 백탄요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또 황성동유적과 경주 도심지구에서는 백탄요가 확인되지 않아 천군동 등에서 지원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원철괴, 유리질 슬래그, 산화물이 고착된 시료에서 비소(As)가 검출되어 달천광산의 미량원소인 비소와 동일하여 철광석 원료는 달천광산에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김경수 · 여신지 2023).

경주 도심지구에서 벗어난 천군동에서 황성동과 비슷한 형태의 제철유구가 확인

되었는데, 모두 월성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서 주목된다. 특히 황성동유적은 월성과 3.5㎞ 정도 떨어져 있고 천군동유적은 월성과 4.5㎞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황성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천군동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영향권에 속한 듯하다. 또 울산 동천유역권의 생산시설인 달천광산은 황성동 제철유적과도 관련이 깊어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한편 생산시설은 월성에서도 확인되는데, 월성의 축조와 함께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생산시설이 집중된다. 즉 계림 남편에서 기원 3~4세기의 제철유구가 확인되는데(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6), 제철로보다 단야로가 주로 나타난다(그림 16-1). 특히 대규모 제철유적이 아니라 철 소재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내부에 필요한 철기를 제작하던 공방으로 무구와 같은 고급철기일 가능성이 크다(李在興 2009a: 161).

다음으로 토기가마는 황성동, 천군동유적과 첨성대 남편에서 확인된다. 황성동 Ⅱ나-13호 토기요는 출토유물을 통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황성동 Ⅰ나-6호 주거지 출토 와질토기 등을 참고하면 기원 3세기대가 중심이다(長友朋子 2019). 특히 경주 황성동 Ⅱ나-13호 토기요는 낙동강 유역 전체에 이러한 토기가마가 보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우거리식 요'라 할 수 있는 반지하식 고온 소성요가 개발되기 전까지 와질토기를 생산했던 가마이다(李盛周 2020: 128).



[그림 16] 기원 3~4세기 경주 월성의 생산시설
1. 계림 남편 유구배치도 및 6호 수혈(제철유구), 2. 첨성대 남편 토기가마, 3. 월성해자(李在興 2009a 수정)

천군동유적은 제철유구와 함께 토기가마도 1기 확인된다(그림 15-1 左). 토기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지상식에 가까운 반지하식으로 소성실과 외부 구만 확인된다. 내부에는 피열된 할석이 깔려있고 그 사이에 토기편이 흩어져 있어 이상재로 판단된다. 바닥면 중앙부에는 주혈 3개가 등간격으로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직경 10㎝의 목탄이 있어 천정부 축조시 세운 지주목이다. 시기는 출토된 단경호가 최병현의 연대관에 의하면 신라조기양식 1a단계인 기원 3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김경수 · 여신지 2023).

첨성대 남편에서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는데(그림 16-2), 파괴가 심해서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제철유구와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李在興 2009a: 161). 특히 화재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경주 도심지구 내부에 토기가마가 위치한 점으로 보아 광역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토기가마의 존재가 예상된다(李在興 2009a: 171). 어쩌면 토기의 복잡성을 띄는 신선로형토기, 압형토기 등을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해 생산 · 유통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에서 경주 도심지구의 철기는 황성동과 천군동유적에서 공급되었을 것이다. 물론 주변지구는 생산유구가 명확하지 않지만 남부지구의 덕천리유적과 인접한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상신리 유적)에서 토기가마가 2기가 확인된다(그림 15-2). 토기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아궁이, 소성부 일부, 요전부만 잔존한다. 아직 정식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지만 토기가마의 경사도와 바닥의 소결 상태를 통해 원삼국으로 보고 있다. 또 원삼국 주거지 3기가 확인되어 토기가마를 운영하던 공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판단된다(다온문화재연구원 2023). 특히 상신리유적의 토기가마는 덕천리유적과 인접해서 어쩌면 생산된 토기가 덕천리 집단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다. 따라서 토기가마는 지구별로 축조하여 토기를 생산 ·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구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월성과 인접한 곳에서만 관리 ·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경주 도심지구의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 · 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기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경제 · 정치적 성장에 공간적으로 형산강길 등을 최대한 활용한 강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를 개척하고 확보하였다. 철은 중량이 많이 나가서 다량으로 이동하기 불가능하지만 해상교통은 다량의 철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어 해상을 통한 교역(朱甫暾 1998: 32)이 필연적이다.

Ⅴ. 맺음말

이 글은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분군 및 생활유구를 결부해서 분포양상을 초기철기~원삼국 전기와 원삼국 후기~신라 조기 순으로 검토하고 월성과 황성동 · 천군동유적을 연계하여 공간적 의미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경주 도심지구는 사정동 114-1번지, 교동 158-2번지, 나정유적의 수혈을 통해 초기철기에 사람이 정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원삼국 전기는 탑동 1호 목관묘 등으로 볼 때 탑동 일대를 중심으로 단위취락의 형성을 시사한다.

원삼국 후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를 조성하였고 인접한 월성남북구역에 거주하여 이미 월성은 기원 2세기 후엽부터 3세기에는 목곽묘가 조영되고 단위취락의 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성북고분군 세력에 의한 월성의 사로국 국읍 역할은 늦어도 목곽묘 단계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조기는 월성북고분군을 고정해서 분묘가 공동된 묘역을 이루는 공동묘지의 양상이 가속화되는데, 평면형태는 세장화가 뚜렷해지는 한편 발천과 월성북구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특히 주거가 계획적으로 축조되어 월성축조와 함께 공간구성에 재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서 생산시설에 비중을 두어 해석하였다. 즉 황성동 · 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에서 생산된 철기는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남부지구의 상신리유적에서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어 덕천리 집단으로 토기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토기가마와 달리 제철유적은 월성북고분군 세력의 통제에 따라 그들에게 독점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달천광산도 포함된다.

결국 월성북고분군 세력은 황성동 · 천군동유적의 제철유구 및 달천광산을 통한 철생산의 독점시장원리를 대내외 경제 · 정치적 성장에 형산강길 등을 공간적으로 최대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이 글에서는 신라 형성기 경주 도심지구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분포양상을 정리하고 공간적 의미를 논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으로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 경주 도심지구 이외에도 서부지구, 남부지구, 동남부지구, 북부지구, 흥해지구 등의 고고자료를 결부해야 신라 형성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한데 이는 향후과제이다.

투고일 2024. 4. 24 | **심사완료일** 2024. 5. 23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사로국 시기 건국과 성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제림문화재연구원, 2014, 『경주 북토리 39-1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_____, 2017, 『경주 교동 158-2번지 유적』.

_____, 2019, 『경주 인왕동 790-2번지 일원 유적』.

具滋奉, 1997, 「慶州人旺洞 古塚群의 木槨墓 出土土器 紹介」,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학연문화사.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6,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Ⅱ-C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6,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Ⅵ-B지구 시 ·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8, 『慶州 東宮과 月池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 보고서-A건물지-』.

_____, 2021,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XII-H85 · 86호 L17 · 137호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23, 『경주 인왕동 · 황오동[A지구] 분포 · 발굴조사 자료집』.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 月城路 古墳群』.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경수 · 여신지, 2023, 「Ⅴ. 考察」, 『慶州 千軍洞 큰마을遺蹟Ⅱ-第Ⅰ-2區域 本文-』.

김권일, 2009, 「경주 황성동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嶺南文化財硏究』 22.

_____, 2020, 「古代 嶺南地域 製鐵技術의 考古學的 硏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나영, 2009,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嶺南文化財硏究』 22.

金世基, 1994, 「隍城洞 原三國 聚落址의 性格」,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김용성, 2011, 「신라 형성기의 묘제와 경주지역 사회」, 『고고학으로 보는 신라의 형성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_____, 2015,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김종원, 2016, 「자연환경」,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사 총론편, 경상북도.

남시진, 1993, 「Ⅰ. 인왕동 807-4번지 건물신축부지 발굴조사」,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緊急發掘調査報告書Ⅱ)』, 慶州文化財硏究所.

다온문화재연구원, 2023, 『경주 신농협혁신타운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2차 정밀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대동문화재연구원, 2023, 『慶州 千軍洞 큰마을遺蹟Ⅱ-第Ⅰ-2區域 本文-』.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8, 『慶州 千軍洞遺蹟-가구역 · 나구역-』.

서준교, 2022, 「원삼국시대 경주 인동리 분묘유적의 성격」, 『영남학』82.

孫明助, 1997, 「경주황성동제철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新羅文化』14.

신동조, 2014, 「신라의 철생산」, 『신라고고학개론下』,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16, 진인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주 북토리 고분군』.

_____, 2017, 『경주 용강동 1151-1 유적』.

_____, 2022, 『경주 동부사적지대 발천 유적 발굴조사』, 현장공개 자료.

安在晧, 1995, 「慶州 隍城洞古墳群에 대하여-슬라이드 자료를 중심으로-」, 『新羅文化』12.

安在晧 · 韓丞鉉, 2015, 「慶州地域 臺附直口壺의 地域相」, 『韓國考古學報』 97.

嶺南文化財硏究院, 2009, 『嶺南文化財硏究』 22.

_____, 2011, 『慶州 花川里 山251-1遺蹟Ⅰ』.

우병철, 2009,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 集團의 性格」, 『嶺南文化財硏究』 22.

尹溫植, 2019, 「斯盧國 考古學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健茂, 2023,「茶戶里 遺蹟의 社會相」,『창원 다호리유적 조사 종합적 평가와 의의』, 창원 다호리 유적 재조명 Ⅲ-창원 다호리유적과 진 · 변한 세계-, 김해 박물관 · 영남고고학회.
이경섭, 2016,「재정의 운영과 지출」,『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의 산업과 경제편, 경상북도.
李盛周, 2020,「原三國 · 三國時代 實用土器의 生産」,『湖西考古學』47.
이양수, 2022,「경주 탑동 목관묘 출토 청동기로 본 대외관계와 피장자의 성격」,『중앙고고연구』39.
_____, 2023,「진변한의 권력과 공간」,『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李在賢, 2003,「弁 · 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재현, 2016,「진 · 변한사회의 계층분화 과정과 양상」,『辰 · 弁韓 '國'의 形成과 發展』, 제25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李在興, 2006,「慶州地域 木槨墓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_____, 2009a,「경주와 경산지역의 중심지구 유적으로 본 4~5세기 신라의 변모」,『한국고고학보』70.
_____, 2009b,「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嶺南文化財硏究』22.
이제동, 2009,「경주 황성동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嶺南文化財硏究』22.
이청규, 2005,「사로국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國邑에서 都城으로-新羅王京을 중심으로-』, 新羅文化祭 學術論文集 第26輯, 경주시 · 신라문화선양회 · 경주문화원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이현섭, 2023,「신라의 형산강 유역 진출과 그 배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炯佑, 2000,『新羅初期國家成長史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이희연, 2011,『경제지리학』, 법문사.
李熙濬, 2004,「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영남고고학』34.
_____, 2007,『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_____, 2011a,「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본 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사로국」,『신라문화』38.
_____, 2011b,「고고학의 신라 형성기 사회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논의」,『신라 형성기의 유적』,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_____, 2011c,「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영남고고학』58.
_____, 2016,「사로국의 성립과 성장」,『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의 건국과 성장편, 경상북도.
林東在, 2005,「三韓時代 慶州 隍城洞遺蹟의 性格에 대한 硏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장기명, 2023a,「철생산과 의례를 통해 본 사로국의 형성과 성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3b,「신라 월성 성벽의 구간별 축조 공정과 왕경의 축성 기술」,『한국상고사학보』120.
長友朋子, 2019,「東アジアにおける竈の系譜」,『立命館文學』660.
조성윤, 2023,「신라 月城 성벽 기초 조사 연구」,『신라문화유산연구』7.
朱甫暾, 1998,『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도서출판 신서원.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慶州 蘿井』.
진흥문화재연구원, 2018,『경주 천군동 유적』.
車順喆, 1999,「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硏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崔景圭, 2004,「1~3世紀 慶州 隍城洞 集團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최문정, 2021,「경주 월성에서의 연대측정 연구와 방향」,『연대 측정학을 통해본 고대 경주의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영남고고학회.
최병현, 2012,「신라 조기양식토기의 설정과 편년」,『嶺南考古學』63.
_____, 2014,「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한국고고학보』90.

최병현, 2015, 「신라 조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 『한국고고학보』95.
_____, 2016a,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문화사』제49권 · 제3호.
_____, 2016b, 「경주 월성과 신라 왕성체제의 변천」, 『한국고고학보』98.
_____, 2018, 「진 · 변한에서 신라가야로의 전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學術院論文集(人文 · 社會科學篇)』 57-1, 大韓民國學術院.
_____, 2020, 「경주지역의 목곽묘 전개와 신라 조기 왕묘의 위상」,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_____,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_____, 2023, 「경주 천마총 발굴과 신라 高塚의 현단계」, 『천마총과 동아시아 고분문화』,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 2-』.
_____, 2017a,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Ⅶ-경북 5-』.
_____, 2017b,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Ⅰ Ⅹ-경북 7-』.
_____, 2017c,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Ⅴ-경북 3-』.
_____, 2018a,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Ⅴ-경북 6-』.
_____, 2018b,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Ⅲ-경북 4-』.
_____,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 Ⅴ』.
_____, 2022, 『202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23, 『202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한도식, 2009,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嶺南文化財硏究』22.
허재민, 2022, 「3. 고찰 3-1. 경주 중심지역 목곽묘 분포양상 고찰」,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 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전공.
홍익문화재연구원, 2018, 『慶州 千軍洞遺蹟』.
黃昌漢, 2001, 「第Ⅳ章 考察」, 『慶州隍城洞古墳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

Distribution pattern and Meaning of Ancient tombs and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in the center of Gyeongju During that Shilla was formed

Lee, Won-Tae(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ical Art and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ancient tombs in Downtown Gyeongju from the Shilla was formed, correlating them with the burial and settlement remains to analyze the early Iron Age to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to early Shilla period chronologically and to discuss the spatial significance in relation to the Wolsong,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Downtown Gyeongju, particularly Sajeong-dong 114-1, Gyo-dong 158-2, and Najung, indicates strong evidence that there were human settlements there during the early Iron Age, while settlement communities were established around Tap-dong in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considering Tapdong #1 Wooden Gasket Tomb.

During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mounds were constructed around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while the settlers were residing in the adjacent Wolsong South-North areas. It is evident that Wolsong had already begun to build wooden chamber tombs and settlement communities from the late 2nd century to the 3rd century. Therefore, it seems that the dominating power that formed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acted as the governing power and Wolseong was the center of Saroguk at least by the initial phase of wooden chamber tomb construction.

During the Shilla was formed, the tombs were clustered in and around Wol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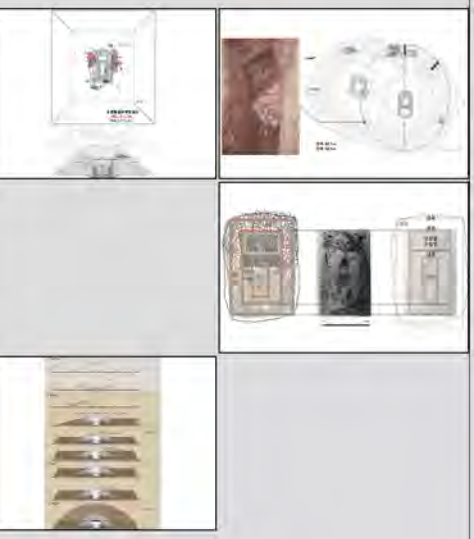
North Burial Cluster, forming collective burial grounds with shared graveyards. In terms of layout, there was a distinct trend towards rectangular shapes and it has highly possible that there were large-scale settlements forming around Balcheon and the Wolsong North. In particular, the residential areas were carefully planned to reorganize the spatial layout alongside the construction of Wolsong.

In interpreting the growth of power within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emphasis was placed on production facilities. Specifically, the ironworks and pottery kilns discovered at the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s authority.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hat earthenware was supplied to the settlements of Deokcheon-ri as there were two kilns discovered at the Sangsin-ri site in the southern region. However, unlike pottery kilns, it was assumed that ironworks were monopolized by the Wolsong North Burial Cluster's authority, including operations at Dalcheon Mines.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hat the authority of Wolsong North Burial Cluster applied the principle of monopoly of ironworks through the ironworks at the Hwangseong-dong and Cheongun-dong sites and Dalcheon Mines to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and took advantage of some spatial features of the area such as Hyeongsan River Trail.

Key words : Shilla was formed, Downtown Gyeongju, Ancient tombs, Wolseong, Hwangseong-dong-Cheongun-dong Remains of daily life and production, Hyeongsan River Trail

http://doi.org/10.20292/jcich.2024.44.35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정 익 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와 쟁점

Ⅲ. 구조 재검토

Ⅳ. 축조공정 복원

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

Ⅵ.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살피고 그 축조공정을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보고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로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1곽 1관, 황남대총 북분을 2곽 1관의 구조로 보고하여, 황남대총 남분의 3곽 1관 구조가 황남대총 북분에서 중곽이 생략되고, 천마총에서 목곽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었다. 한편, 그 후의 연구에서는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에서 중곽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필자도 그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구조의 이해와 그 근거의 미약함을 지적하고 천마총 주칠 냇돌의 출토범위와 함몰 정황 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은 중곽이 있는 3곽 1관의 구조이고 둘째, 천마총의 목곽 높이는 단칠 냇돌의 출토 정황을 볼 때 2.1m에서 3.4m로 수정할 수 있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축조공정에서는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외곽은 적석목곽묘의 지상화에 따른 적석부의 축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이들의 비교를 통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정형성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중곽의 평면 크기가 높은 유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러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평면구조가 신라 전기 이른 시기의 대형 지하식 적석목곽묘인 쪽샘 L17호와의 유사함을 확인하여 그 기원에 관한 단서를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신라 고분, 지상식 적석목곽묘, 황남대총, 천마총, 구조

Ⅰ. 머리말

무덤 연구는 당시 사회를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중 신라 고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연구가 진전하며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주 대릉원 일원의 대형 무덤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그중에서도 금관총이나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이 신라 고분 연구사에서 굵직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지상식 적석목곽묘[1]는 출토된 유물과 함께 무덤의 입지나 구조, 편년 등, 적지 않은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대형의 지상식 적석목곽묘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도 쉽지 않아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 금관총, 서봉총, 쪽샘 44호분 등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재조사나 파괴분의 수습발굴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확보된 자료와 함께 앞선 조사성과의 재검토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좋은 기회로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성과물로 낼 기회가 있어 여기에는 보고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2021), 이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정리하여 이 글에 담고자 한다.

Ⅱ.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와 쟁점

적석목곽묘는 구조와 편년, 범주, 계통, 위계, 기원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우며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연구 또한 다른 분야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적석목곽묘는 일제강점기 발굴로 신라의 특징적인 묘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2] 1970년대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 · 북분 발굴로 그 구조가 자세하게 밝혀졌다.

---

1) 이는 이희준(1996)의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 김용성(1998)의 적석봉토분 지상식 적석목곽묘, 최병현(2021)의 무묘광 지상주체식 적석목곽분에 해당한다.

2) 신라 적석목곽묘의 특징적인 요소인 적석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1906년 이루어진 남총 발굴이고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1917년 조사된 보문리 고분 발굴로 여겨진다(최병현 2017: 9).

이는 북방기원설(김원룡 1976, 1986; 이은창 1987; 최병현 1992)로 이어졌으나, 시간과 거리의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되었고(강봉원 2004), 울산 중산리유적 발굴로 적석목곽묘의 자체발생설(이성주 1992, 1996; 이희준 1987, 1996)이 대두하면서 범주와 기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원상(原狀)을 밝히고 축조공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공정은 하관(下棺)을 전후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구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일제강점기 조사를 시작으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의 발굴에서부터 시작한다. 천마총(文化財管理局 1974: 63)과 황남대총 남·북분의 조사 보고서에서 축조공정을 복원하였고(文化財硏究所 1994: 38~39, 1985: 47~48), 이를 최병현(1992: 110)이 정리하여 그 구조와 축조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 이래로 울산 중산리 유적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목곽묘의 묘광과 목곽 사이를 석재로 채운 보강적석의 개념이 제시되었고(이성주 1996: 43, 53), 이는 적석목곽묘로 포함되면서(이희준 1996: 300~303)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한편 조영현(2002: 83~116)은 봉분 축조에서 구획 성토가 있었음을 밝혔고, 김용성은 하관을 기준으로 축조 단계를 구분하였으며(김용성 2007: 129~130), 부장 유물을 근거로 목곽 뚜껑 상부에 공간이 있다고 보았다(김용성 2007: 132, 2009: 135). 이후 김두철(2009: 73~77)과 심현철(2013: 100~108)은 측벽부 적석과 외곽 사이를 사주적석(四周積石)으로 구분하고, 토광 굴착부터 시작되는 볼록렌즈 모양의 1차 성토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여기에 김대환(2016: 98~99)은 금관총의 재발굴 성과를 토대로 사방적석(四方積石)의 축조공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부적석(蓋部積石)과 목곽 뚜껑 사이를 상부적석(上部積石)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심현철(2018a)은 봉분 설계에 타원 작도법이 이용되었음에 착안하여 그 중심점을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에 관한 연구는 그 사례가 추가하며 점차 구체화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연구자의 견해에 견해가 더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며 적지 않은 인식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구조에 관한 1차적 관찰뿐만 아니라 기원과 계통, 범주 등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투영되고 이에 더하여 목곽의 함몰로 인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자면, 그 세부 구조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 · 곽의 구조

지금까지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는 황남대총 남분의 3중곽 구조(외곽-중곽-내곽)가 북분에서 중곽이 없는 구조(외곽-내곽)로, 다시 천마총에서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 변화를 이해하기도 하였다(최병현 1992: 323~330, 김용성 2007: 136). 그러나 이후 이러한 견해에 대해 중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최종규 2011; 박형열 2020; 김대환 2021)가 있었다(표1).

[표 1] 지상식 적석목곽묘 매장주체부 구조 복원안 비교

1. 황남대총 남분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94)	2곽 2관	외곽	내곽	외관	내관
최병현(2016a)	2곽 2관	외곽	내곽	외관	내관
김용성(2007)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최종규(201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2. 황남대총 북분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85)	1곽 2관	곽	-	외관	내관
최병현(2016a)	1곽 2관	곽	-	외관	내관
김용성(2007)	2곽 1관	곽	-	내곽	내관
최종규(2011)	4곽 1관	4곽	3곽 2곽	1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3. 천마총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74)	1곽 1관	곽	-	-	관
최병현(2016a)	1곽 1관	곽	-	-	관
김용성(2007)	1곽 1관	곽	-	-	관
최종규(2011)	4곽 2관	4곽	3곽 2곽	1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2곽 1관	외곽	내곽	-	관

4. 금관총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목관
보고서(1924)	1곽 1관	?	목곽	-	목관
최병현(2016a)	1곽 1관	곽	-	-	관
김용성(2015)	2곽 1관	외곽	내곽	-	목관
	-	-	- -	-	-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목관
김대환(2021)	2곽 1관	외곽	내곽		목관

최종규(2011: 21~29)는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을 4곽으로 복원하고 양 석단 사이에 2 · 3곽이 놓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대환(2016: 93)은 이에 대해 2곽은 목관주위 석단(石壇)의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목곽아래 석단(石段)을 유지하기 위한 3곽은 무리한 추정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의 중곽을 인정하고 석단(石

壇)의 형태 유지를 그 근거로 본 것이다. 한편, 박형열은 기존의 외곽을 가구시설로, 중곽을 외곽으로 보았고(2020: 58~60) 여기에 관 바깥에 내곽을 포함하여 2중곽으로 목곽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중곽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필자도 이에 공감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적 추측에 머물고 그 근거의 미약함이 지적되며 재반론(최병현 2021: 335~336)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관 · 곽 구조에 대한 견해들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곽의 유무, 둘째는 내곽의 유무, 셋째는 외곽은 가구시설인가? 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는 예외 없이 3곽 1관 구조를 갖는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후술(後述)하겠다.

2. 목곽 상부 공간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 · 북분 보고서에서는 함몰부 출토유물 상당수를 목곽 상부의 유물로 기술(記述)하고 있다. 필자는 아마 이러한 이유로 목곽 상부에 별도의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김용성(2007: 132, 2009: 135)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목곽보다 높은 측벽부 적석을 근거로 상부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심현철(2020: 30)은 주칠(朱漆)된 적석의 범위 등을 근거[3]로 상부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 순장자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의 미약함이 지적되며 반박되었는데(최병현 2016a: 82), 필자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자세한 검토는 후술하겠다.

3. 사방적석의 구분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에서는 적석부를 측벽부 적석과 개부적석으로 구분하였고 최병현(2016a: 44)은 측벽부 적석을 사방적석으로 개부적석을 상부적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김두철(2009: 79)은 측벽부 적석에서 세분하여 외곽과 가구시

3) 구체적인 복원은 멸고를 통해 밝힌다고 하여 자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설 사이를 사주적석으로 보았다. 다시 김대환(2016: 98~99)은 이를 이희준의 사방적석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공정은 측벽부를 먼저 쌓고 목곽을 설치한 다음 사방적석을 충진(充塡)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대환 2016: 103)(표 2).

이처럼 측벽부 적석에서 사방(사주)적석을 구분하는 문제는 발굴자료의 부족으로 상반된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사자료에 근거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2] 지상식 적석목곽묘 적석부 구조 복원안 비교

연구자	적석부 구분			
보고서(1974,1994)	측벽부 적석		개부적석	
최병현(2016a)	사방적석		상부적석	
김두철(2009)	측벽부 적석	사주적석	개부적석	
김대환(2016)	측벽부 적석	사방적석	상부적석	개부적석
본 고	측벽부 적석		(상부적석)	개부적석

이 밖에도 천마총 적석부 높이와 목관의 길이, 서봉총의 목곽 범위 등 다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학계의 쟁점을 중심으로 첫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축조공정을 복원하며 셋째,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논의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핵심은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의 목곽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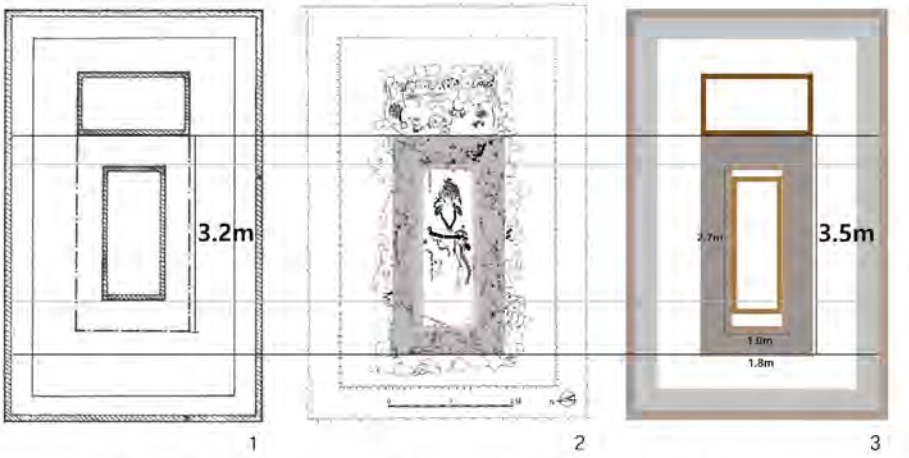
Ⅲ. 구조 재검토

지금까지 발굴된 지상식 적석목곽묘에는 황남대총 남·북분과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그리고 얼마 전 발굴이 끝난 쪽샘 44호묘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형의 무덤으로 그 조사내용이 방대하므로 이글에서 밝히려 하는 고분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목곽부, 적석부, 봉토부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천마총

1) 매장주체부

첫째, 목관과 목관주위 석단(石壇)의 길이이다. 보고서에서는 그 길이를 3.2m, 목관을 2.15m로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면 복원도(문화재관리국 1974: 61)의 서편 공간을 넓게 그렸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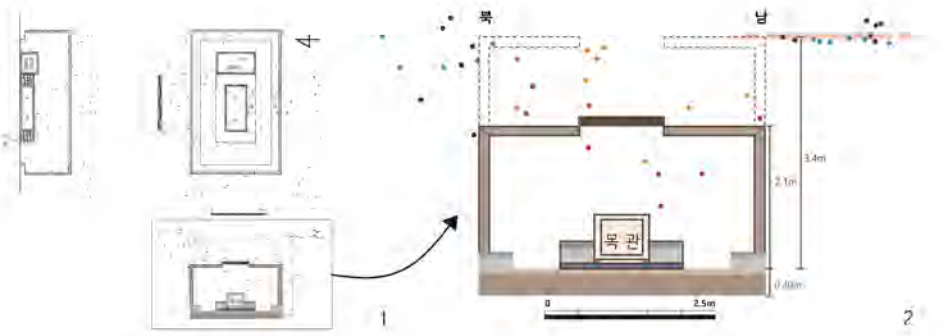
[그림 1] 1. 천마총 복원도(1974: 57), 2. 유물 배치도(1973: 54), 3. 수정 복원도(필자 재작도)

그러나 이는 바르게 보고된 보고서 5장의 내용(문화재관리국 1974: 70)과 약 보고서의 유물배치도(문화재관리국 1973: 54) 그리고 하부판재가 3.5m인 것을 참조하면 3.5m로 수정해야 할듯하다. 또한, 그 안에 목관도 석단의 길이에 따라 더 길었을 듯하다(그림 1-3).

둘째, 목곽의 높이이다. 이는 주칠(朱漆)[4] 넷돌이 함몰된 정황을 통해 기존 보고된 2.1m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이를 표시한 평면 · 장축 복원도(그림 2-1)와 이를 토대로 한 단축 복원도이다(그림 2-2).

기존 장축 단면도에서 잘 보이지 않던 정황이 단축에서는 잘 드러난다. 아래 [그림 2-2]를 보면, 목곽 남벽 상단의 주칠 넷돌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우측 상단 음영), 그 높이는 대략 3.4m이다. 반면, 북벽 상단의 주칠은 정연하지 않은데 이

4) 보고서에서는 이를 단칠(丹漆)로 적고 있으나,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주칠(朱漆)로 적고자 한다(김은경 201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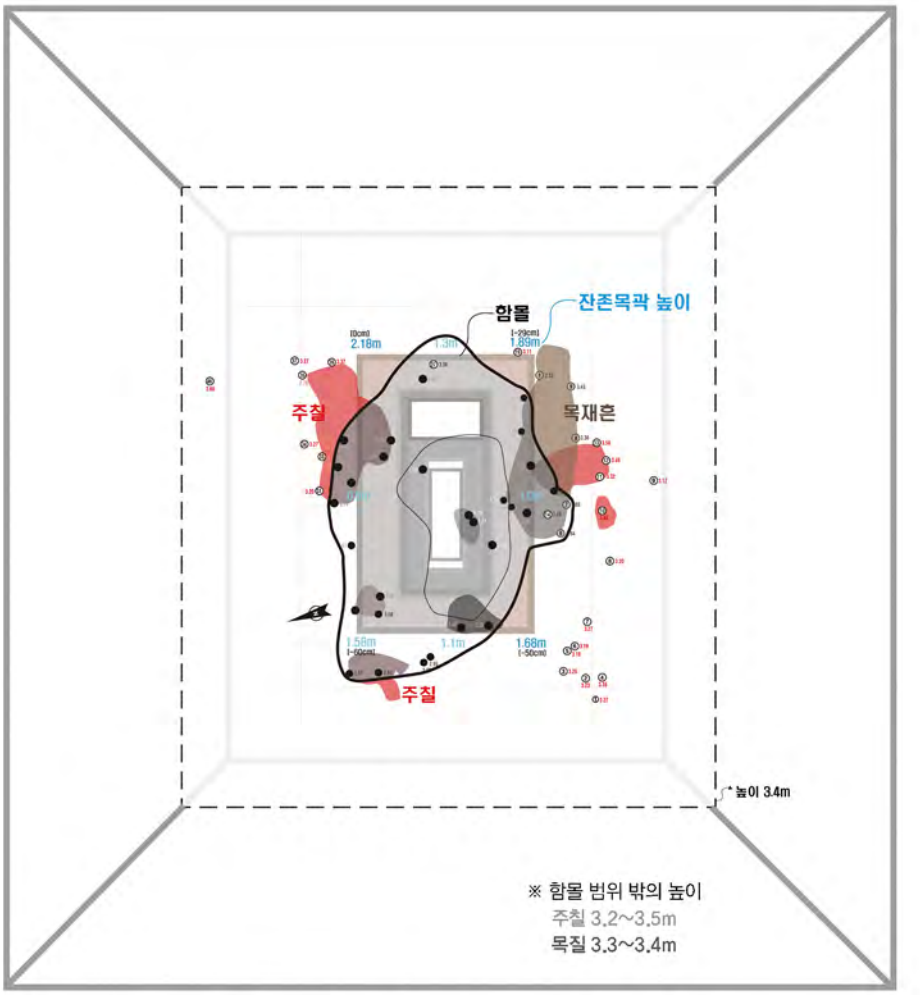
[그림 2] 주칠 냇돌 출토위치도(1. 평면 · 장축, 2. 단축, 문화재관리국 1973: 57 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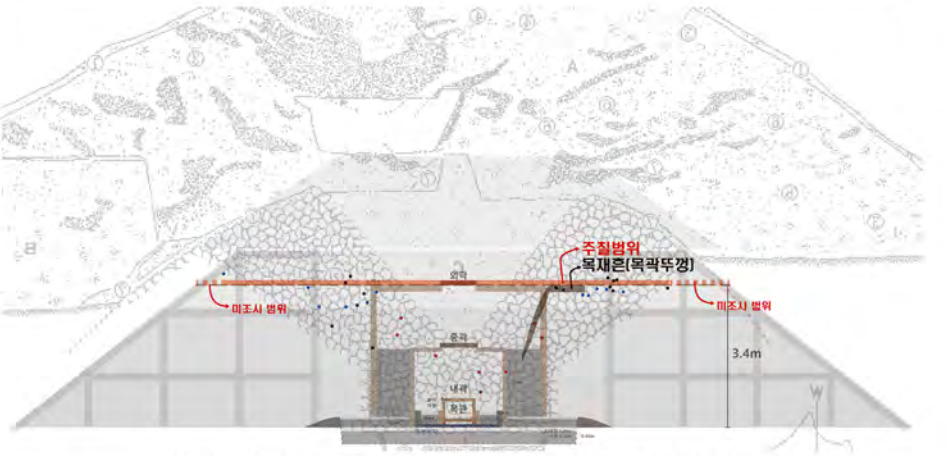
는 함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양상은 보고서 기술(문화재관리국 1974: 56)에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필자는 좀 더 자세한 함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보고서로 제시된 자료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원자료(국립문화재연구소 2019)에서 주칠과 목재흔을 더하여 평면도로 나타내 보았다(그림 3).

> 적석의 내부 즉, 목곽이 있었던 적석 주위의 측벽은 함몰된 적석 중심부의 냇돌을 제거하면서 그 규모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높이도 네 모서리가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동북 모서리의 정상 아래 10m 52㎝를 기준으로 보면 동남 모서리가 29㎝, 남서 모서리가 50㎝, 서북 모서리가 60㎝ 각각 얕게 나타났다. 결국 적석의 동벽이 가장 높게 잘 남아 있었으며 북벽의 서편이 가장 심하게 무너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곽 내로 함몰된 냇돌을 들어 내는 작업은 정상 아래 12m 66㎝까지 속행되었고 그 지점이 목곽의 상면임을 확인하였다. 적석의 내부 측벽 높이는 동벽이 1m 30㎝ 서벽이 1m 10㎝, 남벽이 1m 정도, 북벽이 50㎝ 남아 있었다. (밑줄은 필자)
>
> (문화재관리국 1974: 56)
>
> 1973년 7월 7일
> ... 단칠된 냇돌은 함몰부의 적석제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외곽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서남편에서는 적석 외주부까지 이르고 있었다.
>
> (문화재관리국 1974: 18)

[그림 3]에서 가운데 함몰로 표시된 바깥 부분을 보면, 주칠과 부식 목질의 높이는 3.2~3.4m로 일정하여 이 높이에서 축조공정 상의 어떤 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한다면, 이 부식 목질은 외곽 뚜껑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높이의 적석 면 위로 주칠이 이루어진 듯하다(문화재관리국 1974: 18).[5] 그렇다면

5) 천마총 보고서(1974: 19)에서도 목곽에 주칠한 것이 주변의 잔자갈과 냇돌에 묻게 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박형열(2020: 95)도 비슷한 이유로 주칠은 냇돌이 아니라 목곽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본 듯하다.
또한, 목재흔과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보면 흔히 보이는 U자형이 아니라, 남쪽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형태로 보인다. 이는 근래 함몰부 토층이 조사된 쪽샘 41호와 44호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데 필자는 이를 통해 목곽 높이를 비롯한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세한 검토는 정식 보고를 기다려 향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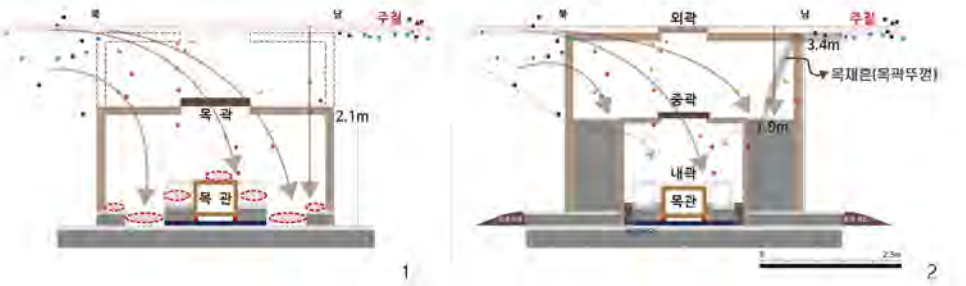


[그림 3] 천마총 목곽 함몰부 양상 – 부식 목재흔, 주칠 냇돌, 잔존 목곽높이
(문화재관리국 1974: 5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93, 103 재작도)

천마총의 목곽 높이도 기존 2.1m가 아니라 3.4m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6] 또한, 목곽 뚜껑은 목곽 범위를 넘어가도록 덮은 형태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견해도 가능성 있는 여러 추정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겠으나, 어쨌든 기존의 복원안으로는 이러한 함몰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그림 4-1), 이는 아래 관 · 곽의 구조를 살피면서 설명을 이어가겠다.

셋째, 관 · 곽의 구조이다. 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1곽 1관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3곽(외곽-중곽-내곽)[7] 1관으로 수정하고자 한다(그림 4-2).



[그림 4] 천마총 주칠 냇돌 함몰양상 비교(1. 1곽 1관 2. 3곽 1관 구조 복원도)

그 이유는 만약, 기존 복원안처럼 목관 위에 다른 구조물이 없다면 주칠 냇돌은 출토될 때 가장 밑바닥에서 확인되어야겠지만(그림 4-1, 점선),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기에 원래 '어떤 구조물'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필자는 이를 외 · 중곽 사이를 채운 냇돌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목재흔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대입해보면 대략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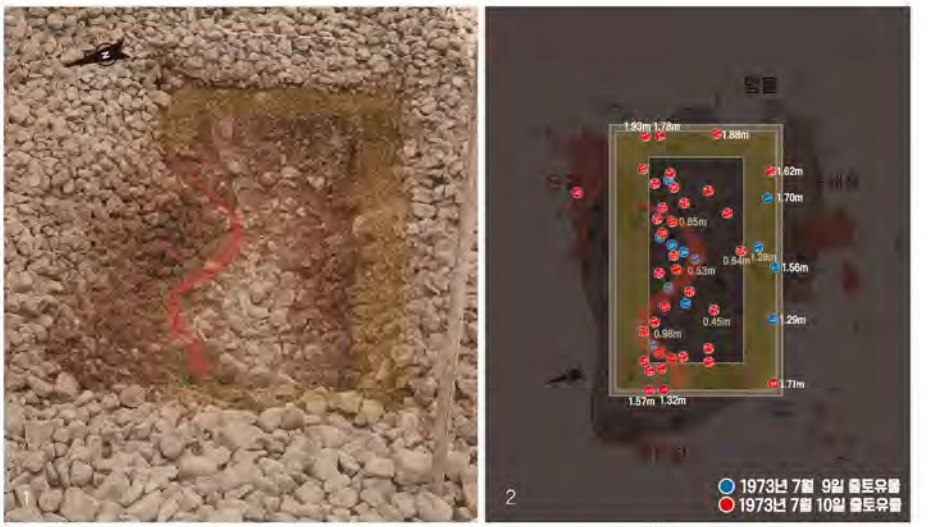
이러한 외 · 중곽 사이 채움[8]은 당시 조사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냇돌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6) 이러한 천마총 목곽의 높이에 대해 김대환(2016: 93~94)은 목곽 부식 목질이 처음 나오는 높이(2.1m)와 측벽부 적석의 높이(3.3m)를 근거로 그 높이를 2.1~3.3m일 것으로 추정하고, 박형열(2020: 43)도 역시 측벽부 적석의 높이를 근거로 3.8m로 보았다.
이처럼 연구자들 사이에서 천마총 높이는 기존 보고서의 2.1m보다 높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 같은 견해는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발굴자료를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였고 주칠 냇돌의 이러한 양상은 좀 더 실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7) 황남대총 남분은 3중곽 구조로 보고서에서는 외곽-내곽-외관-내관으로 기술하였으나, 관 · 곽의 기능적 정의로 볼 때 외관은 내곽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김용성 2007: 123).

8) 이를 '석단(石壇)'또는 '목곽 석단'으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으나(김권일 2021: 205; 최병현 2024: 32), 황남



[그림 5] 천마총(1. 외 · 중곽 사이 채움과 상면 잔자갈(경문연 2019: 99)과 2. 출토유물 평면도(경문연 2019: 98, 100))

채운 상면(上面)에 잔자갈을 깔고(그림 5-1), 그 위로 유물[9]을 부장한 것이다(그림 5-2, 그림 6). 역시 그 높이도 외 · 중곽 사이의 채움이 없었다면 바닥과 가까워야 하겠지만, 최상단에서 나온 유물의 높이가 1.93m였고(그림 5-2), 대개 1.7~1.8m 부근[10]에서 출토하였다(문화재관리국 1974: 19). 이는 주칠 냇돌의 출토 정황과도 일치한다(그림 5-2). 즉, 외 · 중곽 사이 채움으로 보이는 공간에 주칠 냇돌과 유물이 출토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는 외 · 중곽 사이의 채움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내곽이 없는 구조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 경우

대총 남분 보고서에서는 '잔자갈 채움'으로 보고하였고, 필자가 검토한 대로 그 축조 방법이 돌로 쌓은 단의 형태가 아니라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므로 '외 · 중곽 사이 채움'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목관주위 석단(石壇) 이나 외곽아래 석단(石段)도 '중 · 내곽 사이 채움'과 '중곽 바깥 채움'으로 봐야 하겠지만, 황남대총 남분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석단으로 보고한 바 있어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용어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명명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겠다.

9) 보고서에서는 그 일부를 목곽 상부의 유물로 보았으나(문화재관리국 1974: 65), 필자는 목곽 상부에 별도의 부장 공간이 없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10) 보고서에서는 적석 상단에서 4.2m로 기술하였는데, 적석 상단의 높이를 6.0(5.9)m로 보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7~1.8m에서 토기가 출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확인 결과 적석 상단의 높이는 6.6m로 수정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유물의 출토 높이는 0.7m 더 높아져 2.4~2.5m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본다면 수정 목곽의 높이도 0.7m를 더해야 할 것(4.1m)으로 생각되나, 유물과 주칠 냇돌의 높이는 봉분 정상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한 자료도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그 가능성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하관[11] 전까지 목관주위 석단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고, 둘째, 천마총 목관이 황남대총 남 · 북분 내곽과 너비가 비슷하여, 이는 목관이 아니라 내곽에 해당하고 그 안에 목관이 있는 구조였을 것으로 본다.

목곽의 부식에 따라 목곽상부에서 함몰 · 낙하된 일부 유물은 목관주위의 석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유물 자체의 성격이 확실한 것을 빼고는 두 군데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문화재관리국 1974: 65

조사일지 1973년 7월 9일

... 목곽상부의 윤곽이 노출되면서 주위의 부식목질과 잔자갈 사이에서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 토기들의 출토"레벨"은 대개 적석 상단에서 4.2m 내외의 깊이에 해당되었다.

문화재관리국 1974: 19

목곽의 측벽 상단의 윤곽이 노출되면서부터 동 · 서 · 남 3측벽 위에는 각종의 토기류가 부식된 목질과 잔자갈 사이에서 간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열을 지워 배치되어 있었다(삽도 31).

문화재관리국 1974: 67



[그림 6] 목곽상부 토기류(문화재관리국 1974: 67)

넷째, 외곽 아래 석단은 채워서 만든 구조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곽이 없는 상태에서 외곽을 놓기 위해 열을 맞춘 기초로 보았으나(문화재관리국 1974: 56), 필자는 이를 중곽을 만들고 그 바깥에 냇돌을 채운 것으로 보며 그 바깥 경계는 토광[12]이나 토광주위 성토[13]로 생각한다. 하지만, 천마총 발굴에서는 목곽 바깥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고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14]

---

11) 지상식 적석목곽묘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하관 전 무덤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만든다고 보면 하관(下棺)은 축조 공정상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정황과 함께 조사에서 확인된 목관 받침목 또한 그 증거라 본다(문화재관리국 1974: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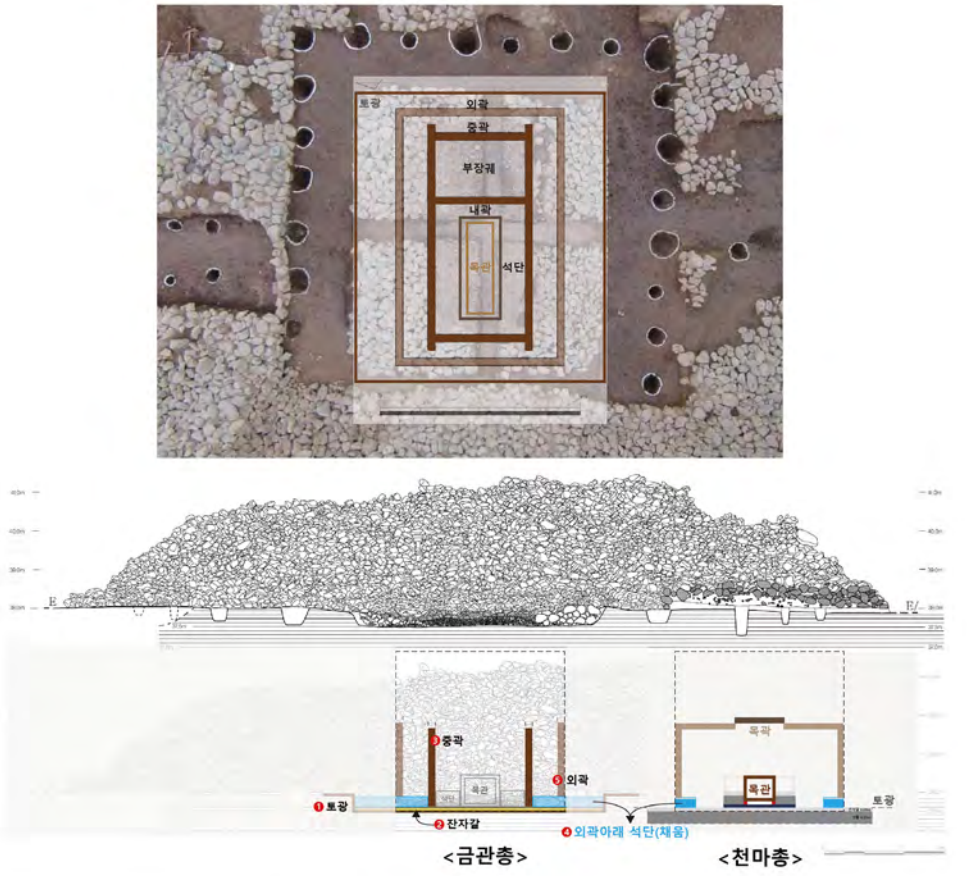
12) 최병현은 지상식 적석목곽묘를 조성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다른 무덤의 묘광과 구분하여 '토광'으로 지칭하였는데(2016a: 38) 필자는 그 구별에 실익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르고자 한다.

13) 김두철(2009: 75)은 황오동 100번지 유적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중소형 적석목곽묘의 축조과정을 복원하면서 1차 봉토 축조시 볼록렌즈 모양으로 묘광 주변을 쌓는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와 비슷한 공정이 지상식 적석목곽묘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금관총의 토광 주변에 약간 높은 부분이나(그림 8), 천마총, 황남대총, 쪽샘 44호묘 조사에서 그러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아직은 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범위나 형태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공정이 토광을 파면서 나온 흙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아 이 논문에서는 이를 1차 성토에서 세분하여 '토광주위 성토'라 하고 묘광이 있는 묘제에서는 '묘광주위 성토'로 명명(命名)하고자 한다.

14) 다만, 천마총 발굴 종료 후 복원공사 때 토광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났고(그림 7), 이를 최병현(1992: 174)이 나중에 그 크기(7.6×5.6×0.4m)만 따로 언급하였는데, 황남대총 남 · 북분보다 금관총(7.2×6.2×0.4m)과 크기가 비슷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구조를 짐작하는 것에는 황남대총보다 금관총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림 7] 천마총 복원공사 때 드러난 토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126)



[그림 8] 금관총과 천마총 구조 비교(국립중앙박물관 2016: 76, 104 개변)

위 [그림 8]은 금관총과 천마총 복원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 공정은 ①토광을 파고 ②바닥에 잔자갈을 깔았으며 ③그 위에 중곽을 설치한 다음 ④중곽과 토광(토광주위 성토) 사이를 냇돌로 채운 후 ⑤그 위로 외곽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 최병현은 이 냇돌(④) 위로 다시 석단(石段)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최병현 2021:324), 필자는 이 부분이 기존 외곽아래 석단일 것으로 생각하며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 조사에서는 매장주체부 안쪽만 조사하고 중곽이 없는 구조로 생각하여 마치 석단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천마총에 대입해보면, 그 바깥 경계는 토광의 깊이가 40㎝이고 이미 그 안에 냇돌과 잔자갈이 40㎝가량 채워져 있어 금관총처럼 토광 안에 채워진 형태는 아닐 듯하다. 추정컨대 토광 바깥으로 냇돌의 높이가 점점 낮아져 마무리되거나, 토광 외연을 둔덕처럼 쌓은 성토와 경계를 이루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필자는 '토광주위 성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그림 13), 후자의 형태로 판단한다.

이는 쪽샘 44호묘 발굴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모를 알 수 없지만, 근래 일부 공개한 자료에서 외곽과 중곽(내곽)의 크기를 제시하였고, 토광 안에 1차로 잔자갈 20㎝, 2차로 냇돌이 깔렸다고 보고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그 외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2차 냇돌의 채워지는 범위를 대체로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로 보면, 이 부분의 축조공정은 금관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그림 9).

정리하자면, 이 부분의 공정은 금관총과 쪽샘 44호묘가 유사하며 천마총도 토광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중곽 존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필자는 앞서 천마총의 관·곽 구조를 3곽 1관으로 수정하면서 중곽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 근거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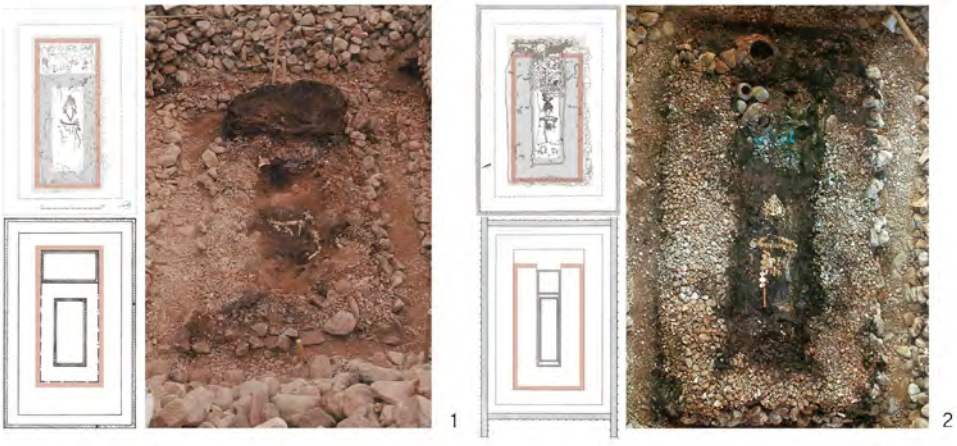
첫째, 목관주위 석단과 부장궤 주위를 냇돌로 두르고 있는데(그림 10-1, 진한 회색 음영) 이를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석단의 일부로 파악했으나(그림 10-2), 천마총에서는 석단에서 제외하면서 양 석단 사이를 넓게 설정한 듯하다. 이렇게 보고된 천마총의 석단 폭(1.8m)은 황남대총(북분:2.4m, 남분:2.3m)이나 다른 지상식 적석목

15) 재발굴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2016: 103)에서도 그 위로 6.4×4.2m의 흔적 확인되어 외곽아래 석단(石段)으로 기술하였으나, 곽의 설치 순서는 중곽보다 외곽이 먼저 설치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외곽이 먼저 설치된 것으로 보려면 석단을 정연하게 깔고 외곽을 설치한 후 중곽을 놓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축조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림 9] 쪽샘 44호묘 구조 및 축조공정 복원
(좌상–필자 촬영, 우상–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360도 vr, 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재작도)

곽묘와 비교해도 유난히 좁은데, 이는 중곽이 설치된 후, 부장품수장궤 사이를 채운 냇돌이 있었으나, 조사 때 이를 함몰 적석으로 보아 제외하면서 그 아래 석단의 폭도



[그림 10] 1. 천마총과 2. 황남대총 북분 석단 바깥 냇돌 비교(유물 배치도, 복원도, 전경 사진)

이에 맞추어 좁게 설정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곽이 없는 기존 보고서의 복원도 대로면 목곽 함몰시 그 내부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듯하다. 셋째, 천마총의 수정된 외곽 높이를 3.4m로 보면, 피장자를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할 때 너무 높아 중곽이 없었다면 그 공정을 상상하기 어렵다(그림 26).[16]



[그림 11] 천마총 중곽 추정 위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112)와 석단 가장자리 냇돌

정리하자면 필자는 목관주위 석단과 부장궤를 포함하는 주변에 냇돌만큼의 공간이 추가되고 그 바깥에 중곽이 위치했을 것으로 본다.[17]

2) 적석부

그다음 적석부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첫째, 적석부의 높이이다. 보고서 기술(문화재관리국 1974: 56)에서는 적석 높이를 5.9m, 이중 개부적석을 2.6m, 측벽부 적석을 3.3m로, 복원도(문화재관리국 1974: 60)에서는 6.0m로 적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원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299~311)에서 적석 높이가 이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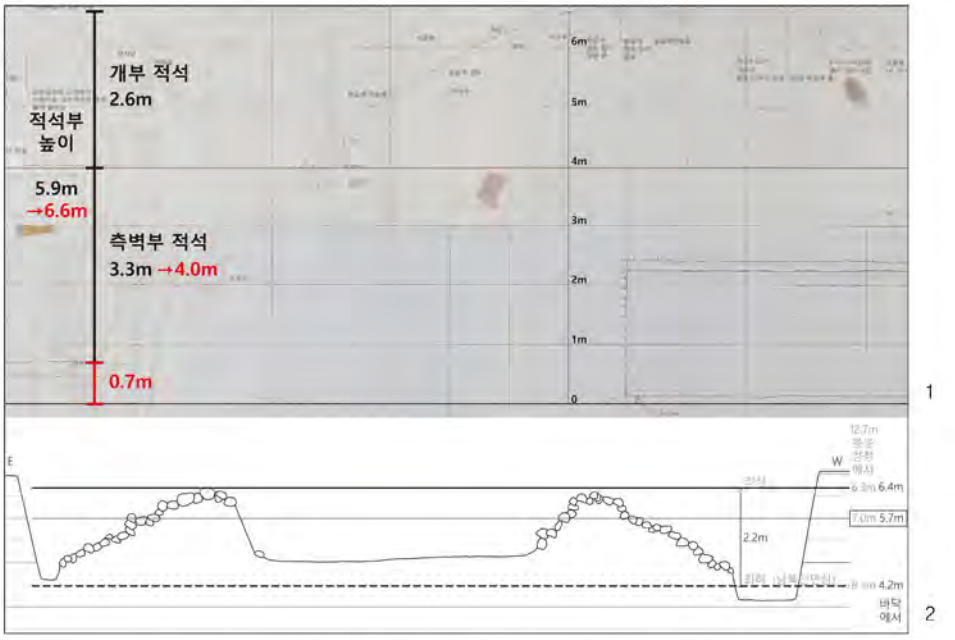
아래는 그 도면으로 [그림 12-1]을 보면 적석부는 대략 6.6m이고, 4m에서 위아

16) 이에 관해서는 성인 남자의 키와 횡구식 석곽 높이의 관계를 검토한 강승규(2019: 181)의 연구가 주목된다.

17) 필자와 비슷한 고민으로 최종규(2011)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을 4중곽으로 복원한 듯하나, 이는 출토유물과 축조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상의 위치에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평면상의 복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4개의 목곽 뚜껑을 포함하는 수직 단면상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18) 도면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보고된 천마총 적석부의 높이 5.9m는 동편 바닥에서의 높이로 판단되고 이를 목곽 바닥에 가까운 도면상 기준 높이에 맞추면 6.6m가 된다. 필자는 이를 명백한 오류로 생각하며 천마총의 적석 높이를 봉분과 목곽의 기준으로 사용한 지점에 맞추어 [그림 12-1]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래로 개부와 측벽부 적석으로 나뉜다. 그 아래 [그림 12-2]에서 개부적석의 높이는 4.2~6.4m이고, 그 아래는 측벽부 적석이 된다.[19] 두 도면의 내용이 대략 일치하므로 필자는 천마총의 적석 높이를 6.4~6.6m, 측벽부 적석 높이를 4.0~4.2m로 수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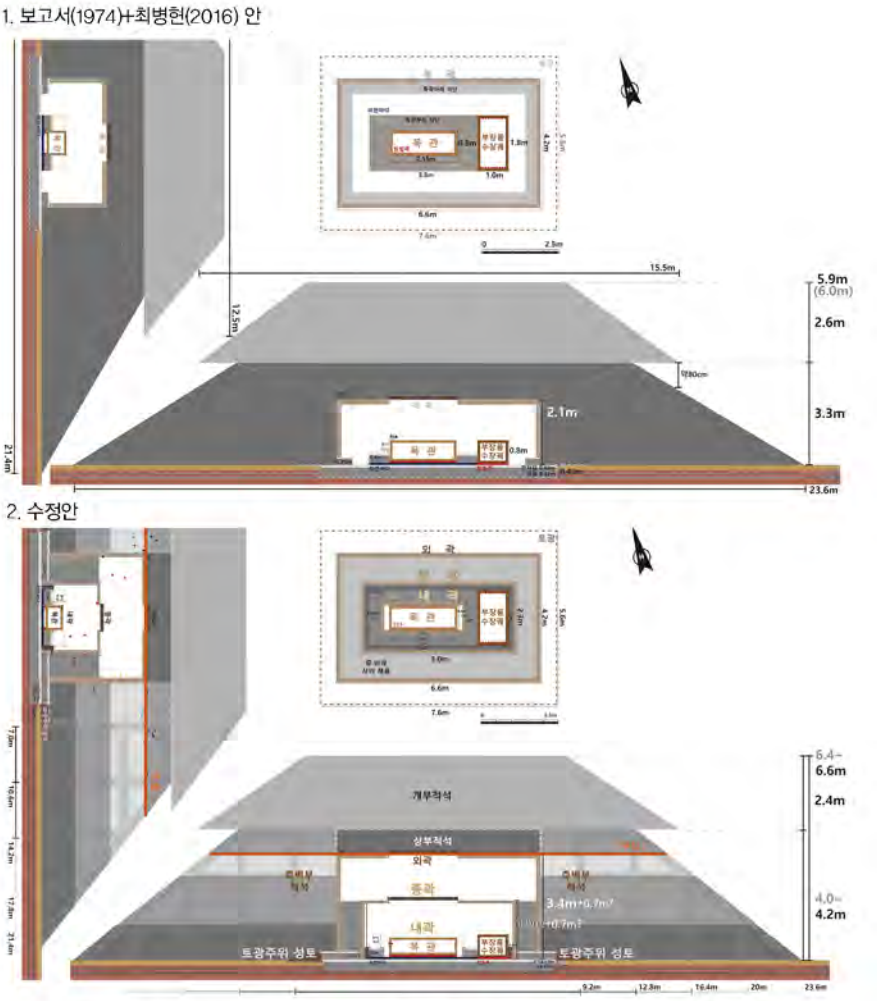
[그림 12] 1. 천마총 동서 토층도 2. 동서 적석 단면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300, 301 개변)

둘째, 가구 시설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필자도 그 유무에 대한 이견(異見)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20] 다만, 고분의 축조가 일정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비슷한 설계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가구시설이 없는 무덤도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석부 외형복원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측벽부 적석의 외형은 가구시설의 설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

19) 적석 단면도는 필자가 2019년 처음 공개할 당시, 원도에서 높이가 7.0m로만 표기되어 이를 지표 기준점에서의 레벨로 보고, 재작도하여 원도와 함께 수록한 것이었다. 이는 기존 제시된 적석 높이와 맞지 않아 당시에도 의문이 남았지만, 자료 제공에 의미를 두고 수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재검토한 결과, 이 수치는 지면에서의 높이가 아닌 봉분 정상에서의 깊이임을 알 수 있었다.

20) 지금까지 조사된 지상식 적석목곽묘 가운데 가구시설이 없는 경우는 천마총이 유일하므로 앞으로도 가구시설이 없는 사례가 더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천마총만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림 13] 1. 천마총 복원도(최병현 2016a: 도2 · 3),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4)와 2. 수정 복원도

이에 필자는 적석부의 동서가 23.6m이고 상부적석 끝단에서 측벽부 적석 사이의 간격이 최대 0.8m,[21] 그리고 황남대총 북분의 기둥 사이의 거리가 1.8m인 점[22]을 참조하여(문화재관리국 1974: 55) 천마총 적석부의 외형을 [그림 1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21) 이 개부적석의 끝단과 측벽부 적석 사이의 거리는 보통 10~50cm이고 동단에서 최대 폭을 80cm로 적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그림 4) 동단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며 이 부분이 원상(原狀)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22) 황남대총 남분의 기둥 사이는 1.5m로 이를 대입하여 구조를 복원하면 외곽과 내1진주로 상정되는 곳까지의 사이 공간이 지나치게 넓다. 북분의 기둥 사이 거리는 1.8m인데 이를 적용하여 복원하면 [그림 13]과 같다. 이를 보면 개부적석 끝단과 측벽적석 사이가 0.8m보다 약간 넓은데 이를 정확하게 맞추자면 기둥 사이의 거리는 더 좁아진다.

2.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앞서 천마총에서 살펴본 중곽의 존재와 외곽 아래 석단, 중 · 외곽 사이의 채움, 또 그 위에 부장 유물이 놓이는 구조가 비슷하게 관찰된다.

1) 매장주체부

첫째, 외 · 중곽 사이 채움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온 유물로 그 높이를 추정하면 1.7m이다.[23] 이는 유물을 수습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채워진 냇돌 위에 잔자갈을 깐 후 유물을 부장하였고 이후 함몰로 경사를 이루게 된 듯하다(그림 14).



[그림 14] 황남대총 북분 중곽 뒤채움 상단 유물과 수습 모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83, 139)

보고서 기술을 검토하면 가장 바깥부터 토기류, 그 안쪽에 장신구, 가장 안쪽에 마구류가 점점 낮아지며 출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특히, 가장 바깥에서 확인된 토기의 분포범위는 1.68~1.18m로(문화재연구소 1985: 54), 이는 기존의 복원도



[그림 15] 황남대총 북분 함몰부 유물 출토모식도-토기류, 장신구류, 마구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38~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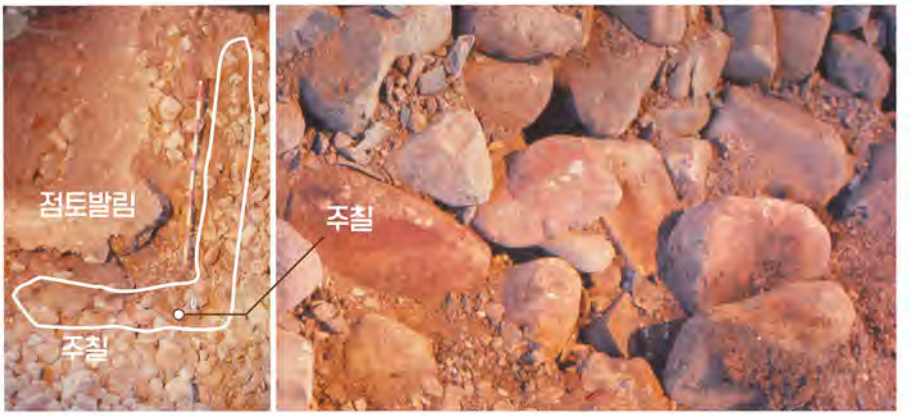
23) 가장 높은 곳에서 출토한 유물은 목곽 서북 모서리에서 나온 파수부직구호로 목곽 상부에서 2.32m 아래다. 이를 환산하면 4.0m-2.32m=1.68m로 높이는 약 1.7m이다.

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24] 외 · 중곽 사이 채움이 존재하고 중곽 상면에 부장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채움은 천마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곽의 존재를 말해주며 이에 더하여 '凸'자형 부장 공간에 중곽이 없었다면 함몰시 형태 유지가 어려웠을 듯하다(그림 17-1).

둘째, 황남대총 북분도 외곽보다 중곽을 먼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천마총과 마찬가지로 목곽아래 석단을 포함하는 하부구조를 보면 동일한 공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7).

셋째, 목곽 뚜껑 부근의 주칠에 관한 부분이다.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천마총과 달리 그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한 장의 사진이 단서가 될 듯하다. [그림 16]은 함몰토와 측벽부 적석을 함께 조사 중인 사진인데, 점토 발림으로 보아 목곽 측벽 윗부분으로 보이고 흰색 실로 주칠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외 자세한 정황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천마총의 사례를 참고하면 목곽 뚜껑을 설치하고 그 상면과 주변까지 주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황남대총 북분 주칠 냇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22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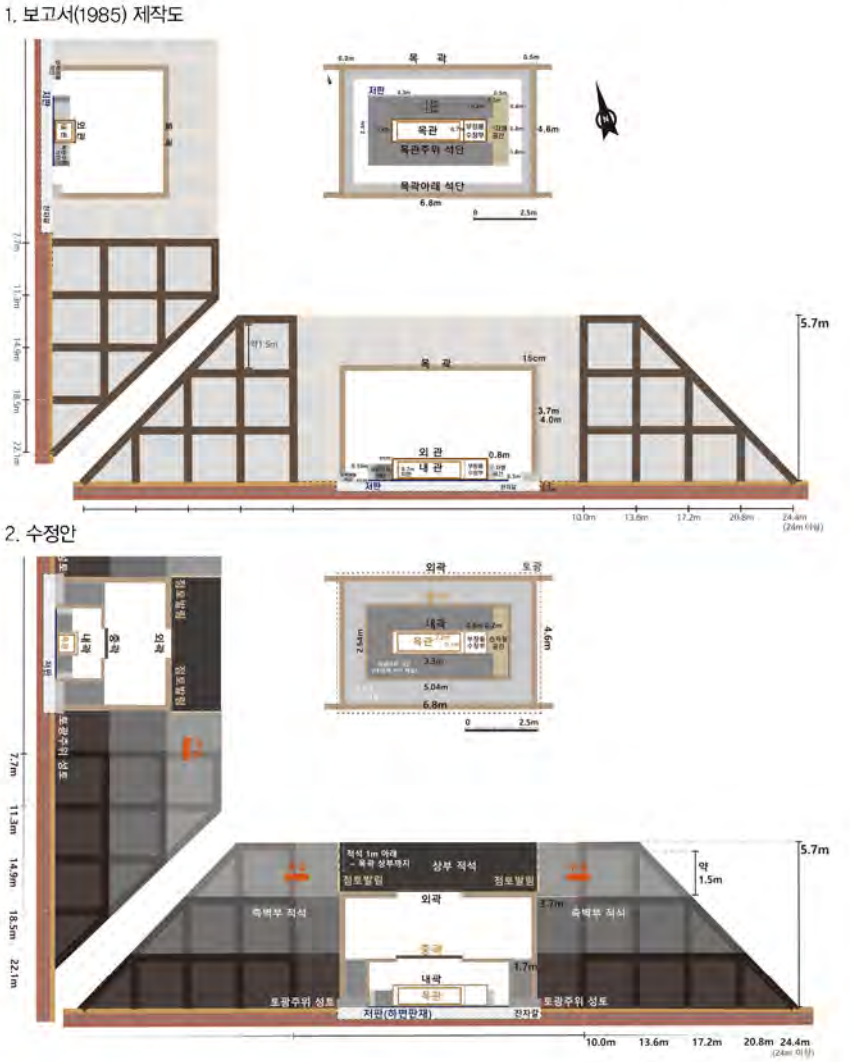
2) 적석부

적석부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목곽 내벽 상단의 '점토 발림'이다. 그 일부가 함몰되었다고 보면 원래는 측벽부 적석 상단 끝까지 있었을 듯하고, 그 평면 범

24) 만약 이러한 출토상태가 기존 복원안에서 가능하려면 유물 아래 잔자갈과 냇돌이 함몰시 옆에서 들어온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외곽 흔이 처음 확인된 후 하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설명이 어렵다.

위는 외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부적석의 범위는 가구시설까지가 아니라, 목곽의 평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듯하다.[25]

이러한 정황은 황남대총 북분이 개부적석이 없는 구조여서 다른 고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이 두 가지 정황을 참조할 때, 사방적석과 측벽



[그림 17] 황남대총 북분 수정 복원도(남분과 연접은 반영하지 않음).

25)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에 제시된 북분의 단축 단면도(문화재관리국 1993, 도면4)를 참조하면, 목곽상부의 측벽부 적석 내면이 목곽 선상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으므로 점토 발림의 위치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는 [그림 17-2]와 같으며 이는 김대환(2016: 111)의 금관총 복원안과는 차이가 있다.

부 적석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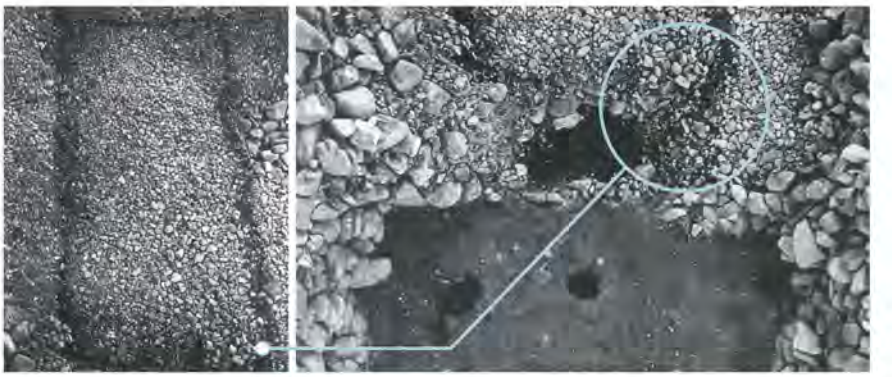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복원도를 작성하면 [그림 17]과 같다.

3. 황남대총 남분

1) 매장주체부

황남대총 남분은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과는 다르게 외 · 중곽 사이가 잔자갈로 채워져 보고서에서도 중곽을 포함한 구조를 원형(原形)에 가깝게 복원한 듯하다.

하지만, 남분에서도 달리 생각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는 곽 아래 깔린 잔자갈의 범위이다. 보고서에서는 목곽 바닥 전면에 잔자갈을 깐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필자는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설치되고 그 아래에만 잔자갈을 깐 것으로 생각하며, 중곽과 외곽 사이는 중곽 상단까지 채운 잔자갈로 본다.



[그림 18] 기저부 중곽 하단 목흔(문화재연구소 1993: 도판 72-2, 76-1 재편집)

위 [그림 18]을 보면, 기저부 조사단계에서 평면상 중곽의 목흔이 뚜렷하며 이는 단면상에서 잔자갈 아래로 연장되는 흔적이 보인다. 또한, 이 중곽 안쪽 잔자갈에만 주칠이 있어 중곽 안팎으로 서로 다른 공정에서 잔자갈이 깔린 것으로 생각된다.

2) 적석부

첫째, 황남대총 남분의 외곽 뚜껑 주위에도 주칠(朱漆)한 정황이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함몰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주칠이 나오는 것으로 적고 있어(문화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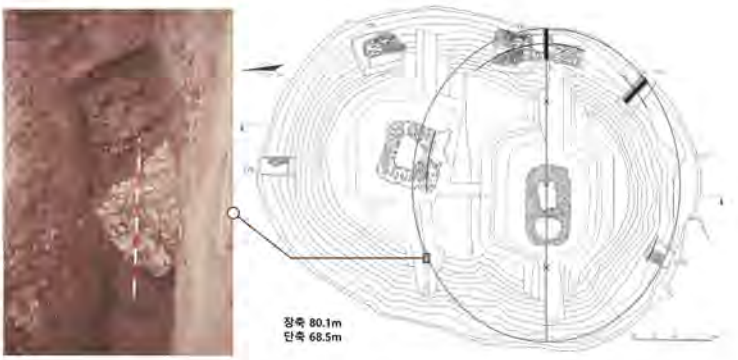
소 1994: 12), 개부적석부터 그 범위에 포함되는데 천마총처럼 정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이나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렵다.

둘째, 가구시설의 기술 내용에서 단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 남분의 가구시설은 내1 · 2 · 3진주와 외진주 모두 4개의 기둥이 돌아가는데 장축 방향에서 다른 기둥의 간격은 1.5m이지만, 내2 · 3진주 사이는 1m이다. 이를 복원하면 측벽부 적석은 마치 팔작지붕처럼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각(내 1 · 2 · 3 · 외) 진주 사이의 거리가 16.2m-19.2m-21.2m-24.2m가 아니라 16.2m-19.2m-22.2m-25.2m로, 적석부의 동서 길이도 28.2m로 수정하고자 한다.

3) 봉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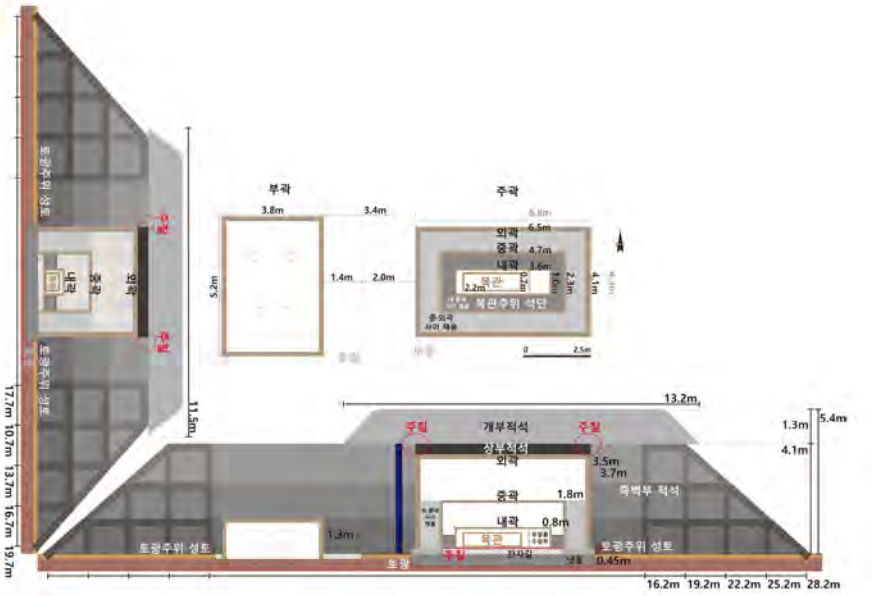
황남대총은 발굴 당시의 조사방침과 촉박한 일정 탓에 봉토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덤의 경계인 호석도 일부만 이루어져 정확한 경계를 추정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필자는 추가로 호석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밝히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황남대총 북분 조사 때, 서편 트렌치 아래 배수로에서 확인한 석렬이다. 필자는 이를 남분의 호석으로 보고 배수로에서 꺾어지는 부분임을 참조하여 그 위치를 찾았다. 또한, 타원 작도법을 이용하여 봉분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Tr 1에서 남분 호석은 상면만 표시되어 그 아래를 포함하는 범위는 Tr 7의 호석 폭을 참조하여 복원하였다(그림 19). 그 범위는 장축 80.1m, 단축 68.5m이다.



[그림 19] 황남대총 남분 호석 추정 석렬과 봉분 재복원
(문화재연구소 1993, 도면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17 필자 재작도)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복원도를 작성하면 [그림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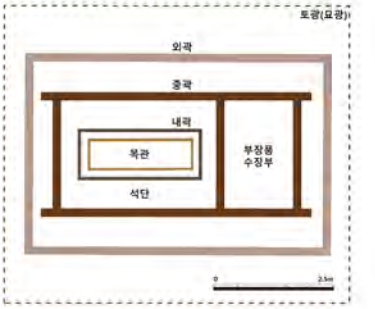
[그림 20] 황남대총 남분 복원도

4. 금관총

금관총의 구조는 일제강점기 발굴(朝鮮總督府 1924)과 최근 재발굴 성과로 추정 복원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16). 그 제원은 [표 3]과 같으며 평면 복원도는 필자도 동의하므로 재발굴보고서에 따르기로 하겠다. 다만, 금관총의 매장주체부 구조를 내곽이 있는 3중곽으로 보아, 원래 목관은 내곽으로 그 안에 목관은 황남대총과 천마총을 참고하여 2.2×0.8m로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21).

[표 3] 금관총 매장주체부 제원(국립중앙박물관 2016, 표 6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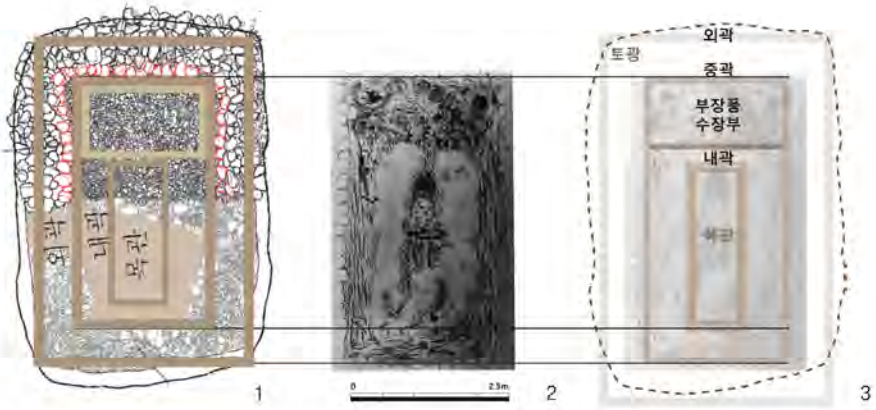
	묘광(토광)	외곽	중곽	내곽	목곽
크기 (동서 ×남북)	7.2 ×6.2	6.4 ×4.2	5.15 ×2.36	2.51 ×1.0	2.2 x0.8



[그림 21] 금관총 매장주체부
(국립중앙박물관 2016: 도면 12 개변)

5. 서봉총

서봉총도 일제강점기 조사(小泉顯夫 1927)한 것을 최근 재발굴(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2] 1. 서봉총 평면 복원도(국립중앙박물관 2020: 52), 2. 유물배치도(유리건판 27555), 3. 수정복원도

2014, 2020)하였는데 그 복원된 구조가 다른 지상식 적석목곽묘보다 작다. 재발굴 당시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자료 검토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2-1]은 재발굴 보고서의 복원도로, 일제강점기 기록과 재발굴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재발굴 보고서에서 내곽은 바깥 석단(石壇)[26]의 안쪽으로 추정하여 3.8×2.1m이고, 외곽은 1926년 조사 당시 외곽흔을 표시한 사진(그림 23)에서 그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규모는 중곽에서의 거리를 0.5~1.0m로 보아 4.8~5.2×3.2~3.4m로 추정하였으며 묘광은 5.8×4.0×0.5m으로 보고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0: 46).

이를 보면 서봉총의 목곽 길이가 다른 고분에 비해 상당히 짧다. 그러나 필자는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유물의 출토상태를 기록한 도면(그림 22-2)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발굴 복원도와는 다른 정황이 보인다.

피장자 주위로 잔자갈이 상면에 깔린 석단이 있고 그 바깥으로 목곽이 있다. 다시 그 바깥으로는 냇돌이 그려져 내부와 구분된다. 이것을 중곽 너비를 기준으로 크기를 맞추고 재발굴 보고서의 복원도와 비교하면, 맞지 않는데 이는 재발굴보고서의 복원도에서 토광 안에 외곽을 위치시키려고 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로 짐작된다.

필자는 외곽이 토광 안이 아니라 중곽과 토광 사이를 채운 냇돌 위에 놓이고 그 범위는 토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중곽이

26) 여기서 석단은 石壇으로 적고 있으나, 위치상으로 외곽 아래 놓이므로 石段이 맞다.

먼저 설치되고 외곽이 나중에 설치되는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그 구조를 복원하면 외곽은 필자도 그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천마총과 황남대총을 참조하여 내·외곽과 중·외곽 사이의 너비가 대략 비슷하다고 보면 외곽은 5.9×3.7m, 중곽 4.5×2.3m, 내곽 2.7×1.0m로 복원할 수 있다(그림 22-3).[27]



[그림 23] 서봉총 내·외곽흔(유리건판 007736, 점선은 필자-원사진의 실 참조)

Ⅳ. 축조공정 복원

지금부터는 앞서 검토한 구조를 바탕으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을 복원하고자 한다(표 2). 모호한 설명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마다 모식도를 함께 제시하겠다(그림 26).

필자가 생각하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은 [표 4]와 같으며 기초작업과 '하관'을 전후한 공정으로 크게 4부분, 세부적으로 23개의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광 조성에 앞서 가구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44호묘 발굴조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8)로 밝혀진 사실이며 가구시설의 내1진주와 토광주위 성토의 선후관계를 검토한 결과이다.

둘째, 앞서 검토했듯이 외곽보다 중곽을 먼저 만들고 그 뒤 외곽아래 석단은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를 채운 형태라는 것이다.[28] 이는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연

27) 이러한 수치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할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재발굴 보고서에서 복원한 외곽이 실제로는 중곽의 크기에 가깝고 외곽은 정황상 그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그 크기는 외곽을 기준으로 지상식 적석목곽묘 가운데 가장 작으며 쪽샘 44호와 비슷하다.

28) 앞서 천마총과 금관총, 44호의 하부구조를 검토해서 중곽을 외곽보다 먼저 설치한다고 보았는데 그 시작은 먼

[표 4] 지상식 적석목곽묘 축조공정 복원 (회색은 필자가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임)

대분류	세부공정	비고
1. 기초작업	① 묘지선정 ② 목곽위치 설정 ③ 봉분범위 설정 ④ 정지작업 ⑤ 가구시설 설치 ⑥ 토광+토광주위 성토 ⑦ 목곽 기초(잔자갈 or 냇돌)	쪽샘 44호 성과참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2. 하관 전	① 중곽 설치 시작 ② 중곽 · 토광(토광주위 성토) 사이 채움(외곽 기초) ③ 외곽 + 외 · 중곽 사이 채움 + 중곽 측벽 완성 + 측벽부 적석 + 1차 봉토 + 호석[29] 등시축조 ④ 내곽 설치 ⑤ 중 · 내곽 사이 채움 ⑥ 부장품 부장 ⑦ 목곽 뚜껑 설치 + 주칠 ⑧ 측벽부 적석 완성	외곽보다 중곽이 먼저 설치시작 기존 "외곽아래 석단"에 해당 외곽과 중곽 동시축조 외곽과 측벽부 적석 · 봉토 동시 축조 "목관주위 석단"에 해당 목곽 폐쇄가 아닌 설치할 때 주칠을 한다고 봄
3. 하관	① 하관 ② 중곽 폐쇄 및 부장품 부장 + 순장 ③ 외곽 폐쇄 및 의례 (주칠)	
4. 하관 후	① 상부적석 ② 개부적석 및 밀봉점토 ③ 2차 봉토 및 밀봉점토 ④ 정상부 의례(마구류) ⑤ 주변부 의	

한 석단 구조는 단을 쌓아 조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광 내부에 기초를 쌓은 후 별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의심된다. 비슷한 이유로 목관주위 석단(石壇) 역시 중곽과 내곽 사이의 채움으로 생각한다.

셋째, 사방적석이 측벽부 적석과 축조 공정상 구분되지 않고 외곽과 봉토까지 함께 축조된다는 것이다. 그 주요 근거는 앞서 살펴본 적석부 주칠의 평면 범위이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넷째, 냇돌과 흙 등, 고분 축조 재료의 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필자는 대릉원지구 동편의 쪽샘지구 조사에서 고분 주위를 돌아가는 구상(構想) 유구와 체토 유구를 확인하였고 그 목적은 외장(外裝)과 의례 그리고 재료 조달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익재 2017). 비록 모든 재료를 여기서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구로 확인된 이상 유력한 후보군임은 부정할 수 없다.[30]

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나, 중곽을 약 2m 높이까지 한 번에 완성하기는 힘들다고 보여 그 완성은 외곽을 동시에 축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29) 호석의 설치 시점을 빠르게 보면 측벽부 적석을 쌓기 시작한 때부터, 늦게 보면 하관 후 2차 봉토 축조 때까지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하관 이후의 공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1차 봉토와 함께 호석을 쌓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30) 지금까지 적석목곽묘의 축조 재료를 어디서 조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형산강 유역인 서천이나 북천, 남천

한편, 이 일대의 고지형과 입지(立地)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대릉원 북쪽과 노서동 일대를 원래 저지대로 보아 고분이 이러한 습지와 용천을 피해 입지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심현철 2018b: 251), 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저지대일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상당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덤 조성 시 채토(採土)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즉, 과정의 선후(先後)를 달리 보는 것이다.



[그림 24] 중심지고분군 내 대형분의 분포와 입지(심현철 2018b: 250 개변) – 흰 부분과 흰색 선은 필자, 회색은 습지

위의 [그림 24]의 흰색으로 표시한 굴곡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 힘들며 이러한 지형을 피해 무덤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도 어색하다. 또한, 이곳이 원래 습지이고 무덤을 나중에 조성한 것으로 보려면, 기존 습지 위에 무덤의 기초를 쌓고 조성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분의 밑바닥은 일부 성토로 생각되는 부분과 점토 면이 있으나, 두텁지 않았고 원지형의 높낮이를 그대로 살려 무덤을 조성한 정황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습지에 성토하여 무덤을 조성한 듯 보이진 않는다.[31] 따라서 이러한 굴곡은 무덤 조성시 주변을 채토하면서 생긴 지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봉분의 양을 생각했을 때 그 범위도 아래 표시된 습지 영역처럼 상당히 넓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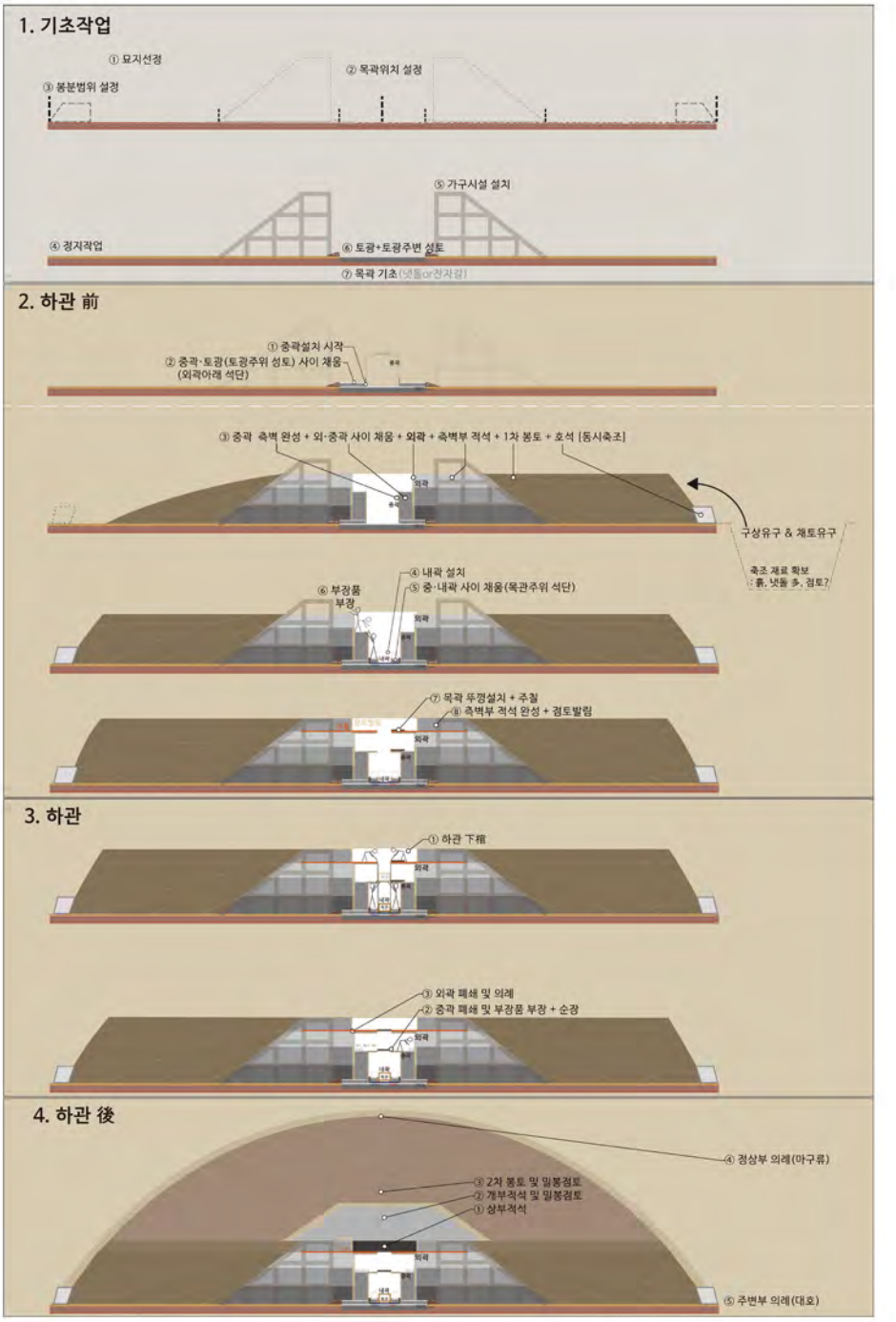
그 구체적인 형태는 쪽샘 I43호묘 주변의 구상(構想) 유구처럼 무덤 주위를 둘러싼 형태일 수도 있으나, 모든 무덤 주위에서 이러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부는 일종의 채토장처럼 커다란 수혈의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32]

그리고 선상지의 표층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어왔으나(황상일 · 윤순옥 2014: 27; 권용대 2009: 75),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유구가 확인된 이상 이제는 이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1) 이러한 채토 행위는 이 일대에서 굴광면이 확인되면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천마총 발굴에 앞서 진행한 주변 지하 유구 조사에서 상당히 아래까지 조선시대 백자편이 나오고(문화재관리국 1974: 46, 47), 비슷한 양상이 금관총 일원의 조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33)에서도 확인되므로 고분 조성면과 그 주위의 높이차는 분명해 보인다.

32) 이 고분 주변의 구상유구나 채토 유구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별도의 논문으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축조공정의 복원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5).



[그림 25] 지상식 적석목곽묘 축조공정 복원도

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

지금까지 천마총을 비롯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살피고 축조공정을 복원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쟁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자 한다.

1. 관 · 곽의 구조

앞서 필자는 몇 가지 조사 정황을 검토하여 근거로 제시하였고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가 3곽 1관으로 무덤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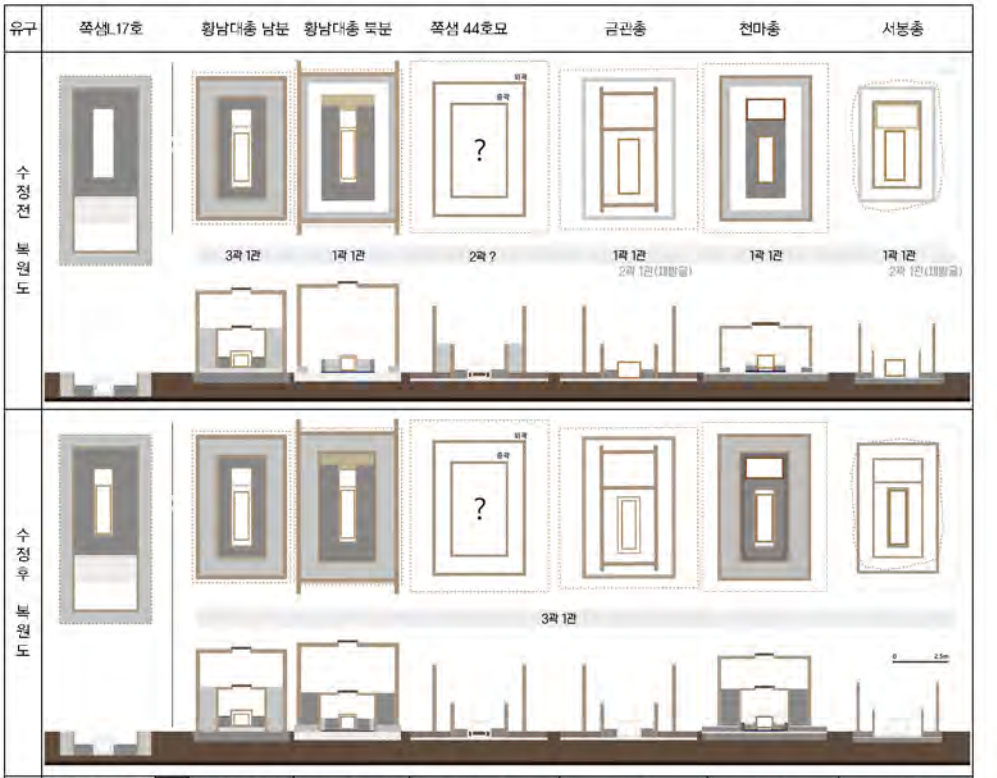
첫째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에 중곽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외 · 중곽 사이의 채움과 부장 유물 그리고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그렇다고 보면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금관총의 재발굴 성과와 쪽샘 44호묘를 검토하여 알 수 있었는데 외곽아래 석단은 그동안 정연하게 쌓은 구조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에 채워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 외곽이 놓이게 되어 중곽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목곽 높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천마총 목곽 높이를 2.1m에서 3.4m로 수정한 결과로, 앞서 언급한 주칠 냇돌의 출토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 · 곽 구조 연구에 대한 쟁점은 '중곽의 존재가 인정되느냐'의 문제에서 파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적석목곽묘의 계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선행묘제의 외곽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중곽에 해당하여[33]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에서처럼 이것이 생략된 구조는 애초에 성립하기 힘들다고 본다(그림 27). 따라서

33) 이러한 묘제 간의 관 · 곽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행 연구(박형열 2020 : 93)가 있었고 필자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군집 내의 편차가 커서 이를 묘제 사이의 정형성을 밝히는 결과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필자는 이러한 개별 무덤 사이의 크기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의미 있는 유사성은 시기가 비슷한 무덤 가운데 위계가 비슷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포항 마산리 적석목곽묘와 쪽샘 L17호 주곽의 평면구조가 유사하고, 임당 G6호의 내곽과 외곽이 황남대총 남분의 내곽과 중곽에 대응된다고 생각한다.



	쪽샘L.17호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쪽샘 44호묘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	–	–	–	토광	6.7	4.3	0.45	7.0	4.8	0.4	7.7	6.2		7.2	6.2	?	7.6	5.6	0.4	5.8	4.0	0.5
묘광	8.48	4.12	(1.08)	외곽	6.5	4.1	3.7	6.8	4.6	4.0	6.1	4.2		6.4	4.2	?	6.6	4.2	3.4	5.9	3.7	?
외곽	7.40	2.78	(1.08)	중곽	4.7	2.3	1.8	5.04		1.7	4.3	2.6		5.15	2.36	?	5.0		1.9	4.5		?
내곽	3.09			내곽	3.6	1.0	0.8	3.3	0.8	0.8	?	?		2.51	1.0	?	2.7		0.8 미만	2.7		?
목관	2.2		0.7 미만	목관	2.2	0.7	0.7 미만	2.2	0.7	0.7 미만	?	?		2.2	0.8	?	2.2		0.7 미만	2.2		?

[그림 26] 지상식 적석목곽묘와 쪽샘 L17호 구조 비교(회색 글자는 추정)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구조는 중곽을 포함하는 3곽 1관으로 복원하는 것이 맞고, 이에 그 정형(定型)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34]

34) 그 외 관 · 곽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신라지역 무덤에 목관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홍보식 2023a, b). 이에 대해 필자는 황남대총 북분의 성과물을 재정리하면서 목관이 존재하는 명확한 정황(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 106~107)을 확인하여,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외곽을 가구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견해(박형열 2020: 59)에 대해서 필자는 구체적인 축조공정을 복원해 볼 때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첫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외곽이 실질적으로 곽의 기능을 하고 둘째, 3중곽이 처음 등장하는 황남대총 남분의 부곽 크기를 보면 외곽의 폭과 비슷하며 셋째, 가구시설이 없는 상부적석식인 금령총에서도 외곽에 해당하는 크기의 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곽은 가구시설이 아닌 '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림 27]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선행묘제 평면구조 비교(편년은 최병현 안에 따름)

2. 목곽 상부 공간

필자는 목곽 상부에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부장하였다고 본 유물들은 원래 중곽 뚜껑과 그 옆의 외 · 중곽 사이 채움 위에 놓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 고분에서 목곽 뚜껑이 확인되기 전에 그 공간을 유추할 만한 흔적[35]을 찾을 수 없었고, 상부에서 함몰된 것으로 본 유물의 출토양상이 정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토기류의 배치가 외곽 벽을 따라 가지런하고 그 안쪽에 배치된 유물들은 가운데로 쓸려 들어간 정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그림 5 · 15).

둘째, 상부공간이 있다고 보기엔 황남대총 북분에서 함몰된 적석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 내용(문화재관리국 1985: 20)을 도면으로 나타내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부적석( )과 함몰 적석( )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28).

필자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목곽 상부 공간은 별도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목곽 뚜껑과 개부적석 사이에는 적석이 있게 되는데 이를 김대환(2016)은 상부적석으로 구분하였고 그 범위는 목곽과 사방적석 위를 덮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검토한 대로 황남대총 북분 목곽 상부의 점토 발림으

35) 적석부 상단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벽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뚜껑은 그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흔적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조사일지 74년 10월 6일

… 또 함몰부를 보면 벽면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G.L 상 2.8~3.2m에 이르러 낙하된 냇돌이경사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는데 남북은 경사가 급하나 동서는 비교적 완만하며 함몰부중심의 바닥면은 G.L 상 1.8m로 나타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문화재관리국 1985: 20)



[그림 28] 상부적석( )과 함몰적석( ) 비교

로 보아 이 범위에만 상부적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방적석과 측벽부 적석의 축조공정과 연관하는 문제로 아래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

3. 사방적석의 구분

필자는 측벽부에서 사방적석이 공정상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측벽부 적석을 먼저 축조하면 그 안으로 축조 재료의 반입과 목곽의 설치가 어려워지므로 고분 축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황남대총 북분의 점토 발림의 범위를 보면 금관총에서 김대환이 검토한 것처럼 가구시설 안쪽이 아니라, 목곽의 평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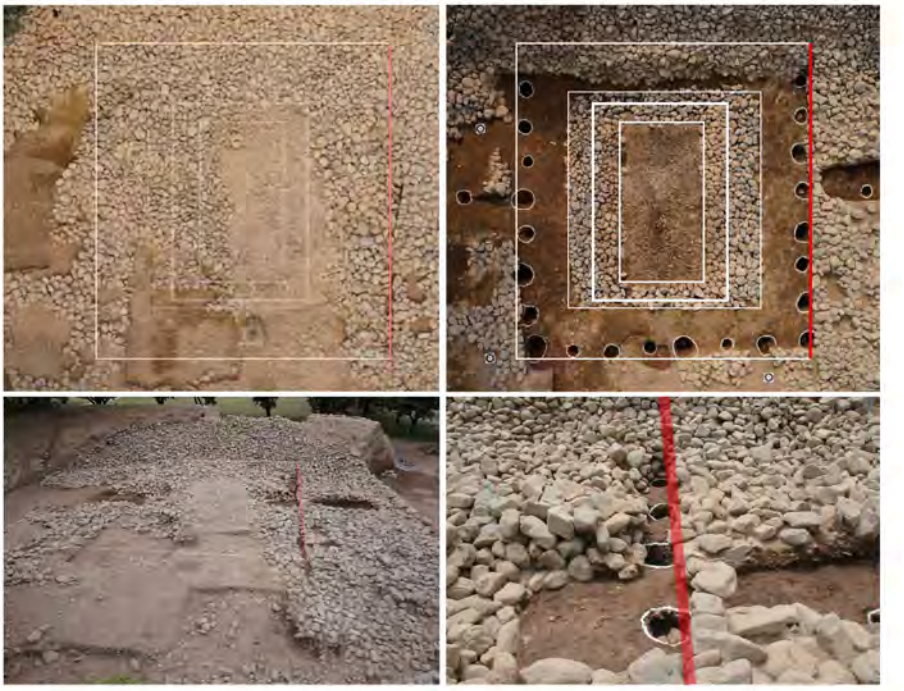
셋째, 앞서 천마총 적석의 주칠이 3.4m 높이로, 외곽에서 측벽부 적석의 거의 끝부분까지 나온다는 것이다(그림 13). 이는 결국, 측벽부 적석이 만들어지고 사방적석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쌓은 것으로 특별히 공정상 구분되지 않음을 말해준다.[36]

사실 이러한 사방적석의 존재는 금관총 재조사에서 구체화 되었는데 내1진주의 조밀함과 적석 하단의 측벽적석 내면의 석렬(石列)을 근거로 사방적석이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그림 29).

하지만, 이를 사방적석으로 구분해서 보는 확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 같은 일부분의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황남대총 남분의 외 · 중곽 사이를 채운 잔자갈처럼 축조 재료를 달리하는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

36) 다만, 천마총에서는 가구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수평상의 동시 축조가 예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발굴에서 천마총과 같이 주칠 냇돌의 정황이 면밀하게 조사된다면 해결되리라 본다.



[그림 29] 측벽부 적석 석렬과 내1진주열(국립중앙박물관 2016: 69, 77, 78)

또한 이에 대해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에서 사주적석을 처음 언급한 김두철의 견해(2009: 77~79)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사실로 보았을 때, 그가 황남대총 남분을 예로 들어 언급한 사주적석은 가구시설과 외곽 사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외 · 중곽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천마총을 비롯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을 바탕으로 연구의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그 주요 근거는 천마총의 주칠(朱漆) 범위와 함몰 정황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여기에 황남대총 북분의 점토 발림과 금관총 하부의 구조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축조공정을 복원하였고, 나아가 그간의 연구 쟁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는 모두 3곽 1관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높이도 비슷하였으며, 중곽과 선행묘제의 외곽과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축조공정의 복원에서는 이러한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설치되고, 사방적석과 측벽부 적석의 공정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목곽 상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쪽샘지구 고분 주변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채토 및 구상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수정 · 복원하고 이를 비교하여 그 정형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시간 검토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논문에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의적 해석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는 당시 여건의 열악함과 온전한 상태로 발굴될 수 없는 적석목곽묘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사 결과의 불확실성은 여러 이견(異見)을 낳았고 여기서 많은 논쟁이 유발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조사단계에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이러한 논쟁이 객관적 증거 없이 소모적으로 반복된다면 자칫 불필요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 해결책은 조사환경의 개선과 발굴 기술의 발전, 보고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라 고분 연구에 있어 개념의 정의와 범주의 설정, 계통, 기원에 관한 논의 등도 물론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발굴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그다음 단계의 논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자료의 기초적인 관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 이 논문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천마총과 동아시아 고분문화'의 발표문 「천마총으로 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를 수정 · 가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4. 24 | **심사완료일** 2024. 5. 22 | **게재확정일** 2024. 6. 3

참고문헌

강봉원, 2004, 「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 관련성의 비관적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46.

강승규, 2019, 「창녕지역 횡구식 석곽의 축조 방법과 출현 배경」, 『한국고고학보』1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 Ⅷ-H · L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_____, 2019, 『천마총, 발굴조사의 기록』.

_____, 2021a,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의 기록』.

_____, 2021b,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 Ⅻ-H85 · 86호, L17 · 137호-』.

_____, 2023, 『경주 쪽샘 44호분 2023 발굴조사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6, 『慶州 金冠塚(遺構篇)』.

_____, 2020a, 『慶州 瑞鳳塚 1』.

_____, 2020b, 『慶州 瑞鳳塚 2』.

권용대, 2009, 「경주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복원 재고」, 『문화재』42(3).

김대환, 2016,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의 목곽부와 적석부의 성격」, 『고고학지』22.

_____, 2021, 「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의의」, 『신라문물연구』 14, 국립경주박물관.

김두철, 2009, 「積石木槨墓의 構造에 대한 批判」, 『古文化』73.

김용성, 2007, 「新羅積石封土墳의 地上式 埋葬主體施設 檢討」, 『韓國上古史學報』56.

_____,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_____, 2015, 『新羅古墳考古學의 探索』, 진인진.

김원룡, 1976, 『한국 문화의 기원』, 탐구당.

_____, 1986, 『韓國考古學槪說』(第三版), 一志社.

김택규 · 이은창, 1987, 「제9장 결론」, 『구암동 고분 발굴조사 보고』, 영남대학교박물관.

남익희, 2019, 「新羅土器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文化財管理局, 1973, 『天馬塚 略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74, 『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硏究所, 1985,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3,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

_____, 1994,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本文)』.

박형열, 2021a, 「4~6세기 신라 중심고분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b, 『古新羅 古墳群 硏究』, 학연문화사.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38-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경주 노서동 104(금관총) 일원 유적』.

심현철, 2013, 「신라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 『한국고고학보』88.

_____, 2018a, 「新羅 積石木槨墓의 墳形과 封墳設計原理」, 『韓國考古學報』109.

_____, 2018b, 「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문화재』51(4).

_____, 2020, 「新羅 積石木槨墓의 殉葬」, 『고고광장』26(26).

이성주, 1992, 「蔚山 中山里遺蹟 發掘을 通하여 본 新羅墓制의 起源」,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_____, 1996, 「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韓國考古學會.

이은석, 1998, 「신라 황남대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준, 1987, 「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Ⅰ-考古學篇』, 一志社.
_____, 1996, 「慶州 月城路 가-13號 積石木槨墓의 年代와 意義」, 『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정익재, 2017, 「쪽샘 H · L지구 구상유구 검토」, 『慶州쪽샘地區新羅古墳遺蹟Ⅷ』.
_____, 2020, 「문화재 발굴 조사 · 연구 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 『문화재』, 53(3).
朝鮮總督府, 1924, 『慶州金冠塚과 其遺寶 -本文上冊-』.
조수현, 2002, 「皇南大塚과 天馬塚의 區劃築造에 대하여」, 『嶺南考古學報』31.
최병현, 1992, 『新羅古墳硏究』, 一志社.
_____, 2015, 「신라 조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 『한국고고학보』95, 한국고고학회.
_____, 2016a,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 『숭실사학』37.
_____, 2016b, 「신라전기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전개」, 『문화재』49(3).
_____, 2016c, 「신라 적석목곽분 기원 연구의 방향」, 『중앙고고연구』21.
_____,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_____, 2024, 「경주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와 금척리고분군」, 『또 다른 신라 이야기, 금척 고분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종규, 2011, 「積石塚의 封, 槨, 殉」, 『考古學探究』9.
황상일 · 윤순옥, 2014, 「경주지역 적석목곽분 형성에 미친 자연환경의 영향」, 『한국지형학회지』 21(3).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360도 vr자료 https://vrnrich.kr/view-project/152

http://doi.org/10.20292/jcich.2024.44.35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Jung, Ik-Jae(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construction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and reconstruct their construction process. To do this, we have examined the existing reports and proposed revisions based on what we believe to be err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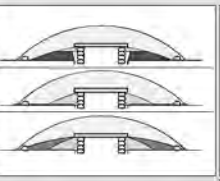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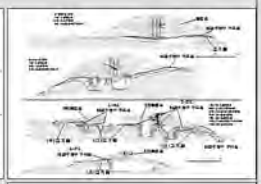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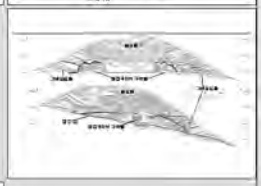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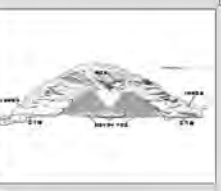
In the excavation report, the Cheonmachong tomb was described as a 1-chamber 1-coffin structure and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as a 2-chamber 1-coffin structure, which led some researchers to believe that the 3-chamber 1-coffin structure of the sou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was changed by the omission of the central chamber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wangnam-daechong tomb and the lowering of the chamber in the Cheonmachong tomb. On the other hand, later studies have begun to suggest that there may have been a central chamber in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and Cheonmachong. While I agree with the general framework, I have pointed out the weakness of the evid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tructure, and supplemented it by examining the excavation area and the depression of the Cheonmachong red lacquer stone.

In summary, I have shown that, first, the north mound of Hwangnam Daechong tombs and the Cheonmachong are a three-chamber, one-coffin structure with a central chamber; second, the height of the Cheonmachong's neckline can be

revised from 2.1 metres to 3.4 metres based on the excavation of the red lacquer stone. Third, the reconstructed construction process shows that the central chamber was built before the outer chamber, and the outer chamb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red stone part due to the grounding of the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fourth, through the comparison, the formality of the grounded red stone mausoleum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hat the plane size of the central chamber was very similar. Finally, fifthly, we confirmed the similarity of the floor plan of the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with that of the large under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of the early Silla period, Jjoksam L17, and provided clues to it.

Key words : Ancient tombs of Silla,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Hwangnam-daechong, Cheonmachong, structure

http://doi.org/10.20292/jcich.2024.44.75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유형과 함의

Types and Implications of Tumuli in the Eastern Middle Nakdong River Basin

박 현 정
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Ⅰ. 머리말

Ⅱ.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

Ⅲ. 대상 봉토분의 검토

Ⅳ. 축조기법의 유형과 함의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논문은 낙동강 중류역 이동지역에 위치한 6개소 고분군의 봉토분을 대상으로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을 통해 시공간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봉토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축조형태의 조합을 통한 유형분류는 그 설정이 무의미하였는데 이는 당시 다양한 축조기술이 담긴 문화적 웅덩이(culture pool)에서 상황에 맞춰 다양한 축조기술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성토단위 구성을 통한 유형분류는 3개의 유형으로 검토되었다. 그 결과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가 복개와 밀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가 복개와 밀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변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상은 친신라적 세력의 봉토분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발달이라기보다 계통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자는 재지적 성토공정이고, 후자는 경주 적석목곽분의 성토공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의 토목기술은 도제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릴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큰 폭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성토단위의 구성으로 살펴본 유형의 변화를 성토기술의 발달로 보기는 어렵지만 친신라적인 고분군은 5세기 중엽부터 적석목곽분과 유사한 성토층의 구성을 보이고, 다른 고분군의 경우는 고총 종말기에 적석목곽분과 유사한 성토층의 구성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성토공정의 변화 현상은 신라의 중앙집권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낙동강 중류역, 신라 봉토분, 축조기법의 유형, 성토단위

Ⅰ. 머리말

삼국시대 봉토분의 축조를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의 동원과 자재의 확보 그리고 당대의 첨단 토목기술이 기초되어야만 한다. 봉토분은 권력 과시의 기념물이자 당대 기술의 농축물로서 이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과거의 일면을 검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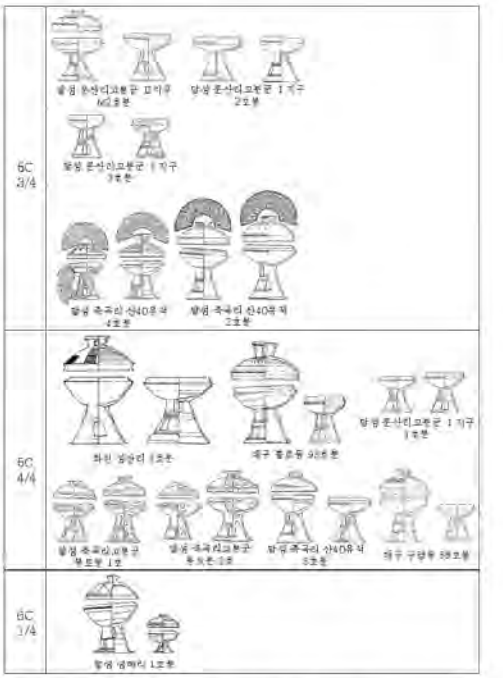


[도면 1] 대구의 고분군 분포와 검토 봉토분의 위치
(1. 달성 문산리고분군, 2. 달성 죽곡리고분군, 3. 화원 성산리고분군, 4. 대구 불로동고분군, 5. 대구 구암동고분군, 6. 달성 성하리고분군)

봉토분의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매장주체부와 유물의 수거에 집중을 하여 봉분자체에 대한 연구는 등한시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굴기술의 발달과 자료의 집적은 봉분자체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봉분자체에 관한 연구, 즉 봉토분의 축조와 관련된 연구는 조영현(1993, 2001, 2002a)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봉분 성토과정에 대한 고찰과 축조기법의 연구(井上主稅 2003; 박미정 2006; 조영현 2011; 류재극 2012; 신동조 외 2013; 조성원 2013), 기존 발굴조사 결과물의 미비점 검토와 조사방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박미정 2006; 홍보식 2013, 2016, 2018)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봉토분의 축조에 대한 시간적 · 공간적 분석도 행하여졌는데 대구 불로동고분군 91호분과 93호분의 검토를 통한 시간적 변화 연구(박미정 2009), 신라 적석목곽분과 가야 봉토분 축조기술의 상사점과 상이점에 관한 공간적 연구(최경규 2023), 매장주체부 위치와 봉토 구조의 유형분류를 통한 시간적 · 공간적연구(김강남 2012) 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봉토분의 축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단일 봉토분의 검토 내지는 동일 고분군 내에서의 비교 혹은 정치권역별 확인된 축조기술의 나열에 그쳤으며,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로 시 · 공간적 연구가 된 경우에도 그 유형 자체는 무의미하였다.

이 논문은 신라 지방의 봉토분이 각 지방의 관계망 속에 형성되었다는 관점(김용성 2014)을 바탕에 두고 봉토분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를 통해 시공간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논문의 공간적 연구범위는 낙동강 중류 이동으로 군위가 편입되기 이전의 대구광역시 권역(도면 1)에 해당된다. 비록 한정된 범위임에도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발굴조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신라지방고총 영조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발굴조사된 사례가 한정되기 때문에 검토된 봉토분의 축조시기 역시 조금 더 한정된다. 편년의 기준은 기존의 연구(김용성 2011; 정창희 2004)와 최근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도면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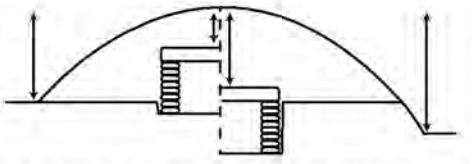
[도면 2] 검토 봉토분 편년(축척부동)

Ⅱ. 축조기법의 유형 설정

1. 축조형태에 따른 유형 설정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 속성은 대게 독립적이다. 유물이든 유구든 완성된 객체의 각 고유 속성이 분류되고 조합되어 형식 혹은 유형이 설정된다. 하지만 봉토분의 축조공정은 연속적이며 계기적이다. 축조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앞선 공정의 영향을 받아 적용되는 축조기술이 선택되고 그에 따른 축조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봉토분에서 드러나는 각 축조형태를 그 속성으로 하여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묘역선정은 봉토분의 성토에서 가장 선행되며 인공적 구조물의 성토는 해당 입지에 따라 향후 성토기술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에 입지를 능선부와 사면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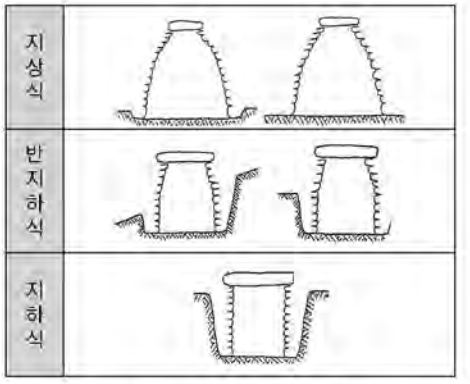


[도면 3] 매장주체부 수직위치 및 대상기법 적용여부에 따른 성토량과 높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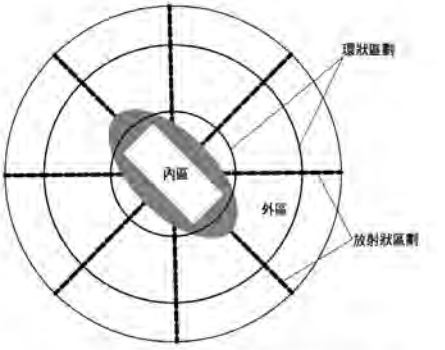
다음 공정인 정지는 그 형태에 따라 삭토, 삭토치환1(정지층이 두껍게 구축[1]되고 정지층이 다시 굴착되어 묘광이 마련된 경우), 삭토치환2(점성이 높은 점토를 이용해 달구질 등을 하여 원지반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단단하게 정지층이 조성된 경우)로 분류하였다.

주체부의 수직적 위치는 차후 공정에서의 성토량과 직결(도면 3)되기 때문에 봉토분의 규모 혹은 선 공정의 형태와 관련된다. 이 논문에서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는 지상식, 반지하식, 지하식으로 분류하였다(도면 4).

성토과정에서 내구(도면 5)를 이루는 주체부와 봉분 가장자리의 비고차(比高差)가 크다면 이후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복개와 밀봉 이전에 봉분 범위의 가장자리에 별도 공정을 거친 성토층을 기반성토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반성토층의 조성은 주체부의 수직적 위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형태적 속성에 포함시키고 기반성토층의 유 · 무로 분류하였다.



[도면 4] 매장주체부 수직위치(조영현 2002a 수정)



[도면 5] 구획성토의 봉토분의 평면용어(박현정 2017)

호석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봉분 가장자리의 성토시점에 따라 그 축조시점이 달라진다. 즉 호석의 축조는 기반성토층의 유 · 무에 따라 그 축조시점이

1) 정지층이 두껍게 구축되었다는 기준은 매장주체부 1/3이상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달라지고 여기에 더해 봉분의 완성 단계에 가장자리를 절토하고 호석이 축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호석의 축조시점을 봉분완성단계, 봉토층단계, 기반성토층단계로 분류하였다.

봉분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로 형성된 토제는 외구를 형성하는데 이는 봉분 중앙부 내구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유 · 무를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대상기법[2](도면 3)을 그 적용의 유 · 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상 봉토분의 축조공정을 묘역선정, 정지, 매장주체부 축조, 성토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공정에서 나타나는 축조형태를 속성으로 하여 그 조합을 통해 유형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축조공정별 축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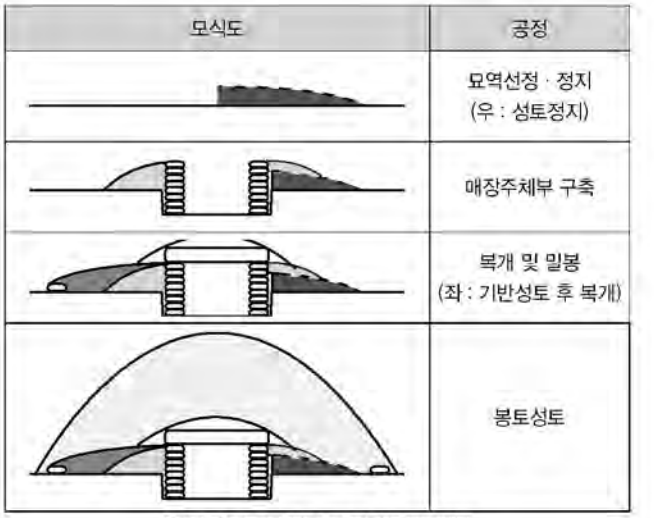
구분			축조형태		
축조공정	묘역선정		능선부		사면부
	정지		삭토	삭토치환1	삭토치환2
	매장주체부 축조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
	성토	기반성토층 조성	유		무
		호석축조 시점	봉분 완성	봉토층	기반성토층
		제상성토 적용	유		무
		대상기법 적용	유		무

2. 성토단위에 따른 유형 설정

봉토분은 흙이나 돌 등의 작은 분체물이 재료로 이용되어져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성토된 결과물이다. 봉토분의 성토방식, 즉 단위성토의 공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조영현 2002a: 15~18; 한옥민 2016: 24~25)에서 성토방식의 유형분류는 단위 성토층의 수평상 작업순서와 성토된 평단면의 형태에 따라 분류된 바 있다. 다만 공정과 기술이 혼용되어 유형분류의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였고 분류된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도출 역시 없었다.

2) 대상기법이란 봉분이 입지하는 경사면 아래쪽 일부가 삭토되어 능선의 경사면보다 더 가파르게 만듦으로써 원지형은 받침대와 같은 형상을 띄기 때문에 실제 봉분의 성토량보다 봉분이 더 높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48호분(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2022)으로 성토된 높이는 고분 전체 높이의 1/2이 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성토단위를 각 성토공정에 따라 정지층, 매장주체부 구축층, 기반성토층, 봉토층으로 구분(도면 6)하여 그 구성을 통한 유형을 검토할 것이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면 6] 봉토분 축조 모식도와 성토단위
(■ : 정지층, ■ : 매장주체부 구축층, ■ : 기반성토층, ■ : 봉토층)

정지층은 성토공정상의 첫 번째 성토단위이다. 묘역의 정지 공정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토목기술은 치환공법(대한토목학회 1996: 739)[3]으로 구지표 혹은 연약지반의 삭토와 치환이다. 고총고분 발굴조사보고서에서 구지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홍보식 2013: 60~61) 역시 이에 근거한다. 교란된 구지표에 대한 치환공정 없이 봉토분이 축조된다면 압밀현상에 이은 부등침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지표나 연약지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 결국 묘역의 정지층은 드러난 단단한 원지반면이 그대로 이용[4]되거나 점토가 이용되어 기반이 다져진 형태로 나타난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가 반지하식 혹은 지상식일 경우 묘광 굴착시의 반출토가 이용된 제상성토층 및 벽석 이면의 구축층이 포함되어 묘광 상위에서 매장주체부가 조성되기 위해 성토된 층을 지칭한다.

기반성토층은 반지하식 이상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될 시 복개와 밀봉 이전에 매장주체부 구축층과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성토되어 수평면을 형성하는 층에 해당된다.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토층은 수직적으로는 같은 높이이며, 평면적으로는 봉분 내 내구(內區 매장주체부 구축층)와 외구(外區 기반성토층)로 구분된다(도면 5).

---

3) 치환공법(置換工法, replacement method)이란 연약지반 및 동상의 염려가 있는 지반의 지지력 및 내구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재래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공법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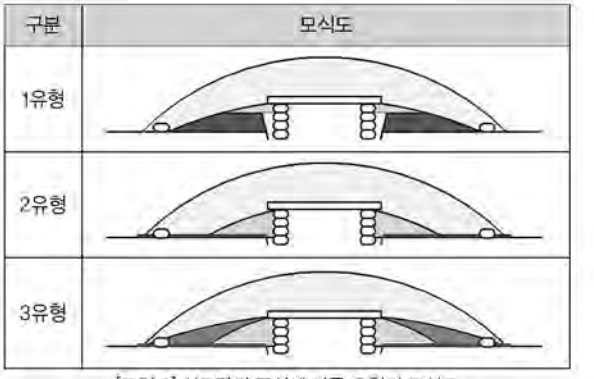
4) 정지층이 성토층 내의 분류라는 점에서 원지반의 삭토 자체는 성토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정지공정이라는 큰 틀에서 정지층의 한 종류로 정의되었다.

이상의 성토공정까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최경규 2023: 48)에서 하부봉토부로 표현된 바 있다.

봉토층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후 개석이나 천장석 상위에서 성토된 층이다. 봉토 아래쪽의 성토층이 봉분의 수평적 범위를 결정짓는 층이라면 봉토층은 봉분의 가시성에 목적을 두고 봉분의 수직적 규모를 결정짓는 층이라 할 수 있다.

봉토분의 성토는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완성되며 앞에서 언급되었듯 각 성토공정을 통한 성토층은 정지층, 매장주체부 구축층, 기반성토층, 봉토층으로 구분된다. 다만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 봉토분 가장자리의 성토는 봉토분마다 공정단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 성토단위의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봉토분의 가장자리 성토에 대한 공정단계 및 성토단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검토하고자 한다.

1유형은 묘역의 가장자리까지 성토정지가 된 후 매장주체부가 구축되고 복개와 밀봉 후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 2유형은 묘역의 정지 후 매장주체부가 구축되고 복개 및 밀봉 후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 3유형은 묘역의 정지와 매장주체부의 구축 이후 봉분의 가장자리가 매장주체부 높이에 맞춰 성토되고 복개와 밀봉 그리고 봉토층이 성토된 봉토분이 해당된다(도면 7).



[도면 7] 성토단위 구성에 따른 유형의 모식도
(■ : 정지층, ■ : 매장주체부 구축층, ■ : 기반성토층, ■ : 봉토층)

Ⅲ. 대상 봉토분의 검토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6개소 고분군에서 검토된 봉토분은 다음과 같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에서는 유존하고 있던 총 6기의 봉토분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그 중 봉분의 유존상태가 좋은 문산 I 지구 1호분, 2호분, 3호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a · b), 문산 II 지구 M2호분(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등 총 4기가 검토되었다. 달성

죽곡리고분군은 달성 죽곡리고분군 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 Ⅱ로 구분되는데, 달성 죽곡리고분군 Ⅰ에서는 1기의 봉토분이 조사된 바 있고, 달성 죽곡리고분군 Ⅱ에서는 총 6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그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 Ⅰ의 발굴 봉토분은 봉분 조사내용이 소략하기 때문에 달성 죽곡리고분군 유적의 봉토분 1호와 2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달성 죽곡리 산40유적의 2호분, 3호분, 4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등 총 5기가 검토되었다. 화원 성산리 고분군에서 봉토분이 조사된 사례는 화원 성산리 1호분(경북대학교박물관 2003)이 유일하다. 대구 불로동고분군에서는 1938년 현 18호분과 22호분이 발굴되었고, 1964년 갑 · 을호분이 조사되었으며, 2002년 대구 불로동 91호분과 93호분이 조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근래 발굴된 봉토분 중 소형분이 증축되어 이루어진 대구 불로동 91호분은 제외되었고, 대구 불로동 93호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c)만이 검토되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에서는 1 · 5 · 56 · 58 · 304호분이 조사되었는데, 1호분은 소형분이 증축된 경우이고, 5호분과 304호분은 아직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으며, 56호분은 봉분 조사내용이 소략하기 때문에 대구 구암동 58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22b)만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달성 성하리고분군에서는 달성 성하리 1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5)이 검토되었다.

1. 축조형태 조합의 유형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토분은 축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정지의 형태, 매장주체부의 수직위치, 기반성토층의 조성유무, 호석의 축조시점, 제상성토의 적용여부, 대상기법의 적용여부 등의 형태적 속성은 유물의 그것과는 달리 유구, 즉 봉토분의 축조공정상의 순서를 반영하여 계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각 봉토분의 축조과정상에 드러나는 축조형태는 다음의 [표 2]로 확인되며, 이 논문의 편년 기준에 맞춰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축조형태의 조합을 통한 유형설정은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검토된 13기의 봉토분 중 완전히 같은 형태로 축조되는 예도 없다. 즉 봉토분의 축조에 있어 묘택 선정과 매장주체부의 축조 그리고 성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조형태는 축조기법의 유형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표 2] 낙동강 중류유역 봉토분의 축조방식

축조형태 / 유 구	입지	정지	주체부 수직위치	기반성토	호석축조	제상성토	대상기법
문산 I 지구 1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무	무
문산 I 지구 2호	사면	삭토치환1	반지하	무	봉토	무	무
문산 I 지구 3호	능선	삭토치환1	반지하	무	봉분완성	무	무
문산 II 지구 M2호	사면	삭토치환1	지하+반지하	무	봉분완성	무	무
죽곡리 봉토분 1호	사면	삭토치환1	반지하	유	기반성토	무	무
죽곡리 봉토분 2호	사면	삭토치환2	반지하	유	기반성토	무	무
죽곡리 산40 2호	사면	삭토	지상	유	기반성토	무	유
죽곡리 산40 3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유	유
죽곡리 산40 4호	능선	삭토치환2	지상	유	기반성토	유	무
성산리 1호	능선	삭토치환2	반지하	무	봉토	유	무
불로동 93호	능선	삭토	반지하	무	봉토	유	유
구암동 58호	사면	?	지상?	유	기반성토	유	무
성하리 1호	능선	삭토치환2	반지하	유	기반성토	유	무

[표 3] 시기별 봉토분 축조형태

시기	축조 형태 / 유구	입지		정지			주체부 수직위치			기반 성토		제상 성토		호석 축조			대상 기법	
		능선	사면	삭토	치환 1	치환 2	지하	반지하	지상	무	유	무	유	봉분 완성	봉토	기반 성토	무	유
5C 3/4	문산 II 지구 M2호		●		●		●	●		●		●		●			●	
	문산 I 지구 2호		●		●			●		●		●			●		●	
	문산 I 지구 3호	●			●			●		●		●		●			●	
	죽곡리 산40 4호	●				●			●		●		●			●	●	
	죽곡리 산40 2호		●	●					●		●	●				●		●
5C 4/4	성산리 1호	●				●		●		●			●		●		●	
	불로동 93호	●		●				●		●			●		●			●
	문산 I 지구 1호	●				●			●		●	●				●	●	
	죽곡리 봉토분 1호		●		●			●			●	●				●	●	
	죽곡리 봉토분 2호		●			●		●			●	●				●	●	
	죽곡리 산40 3호	●				●			●		●		●			●		●
	구암동 58호		●						●		●		●			●	●	
6C 1/4	성하리 1호	●				●		●			●		●			●	●	

형태적 속성이 지역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층의 형태 중 삭토치환1은 달성 문산리고분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자료를 통한 검토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석곽묘가 만들어지기 전 정지층이 두껍게 성토되고, 이가 다시 굴착되는 기법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축조집단만의 특징적 축조기술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봉토분이 완성된 이후 봉분의 가장자리가 재굴착되고 호석이 축조된 경우는 5세기 3/4분기 이른 시점에 달성 문산리고분군(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3호분,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2호분)에서만 확인되었다. 이 또한 지역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같은 단계인 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2호분은 봉토층 성토단계에 호석이 축조됨이 밝혀져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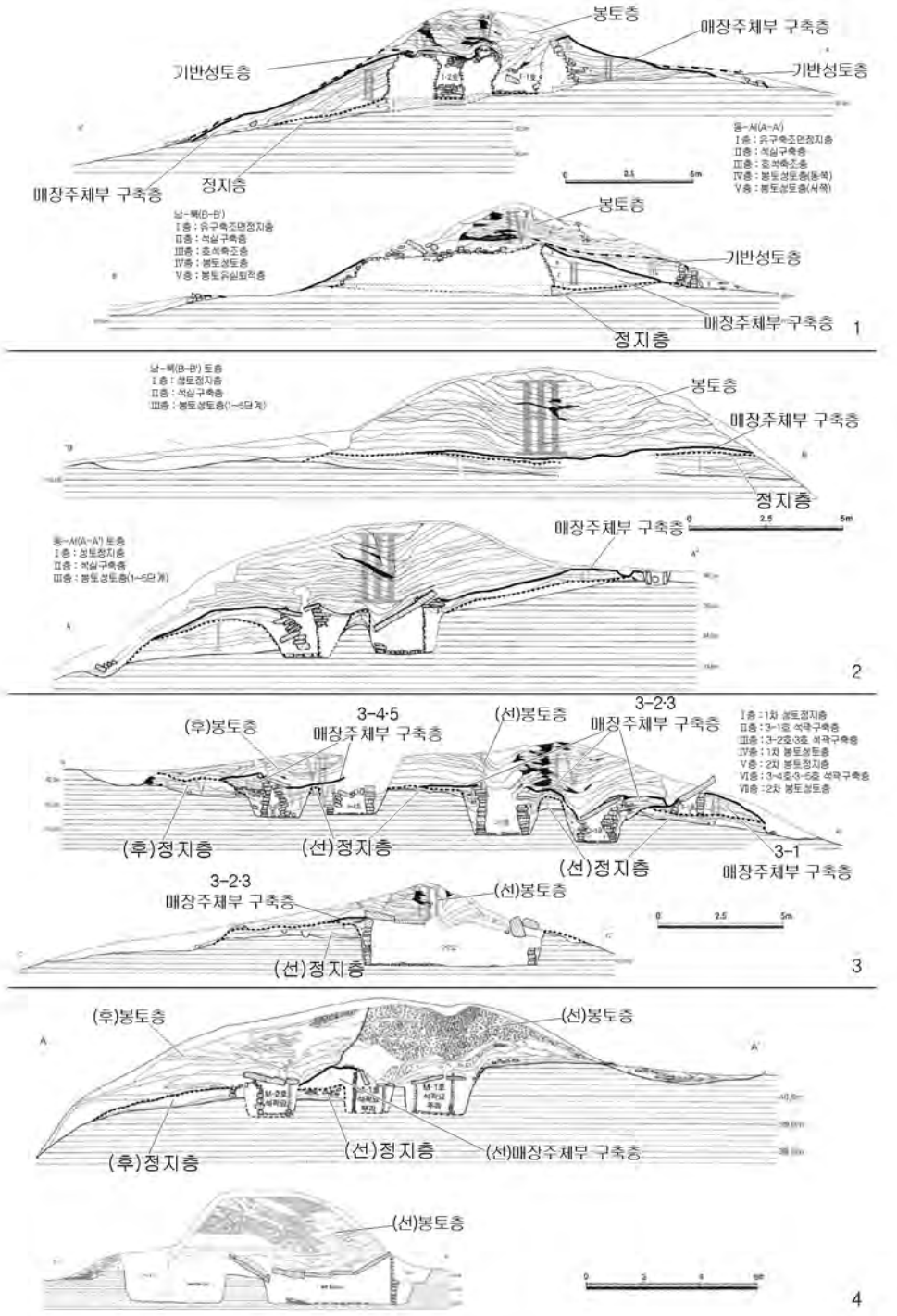
2.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 분석

1)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1호분은 성토된 정지층 위쪽에 지상식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를 정도로 성토되었다. 이후 기획된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고 이와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1).

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2호분은 성토된 정지층이 굴착되어 반지하식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성토정지층의 범위 가장자리까지 성토되거나 경사위쪽은 좁은 범위로 성토되었다. 복개와 밀봉 이후 정지층 가장자리가 깎여 봉분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호석과 함께 봉토층이 조성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2).

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3호분은 선축분(3-1 · 2 · 3곽)의 경사 위쪽에 후축분(3-4 · 5곽)이 연접되었다. 성토정지층에 지상식의 3-1곽이 축조된 후 반지하식의 주부곽인 3-2곽과 3곽이 축조되었고 주위로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성토되었다. 선축분 전방에 치우친 3-1곽의 구축층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르며, 반지하식인 3-2곽과 3곽이 축조되면서 성토된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정지층과 석곽의 높이에 맞춰 봉분 중앙부에 성토되었다. 복개와 밀봉 후에 봉토층이 성토되었고, 이를 다시 깎아낸 후 호석이 축조되었다. 후축분의 성토단위 구성은 선축분과 동일하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3).



[도면 8] 달성 문산리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2호분은 선축분(2-1-주 · 부곽)의 경사 아래쪽에 후축분(2-2곽)이 조성되었다. 구지표의 삭토 이후 경사 아래만 성토되어 정지층이 조성되었다. 정지면에 묘광이 마련되어 선축분의 주곽과 부곽이 축조되었는데 주곽은 지하식에 가깝기 때문에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조성되지 않았고, 경사 아래쪽에 위치한 부곽은 주곽 묘광의 경사위쪽 어깨높이까지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조성되었다. 복개와 밀봉 후에 봉토층이 성토되었고 이를 다시 깎아낸 후 호석이 축조[5]되었다. 선축분의 절개 이후 후축분이 조성되었는데 후축분의 묘광은 선축분의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봉토층을 어깨면으로 한다. 보고서 토층도에서는 선축분 호석 바깥의 성토층이 길게 뻗은 채 선축분의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축조공정과 선축분의 규모를 고려하면 선축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축분 절개과정에서 호석이 드러났고 수직상으로는 호석의 높이, 수평상으로는 후축분의 분역(墳域)에 맞춰 정지층이 성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축분의 매장주체부는 원지반을 기준으로 반지하식에 해당되나 묘광 어깨면을 기준으로하면 경사위쪽은 지하식에 해당되어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사 아래쪽 일부는 매장주체부 구축층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에 해당된다(도면 8-4).

2)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호는 분역이 결정 된 후 전체적으로 정지층이 성토되었다. 이후 반지하식 석곽이 축조되고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정지층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성토층이 조성[6]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이후 성토층의 구분이 불확실하다. 발굴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면 9-1]과 같이 나뉘는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1유형 혹은 3유형에 해당된다.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2호는 구지표의 삭토와 보토로 정지층이 마련되었다. 지상식에 가까운 주곽이 조성될 때 매장주체부 구축층 가장자리에 내호석이 조성된

---

5) 발굴자는 선축분의 봉분축조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에서 호석이 축조되어 묘역범위가 확정된 후 매장주체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발굴보고서에서의 어떠한 도면과 사진에서도 호석과 매장주체부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후축분의 축조와 도굴로 인해 토층도의 층위 역시 끊긴 경우가 많았다. 다만 선축분 경사 아래쪽 호석은 후축분의 매장주체부로 인해 토층이 이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B-B′ 토층에서는 'L'자형의 굴착후 호석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 고분군 내 달성 문산리 Ⅰ지구 3호분과 비슷한 축조공정을 고려하면 봉분 완성 후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호석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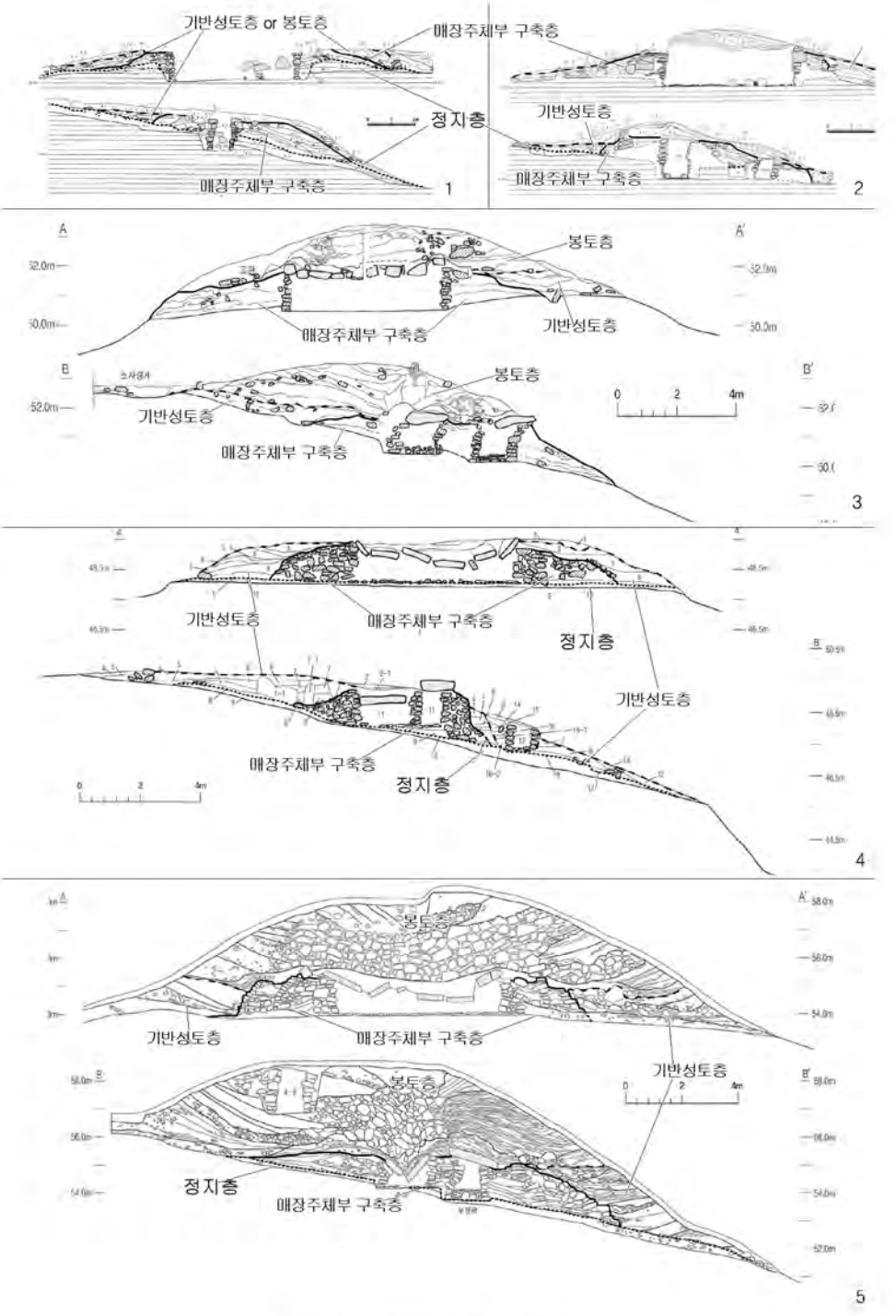
6) 밀봉 이후 호석이 축조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밀봉층과 호석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것이 특징이며, 이 내호석의 외면에 붙어 부곽이 조성되었다. 내호석을 기준으로 석곽의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존재한다. 봉분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면서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된 후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졌다. 봉토층은 유실된 상태이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2).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2호분의 정지층은 삭토된 원지반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지상식 석곽이 축조되면서 매장주체부 구축층이 봉분의 가장자리에 이를 정도로 넓게 성토되었으나 경사 위쪽은 그 범위가 좁다. 경사 위쪽의 봉분 가장자리에 호석과 함께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고, 경사 아래쪽은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복개와 밀봉 이후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3).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3호분은 선축분(3-1 주 · 부장곽)의 경사 아래쪽에 후축분(3-2)이 축조되면서 봉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선축분의 정지층은 삭토 이후 점토가 얇게 성토되어 마련되었다. 지상식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는데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범위는 넓지 않고 봉분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발굴자는 정지층 바로 위층(도면 9-4 9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9층과 10층의 토질과 토색은 유사하며 호석에서 구획요소가 확인되었다. 정지층 바로 위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본다면 호석의 축조시점이 A-A′ 토층과 B-B′ 토층의 공정 순서가 서로 다르게 된다. 또한 A-A′ 토층에서는 구획렬의 단면이 확인되는데 일정 경사를 보이며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이다. 이는 선축된 성토물의 경사를 따라 구획렬이 축조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황을 정리하면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적석부와 그 주변 일부로 한정되며 9층은 나뉘어야된다. 또한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상위층은 밀봉 이전의 성토층이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으로 보고 호석의 축조시점은 구획이 확인되는 기반성토층과 같이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축분을 기준으로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4호분은 선축분(4-1 주 · 부장곽)의 경사 위쪽에 후축분(4-2)이 축조되면서 봉분이 확대된 형태이다. 정지면에 묘광을 얕게 파고 지상식의 매장주체부가 구축되었는데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A-A′ 토층의 북쪽에서는 정지토가 주곽의 하부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실측되었고, B-B′ 토층에서는 정지를 한 후 묘광을 판 것으로 실측되어 그 선후관계에 모순이 있다. 즉 A-A′ 토층의 정지층은 B-B′ 토층의 정지층과 같은 공정의 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발굴보고서에서 A-A′ 토층의 남쪽에서 정지층으로 실측된 토층은 반구상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는 묘광을 얕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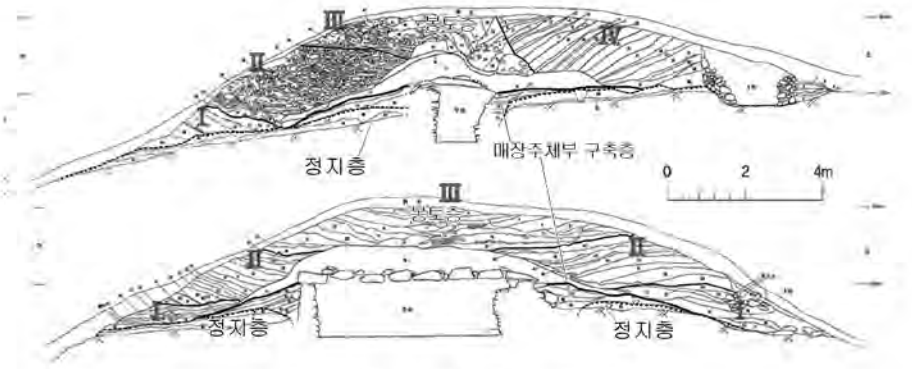


[도면 9] 달성 죽곡리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굴착하며 나온 반출토를 토제(土堤)와 같은 모습으로 쌓은 성토부의 단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A-A′ 토층의 북쪽 정지층은 정지층이 아니며 정지층이 있었더라도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아래에서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와 연계하여 발굴보고서 내 A-A′ 토층의 정지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보더라도 매장주체부의 이면(裏面)에서부터 북쪽가장자리까지 이어져 호석이 축조되는데 이것 역시 다른 면의 공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A′ 토층의 북쪽 정지층은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토층으로 나누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지층이 얕게 굴착된 후 지상식의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는데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이룬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동시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었다. 이후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지고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9-5).

3) 화원 성산리고분군의 성토단위

화원 성산리 1호분의 경우 발굴보고서 내 첨부된 분구축조방법에 대한 연구(井上主税 2003)와 이를 재검토한 연구(조영현 2011)가 있다. 화원 성산리 1호분의 분구축조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탄면의 형성지점을 근거로 성토층을 Ⅰ에서 Ⅳ층까지 나누었는데(井上主税 2003: 406~411), 이 논문의 기준에서 모두 봉토층에 해당된다. 이를 재검토한 연구에서는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아래쪽의 평탄화 없이 복개와 밀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밀봉층과 가장자리 성토층의 순서에 의문을 표하였다. 그리고 성토Ⅳ층의 하사향성토는 단면을 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성토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성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Ⅳ층이 최후에 성토된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반론하며 구획성토 및 동시 성토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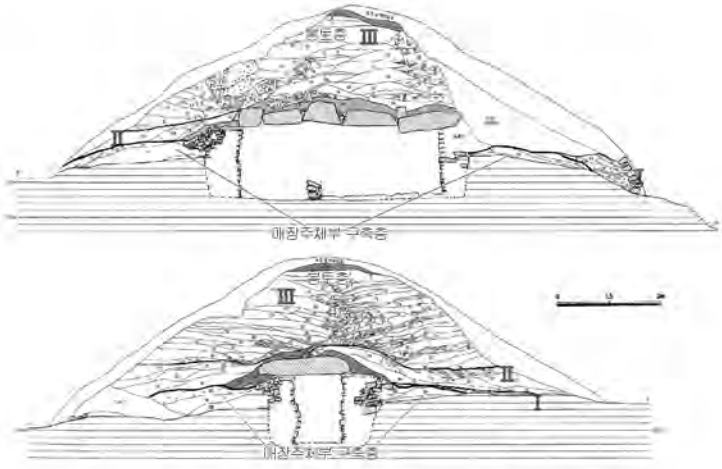


[도면 10] 화원 성산리 1호분 성토단위 구성

영현 2011: 379~392). 하지만 상사향이나 하사향으로 교호성토 되었을 때 작업방향과 수직으로 단면을 자르면 수평성토로 관찰될 것이며, 성토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고 그 방향은 선축된 성토단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원 성산리 1호분 역시 하사향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동-서 토층도의 서쪽 성토 I 단계에는 단면 삼각형의 제상성토가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조영현 2011: 379~380)의 지적대로 토제와 같은 모습의 기반성토층을 먼저 만들어 경사 아래(서쪽)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 후 밀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봉분의 가장자리에 토제와 같은 모습의 성토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동-서 토층도의 서쪽 성토 I 층을 기반성토층으로 볼 수 있고 동쪽의 34층과 35층을 토제로 본다면 성토 Ⅳ층의 33층을 토제와 밀봉사이를 채운 흙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 둑 역시 밀봉층과의 선후관계가 불명확한 봉분 가장자리의 토층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상태이다. 다만 화원 성산리고분군 내 다른 봉토분의 조사 사례가 없고 가장자리가 토제상이라 해도 중간을 채운 층이 밀봉층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굴자의 의견에 따라 기반성토층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2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0).

4) 대구 불로동고분군의 성토단위

대구 불로동 93호분의 정지층은 구지표가 삭토되어 마련되었다. 이후 반지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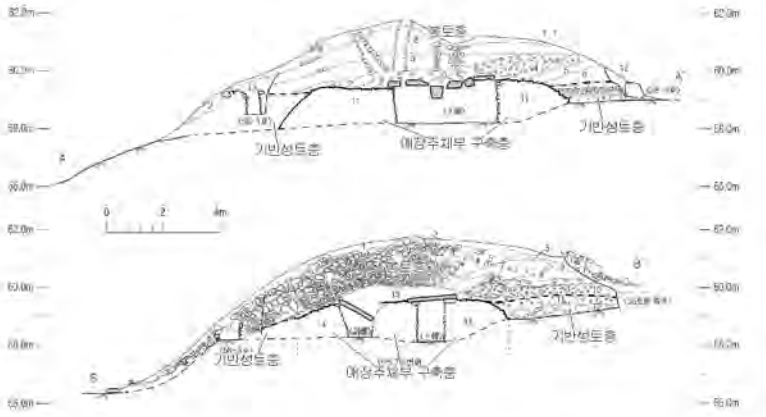


[도면 11] 대구 불로동 93호분 성토단위 구성

석곽이 축조되었으며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곳에 따라 봉분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넓게 성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매장주체부의 구축 이후 3단계의 성토를 거치는데 이 논문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봉토층에 해당된다. B-B′ 토층에서 성토 I 단계가 얇게 확인되고, A-A′ 토층의 경사 아래와 B-B′ 토층의 우측에서는 도굴로 인해 토층이 교란되어 상부토층과 연결되지 않는다. B-B′ 토층의 좌측에서는 성토 I 단계가 없어 밀봉층과의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호석을 기준으로 B-B′ 토층 좌측 호석의 탈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매장주체부 구축층(발굴보고서 73층)이 호석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A-A′ 토층의 경사 아래, 도굴구 아래 호석과 연결된 토층이 매장주체부 구축층(발굴보고서 90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A′ 토층의 경사 위쪽 성토 I 단계는 밀봉층에 후행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2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1).

5)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성토단위

대구 구암동 58호분의 경우 정확한 정지 양상은 알 수 없다. 발굴자는 매장주체부의 벽체 배후 공간에서 묘광을 보강한 구조물인 묘역구축부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이가 매장주체부 구축층에 해당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매장주체부 축조 이후 하층성토[7]부와 상층성토부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는데 하층성토부는 이 논문에서의 기



[도면 12] 대구 구암동 58호분 성토단위 구성

7) 구암동고분군의 경우 축성재가 석재 위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봉토분이 아닌 봉석분 혹은 적석분이 되고 성토라는 단어 자체에 어폐가 있다. 다만 신라 지방 고총의 체계 하의 결과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성토, 성토층, 봉토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반성토층에 해당되며 상층성토부는 이 논문에서의 봉토층에 해당된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2).

한편 대구 구암동 56호분은 매장주체부와 봉분가장자리와의 석재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토층도에서 관찰되는데 이가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기반성토층의 경계로 판단된다. 대구 구암동 56호분의 매장주체부와 호석을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본 기존의 발굴보고서와 관련 연구(김강남 2012)도 있지만 재발굴된 발굴보고서(대동문화재연구원 2021)에서도 이를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대구 구암동 5호분의 경우 약보고(대동문화재연구원 2022a)된 내용에 따르면 경사면이 정지된 후 마련된 묘역에 호석과 함께 매장주체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대구 구암동 5호분의 경우 봉분의 조사가 석곽의 어깨면 높이까지만 진행된 상태, 즉 밀봉층 상위의 봉토층까지만 조사된 상태로 호석과 매장주체부 축조의 선후관계 및 매장주체부 구축층의 범위 역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구 구암동 5호분의 조사에서는 구획석렬이 14개소 확인되었는데 호석의 면석에서도 열이 틀어지거나 줄눈의 수가 관찰되는 등 구획석렬과 이어지는 구획요소가 관찰된다(사진 1).



[사진 1] 대구 구암동 5호분 조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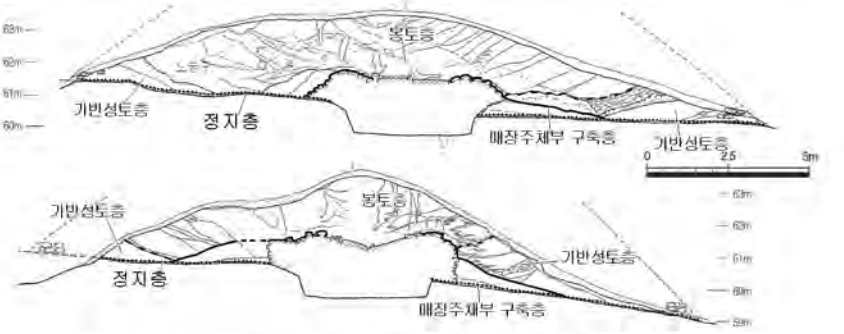
앞선 연구(김강남 2012)에서 호석이 매장주체부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는 C-4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대구 구암동 56호분과 횡혈식 석실분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를 호석의 기능변화로 보고 대구 구암동 56호분은 이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낙동강 이동지역 봉토분에서 확인된 호석의 축조시점은 봉분이 완성되고 봉분 가장자리가 깎인 후 축조된 경우와 봉토층의 조성시 축조된 경우 그리고 기반성토층의 조성시 축조된 경우로만 나뉘었다.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2호의 경우 석곽과 함께 호석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내호석이자 내구의 구획으로 볼 수 있으며 봉분 가장자리 호석과는 다른 경우이다.

여기에 더해 방사상구획성토는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효율에 기초한 구획으로 나뉘며, 수직공정의 단위가 달라질 때 방사상구획이 새롭게 이루어져 구획렬이 합쳐지거나 틀어질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

상구획은 기반성토층과 봉토층에서만 확인되고 있다(박현정 2017: 86~91, 2023b: 850). 대구 구암동 5호분의 호석에서 구획요소가 관찰된다는 점은 호석의 뒤쪽으로 연결되는 성토층이 구획성토되었음을 뜻하며, 호석과 이어지는 성토층을 기반성토층 혹은 봉토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발굴조사가 밀봉층 제거 이후 석곽 내부조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구 구암동 5호분의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6) 달성 성하리고분군의 성토단위

달성 성하리 1호분의 경우 구지표가 삭토되고 점토가 이용되어 정지층이 성토되었다. 그리고 반지하식의 횡구식석곽이 축조되었으며 매장주체부 구축층은 봉분의 중앙에서 내구를 형성한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축조되며 기반성토층이 동시에 성토되었다. 이후 석곽의 천장이 설치되고 입구부를 제외한 상부가 밀봉되었으며 봉토층이 성토되었다.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은 3유형에 해당된다(도면 13).



[도면 13] 달성 성하리 1호분 성토단위 구성

Ⅳ. 축조기법의 유형과 함의

1. 축조형태의 다양성과 상관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 축조형태의 조합[8]을 통한 유형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경

8) 한편 이 논문은 한정적 검토사례 및 고분군 내 대표성의 문제와 아울러 봉토분의 규모에 따른 축조기법의 조합양상이 언급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다만 봉토분의 규모는 검토된 봉토분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 · 2호를

우의 수로 나타나고 검토한 13기의 봉토분 중 같은 형태로 축조된 경우도 없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축조형태 자체는 전후 공정에 따라 상관관계를 가지는가에 의문이 들며, 실제 각각의 축조형태는 전 · 후 공정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 내에서 서로 사이에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선행 공정의 형태가 후행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정지공정으로 삭토치환1로 정지를 할 경우 이미 봉분 가장자리를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성토층의 조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9] 또한 삭토치환1의 경우 제상성토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성토정지를 통해 평탄면이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 성토부는 선축된 성토물을 따라 대개 수평성토 되는데 내구가 형성된 경우 내구를 따라 상사향의 성토가 이루어지거나 가장자리에서 제상성토가 적용된 경우 하사향의 성토가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이는 봉토분에서 성토의 방향성은 선축된 성토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성토의 용이성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봉분 가장자리의 제상성토는 특정 성토기술이라기보다는 성토의 용이성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축조공정 상의 기술과 그에 따라 정해진 형태를 통한 유형의 분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봉토분 혹은 고총보다 규모가 큰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 봉토분의 축조는 당대 토목기술 중 일부를 상황에 맞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부적인 유형 분류 및 시 · 공간적 변화상을 파악하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삭토치환1로 분류된 성토정지가 달성 문산리고분에서만 확인되는 것처럼 축조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지역성은 봉토분 축조 초기에 선축된 타지역 봉토분의 외관만 보고 이를 모방하여 당시 집단 내에서 공유하던 토목기술을 이용한 까닭으로 볼 수 있으며 봉토분 축조에 있어 축조기술의 적용에 대한 정형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외한 나머지 봉토분이 흔히 지방 고총이라 할 수 있는 봉토분으로 그 규모가 대동소이한 상태이다. 또한 고분군 마다 그 발굴사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분군 내 각 봉토분의 비교에 있어 봉분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9) 화원 성산리 1호분과 대구 불로동 93호분은 성토정지(삭토치환1)가 없는 상태이며 가장자리에 기반성토층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원 성산리 1호분에 대해서는 밀봉 이전의 성토층, 즉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반성토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조영현 2011 : 379~380)도 있다.

2.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과 전개

앞에서 봉토분의 성토단위 구성에 따른 유형을 3개로 나누고 검토대상 봉토분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를 [도면 2]의 편년에 맞춰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검토된 사례가 한정적이고 해당 고분군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봉토분인가 하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으로 보았을 때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1유형이 주를 이루고, 화원 성산리고분군과 대구 불로동고분군에서는 2유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달성 죽곡리고분군과 대구 구암동고분군에서 3유형이 주를 이루며 달성 성하리고분군에서도 3유형이 확인되었다.

한편 대구지역의 고분군 중 봉토분의 조사 사례는 특히 서북부의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에 집중된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4호분과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1호분을 포함한 중·대형 봉토분 전량이 조사된 상태이다. 달성 죽곡리고분군 역시 이 논문에서 다루는 5기를 포함해 총 7기의 봉토분이 조사된 바 있다. 기존의 연구(김용성 2011; 윤천수 2008; 정창희 2004)에서는 달성 문산리 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을 묶어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여기에 화원 성산리고분군을 같은 토기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경우가 많다. 그 출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본 달성 문산리고분군 축조집단과 달성 죽곡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성장을 신라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석하고, 고총이 일찍 소멸된 이유를 신라의 낙동강 진출 완료와 지방지배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이에 조사 사례가 많은 대구 서북부지역의 봉토

[표 4] 낙동강 중류역 봉토분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 변화

고분군	달성 문산리 고분군			달성 죽곡리 고분군			화원 성산리 고분군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구암동 고분군			달성 성하리 고분군		
유형 / 시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5C 3/4	● ●														□			
	●																	
						● ●												
5C 4/4			●	△		△ ● ●		● ●			● ●				□ ●			
6C 1/4																		●

분 성토를 우선 비교한 후 대구지역 내 다른 세력의 봉토분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머리말에서 제시한 편년과 비교하면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이 1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되며,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경우는 3유형이 유지된다. 대구 서북부의 조사된 봉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봉토분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달성 문산리고분군 Ⅱ지구 M1호분인데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봉토분은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봉토분은 대다수가 아직 미발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조영집단이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조영집단보다 먼저 고총급의 봉토분을 축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가장 늦은 단계에 접어들어 3유형(달성 문산리고분군 Ⅰ지구 1호분)의 봉토분이 조성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하나의 세력권으로 상정되었는데 반해,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에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성(2011: 177~184)의 연구에서는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부곽에 1인 씩 도합 2인 정도가 순장되는데 반해, 달성 죽곡리고분군에서는 그 이상의 순장양상이 관찰되고 금동제합이 출토되는 등의 정황으로 달성 죽곡리고분군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 연구 이후 조사된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3호분의 선축분 주곽에는 양단벽부에 이식이 출토되어 2인 이상의 순장가능성이 암시된다. 또한 경식이 주곽 북동장벽의 중앙 아래에서 출토되었는데 곽 내 공간과 대구 서북부 고분군의 피장자 두향이 고려되면 경식의 주인 역시 피장자의 발치 우측편 순장자일 가능성이 있다. 즉 봉토분의 규모와 순장자의 수에서 고총 축조기 후반으로 갈수록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축조집단보다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상위에 위치한다.

성토단위의 구성, 즉 성토공정의 차이 자체가 선진기술의 수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구 서북부 고분군 축조집단이 신라에 의해 의도적으로 키워진 성장 세력이라면 봉토분의 성토공정 역시 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 경주 적석목곽분과의 비교 및 성토단위 구성의 함의

신라 지방에서 수혈식 석곽을 주체부로 둔 고총의 출현을 적석목곽묘와 연관(김용성 2014)시키듯 신라 지방의 고총 자체는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

는데 마립간기 고총이라는 개념 아래 지상적석식의 적석목곽분 중 토층도가 비교적 상세한 천마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천마총의 경우 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석과 하부봉토가 동시에 축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발굴자는 적석과 봉토의 접착면에 점토가 없고 적석의 외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동시에 쌓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후의 연구(최병현 2016: 66)에서 다시 언급한 바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에 동조하는 연구(조영현 2002b: 103)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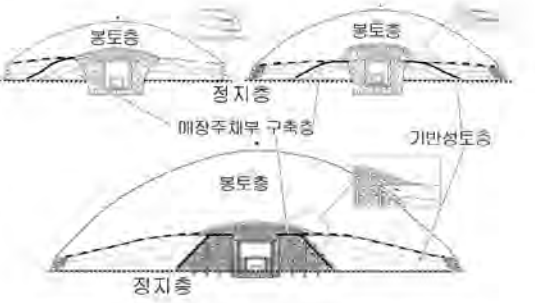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수직상으로는 동일공정으로 볼 수 있지만 수평상으로는 선후가 있는 것으로 봐야만 한다. 천마총은 성토재가 내사향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러한 분체물의 방향성은 선축된 구조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서 제상성토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또한 서쪽의 적석부에 기대어 올라가는 석렬은 구획렬의 단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석부가 먼저 축조되고 호석과 봉분의 하단이 축조되었음을 뜻한다(도면 14). 다만 적석목곽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목곽 측면에서 적석이 일정 높이까지 진행된 뒤 호석과 하반부의 봉토를 쌓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합리적인 축조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를 내구와 외구의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목곽의 측면부적석을 내구로 볼 수 있는데 적석부 자체가 목곽을 지탱하고 고대한 봉분을 쌓기 위한 내부구조로서 존재한다는 연구(심현철 2013: 113) 및 목곽부와 적석부를 구분해왔는데 이를 하나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김대환 2016: 105)와 같은 시각에서 측면부적석을 매장주체부 구축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부적석과 밀봉 이전 하관을 위해서라도 봉분가장자리를 호석과 함께 높여야만 하는데 이를 외구이자 기반성토층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적석목곽분의 구조와 축조공정을 분류한 연구(심현철 2013:



[도면 14] 천마총의 성토단위 구성

91~108)를 이 논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상기된 연구에서 적석목곽분의 유형이 A~D류로 나뉘는데 그 중 B, C, D류를 상위계층의 적석목곽분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중 지방 고총의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C, D류이다. B~D류 적석목곽분의 성토층은 호석이 포함된 1차 봉토층과 밀봉 다음 단계의 2차 봉토층으로 나뉘었는데 세분되지 않은 1차 봉토층을 본 논문의 기준에 맞추면 B류 일부와 C류의 경우 매장주체부의 축조 선후에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봉분 중앙에서 목곽 축조를 위해 성토된 층을 매장주체부 구축층으로 볼 수 있고 봉분 가장자리에서 목곽 어깨면까지 성토된 층을 기반성토층으로 볼 수 있다. D류는 지상적석식 목곽분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적석목곽분의 성토단위를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의 3유형과 유사하다(도면 15).



[도면 15] 적석목곽분 성토단위 구성(심현철 2013 일부 수정)

다시 대구 서북부지역으로 돌아와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 중 봉토분의 규모와 순장자의 수에서 우위를 보이는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축조집단이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축조집단보다 신라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봉토분의 축조기법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1유형은 재지적 성토공정,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3유형은 신라 중심세력의 영향을 받은 성토공정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장주체부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는데 달성 문산리고분군과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경우 서로 묘형의 차이는 없지만 달성 문산리고분군은 잘 짜인 축석의 석곽이 사용된 것에 반해, 달성 죽곡리 산40유적 1 · 3 · 4호분의 매장주체부에는 목가구 시설이 사용되었다. 석재의 종류와 크기 및 목개 여부 등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가까이로 성주와 창녕의 사례가 있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여 조심스럽지만 달성 죽곡리고분군의 목가구시설 자체도 경주 목곽묘와의 연관성을 상정해 볼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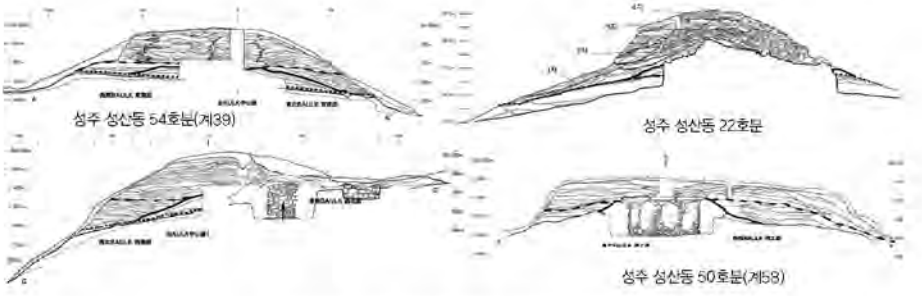
검토 사례 중 달성 죽곡리고분군을 제외하고 3유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성 성하리 1호분과 대구 구암동 5 · 56 · 58호분이 있다. 달성 성하리 1호분은 6세기 1/4

분기로 고총의 종말기에 해당된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경우 5호분이 5세기 (중)후반으로 보고되었고, 56호분이 5세기 후엽~말엽으로 보고되었으며, 58호분은 56호분보다 조금 더 느린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초엽에 축조되었다. 대구와 창녕지역에서 석축상 구획석렬이 확인된 고분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봉분 축조에 적석이 사용되며, 내부구조는 이혈묘광 11자형 주부곽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를 낙동강 유역에서 주로 채용되는 재지적 묘형과 신라적 요소의 분형이 결합된 것으로 본 연구(홍대우 2022: 30)가 있다. 봉토분마다 나타나는 성토재의 차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적석분을 입지에 의한 환경차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경주의 적석분을 모방하며 일찍부터 그러한 성토공정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봉토분의 조사예가 적어 조심스럽지만 화원 성산리 1호분과 대구 불로동 93호분의 2유형 역시 봉분가장자리를 높이지 않고 복개 및 밀봉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지적 성토공정의 한 갈래로 판단된다.

신라 지방 봉토분의 연원이 경주의 적석목곽분이라면 신라 지방 봉토분 중 1유형과 2유형은 적석목곽분의 외관을 보고 따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3유형은 적석목곽분의 축조 공정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첨언하여 낙동강 중류 이서지역이며 대구 서북부와 맞닿은 곳에 위치하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경우,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성주 성산동 54호분(계명대학교 39호분)이 3유형으로 판단되고, 이보다 조금 늦은 성산동 22호분과 50호분(계명대학교 58호분)이 각각 2유형과 3유형으로 판단된다(도면 16). 그리고 성주 성산동 50호분과 54호분은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중심군인 승왜리지군에 속하고, 성주 성산동 22호분은 승왜리지군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다른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 16] 성주 성산동고분군 성토단위 구성

대구의 내당동 · 비산동고분군과 동일계통의 묘제를 사용하고 신라토기의 범주에 속하지만, 한편으로 독자적 양식으로 설정되는 토기를 사용한 성주의 경우 5세기 이전 신라화된 지역으로 보는 연구(김세기 2014; 남익희 2009)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물로 정치적 복속 문제까지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후대의 문헌이지만 성주가 성산가야나 벽진가야로 불린 사실 자체를 간과할 수 없는데 당시 성주의 정치체에는 신라로의 통합성과 벽진국의 자율성이 공존하였다고 보는 연구(김재홍 2022)도 있다. 5세기 말 성주 성산동고분군에서 혼재하는 성토공정의 차이 역시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와 연관지을 수 있으며, 동일세력 내 중심세력과 하위세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상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성토공정의 유형은 결국 매장주체부의 지상화와 연관된다. 앞서 지하식과 반지하식 그리고 지상식으로 살펴봤는데 매장주체부 어깨면과 묘광 어깨면을 기준으로 한 비고차로 보면 1유형이 0.5m 이하, 2유형이 0.6~0.7m, 3유형이 1m 이상[10]으로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지상화 자체를 선진기술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경주 적석목곽묘의 지상화와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 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봉토분의 축조기법을 봉토분 축조형태의 조합과 성토단위 구성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축조형태의 조합으로 축조기법을 분석한 결과 유형분류가 불가할 만큼 많은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각 공정마다 다르게 축조된 형태들은 이후의 공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축조공정은 묘의 조성 이후 봉분의 조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며 진행되나 각 공정의 여러 형태들은 앞선 형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를 가진다. 봉토분의 축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성토에는 분체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규격화되기 어렵다고 앞선 연구(박현정 2023b: 851)에서 밝힌 바 있다. 봉토분보다 더 거대한 성곽과 제언의 영조가 가능한 토목기술은 봉토분의 축조에도 도입되었음이 자명하다. 당시 봉토분의 축조에는 공정 내 다양한 축조기술이 담긴 문화적 웅덩이에서

10) 성토단위 구성의 유형이 불명확한 달성 죽곡리고분군 봉토분 1호는 매장주체부 어깨면의 높이를 알 수 없으며, 대구 구암동 58호분 역시 묘광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높이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상황에 맞춰 다양한 축조기술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단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축조기법의 유형분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낙동강 중류 동안지역에서 조사된 봉토분의 매장주체부는 그 수직적 위치가 대개 반지하식 이상인데 성토단위의 구성에 따라 1~3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봉분 가장자리까지의 성토 공정의 시점에 따른 것으로 1유형과 2유형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후 봉토층 성토단계에서 가장자리 성토가 이루어졌고 3유형은 매장주체부의 밀봉 이전 기반성토층이 성토됨으로써 가장자리 성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한 시공간적 변화양상이 어느 정도 간취되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1유형과 2유형에서 3유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3유형의 경우 봉분 가장자리를 높임으로써 복개 및 밀봉공정의 편이성을 높인 경우라 볼 수 있지만, 1유형은 정지층으로 분 가장자리를 높였고, 2유형은 매장주체부가 조금 더 지면에 가깝게 축조되어 후속 공정의 편이성을 높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토기술의 발달이라기보다는 계통적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지역 내에서는 신라로부터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달성 죽곡리고분군과 적석목곽분처럼 성토재에 주로 석재가 이용된 대구 구암동고분군이 3유형으로 축조되었다. 고대 토목기술은 도제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전승되었을 것이며 그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는 단일 집단 내 변화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에서의 새로운 자극이 있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성토단위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3유형은 경주 적석목곽분의 성토공정과 유사점이 발견된다. 동일 고분군 내 다수의 봉토분이 조사된 예가 많지 않아 확언하기 어렵지만 검토된 유적의 사례를 고려할 때 1유형과 2유형이 재지적 성토공정이라면 3유형은 경주 적석목곽분의 축조원리에 입각한 성토공정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중앙으로 부터의 책임자 파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성곽이나 제언 등과 함께 생각할 때 봉토분은 규모면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봉토분의 축조 역시 중앙에서 파견된 책임자의 입김이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분군 내 봉토분의 성토유형이 1유형과 2유형으로 확인되다가 고총 종말기에 3유형으로 바뀌는 모습은 어쩌면 신라의 중앙집권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박현정 2023a)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 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4. 15 | **심사완료일** 2024. 5. 21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경북대학교박물관, 2003,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學術叢書29.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2022, 「성주 성산동고분군 제48호분(대분) 학술발굴조사 결과보고서」.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a, 『達城 汶山里 古墳群 Ⅰ 地區-大形封土墳1 · 2號』, 學術調査報告 第38冊.

_____, 2004b, 『達城 汶山里 古墳群 Ⅰ 地區-大形封土墳3號』, 學術調査報告 第38冊.

_____, 2004c, 『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91 · 993號墳-』, 學術調査報告 第44冊.

_____, 2008, 『達城 竹谷里古墳群』, 學術調査報告 第116冊.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 『성주성산동고분군』,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13輯.

김강남, 2012, 「5~6세기 신라 고분의 매장주체부 위치에 따른 봉토 구조와 변화-낙동강과 금호강의 중 ·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15,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金大煥, 2016,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木槨部와 積石部의 性格」, 『考古學誌』22, 국립중앙박물관.

김세기, 2014, 「고분자료로 본 삼국시대 성주지역의 정치적 성격」, 『신라문화』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김용성, 2011, 「대구 서북부 고총과 그 축조집단의 성격」,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연구원.

_____, 2014, 「신라고총과 고총체계의 관점」,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김재홍, 2022, 「고대 성주와 성산동고분군의 역사적 의의」, 『신라문화』6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남익희, 2009, 「5~6세기 성주양식토기 및 정치체 연구」, 『嶺南考古學』49, 嶺南考古學會.

大東文化財硏究院, 2015, 『達城 城下里遺蹟 Ⅱ』, 學術調査報告 第73冊.

_____,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學術調査報告 第96冊.

_____, 2021, 『달성 구암동 제56호분』, 學術調査報告 第113冊.

_____, 2022a, 「대구 구암동 고분군 제5호분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2b, 『달성 구암동 제58호분』, 學術調査報告 第122冊.

대한토목학회, 1996, 『토목 용어사전』.

동국문화재연구원, 2021,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제22호분』, 학술조사보고 제43책.

류제극, 2012, 「대리리 2호분의 축조과정 및 구조-기 조사된 봉토분과 비교하면서-」, 『義城 大里里 二號墳 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박미정, 2006, 「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창간호,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_____, 2009, 「삼국시대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 시론-대구 불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東亞文化』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박현정, 2017, 「달성 성하리 제1호분을 통해 본 구획성토의 재관점」, 『야외고고학』30,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_____, 2023a, 「낙동강 중류유역 신라 봉토분 성토기법의 지역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23b, 「봉토분 구획성토의 재검토-낙동강 중류 이동지역 조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신동조 · 박정욱, 2013, 「부산 연산동 고총고분군의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심현철, 2013, 「新羅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공정」, 『韓國考古學報』88, 韓國考古學會.

嶺南文化財硏究院, 2005, 『達城 汶山里古墳群 Ⅰ』, 學術調査報告 第96冊.

尹千洙, 2008, 「洛東江 中流 東岸의 古墳築造集團에 대한 硏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井上主稅, 2003,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분구축조방법의 검토」,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경북대학교박물관.

鄭昌熙, 2004, 「5~6世紀 大邱 洛東江沿岸 政治體의 構造와 動向」,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조성원, 2013, 「창녕 교동 7호분의 봉토 축조기법 검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 -區分盛土現像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13, 嶺南考古學會.
_____, 2001, 「嶺南地方 後期古墳의 築造推移」,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第10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_____, 2002a, 「韓日封土墳の築成方式に関する研究 -区画築造要素を中心に-」, 福岡大学 博士學位論文.
_____, 2002b,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구획축조에 대하여」, 『嶺南考古學』31, 嶺南考古學會.
_____, 2011,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의 再檢討」, 『考古學誌』17 - 虛空 韓炳三 館長 10週忌 追慕輯, 국립중앙박물관.
최경규, 2023, 「가야와 신라 고총의 토목기술적 특징과 상관성」, 『야외고고학』47,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최병현, 2016,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 『숭실사학』37, 숭실사학회.
韓玉珉, 2016, 「榮山江流域 古墳의 墳形과 築造過程 硏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홍대우, 2022, 「대구 구암동고분의 구조와 특징」, 『야외고고학』43,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홍보식, 2013,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_____, 2016, 「고분 구축기술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박물관.
_____, 2018, 「고총 조사 방법-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31, 사단법인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http://doi.org/10.20292/jcich.2024.44.75

Types and Implications of Tumuli in the Eastern Middle Nakdong River Basin

Park, Hyun-Jung(Team Leader of Research, Dae-Dong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paper is written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spatiotemporal chang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yp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targeting the tumuli of six sites located in the middle Nakdong River basin, and understanding their significance.

The classification of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forms found in tumuli was deemed meaningless, indicating that diverse construction techniques were adaptively applied from a cultural pool containing various construction technologies at that time.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unit of techniques raising the mound level, the classification yielded three types for review. The results revealed patterns where the edges of the tumuli change from being formed after excavation and sealing to being formed before excavation and sealing. This shift was initially observed in tumuli associated with the early Silla period. However,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fortifications and other structures in Silla provinces, it's more reasonable to attribute the observed changes in earthen processes to systemic differences rather than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former represents localized earthen processes, while the latter is presum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earthen processes of Gyeongju's wooden chamber tumuli.

Since ancient civil engineering skills were transmitted through apprenticeships,

the pace of change would be slow, but the introduction of outside technologies would make a big differenc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ttribute the change in the type of construction unit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Pro-Silla tumuli show a similar earthen layer configuration to the wooden chamber tumuli with stone mounds from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while other tumuli show the composition of the earthen layer similar to that of the wooden chamber tumuli with stone mounds at the end of the Gochong (高塚, huge tumuli) period. This change in the construction process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centralization of Silla.

Key words : the Middle Nakdong-river Basin, Silla tumuli, typ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the unit of techniques raising the mound level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07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The historic chronology and character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as seen by the excavated a records

이 주 헌
부산고고학회 회장

Ⅰ. 머리말

Ⅱ.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Ⅲ.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Ⅳ.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백제 사비기 유적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를 능산리석실의 다양한 형태와 서로 비교하여, '부여 왕릉원'을 중심으로 한 王陵 가운데 中下塚(2호분)과 益山 雙陵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주인공에 대하여 새로운 視角에서 살펴보았다.

'부여 왕릉원'은 백제가 사비로 遷都한 이후 왕실에서 조성한 陵園으로서, 聖王~武王代에 이르는 사비기의 王과 王族이 永眠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일부 陵墓의 피장자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지만, 백제 사비기 지배층의 사회적인 인식과 불교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석제사리감의 세부적인 형태나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를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에 적용하여 曆年代를 추정해 보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主人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백제인이 남긴 출토문자 가운데 능산리사지 석제사리감 및 왕흥사지 청동제사리합,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기록물들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무렵 백제왕실의 사리신앙과 왕실사찰에 대한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 · 사회 · 종교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백제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여 왕릉원'에 있는 中下塚(2호분)은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출토문자를 통해서 볼 때, 피장자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聖王이 아니라 女性의 능묘이며, 그 주인공은 聖王의 婦人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武王의 陵墓로 정설화 되어 있는 益山 雙陵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접목시켜 정합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主人公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雙陵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主人公을 武王으로 파악하거나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에 대한 기존의 인식 등은 출토문자와 문헌기록 등과 서로 정합하지 않는 의문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益山 雙陵 武王說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으며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백제의 聖王~武王代에 이르는 사비기 王陵에 대한 비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출토문자, 석제사리감, 역연대, 능산리형석실, 부여 왕릉원, 익산 쌍릉

Ⅰ. 머리말

부여 능산리 일대에는 백제 사비기의 고분과 사찰 및 나성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들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몇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유적의 대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烏石山(해발 181m)으로 이어진 능선의 중앙부 남사면 자락에 자리한 능산리고분군은 1915년과 1917년에 일부가 조사된 이후, 1930년대에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부여 왕릉원'으로 개명된 능산리고분군은 다른 백제 고분에 비하여 밀집도가 낮고 배치 양상도 비교적 일정한 편인데,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한 횡혈식 석실묘가 대부분이며, 각각의 석실은 모두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다. 각 석실의 횡단면 형태는 터널형(1기), 육각형(5기), 방형(2기)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면 육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체로 고분의 현실은 장방형이고, 현문은 문틀식구조이며, 현실 앞으로는 비교적 긴 연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시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능산리형석실'이라고 부르며, 고분의 입지와 규모, 축조 방법, 출토유물, 장식기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 사비기(538~660년) 왕과 그의 가족들 陵墓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능산리 동고분군과 서고분군도 고분의 구조와 규모, 축조방법 등에서 중앙에 분포한 고분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혈연적으로 王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백제 최고위층의 고분군으로 이해하고 있다(山本孝文 2002: 104).[2]



[그림 1] 능산리고분군 배치도(2022년)

한편, 이 가운데 中下塚(2호분)으로 널리 알려진 고분은 '부여 왕릉원'의 중앙고분군 내에서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그림 1)

1) 학계에서는 대체로 익산에 있는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로 인식하고 있으며, 義慈王의 陵墓는 중국 낙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능산리고분군에는 聖王-威德王-惠王-法王에 이르는 4명의 君主와 그들의 직계가족이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능산리 '중앙고분군'과 '동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석실의 규모는 물론이고 메납된 목관의 위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의 6기만을 王陵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김규운 · 양숙자 2016: 113~115).

武寧王陵이나 송산리 6호분 등과 같은 백제 웅진기 전축분의 아치형 구조와 동일한 터널식 천장형태를 따르고, 장대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뒤 회를 발라 마감했다는 점 등에서 능산리형석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인구 1977: 89; 강원표 2016: 116). 나아가,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泗沘로 遷都를 단행한 聖王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강인구 1976: 85~86; 이남석 2000: 23~24) 하지만, 이러한 통설은 中下塚(2호분)에 대한 기존의 조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泗沘遷都라는 역사적 사건에 인식이 한정되어 陵墓의 主人公을 추정한 것이어서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하며, 의문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聖王에 대하여, 사비로 遷都한 王의 陵墓는 당연히 '부여 왕릉원'에 조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641년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는 『高麗史』地理誌에 언급된 俗說과 설화적 성격이 강한 『觀世音應驗記』나 『三國遺事』 등의 武王 관련 기록을 근거로 雙陵 대왕릉으로 역사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는 해당 고분의 피장자가 聖王과 武王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덤의 主人公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대사를 다루는 연구자는 문헌사료와 고고자료에 대한 부정합한 해석이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등의 연구 방법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존에 진행된 역사적 해석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새로 발견된 자료와 서로 비교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고 기존 해석의 오류를 찾고자하는 시도는 역사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백제 사비기의 유적에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다양한 형태와 서로 비교하여, '부여 왕릉원'을 중심으로 한 사비기 王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中下塚(2호분)과 益山 雙陵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曆年代와 파장자에 대하여 새로운 視角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해하였던 통설에 대한 재검토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백제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한국고고학의 심도 깊은 연구에 작은 받침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백제에서 伽藍을 창건하고 舍利를 봉안하였음을 기록한 것으로는 ①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 ②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 ③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로서 현재까지 3개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 자료들은 사비기에 이루어진 역사적 팩트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시대에 유행했던 다양한 형태의 능산리형석실과 비교하여 曆年代를 추출해 낼 수 있는 key word로서 매우 중요한 고고자료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비기에 舍利를 봉안했던 사실을 전하는 이 출토문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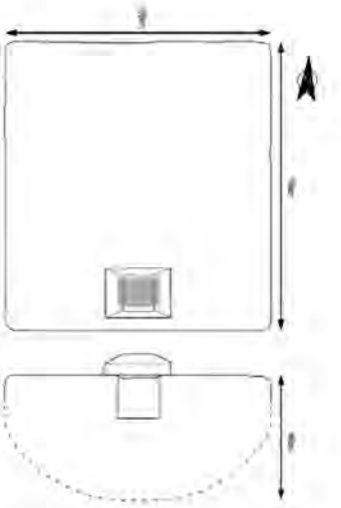


[그림 2] 능산리사지 석제사리함

①창왕명 석제사리감은 1995년에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부여나성 사이에 위치한 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되었다(그림 2). 이중기단으로 구성된 목탑지에는 동서 108㎝, 남북 133㎝ 크기의 심초석이 깊이 114㎝ 내외로 묻혀 있었다. 石製舍利龕은 심초석의 남쪽 가장자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정도 기울어진 채 발견되었다. 사리감의 북측에서는 상부가 결실된 心柱가 발견되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밝혀졌다(국립부여박물관 2000: 25).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목탑지는 기반토를 조성한 뒤 심초석이 들어갈 중앙의 자리를 굴광한 후 심초석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심초석의 남쪽 가장자리에 석제사리감을 놓고 옆에 지름 50㎝ 내외의 心柱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한정호 2013: 45~50). 심초석 상부에서 발견된 사리감은 사리장엄구를 넣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사리공이다. 석제사리감의 전체적인 형태는 밑이 평평하고 상부가 둥근 아치형이며, 높이 74㎝에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이다. 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된 감실은 25.3㎝×25.5㎝×21.5㎝ 규모로 형태도 아치형이며 둘레에는 뚜껑을 받치기 위한 4㎝ 정도의 턱을 마련하였다. 감실에는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라는 명문이 좌우측에 각각 10자씩 새겨져 있어, 백제 昌王 十三年(567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백제 王室의 발원에 의해 王陵으로 추정되는 능산리고분군에 묻힌 사람의 축원을 위해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3] 또한, 심초석 주변에서는 소조불과 금동 및 각종 장식품 등 595점에 달

3) 선학의 연구에 의하면, 석조사리감에 기록된 昌王은 威德王이고 妹兄公主는 威德王과 혈연관계인 누이이다.

하는 사리공양품이 수습되어 삼국시대 佛舍利莊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3]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모식도

②왕흥사지 출토 舍利莊嚴具는 목탑 아래에 놓인 心礎石의 남쪽에 마련된 사리감 내에서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51). 자연석을 100㎝×110㎝×45㎝ 크기의 상방하원형 모양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윗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었으나 아랫면은 둥그스름한 형태를 하고 있다. 心礎石의 남쪽 중앙 윗면에 만들어진 舍利孔은 16㎝×12㎝×16㎝ 크기로 장방형이며, 발굴당시 사리공 위에는 모죽임 형태의 단면 사다리꼴의 화강암 석조뚜껑이 덮여 있었다(그림 3). 화강암을 釘으로 곱게 잔다듬질하여 만든 이 석조뚜껑의 바닥면에는 사리공 크기에 딱 맞는 얕은 턱이 있어서 사리감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뚜껑의 윗면에는 붉은색의 辰砂로 둥글고 장식적인 동심원과 삼엽문, 꽃문양 등이 그려져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90).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한 방형의 감실 안에서는 원통형 청동제합과 은제호, 금제병으로 구성된 금속제 3중 사리기가 발견되었는데, 3중 사리기 가운데 가장 바깥쪽의 외합인 청동제합의 표면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음각기법으로 "丁酉年二月十伍日 百濟昌王爲亡王子 立刹本舍利二枚 葬時神化爲三"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학계에서는 威德王 二十四年(577년)에 죽은 王子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舍利를 묻은 후 木塔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2009년 서탑의 해체작업 중 발견된 것으로 백제 舍利信仰의 발전과정과 舍利莊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김현용 · 오정현 2014: 29). 서탑 1층 탑신 중앙에 설치된 心柱石(100.5㎝×100.5㎝×75㎝) 상면에 24.8㎝×24.8㎝×27㎝의 舍利孔이 방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心柱石과 두 번째 心柱石의 맞댄 면 사이에는 밀봉하기 위한 석회가 가

능산리사지는 泗沘遷都(538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이곳에 石製舍利龕을 봉안한 시점(567년) 사이에 逝去한 王은 聖王이 유일하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형식을 하고 있는 中下塚(2호분)의 주인을 聖王으로 파악하고, 능산리사지를 비명횡사한 聖王의 명복을 빌고자 창건한 '陵寺'로 이해하고 있다(신광섭 2006: 35~36). 하지만, 中下塚(2호분) 피장자가 실제로 聖王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장자리를 따라 발라져 있었다(그림 4). 心柱石은 총 17단으로 4층 탑신 높이까지 수직으로 쌓여 있었으며 제일 위쪽에 있는 心柱石 상면에는 찰주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직경 36㎝, 깊이 9.5㎝의 원형 홈이 확인되었다(이동식 · 이연경 2014: 280).



[그림 4]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

舍利孔 내에는 원형합 6개를 두고 이들 사이에는 목색 유리구슬을 채운 뒤 남측에는 은제관식과 금제 소형판을, 북측에는 직물을 싼 刀子를 여러 자루 두었다. 그리고 남측 벽면에 비스듬히 金製舍利奉迎記를 올려놓고 정중앙에 금동제사리호를 마지막으로 안치하였다. 특히, 금제사리봉영기는 가로 15.3㎝, 세로 10.3㎝의 금판으로 앞뒷면에 刀子를 이용하여 음각하고 각 획을 따라 朱墨을 칠하였는데, "竊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중략)…故能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二十九日 奉迎舍利…(중략)…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라고 하는 193자(앞면 99자, 뒷면 94자)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武王 四十年(639년)에 王妃인 沙宅積德의 딸이 발원하여 미륵사에 서석탑이 세워진 것으로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은 크게 부처의 공덕과 사리의 영험함에 대한 찬미, 백제왕후의 재물 희사를 통한 가람의 조영과 사리봉안, 대왕폐하와 왕비에 대한 발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장미애 2020: 85).

이상에서 살펴본 출토문자 자료는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석제사리감의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확인되는데, 즉,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과 같이 윗부분이 아치형을 띠는 것(A유형)과 왕흥사지 석제사리감의 뚜껑과 같이 윗부분을 모죽임하여 단면이 육각형을 띠는 것(B유형),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의 심주석과 같이 단면이 사각형을 하고 있는 것(C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왕명 석제사리감에 보이는 아치형 감실(A유형)에 대해서는 중국 漢나라의 부장품에 보이는 馬蹄形漆器의 기형과 비교하여 중국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주경미 2002: 41), 馬蹄形漆器는 시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리용기로 사용된 예가 없어 기형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아치형을 하고 있는 사리감의 형태는 무령왕릉에서 보이듯이 중국 전축분의 영향으로 웅진대 말부터 등장하는 볼트(vault)구조의 고분과 유사한 형태로 이를 계승한 중하

총의 현실구조에서 따온 것이라거나(이도학 1995), 사리감의 측면에 사리를 안치하는 감실을 마련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뚜껑이 아닌 문으로 마감하였으며, 竪納이 아닌 橫納의 개념으로 중국에서 棺 개념을 사리기에 도입한 것과 같이 백제에서도 횡혈식 석실의 형태를 舍利龕에 전용한 것이라는 견해는 주목되는 부분이다(김연수 2000: 106, 2003: 269~272).

백제는 538년에 도읍을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이전하고 사비시대에 들어갔다. 이시기 王들의 陵墓로 조성된 '부여 왕릉원'에는 장방형 플랜의 현실과 아치형의 천장, 수직을 이룬 전후의 벽면 등 분명하게 현실 천장의 횡단면이 아치형인 공주 송산리고분군 전실묘의 구조와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를 갖춘 석실묘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中下塚(2호분)이다. 더구나, 바닥에는 塼모양의 판석을 깔고, 현실의 폭과 같은 크기로 관대를 만든 것, 연도입구에 石塼을 쌓아 폐쇄한 것 등도 무령왕릉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有光敎一 1979: 479~498). 이 가운데 아치형 구조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舍利奉安과 舍利龕의 제작에 당시 유행했던 능산리형석실의 구조 개념이 접목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왕흥사지 木塔의 아래에서 확인된 상방하원형 모양의 대형석재는 목탑의 刹柱를 받치는 心礎石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방형 석재의 남쪽에 마련된 舍利龕(舍利孔)을 덮은 뚜껑은 舍利器를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한 龕室로 기능했던 구조물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목탑지에서는 이와 같이 탑 아래에 별도의 사리안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존하는 목탑지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탑마다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백제시대의 木塔에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형이나 건축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적 변형이 시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왕흥사지 石製舍利龕은 목탑 중심의 지하부에 놓인 心礎石이자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한 石函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서, 백제식 목탑에 맞게 변형된 독특한 구조물로 해석할 수 있다(주경미 2018: 61). 특히, 모죽임 형태의 석조뚜껑(B유형)은 능산리고분군에서 西下塚(3호분)을 비롯하여 4호분~7호분, 雙陵(대왕묘, 소왕묘)등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한 평사천장식(고임식) 구조와 동일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능산리형석실의 유행시기와 歷年代를 추정하는데 있어 주목된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은 외형적으로는 목탑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것이나, 1층 탑신사방에 문을 내어 탑 내부에 십자형으로 통로를 만들고 중앙에 心柱

를 세워 사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재질이 목재인 경우에는 舍利孔이 기단이하의 지하에 위치하고, 석재인 경우에는 1층 이상의 상부에 안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된 사리공의 위치는 목탑과 석탑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므로, 많은 학자들이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번안한 시원양식이라 한다(고유섭 1975; 장경호 1988; 천득염 1990). 따라서 사리의 매납위치 또한 기단부 이하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고, 心柱石에 舍利孔을 설치한 것은 이전의 목탑에서 보이던 심초의 사리감이나 사리공의 매납방식에서 그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하식 심초구조가 지상식 심초구조로 바뀌면서 여전히 木塔의 刹柱 기능을 답습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봉안 방식은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석탑인 산동성 사문탑의 사리봉안 방식과 비교되기도 하지만(이귀영 · 박대남 2010: 110; 주경미 2002: 40~41, 2014: 329),[4] 서탑 사리장치에서 십자형 통로 공간의 천장은 수직으로 올라간 벽석 위에 두께 25㎝ 내외의 2단 받침석을 걸치고 대형판석을 덮어서 마련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능산리형석실의 구조가 사리장치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조은경 2011: 190~192)도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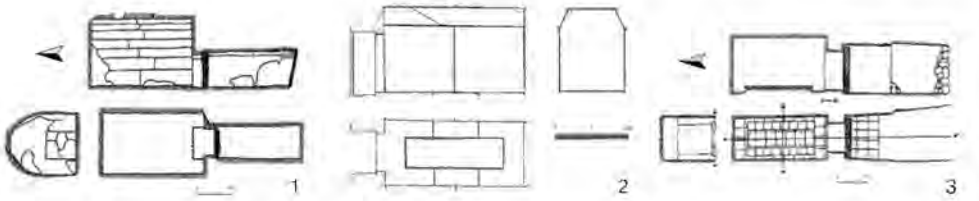
한편,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 사찰의 건립과 함께 사리 봉안을 위한 불탑이 많이 건립되었다. 특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정치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던 백제 사비기에 있어서 지배층의 묘제는 부처의 舍利를 모시는 封墳으로서의 塔 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리봉안에 묘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백제 불교건축의 발달된 측면을 석실의 구조와 관련지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견해(조은경 2011: 190~191)는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미륵사지 서탑에서 함께 매납된 다양한 공양구는 그 구성이 웅진기 武寧王陵의 부장품과 유사하다. 고분은 특정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만, 왕흥사지 목탑

---

4) 미륵사지 사리기의 형식이나 양식적 특징은 隋代 불사리 장엄과는 전혀 달라서 백제적 변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동시대 중국에서는 盝頂形方形函 형식이 사리기의 외함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백제에서는 왕흥사지의 사리공 뚜껑을 제외하고는 盝頂形方形函 형식이 드문 점을 백제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주경미 2014: 329).

5) 미륵사지 서탑의 천장 구조를 백제 후기 횡혈식석실분 가운데 고임식(평시천장식)의 구조를 한 능산리 中上塚이(5호분)나 논산 육곡리 2호, 7호분과 같은 형식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고임식에서는 천장석이 석실방향과 직교하며 折角으로 경사진 북벽과 남벽의 모서리 부분에 경사부재를 걸쳐 천장석을 받치도록 가구한 구조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경사부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대형의 천장석이 설치된 미륵사지 서탑과는 구조와 공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사리장엄구의 銘文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탑 건축시 心礎石에 매납한 여러 가지 공양품도 특정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으며, 미륵사지 서탑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양품은 고분부장품의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舍利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sarira'를 '設利羅', '實利羅', '實唎' 등으로 음역한 것으로, 뜻은 '몸이나 뼈, 시신(體, 骨組, 骨, 身, 身骨, 遺身, 屍身, 遺骨) 등이며(주경미 2003: 14), 단어 자체에 죽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김낙중 2014b: 299)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비기의 舍利莊嚴具는 모두 백제 왕실의 발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이며, 특히 발원자와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銘文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 불교미술은 물론이거니와 사료가 부족했던 백제고고학의 새로운 曆年代 자료로서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창왕명 석제사리감이나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을 해당시기에 유행한 능산리형 석실의 구조변화와 직접 관련지어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림 5] 1. 능산리 中下塚(2호분), 2. 익산 雙陵 대왕묘, 3. 능산리 東下塚(1호분)

이미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논의된 바와 같이 백제 사비기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아치형천장(터널형)에서 평사식(육각형)이나 수평식(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백제 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안전하게 봉안하는 舍利龕의 구조와 동일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심주석)의 형태가 A유형 → B유형 → C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터널형 → 육각형 → 방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재확인해주는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즉, '부여 왕릉원'에서 中下塚(2호분)과 같은 횡단면 터널형 천장구조(그림 5-1)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A유형, 丁亥年/567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6세기 3/4분기에 이르기까지 A유형의 천장구조를 이룬 능산리형석실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西下塚(3호분), 西上塚(4호

분), 中上塚(5호분), 東上塚(6호분), 7호분, 익산 雙陵(대왕릉, 소왕릉)과 같은 횡단면 육각형 구조(그림 5-2)는 왕흥사지 목탑지의 석제사리감(B유형, 丁酉年/577년)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4/4분기 이후에 능산리형석실의 한 유형으로 '부여 왕릉원' 일대에서 조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東下塚(1호분)(그림 5-3), 서고분군의 1호분, 2호분처럼 수평식 천장 구조를 이룬 석실은 미륵사지 서탑의 석제사리감(C유형, 己亥年/639년)과 관련지어 본다면, 7세기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부여 왕릉원'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6]

Ⅲ.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王陵은 특정사회의 최고 신분층인 王과 그의 家族이 묻힌 무덤이다. 王陵의 조영은 그 시기의 묘제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을 사용함이 일반적이며, 화려하고 장대하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장품도 당대 최고의 물품을 매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문화의 정수가 탐색되는 것이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건국되어 사비에서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간 지속되었고 한성에서 웅진을 거쳐 사비로 천도하면서 각 시기의 王陵은 도읍지 내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비시대에 재위한 왕들의 무덤은 부여지역에 자리한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으며(부여군 2008: 26), 그 대상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보아 '부여 왕릉원'으로 파악된다.

백제가 文周王때 웅진으로 遷都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 재위한 왕은 義慈王까지 모두 10명이다. 이중에서 義慈王은 중국에서 生을 마감하였기에[7] 이를 제외하면 모

---

6)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묘와 16호묘의 사례를 근거로, 銀花冠飾이 출토된 능산리형석실분에서 고임식과 수평식 천장 유형이 병존하였음을 강조한 견해가 있다(이문형 2022: 180). 하지만, 5호묘와 16호묘는 석실의 구조로 보아 시기 차이가 인정되며(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402 〈표 26〉 횡혈식석실묘의 변천, 443 〈표 40〉 나주 복암리 3호분의 분기 및 연대), 각 석실에서 출토된 銀花冠飾 역시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선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간과한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16호묘 출토 銀花冠飾은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이나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銀花冠飾(2점)과 같은 유형으로서 7C 2/4분기에 통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5호묘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부여 능안골 36호 석실묘 출토품과 같이 꽃봉오리에 심엽형 투공이 뚫려 있고 고사리형 세지가 있으므로 16호묘 출토품보다 시간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한상 2009: 303). 또한, 수평식 천장의 구조가 威德王 이후 王陵으로 조영되지 않는 이유로 法王(599~600년)의 禁殺令으로 대변되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王陵이 고임식 구조로 통일된 것으로 본 견해(이문형 2022: 180) 역시 문헌이나 고고자료 등을 근거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7)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義慈王 二十年條 定方以所俘見 … 王病死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

두 9명의 왕들이 웅진과 사비에서 타계하였고, 그들의 陵墓는 이들 지역에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웅진기 王의 陵墓로 파악되는 송산리고분군에는 묘지석으로 主人公이 확인된 武寧王(501~523년)의 陵을 비롯하여 동일한 가계를 이룬 선대의 文周王(475~477년)과 三斤王(477~479년), 그리고 昆支(?~477년)의 陵墓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출신가계를 달리하는 東城王(479~501년)의 陵은 인근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한 교촌리고분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주헌 2019: 379~424).

538년 聖王이 사비로 遷都한 이후, '부여 왕릉원'에는 聖王에서 武王에 이르기까지 5명의 王陵이 탐색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재조사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익산에 소재한 雙陵을 武王(600~641년)의 陵墓로 확정하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성준 외 2018: 3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30~34).[8]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武王을 제외한 聖王과 威德王(554~598년) 그리고 惠王(598~599년)과 法王(599~600년)이 '부여 왕릉원'에 안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 君主의 사망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등의 史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聖王은 554년 7월 관산성전투에서 敗死하였고, 威德王은 그보다 44년 후인 598년 12월에, 그리고 惠王과 法王은 599년과 600년 5월에 각각 逝去하였다.

그동안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陵墓의 主人公 비정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학계의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비기 능산리형식실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분묘의 시간 순에 따른 순서배열을 기준으로 당시에 활동한 王 또는 王妃의 陵墓로 추정하는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泗沘遷都 후 조성된 王陵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과 東下塚(1호분)을 다소 늦은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학계의 공통된 경향이다(강인구 1977: 84~89; 이남석 2000: 20; 최완규 2011: 281).

---

8)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익산 雙陵을 夫婦墓로 가정하면서, 대왕묘를 武王의 부덤으로 적극 이해하였다. 특히,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서 639년 武王의 王后가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라는 사실과 『日本書紀』 皇極天皇 元年(642년) 기사에 근거하여 義慈王의 어머니인 國母主가 武王 사후 1년여 만에 사망했다고 인식하면서, 義慈王의 어머니가 沙宅王后라면 소왕릉은 武王의 부인인 沙宅王后의 陵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雙陵이 夫婦墓라는 근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義慈王 초기의 정변과 이후 沙宅氏의 활약 등 이후 백제 정계의 변화양상이 정합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논리적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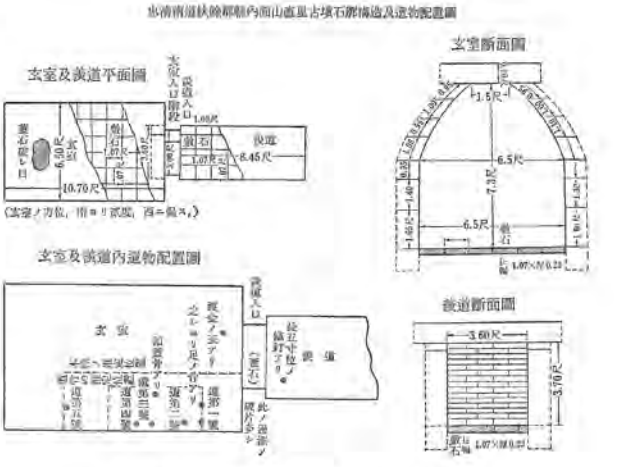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부여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하는 학계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고고학적인 맥락과 관산성전투 이후 백제 정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聖王의 陵은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이주헌 2017: 406~418, 2019: 404~412). 이에 의하면, ①武寧王陵 전축배수구의 훼손상태와 6호분 연도폐쇄부에서 출토된 "梁宣以爲師矣" 명문전의 고고학적인 출토 맥락 ②전문계열 문양전으로 장식된 송산리 6호분 석실의 네 벽면에 백색의 灰를 칠하고 다시 벽화가 그려진 것은 기존 무덤의 재사용을 위한 것 ③6호분의 관대는 武寧王陵에서 王이 안장된 위치와 같은 묘실 내 右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최종 매장형태는 男性 單獨葬으로 파악되는 점 ④6호분의 입지가 武寧王陵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主人公이 武寧王系로서 王族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⑤관산성전투의 패전으로 聖王과 泗沘遷都를 주도한 세력의 후퇴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主和派 耆老들의 입지 강화에 따라 송산리고분군의 서쪽능선에 聖王의 陵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명확한 고고학적 근거 없이 정황적인 판단만으로 554년에 사망한 聖王의 陵墓로 단정한 학계의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이며, 그 대안으로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의 분석에 따라 송산리 6호분을 '夫婦獨葬'[9]으로 모신 聖王의 陵으로 비정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동안 학계에서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에 대한 새로운 主人公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논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즉, 中下塚(2호분)의 구조가 아치형을 하고 있는 武寧王陵의 천장처럼 터널형을 이루고 있으며, 538년 사비천도 이후 도읍의 근교에 王陵이나 그에 버금가는 상류층의 집단 무덤이 조성되었을 것, 그리고 성왕을 위한 願刹인 능산리사지 목탑에 넣은 石製舍利龕과 棺을 안치한 石室의 모양이 동일한 것은 "王卽佛 思想"의 발현(이도학 1996: 76)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에 비정한 것이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한 中下塚(2호분)의 조사기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채, 무덤의 主人公을 聖王으로 비정해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9) 당초 석실을 축조할 시에는 夫婦合葬을 위해 複數用으로 尸床面을 만들었으나, 최종적으로는 夫婦 중 한명만 안장된 형태를 말하며, 기존에 單獨葬이라고 분류한 것과 같은 것이다. 석실 축조시 死者만을 안장하기 위해 시상을 1人用으로 처음부터 구축한 單葬과는 유형시기 및 매장방식에 있어 개념상 차이가 있다.

567년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에 대해서도 이미 13년 전인 554년 7월에 사망한 聖王의 願刹로서 昌王銘舍利龕을 봉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였다.[10]

이상과 같은 단순한 논리와 출토문자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中下塚(2호분)이 聖王의 무덤일 것이라는 학계의 결론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1915년 능산리 中下塚(2호분)을 발굴조사한 黑板勝美의 복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명서에 의하면, " … 그 한쪽에 치우쳐 목관을 안치한 흔적이 있고, 뼈 조각 및 칠을 한 목관 못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산포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제시한 도면에서도 석실 시상바닥의 좌측편으로 인골과 목관의 잔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黑板勝美 1974: 30~35). 비록 도굴된 상태이지만, 中下塚(2호분)의 석실 내에는 시상 左側으로 單獨葬이 실시된 것(윤태영 2019: 164~166)임을 알 수 있는데, 中下塚(2호분)을 그동안 夫婦合葬으로 인식하였던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사실이다.[11] 또한, 黑板勝美의 복명서에는 각종 실측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현실 및 연도내 유물배치도〉에는 석실 내에 위치했던 木棺 추



[그림 6] 中下塚 석실 내부 유물 배치도(1915년)

10) 능산리사지 출토 석제사리감에는 舍利를 공양한 시점과 공양자 만이 기록되어 있고, 사리공양의 목적과 대상자의 死亡 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안기의 사례로 볼 때, 主人公이 사망하기 전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舍利를 공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를 554년에 사망한 聖王일 것으로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11) 中下塚(2호분) 석실 내 시상의 서쪽에만 木棺 흔적이 확인되고 동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黑板勝美의 보고문을 근거로, 아마도 동쪽에서 시신의 안장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木棺이 놓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었다. 특히, 석실이 후대에 도굴이 되더라도 木棺이 놓이고 부식된 상태에서는 木棺과 관련된 관정 등은 몇 점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中下塚(2호분) 상면 동쪽부분에서는 木棺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잔존유물 또한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夫婦合葬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단은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정도와 人骨 출토지점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6). 이를 보면 人骨은 시상 左側의 추정 木棺 내부 5개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頭蓋骨이 그 중앙지점에 표기되어 있다.[12] 이와 같은 발굴조사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夫婦獨葬으로 이루어진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을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같이 聖王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파악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서로 비교하는 등 논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조영된 合葬墓의 경우, 석실 내에서 男女의 안장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고분의 경우 묘실 내에서 複數埋葬이 확인된 사례는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2인 合葬은 주로 횡구식이나 횡혈식석실에서 추가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성격은 家族葬으로 성별이 男女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夫婦合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웅진기와 사비기에 있어 석실에 안장된 主人公을 夫婦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주 武寧王陵을 비롯하여 부여 능안골고분 36호묘와 53호묘를 들 수 있다.

①武寧王陵은 경사진 산비탈을 파고 그 속에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봉분은 지름 20m내외이며 높이는 7.7m이다. 매장주체부는 장방형의 현실에 연도를 갖춘 전축묘로서 현실은 남북 420㎝, 동서 272㎝, 높이 314㎝이다. 현실의 바닥과 관대는 벽돌을 2중으로 깔았는데, 관대가 시설된 곳은 다른 곳보다 지반 자체를 높게 남겨두고 그 위에 벽돌을 깔아 王과 王妃의 合葬棺臺로 만들었다. 武寧王陵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108종 3,0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실 내부에서는 金松으로 만든 2개의 木棺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王의 목관은 동쪽에, 王妃의 목관은 서쪽에 놓여 있었다. 목관재를 수습한 다음 내부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王의 유해부에서는 두침과 족좌, 금제관식, 뒤꽂이, 금제이식, 금은제 대금구,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고, 王妃의 유해부에서는 금제관식, 이식, 금은제 천,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다. 대체로 장신구는 木棺 내에, 금속용기와 중국도자기는 木棺 밖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427~429).

武寧王陵에서 王과 王妃의 배치는 머리방향을 연도(남측)로 향하여 王右妃左가 된다. 武寧王陵은 전실구조와 사용전, 출토유물 등으로부터 중국 南朝의 梁과 밀접

12) 시상에 안치된 人骨 중 足骨은 관대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중앙지점에 위치한 頭蓋骨은 中下塚(2호분)을 도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人骨 散亂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김태식 2017: 44), 이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생각이다.

한 관계가 상정되어있고, 王과 王妃의 배치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梁書』 天監六年條에는 연회의 석차에 있어서 '西方爲上' 이라 하고, 梁에서는 서쪽(右)을 上席으로 했다. 강인구는 백제고분에 있어서 피장자의 침향이 고분의 방향(횡혈식석실묘의 경우는 연도의 개구방향)과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강인구 1977: 51). 하지만, 고분의 방향과 피장자의 침향이 일치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武寧王陵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 두어야 할 점은 王右妃左라고 하는 중국적인 배치를 취하면서도 王東妃西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東側優位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방향을 南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鐘方正秀 1996: 1350~1351). 그러나 백제에서는 右片袖式을 중국에서 그대로 수용한 사례가 머리방향의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男右女左의 배치방식은 어느 정도 규정된 형태에 따라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13]

②능안골 36호 석실묘는 횡단면이 육각형인 고임식(평사천장식) 판석조 횡혈식석실묘로서 연도는 남벽 동편 우측에 편재한 사비기의 고분이다. 석실 내에는 제자리에 위치한 유물과 함께 人骨 중 잔존한 일부분과 하악골 등이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관정과 은제 요패장식, 은제 관모장식 등이 석실 내에서 원형을 유지한 채 드러난 완전한 처녀분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178~223). 특히, 석실 바닥의 동서에 나란히 안장된 人骨의 흔적이 드러나 夫婦合葬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서 양쪽에 드러난 두 人骨의 흔적은 동편(左)의 것이 모든 출토유물의 크기에서나 木棺 등의 크기에서도 서편(右)의 것 보다 다소 큰 것이 주목된다. 출토된 人骨은 左側의 人骨 중 치아와 하악골, 그리고 대퇴골 및 경골 일부와 발뼈 중 종골, 거골 일부가 남아 있어서 나이와 키 등 일부사항을 알아 볼 수 있는데, 연령은 40세가 넘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키는 右側 경골(Tibia)을 기준으로 공식에 대입해 보면 161~168㎝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378~382). 한편, 36호 석실 내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동편의 것과 서편의 것이 양식상 차이가 있는데 동편의 銀貨冠飾은 은제 얇은 판을 대칭으로 50° 각도로 세로로 구부린 후 관식의 봉오리에 연

13) 일본 古墳時代의 경우, 男女의 배치관계는 中期부터 일반적으로 男左女右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後期에는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의 존재로부터 중국식의 男右女左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大坂府 柏原市의 후반기고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百濟系氏族에 의해 5세기 말엽에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이 도입된 이후 7세기대에 이르기까지 男右女左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高井田山古墳과 같이 횡혈식석실의 도입에 있어서 石室構築技術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思想도 함께 도입되었다고 지적한 견해(鐘方正樹 1996: 1358) 주목된다.

꽃 또는 화염문을 형상화 한 것이고 바로 아래쪽으로는 당초문과 화염문과 같은 모양을 형상화하여 한쪽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장식을 오렸다. 이 장식들은 끝부분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만들었고 가지부분에는 두 줄의 당초문을 대칭방향으로 새긴 것이다. 반면에 서편의 銀貨冠飾은 관식의 가장 윗머리 부분에만 화염문과 같은 장식 1조만 표출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동·서편 유물들의 크기와 모양 등에서 동편(左)은 성인 男性으로 추정되며 서편(右)은 성인 女性의 人骨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185).

③능안골 53호 석실분은 장방형 할석과 판석을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쌓은 것으로 석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띠며 지하식으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이다. 연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석실 내부에 인골이 동서로 나란하게 원형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夫婦合葬墓 성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출토된 관정 및 관고리의 간격은 木棺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처녀분이다. 특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人骨과 부분적이나마 人骨과 치아 등이 그대로 유존되고 있어 피장자들의 나이와 신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295~309). 人骨은 2개체 분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동편의 경우는 두개골과 상악골, 갈비뼈, 치골 일부와 대퇴부, 정강이뼈 등이 일부 제자리에서 드러났으며, 性別은 골반의 대좌골절흔의 폭이 좁고 깊은 점과 천골의 耳介 앞면 홈(Preoriculaar)이 없는 점, 또한 견갑골의 견봉(Acromion)이 잔존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男性이며 나이는 30세~40세로 파악된다. 서편에서는 두개골과 상하악골, 갈비뼈 일부, 대퇴부 및 정강이뼈 일부가 제자리에서 출토되었는데, 골반의 대좌골흔(greater sciatic notch)이 얇고 넓은 점, 두개골에서 유양돌기(Mastoid Process)의 모양이 작고 부드러운 점, 천골의 耳介 앞면의 홈(Preoriculaar)이 잔존한 점으로 보아 女性임을 알 수 있고, 나이는 25~30세 정도이며 키는 우측 척골의 길이인 25.5㎝를 공식에 대입하여 보면 평균 165㎝ 전후로 분석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378~382). 한편, 철제 삼각형 모자심이 동편에서만 출토되어 신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東西로 안치된 人骨은 合葬된 상태로 남아 있고 관정이나 관고리의 모양, 재질 등에서 신분상의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木棺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나 기타 모든 출토유물 등에 있어서도 신분상 동측과 서측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등한 夫婦合葬墓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내에 人骨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안장된 主

人公의 性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석실 내에서 男性은 右側(동쪽), 女性은 左側(서쪽)에 위치한다. 이는 合葬일 경우 백제에서 性別에 따라 피장자의 안장위치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경우 시상의 左側(서쪽)에서만 人骨과 木棺의 잔유물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서도 主人公은 분명히 女性이며 夫婦獨葬으로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聖王의 죽음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에는 "聖王 三十二年(554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어 돌아가셨다. 시호를 聖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14] 『日本書紀』에는 "…신라는 明王이 친히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내어 길을 끊고 쳤다.… 드디어 苦都는 明王을 붙잡고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왕의 목을 치겠습니다.'고 하였다. … 苦都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맹서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노예의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고 하였다. … 이때 聖王의 목은 신라 왕궁 북청의 계단 밑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몸은 백제로 반환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1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聖王은 머리가 없는 몸만 사비로 보내졌으므로 '부여 왕릉원' 中下塚(2호분)에서 頭蓋骨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분의 주인공은 聖王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계에서 그동안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을 聖王으로 비정해 왔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여 왕릉원' 내에서 차지하는 中下塚(2호분)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사리감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본다면, 中下塚(2호분) 주인공의 성격은 聖王의 직계가족 중 女性에 해당하는 人物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壽陵으로 파악하고 사비도성 축조 계획단계부터 夫婦合葬으로 설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婦人만 묻히게 되어 夫婦獨葬의 형태로 안장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남편인 聖王은 이곳에 묻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윤태영 2019: 165). 즉, 聖王은 관산성전투에서 敗死하였고, 시신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聖王의 시신은 사비도성 안으로 들여오지도 못하고 喪

14)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聖王, 三十二年,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爲亂兵所害薨 謚曰聖
15)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紀 十五年 十二月條.

葬禮를 치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陵墓에도 묻히지 못하였을 것이다.[16] 더욱이 喪葬禮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威德王의 왕위계승 역시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므로 머리가 없는 聖王의 시신은 壽陵으로 그가 만들어 둔 中下塚(2호분)에는 묻히지 못하였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17]

이러한 추정은 능산리고분군의 서편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의 건립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창왕명 석제사리함의 명문을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은 567년에 능산리사지의 木塔에 봉안되었다. 백제에서 寺刹을 세우고 木塔에 舍利를 봉안하는 일련의 과정은 先王의 冥福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고 왕실의 정치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신구 귀족들과 백성들을 통합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최경환 2023:156).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은 聖王이 관산성에서 서거한 후 혼란스러웠던 백제 政界를 빠르게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한 王族 가운데 女性으로 바로 聖王의 婦人은 아니었을까? 현재 남아 있는 문헌기록은 없지만, 그녀는 아들인 餘昌이 주도한 관산성전투를 적극 반대한 주화파 세력과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聖王의 후사를 昌王이 계승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威德王의 안위를 지척에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백제의 정계를 바로 세우는데 고군분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中下塚(2호분)에서는 물론이고 능산리사지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데, 즉, 聖王의 부인이자 威德王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王室의 실권자로서 그녀는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상상은 단지 추정만이 아니라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사리감 뿐만 아니라 금동대향로와 같은 고고유물의 존재에서도 그녀의 권위와 역량을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18]

---

16) 이와는 달리 聖王은 喪葬禮를 치르고 능산리고분군에 묻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길식 2008: 87).

17)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과 東下塚(1호분) 사이에서 1965년 능산리고분군의 봉분 복원공사시 발견된 석곽묘(능산리 8호)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윤태영 2019: 165). 하지만, 이 석곽묘는 매장주체부가 소형이고 평천장을 한 횡구식석곽(174×76×90㎝)으로 봉분도 조성되지 않았고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은 도금한 棺釘 이외에 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무덤은 東下塚(1분)의 배장묘일 가능성이 높으며, 主人公은 평천장을 한 東下塚(1호분) 피장자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18) 中下塚(2호분)을 壽陵으로 聖王이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王妃의 죽음을 가정한 의견(신광섭 2006: 114)도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이어지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

Ⅳ.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 사비기의 또 다른 都城으로 추정되는 익산에도 왕궁 등 都城의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과 함께 '부여 왕릉원' 석실을 규모와 석재 가공 정도에서 능가하는 석실인 雙陵이 존재하며, 특히 대왕묘에서는 일본 특산의 金松으로 만든 목관과 중국에서 받아 온 玉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어 최근까지도 무덤의 主人公을 武王과 王妃일 것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김낙중 2021: 386; 이문형 2022: 188). 익산 雙陵은 석실의 규모와 구조, 석재의 가공도 및 부장품으로 볼 때 '부여 왕릉원'의 陵墓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오히려 규모면에서는 대형이고 구조와 부장품으로 보아 축조연대를 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하며, 武王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익산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이제 거의 학계의 통설로 굳어져 있다(최완규 2001, 2003a, 2003b, 2007, 2011, 2016, 2018, 2023; 이남석 2001, 2014; 이도학 2003; 이병호 2015; 김낙중 2019, 2021; 서현주 2017; 이성준 2018, 2019; 이문형 2018, 2022). 이런 상황에서 雙陵 피장자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고고자료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에 대한 曆年代를 제시하고, 이에 정합하는 雙陵의 주인공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색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방사성탄소연대(^{14}C)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조사된 익산 雙陵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왕릉에서 수습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은 치아 4개가 20~40세 여성의 것이고 석실 내부에서 수습한 토기가 신라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국립전주박물관 2015: 148~151). 이어서 2016년에는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雙陵의 피장자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던 武王과 王妃의 존재를 부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면서(이주헌 2016: 70), 雙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主人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익산시에서는 雙陵에 대한 재발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 실시된 재발굴에서 1917년 谷井濟一가 석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人骨이 담긴 상자를 대왕릉 석실 내부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자에 담긴 人骨에 대하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 조사한 결과, 한 개체분으로 판단되는 人骨이지만 왼쪽 무릎뼈와 왼쪽 목말뼈를 제외한 모든 뼈들은 조각이 나 있었으며 형태학적으로 구분 가능한 뼈 조각들은 총 102개로 분류되었다. 이 뼈 조각들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감정에 있어 性別의 추정은 오른쪽 위팔뼈의 안쪽 위관절융기(내측상과)에 대한 비계측 검사 및 왼쪽 목말뼈와 오른쪽 넓접다리뼈에 대한 계측 검사를 이용하여 性別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해부학적으로 확인된 뼈들에서 부피와 크기가 큰 경향을 나타내고 근육이 일어나고 닿는 뼈표지점들의 돌출 정도도 뚜렷한 소견을 보이는 등 출토 人骨의 性別은 男性으로 판단하였다(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21: 8). 또한, 확인된 人骨의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 60대의 노년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넓접다리뼈의 최대길이로 산출한 키는 161.0~170.1㎝로 추정되고, 620(68.2%)659.AD로 사망시점을 산출하였다. 특히, 사망시점은 정강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가속형 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이므로, 600년에 즉위하여 641년에 사망한 武王이 10대나 20대에 즉위한 경우, 사망할 때의 나이가 男性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雙陵 人骨의 추정나이와 비슷하며, 사망시점인 7세기 초반부터 중반쯤이라는 人骨 분석결과는 대왕릉이 익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같은 시기에 왕권을 확립한 백제 武王의 陵墓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성준 2018: 3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34).

그러나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에 대한 해석은 관련 연구자들로 하여금 대왕릉 主人公을 武王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한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 즉, 수습한 人骨에 대한 분석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담당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Beta Analytic에 직접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수행하면서, 연대측정의 정밀도 향상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시료를 이등분한 후 (주)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에 주어 각각 연대측정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Acceptance test 결과 및 $\delta^{13}C$값, 연대오차 등을 고려했을 때, Beta Analytic에서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도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67). 나아가, 일반적으로 뼈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콜라겐을 추출해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에 콜라겐회전율(turnover rate)를 보정해야 하므로 기존연구 사례를 적용하여 56세 사람의 콜라겐회전율을 적용하여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의 사망시점을 결정하였다. 또한, 무덤의 축조시점 및 매장이

사망 이후 수년 내에 이루어졌다면, 매장 주체의 사망시점을 대왕릉의 축조 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시료의 분석결과를 1표준편차(1σ/68.2%)로 제시하며,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620~670.AD로 추정하였다.[19]

하지만,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국제학회에 의해 제안된 교정곡선(IntCal 13)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데이터의 해석과 교정연대(cal BC or cal AD)를 曆年代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錯誤이다. Beta Analytic의 시료분석 결과를 콜라겐 회전율(turnover rate)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 제시한 『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 연구보고서』 69쪽의 〈그림 3〉 雙陵 대왕릉의 축조 시점(Death Shift (Bone Beta-498945), Turnover)을 보면, 보고서에서 강조한 620(68.2%)670.AD의 1σ값과 함께 600(95.4%)680.AD의 2σ값도 제시되어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있어, 1σ(68.2% Probability)값은 3번 측정하면 2번, 2σ(95.4% Probability)값은 20번 측정하면 19번 정도의 유효 수치가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국제학회 및 한국고고학계에서는 2σ(95% Probability)값에 의한 결과를 신뢰가능한 연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창희 2008: 162~165). 따라서, 1σ(68.2% Probability)값의 분석치로서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파악하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효 값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독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고학에서 ^{14}C연대를 曆年代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 ^{14}C연대를 단순히 실연대 자체로써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고고학적 정황과 조합하면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가능성의 曆年代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이창희 2008: 178).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대왕릉의 축조시점의 근거로 제시된 방사성탄소연대(^{14}C) 2σ(95.4% Probability) 보정 값이 597~670.AD이므로 이 기간에 사망한 백제의 王으로는 武王(641년 3월 薨)외에도 威德王(598년 12월 薨)과 惠王(599년 ?월 薨), 法王(600년 5월 薨), 義慈王(600년 11월 薨)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도 대왕릉의 主人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논리적이다.[20] 또한,

---

19) ^{14}C연대측정에 의한 曆年代 산출은 절대로 하나의 연대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기존에 SNU AMS에서 독자적으로 표현한 '연대 눈금 맞춤 결과(Calibrateed Ages)'는 曆年代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이창희 2008: 166~172).

20) Beta Analytic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1σ(68.2% Probability)값은 620~659.AD이며 2σ(95.4% Probability)값은 597~670.AD으로 검출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53). 따라서 한국고고학계에서 신뢰 가능한 2σ(95.4% Probability)값의 기간에 사망한 王은 모두 5명이다. 이중 威德王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 왕릉원'의 능산리형석실의 축조시기에 대해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검토에서 대왕릉과 같은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평사천장식)인 석실은 6세기 4/4분기~ 7세기 1/4분기에 활발하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왕릉을 7세기 2/4분기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로 인식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처럼 같은 유구에 대한 고고학 분석법에 따른 결과와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릉을 武王의 陵으로 비정한 학계의 연구방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연령은 법의인류학적으로 50세 이상의 男性 노인으로 판단 되었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47;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21: 7),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치아 4점에 대한 재분석에서도 人骨의 추정 연령은 40~50대로 파악되었다(이성준 외 2018: 317). 이는 42년간 王位에 있었던 武王의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나며, 서로 정합하지 않는다.[21] 수습된 人骨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분석으로 추정된 연령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武王은 적어도 10대 초반에 王位에 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익산지역에서 貧母의 슬하에서 자란 薯童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王位에 오를 수 있었는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최완규 2023: 129~136).[22]

다음은 雙陵 대왕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의 의문이다.[23] 이 玉裝身具는 1917년 대왕묘에 대한 발굴조사시 木棺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525년생이므로 사망시 73세의 老人이므로 대왕릉 수습 人骨의 법의인류학적인 추정연령(50대 이상의 노인)과는 정합하지 않으며, 義慈王은 660년 중국으로 압송되어 11월 洛陽에서 病死하였으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21) 武王의 출생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이나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대략 60대 중반~후반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정호 2015: 143~144; 박현숙 2009: 337).

22) 최근 『三國遺事』 紀異篇 武王條에 기술된 '薯童說話' 가운데 武王의 탄생설화는 중국 漢 高祖 劉邦의 탄생설화와 비견되는 '君權神授'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武王은 익산지역에서 성장한 百濟系 王族이 아니라 馬韓系 세력의 걸출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馬韓의 인식이 뿌리 깊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던 익산지역의 馬韓系 세력은 薯童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遷都를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이 되었으며, 雙陵 소왕묘을 武王의 妃 무덤으로 추정하면서 이곳에서 발견된 石柱形 墓標石은 通天柱와 같은 성격으로 백제가 사비로 遷都한 이후, 크게 높아진 夫餘 繼承意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장자의 출자에 대한 상징적 표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소왕묘 주인공의 출처를 백제 왕실의 公主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최완규 2023: 140). 이 견해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武王과 善花公主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3) 대왕묘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제의 완형토기도 논란이 되는 유물이다. 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2015: 151)에 의하면, 이 유물을 신라권역에서 7세기 전반경에 유행한 小型盌으로 파악하였으나 이와 비슷한 완형토기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백제 사비기 토기류와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도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가 출토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사비기 늦은 단계에 유행한 또 다른 형식의 백제토기

재질은 옅은 담회색을 띠며, 횡경은 2.5㎝이고 타원형에 가까운 심엽형 고리로 상부 중앙에 몸체보다 한단 낮게 폭 0.6㎝의 홈을 넓게 새겼다(국립전주박물관 2015: 50). 이 玉裝身具는 北周 若干雲墓(578년) 출토품(員安志 1993; 劉雲輝 1996), 隋 姬威墓(610년) 출토품(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隋 煬帝(604~618년) 무덤 출토품(東家平 · 薛炳宏 · 秦宗林 2014)과 같은 것이며, 정방형의 과대 네귀퉁이와 한 가운데를 금못으로 고정하고 방형과대 아래로 타원형의 玉裝身具를 연결시킨 것으로, 帶金具의 垂下式이라 할 수 있다. 대왕묘에서 출토된 玉裝身具는 北朝~隋代의 고급관리들이 사용한 玉帶의 띠꾸미개로서 금속에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 隋 煬帝의 蹀躞金玉帶의 띠꾸미개에 달린 수하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물 대금구는 아니지만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중 鬼形文塼에도 방형과판에 둥근 고리의 수식이 달린 허리띠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이 小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 2021: 412).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隋 煬帝의 13環蹀躞金玉帶와 같은 최고등급의 것으로 612년 백제의 武王이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24]와 624년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것[25]과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보거나 637년 唐 太宗이 비단 도포와 채색비단 3천단을 주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唐에서 수여한 金玉帶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 2014a: 166, 2021: 412). 나아가 唐에서 衣服制가 제정된 것은 高祖 武德 4년(621년)이고 674년에 마련된 銙帶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의하면,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과, 4품은 金帶 11과, 5품은 金帶 10과, 6 · 7품은 銀帶 9과, 8 · 9품은 鍮石帶 9과, 서인은 銅鐵帶 7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銙帶制度가 재질과 과판의 수량으로 서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山本孝文 2005: 308). 그 중 玉은 문무관

로 보고 있다(김낙중 2021: 410). 그러나, 심하게 외반한 구연부와 환저상의 저부를 한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는 아직까지 백제의 사비기 토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기면을 고속회전으로 물손질 한 점, 내면이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용 토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로 판단된다. 또한, 대왕묘의 석실 바닥에서 다소 뜬 상태로 비스듬히 엎어진 이 유물의 출토상태는『高麗史節要』의 忠肅王 16년(1329년)에 기록된 대왕묘 도굴 당시에 燈盞으로 사용한 후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천 추동리12-1, 아산 장제리 아골 29-2, 김제 라시리 18-21, 창령 사리 1116번지-26 등과 같은 고려시대 유적에서 유사한 형태의 高麗陶器(盌A-외반구연)가 출토되고 있어(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327~331), 고고학적 맥락으로 보아 대왕릉의 후퇴적 과정에서 후대 유물이 석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24)『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25)『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二十五年 春正月條.

3품 이상의 최고위 관료나 王族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624년 이후 백제의 최고지배층이 사용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병호 2015: 82)으로 玉帶의 위상과 시기로 볼 때, 그것을 소지하거나 착용할 수 있었던 主人公은 武王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여 왔다(김낙중 2021: 413).

선학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雙陵 출토 玉裝身具는 대왕묘의 축조시기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고자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백제 사비기 관련 유구와 공반 유물의 曆年代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고고자료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문헌기록을 인용하면서도, 史料와는 정합하지 않게 해석하여 玉裝身具의 主人公을 武王에 맞추어 가는 듯하다. 즉, 唐이 성립한 후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의 내용을 살펴보면, 1·2품은 金, 3~6품은 犀, 7~9품은 銀, 서인은 鐵로 銙帶를 제작하였으므로[26] 玉裝身具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玉裝身具는 高宗 顯慶 1년(656년)이 되어서야 제정된 衣服制에서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銙를 착용하게 되므로,[27] 이때 비로소 唐에서는 金玉製 銙帶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정범 2017: 119).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를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624년이나 唐 太宗이 포상했다는 637년 기사와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견해는 문헌기록과는 전혀 정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처럼 원형의 수하식이 달린 허리띠는 唐式銙帶와는 이질적인 면이 있어 따로 環帶 등으로도 불리며, 北朝~隋代의 성립기에 唐式銙帶와 공존했던 것이나 初唐代의 이른 시기까지 성행하다가 본격적으로 唐式銙帶가 확산되면서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山本孝文 2007: 43~45; 최정범 2017: 104~105)는 주목된다.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는 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기보다는 唐 수립(618년) 이전에 이미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 백제사회에서 시행되었던 喪葬禮이다. 백제의 喪葬禮는 중국의 喪葬禮를 모범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관리가 죽은 후 官服을 입은 채로 장사지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관직을 맡은 자뿐

---

26) 『唐書』 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 至唐高祖 以赭黃袍 巾帶爲常服, 腰帶者… 一品二品銙以金 六品以上犀 九品以上銀 庶人以鐵, …

27) 『唐書』 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顯慶元年… 其後以紫爲三品之服 金玉帶十三, 緋爲四品之服 金帶銙十一, 淺緋爲五品之服 金帶銙十, 深綠爲六品之服, 淺綠爲七品之服 皆銀帶銙九…

만 아니라 준관리 신분 칭호를 부여받은 여성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은 작위를 책봉 받은 자들도 포함되었다(韋正 2022: 26). 특히, 南朝시기의 제왕이나 고관대작의 대렴 시에는 官服 착용이 성행하였는데, 제왕은 袞冕服으로, 命官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公服으로서 황제가 내린 命服을 입혔다. 公服 이외에도 棺槨도 황제의 賻贈品으로 사여받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백제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성행한 '朝服葬'이 적용되었는데,[28] 대략 4세기 말~5세기 전반 무렵을 시작으로 금동제 冠帽와 飾履를 중심으로 하는 착장 威勢品이 나타난다. 이들은 물론 喪葬儀節 전개상 소렴 혹은 대렴 단계에 이루어진 것인데, 武寧王陵의 경우 '朝服葬'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이는 사비시기까지 이어졌다(박순발 2023: 200). 따라서, 武王은 600년 5월에 즉위하였으므로, 612년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29]와 관련지어 玉裝身具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唐이 성립된 618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唐에 朝賀하면서 새로운 관직과 그에 해당하는 官服을 武王은 수여받았다. 특히, 武王이 逝去한 641년에는 백제의 使臣이 唐에 입조하여 武王의 죽음을 알리자, 唐 太宗은 玄武門에서 哀悼式을 거행하고 詔書를 내렸다. 이때 죽은 武王에게 光祿大夫(從2品)를 추증하고 賻儀를 후하게 내렸다는 기록[30]으로 보아 武王의 葬儀時에는 唐 太宗이 하사한 公服을 착용하고 陵墓에 안장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31] 武王은 唐으로부터 2品에 해당하는 칭호를 받았으므로 唐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에 따라, 1 · 2品이 착용하는 金帶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익산 雙陵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와 관련된 金玉帶는 唐 顯慶 1년(656년)에 제정된 衣服制에서 처음으로 文武百官에게 적용되었으므로, 武王이 在位하였을 때나 또는 葬儀時에도 金玉製銙帶를 唐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28) 백제에서는 발굴된 분묘의 수량과 확인된 官服 관련 유물의 양을 대비해 볼 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에 반드시 官服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으며, 專用裡葬服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도 없고 실물이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복식과 관련된 장식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장자에게 평상시에 있었던 옷이나 帶金具를 수반하지 않는 專用裡葬服을 입힌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山本孝文 2007: 51).

29)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30)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四十二年 春三月條 … 使者入唐 素服奉表曰 君外臣夫餘璋卒 帝擧哀玄武門詔曰 … 贈光祿大夫 賻賜甚厚

31) 중국의 朝服葬 기사를 근거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帶金具를 葬服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정대영 2006).

그렇다면, 대왕릉 木棺 내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武王이 아님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으며 武王 이전에 逝去한 王이거나 王族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2018년에 진행된 雙陵 재발굴에서 수습한 人骨의 추정 연령(50대 이상 노인)과 치아에 대한 분석(40대 이상) 및 정강뼈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가속질량분석기(AMS)로 검출된 신뢰가능한 과학적 결과(600~680년/95.4%)를 근거(이성준 2019: 31~33)로 이를 정합적으로 적용하여 그 主人公을 비정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일 것이다.

한편, 대왕릉의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피장자 王妃說 역시 성립할 수가 없다.[32] 따라서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우선 대왕릉과 소왕릉 사이의 선후관계를 고고자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연구가 있다. 雙陵 소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木棺에 사용된 도금투금구와 금동좌금구의 단면 형태 및 도안의 특성을 비교해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 되었다는 연구가 그것이다(이병호 2017: 341~342).[33]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유물의 출토 맥락과 조사 기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왕릉과 소왕릉 출토품을 나누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국립전주박물관 2015: 147), 소왕릉 투금구의 결합부와 대왕릉 좌금구의 결합홈을 대조하여 너비가 좁은 소왕릉 출토품 2점을 대왕릉과 관련지어 본 것은 유의미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능산리 中上塚과 7호분은 聖王이나 威德王의 陵으로 거론되지 않는 육각형 단면의 單葬이며, 석실의 규모도 큰 차이가 없어 惠王과 法王 또는 그와 관련된 왕실의 陵墓로 추정하면서 惠王부터 武王까지의 짧은 기간에 '능산리 中上塚 · 7호분→소왕릉→대왕릉'의 선후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투금구와 좌금구, 투조관식의 장식요소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32) 기존에 소왕릉 피장자가 武王의 妃일 것이라는 판단은 고고학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대왕릉 주인공이 武王이라는 전제 아래, 『高麗史』의 俗說과 설화적인 성격이 강한 『三國遺事』 등의 기록물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왕릉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王妃說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3) 『三國遺事』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를 보면, 武王은 薯童이었고 武王妃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善花公主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09년에 발굴된 미륵사 서석탑 사리봉영기 내용에는 善花公主가 아닌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 王妃였고 미륵사 창건도 이 沙宅積德의 딸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지금까지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로 고고학자의 고백(조유전 2016: 10)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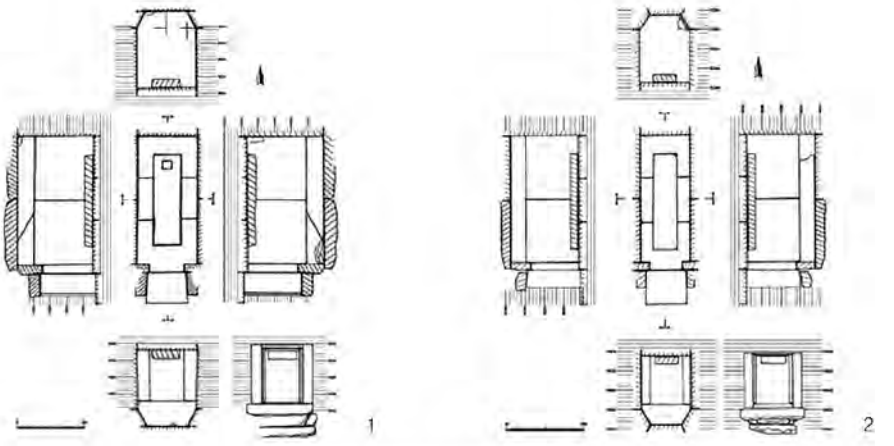
않다고 이해하면서도, 다만, 당시에 구축된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성준 2019: 29~30).

따라서, 소왕릉과 대왕릉의 선후관계는 출토맥락이 애매한 유물에 대한 명쾌한 분석뿐만 아니라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석실유형의 설정과 석실 내 세부적인 속성의 유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34] 이는 소왕릉에 대한 재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석실의 형태와 규모 및 입지 환경 등의 속성이 대왕릉과 서로 대동소이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그림 7-1, 2).[35] 즉, 소왕릉은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3㎝, 너비 128㎝, 높이 175㎝이고, 현실 천장의 횡단면은 육각형으로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여러 고분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므로 피장자는 王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왕릉은 석실의 구조에 있어서 ⓐ현실은 단벽 1매와 장벽 2매의 화강암제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현실 중앙에 대형 관대(길이 245㎝, 너비 63㎝, 높이 20㎝)가 1개 설치되어 있고 ⓒ문틀식 현문구조에 짧은 연도(길이 50㎝ , 너비 110㎝ 내외)가 설치되었으며 ⓓ1매의 판석으로 현실과 연도를 폐쇄한 것 등으로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대왕릉과 소왕릉은 동일한 조묘집단의 기술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규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석실의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광섭 2006: 106).[36] 이는 고분을 축조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매우 근접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결국 고분의 主人公이 逝去한 시점 또한 매우 근접했을

34) 소왕릉에서 출토된 금동도금투금구와 동일한 것이 西上塚(4호분)과 中上塚(5호분)에서도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동일한 형식의 도금투금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3기 석실의 피장자는 사망시점이 서로 근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5) 雙陵은 익산시 필봉면 석왕동 왕묘리라는 곳에 2기의 陵이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2기 모두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서로 약 180m 정도 떨어져서 각각 조성되어 있는데, 북동쪽에는 대왕릉이, 남서쪽에는 소왕릉이 위치한다. 雙陵이 입지한 구릉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왕릉과 대왕릉은 각각의 낮은 구릉의 정상에 입지해 있는데, 이는 각 고분 主人公의 성격이 독립된 인물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일한 구릉상에서 서로 연접하여 조영되어 夫婦墓로 파악하고 있는 다른 고분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雙陵'이란 명칭이나 『高麗史』의 俗說 등을 근거로, 소왕묘와 대왕묘를 夫婦墓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근거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中上塚(5호분)의 구조도 雙陵과 공통적인 속성이 다수 보이므로 이 3기의 능묘는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서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 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中上塚과 雙陵은 고임석의 기울기(고임각)에 있어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능산리형석실 고임각의 변화와 주요 능묘의 피장자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지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7] 雙陵 평 · 단면도(1. 대왕릉, 2. 소왕릉)

가능성이 매우 높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威德王(598년 12월 薨)[37]과 惠王(599년 ? 월 薨),[38] 法王(600년 5월 薨)[39]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에 3명의 君主가 차례로 逝去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백제 웅진기 및 사비기에 제작된 출토문자 자료를 해당시기에 축조된 능산리형석실의 특징 및 변화과정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를 정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하여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부여 왕릉원'의 主人公을 새로이 비정하는 작업은 聖王~武王에 이르는 사비기 陵墓에 대하여 부정합하였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최선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역사가의 話頭일 것이라 생각한다.[40]

---

37)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威德王 四十四年 冬十二月 王薨 群臣議益曰威德

38)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惠王 二年 王薨 益曰惠

39)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法王 二年 夏五月 薨 上益曰法

40)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는 '王興寺'를 익산의 '彌勒寺'로 파악하면서 왕궁리 궁성의 건립 주체를 王子 惠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익산 및 그 주변지역은 王子 惠에게 分封된 지역으로 惠王에서 法王, 武王으로 이어지는 백제 말기 왕실에 있어 물질적 · 정신적 기반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최연식 2012: 1~35). 이에 의하면, 法王과 그의 집안이 익산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가 王位에 올라 父王인 惠王의 명복을 빌며 왕실의 願刹인 王興寺를 익산지역에 건립하려한 것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를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한 것으로, 백제사회에서 죽은 국왕과 왕실구성원을 위하여 사찰을 만들어 명복을 빌고 신성시하는 작업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익산 '彌勒寺'의 창건과 익산지역의 개발을 武王으로만 일관되게 연결지어 인식하여 왔던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신선한 탁견으로, 출토문자를 고고학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雙陵의 피장자를 새로운 인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 본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Ⅴ. 맺음말

백제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당대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인 출토문자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백제사에서 정치 · 불교의 단면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능산리사지 석제사리감 및 왕흥사지 석제사리감과 청동제사리합,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당대의 기록물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무렵의 백제왕실의 사리신앙과 왕실사찰에 대한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는 문헌연구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료의 일부를 보완해 주는 최고급 문헌정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양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리봉영기에 기록된 字句의 해석과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에 열중하거나, 기존 연구와의 정합 여부에 몰두하는 연구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출토 맥락이나 형태적인 변화양상과 당시 문화생활의 결과물인 고고자료와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는 연구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지금이라도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부여 왕릉원'은 백제가 遷都한 이후 왕실에서 조성한 그들 家系의 陵園으로서, 聖王~威德王에 이르는 사비기의 王과 王族이 永眠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일부 陵墓의 피장자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가 일단락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백제 사비기 지배층의 사회적인 인식과 불교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석제사리감의 세부적인 형태나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를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에 적용하여 曆年代를 추정해 보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主人公을 그려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聖王이 될 수 없으며, 雙陵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主人公을 武王으로 파악하거나,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에서 문헌기록과 정합하지 않는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雙陵 武王說의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부여 왕릉원'에 있는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은 聖王의 婦人이며, 武王의 陵墓로 정설화 되어 있는 益山 雙陵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접목시켜 정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主人公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聖王

~武王에 이르는 백제 사비기의 陵墓에 대한 비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출토문자 자료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을 추적해 볼 때, '부여 왕릉원' 陵墓의 主人公에 대한 새로운 비정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中下塚(2호분)이나 益山 雙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문헌기록이나 고고자료와 정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陵墓로 비정하거나, 당시의 역사를 描寫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江湖諸賢의 슬기로운 판단에 힘입어,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4. 04. 10 | **심사완료일** 2024. 05. 22 | **게재확정일** 2024. 05. 31

참고문헌

- 國文 -

강원표, 2016, 「능산리고분군 개요」,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고유섭, 1975, 『한국 탑파의 연구』, 동화출판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 복암리 3호분』.

_____,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능산리-부여 능산리공설운동장 신축 예정부지-』.

_____, 2009, 『왕흥사지-목탑지 금당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8,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목제시편 절대연대측정」(연구용역보고서).

_____, 2019,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2000, 『능사-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진전보고-』.

국립전주박물관, 2015, 『益山 雙陵』(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6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고려도기 Ⅳ』.

김규운 · 양숙자, 2016, 「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 『문화재』 49권2호.

김길식, 2008, 「백제 시조 구태묘와 능산리사지 -구태묘에서 묘사로-」, 『한국고고학보』69.

김낙중, 2014a, 「묘제와 목관을 통해 본 익산 쌍릉의 의미」, 『문화재』47-4,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4b, 「고고학적 성과 및 의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_____, 2019, 「서평『부여 능산리 1호분(東下塚)』(국립부여박물관)」, 『백제학보』29호, 백제학회.

_____, 2021,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김연수, 2000, 「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 『동원학술논문집』2,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03, 「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김태식, 2017, 「부여 능산리고분 · 사지」,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기록화사업』, 부여군.

김현용 · 오정현, 2014, 「사리장엄 발견 및 수습」,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남정호, 2015, 「백제 무왕의 왕비와 의자왕의 생모에 대한 고찰」, 『역사교육논집』55, 역사교육학회.

박순발, 2023, 「무령왕릉과 백제의 상장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박현숙, 2009,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36, 고려사학회.

부여군, 2008, 『부여 능산리고분군 둥허총 보존환경조사 보고서』.

山本孝文, 2002, 「백제 사비기 석실분의 계층성과 정치제도」, 『한국고고학보』 47.

_____, 2005, 「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7, 「백제의 환대에 대하여」, 『호서고고학』16.

서현주, 2017, 「백제 사비기 왕릉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 『한국고대사연구』88, 한국고대사학회.

신광섭, 2006, 「백제 사비시대 능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21, 『익산 쌍릉 -조사보고서-』.

윤태영,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경관에 대한 시론」, 『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2019 특별전).

韋 正, 2022, 「魏晉南北朝墓葬制度略述」,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국립공주박물관.

이귀영 · 박대남, 2010,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 『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남석, 2000, 「능산리고분군과 백제왕릉」, 『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01, 「백제고분과 익산 쌍릉」, 『마한 · 백제문화』제15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4, 「익산 쌍릉과 백제유적」, 『사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문화사.

이도학, 1995, 「부여 능산리 출토 사리감 명문의 의미」, 『서울신문』, 11월 6일자.
_____, 2003,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설의 재검토」, 『경주사학』, 경주사학회.
이동식 · 이연경, 2014, 「사리장엄 매장환경 분석」,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문형, 2018, 「익산 쌍릉(대왕릉)의 새로운 인식」, 『백제왕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22,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106.
이병호, 2015, 「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7, 「일제강점기 익산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백제문화』제56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이성준, 2019,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 『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성준 외, 2018,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제109집, 한국고고학회.
이주헌, 2016, 「익산 쌍릉의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 국립전주박물관.
_____, 2017, 「송산리6호분 문양전의 성격과 무령왕릉의 역연대」, 『한국고대사탐구』27.
_____, 2019,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조영가계와 피장자」, 『한국고대사탐구』32.
이창희, 2008,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원리와 활용」, 『한국고고학보』68집.
이한상, 2009, 「미륵사지석탑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16.
장경호, 1988, 「백제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미애, 2020, 「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목간과 문자』25호.
정대영, 2006, 「백제 출토 중국계 유물의 정치사회적 함의」, 『백제 생산기술의 유통과 정치사회적 함의』.
조유전, 2016, 「백제 왕도 익산과 쌍릉」『익산쌍릉의 정체성 규명과 향후과제』,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조은경, 2011, 「미륵사지석탑의 구조체계와 축조해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경미, 2002, 「한국 고대 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 『미술사학연구』235, 한국미술사학회.
_____,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_____, 2014,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성격과 의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8, 「백제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와 6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백제연구』67.
천득염, 1990, 「백제계 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경환, 2023, 「聖王의 대통사 창건 목적과 의미」,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최연식, 2012, 「미륵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연구』159.
최완규, 2001, 「익산지역의 백제고분과 무왕릉」, 『마한 · 백제문화』제15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03a, 「익산 쌍릉의 재검토」, 『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03b, 『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 『익산 미륵사와 백제』일지사.
_____, 2007, 「분묘유적에서 본 익산세력의 전통성」, 『마한 · 백제문화』제17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1, 「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 『익산 미륵사와 백제』일지사.
_____, 2016, 「전북지역 마한백제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제18호, 백제학회.
_____, 2018,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백제왕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23, 「백제 무왕의 천도와 익산」, 『동아시아 속의 고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최정범, 2017, 「중국 당식 대장식구의 등장과 전개」, 『중앙고고연구』제22호, 중앙문화재연구원.
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21, 「대왕릉 출토 인골 법의인류학 분석 결과보고서」, 『익산 쌍릉-분석보고서-』.
하승철, 2017,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의 출현과 그 배경」, 『백제학보』제19호, 백제학회.
한정호, 2013, 「백제 불탑 사리장엄의 조사현황과 특징」, 『백제사철연구』.

- 日文 -
鐘方正樹, 1996,「左右と男女」,『網干善教先生古稀記念 考古學論集』.
有光教一, 1979,「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 · 益山雙陵」,『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4.
黒板勝美, 1974,「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黒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 中文 -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9,「西安郭家灘隋姬威墓清理簡報」,『文物』59-8, 文物出版社.
東家平 · 薛炳宏 · 秦宗林, 2014,「江蘇揚州曹墅隋煬帝墓考古成果專家論證會紀要」,『東南文化』第237期.
員安志, 1993,『中國北周珍貴文物』, 陝西人民美術出版社.
劉雲輝, 1996,「北周若干雲與其玉帶考」,『歷史文物』9-7(通卷72), 國立歷史博物館.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07

The historic chronology and character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as seen by the excavated a records

Lee, Ju-Heun(Chairman, The Pusan Archaeological Society)

This study compared the various forms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based on the excavated a records identified of Sabi period in Baekje, Among the main characters of King's tombs in Sabi preriod,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and problems of N0.2 in Neungsan-ri(中下塚) and a Royal Tombs in Iksan(益山雙陵) are examining, and approaching from a new vision of these character.

Buyeo Royal Tombs Garden(扶餘 王陵園) is a tomb of their family members created by the royal family after move to Sabi, and it is generally known as a place where the kings and royalty are buried from the King Seong(聖王) to the King Mu(武王). If you estimate the historic chronology by applying the detailed form of the stone sarira container(石製舍利龕), which reflects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Sabi preriod ruling class and the capacity of Buddhism, or the excavated a written characters such as the changing patterns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you can picture a new character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Therefore, the character of No.2 in Buyeo Royal Tombs Garden was found to be a female tomb, not the King Seong. In addition, a Royal Tombs in Iksan, which is established as King Mu's tomb, questioned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by combining the excavated a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and insisted on the urgent need to find a new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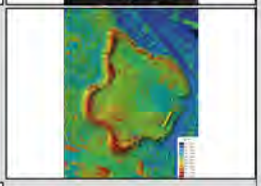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of human bones recovered

from a Royal Tombs in Iksan the character is identified as King Mu or the existing perception of jade-accessories belt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 does not match the excavated a records and historical record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not being able to explain this clearly, so it is urgent to review the theory of King Mu of the Royal Tombs in Iksan. In the future, I think that the request for the royal tombs of Sabi period from Baekje's King Seong to King Mu,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can minimize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Key words : the excavated a records, the stone sarira container, the historic chronology,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Buyeo Royal Tombs Garden, Royal Tombs in Iksan.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43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 달성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Daegu Dalseong through Comparison with fortification in Korea

이 혁 희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Ⅱ. 대구 달성의 현황과 축조기술

Ⅲ. 축조기술에 대한 예찰

Ⅳ. 국내 성곽과의 비교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글은 대구 달성의 구조와 축조기법 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신라, 백제, 가야지역의 토성과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달성의 성벽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총 3차례 실시되었다. 달성의 성벽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사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축조기술과 공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축조공정 및 기술에 대한 명확한 추론이 어렵다. 그로 인해 축조공정마다 여러 가설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축조공정별 특징을 추출하였다.

검토 결과, 달성은 신라 성곽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축성벽의 축조에 앞서 조성된 구조물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은 달성의 축조 이전부터 점유한 세력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 또한 1,300m에 달하는 신라의 최대급 지방성이 축조되었으며, 축조기술은 성토기법이어서 판축 도입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료로는 4세기대로 추정되므로 왕성인 경주 월성과의 비교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후 5세기 어느 시점에 토성으로 증축 또는 석축성벽으로 개축된 것 같다. 특히 외벽 석축부에서 확인된 석축기술은 그간 논의되어온 신라 석축성곽의 석축기술과 판이하며, 오히려 최근 확인된 대구지역 성곽 자료들과 유사성이 강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달성의 변화 속에서 추출한 세부기술의 특징은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신라, 백제, 가야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는 당대의 기술이다. 오히려 각 기술이 달성에 구현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편이므로 신라 성곽의 축조기술, 나아가 고대 토목기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신라, 성곽, 토축성곽, 석축성곽, 성토기법

Ⅰ. 머리말

이 글은 대구 달성의 역사 · 고고학적 성격과 문화유산적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 달성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신라, 백제,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토성과 비교를 시도하겠다.

달성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 첨해이사금 15년(261) 2월조 "달벌성을 쌓고 나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기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축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직접 연결할만한 고고자료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다. 달성의 성벽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총 3차례 실시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2017년에는 2차례의 조사를 통해 성과 관련된 외부시설인 암광유구가 확인되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2019a, 2019b; 윤용진 2007; 최재현 2017).

달성은 자료가 부족한 신라 토축성곽 연구에서 가치가 높은 유적이며 특히 초축 시기가 이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라 성곽 축조기술 및 지역지배방식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논의되었다(金相憲 2021; 박성현 2007; 이혁희 · 김진현 2023; 張容碩 2018; 조인규 2022; 조효식 2020).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도로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는 등(대구광역시 중구 2019, 2020, 2021, 2022), 달성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달성의 성벽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사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서 달성과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신라와 주변국가의 성곽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달성의 현황과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축조공정별 세부기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겠다.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축조공정 및 기술에 대한 명확한 추론이 어렵다. 그로 인해 축조공정마다 여러 가설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축조공정별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후 이 가설들이 동시기에 실현 가능한 구조 및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백제, 가야)와 비교하겠다.

Ⅱ. 대구 달성의 현황과 축조기술

1. 입지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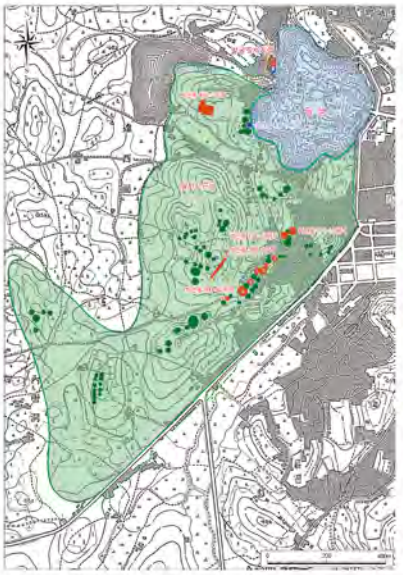
대구 달성은 대구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토성으로서, 대구의 옛 지명인 '達伐', '達句火', '達句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대구분지의 남서쪽에서 북동 방향으로 뻗어 있는 낮은 독립 구릉의 말단부인 해발 37~70m에 조성된 성곽이다. 현재는 대구 달성공원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1번지 일원에 해당한다(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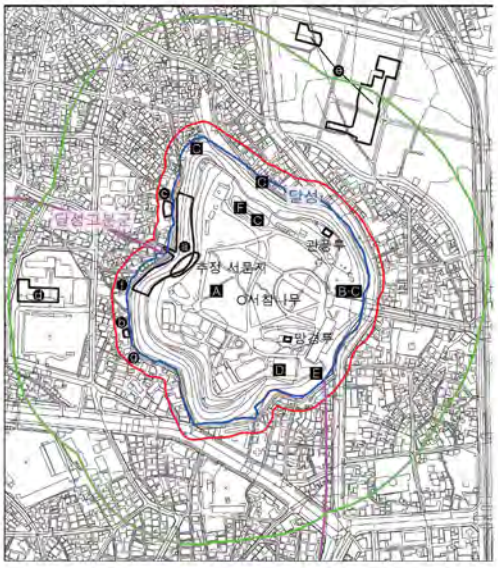
달성은 여러 개의 낮은 능선과 계곡을 아우르며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오각형에 가깝다. 둘레가 약 1,300m(성 내부 산책로 기준)이며, 외측 높이는 14~21m(대구광역시 중구 2020), 내측 높이는 4~7m 내외, 면적은 126,576㎡이다. 입지를 살펴보면 신천(新川) 범람으로 조성된 넓은 충적대지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며, 대구분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릉 말단부의 지형적 특징을 잘 활용하여 조성된 평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달성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능선부에는 삼국시대 대구 지역의 중심고분군인 달성고분군이 위치한다.

달성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 첨해이사금 15년(261) 2월조 "달벌성을 쌓고 나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축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직접 연결할만한 고고자료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다. 이후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석축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 1736년 대구읍성을 신축하기 전까지 읍성의 역할을 하였던 지역의 중심지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주둔 및 공원화로 인해 상당히 변형되었다. 1914년에 건립된 신사는 광복 후인 1966년에 철거되었으며, 1969년에는 달성공원이, 1970년에는 동물원이 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달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출발한다. 1913 · 1914년 달성 내 신사 건립과 관련하여 요배전, 참배로, 동문지 등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부지에 대한 조사가 그 시작이다. 1917년 이에 대한 보완조사가 시행되었다. 1941년에는 국체명징관 건립에 따라 남쪽 성체부 일부가 파괴되면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광복 후 달성은 삼국시대 초기 토성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사적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달성이 동물원으로 운영되면서 1968년 종합문화관(현 향토역사관) 부지, 1970년 물새장에 대한 공사로 인해 수습조사가 시행되었다.





연번	지점	조사연도	위치 및 내용	조사자	조사내용
1	A	1913	요배전 개축부지 발굴	공사 중 수습	구형토기 1점 수습
2	B	1914	신사참배로 개설을 위한 동쪽 성체 절개부 발굴	도리이 류죠	각종토기, 짐승뼈 출토
3	C	1917	물새장 부근 중앙부1, 2	도리이 류죠	기반암 노출, 토기편 출토
			성내 북쪽 일원	〃	토기편 수습
			북벽 외측 기저부	〃	육안조사에서 토기편 5점 수습
4	D	1941	국체명징관 남쪽 내벽 발굴	아리미츠 쿄이치	성벽 내벽 석축 노출
5	E	1968	향토역사관 부지 남동벽 절개지	윤용진	4개 문화층 조사, 나무기둥, 동물뼈, 토기편 등 출토
6	F	1970	현 물새장 조성부지	윤용진	연못 퇴적층 조사, 4개층 확인, 토기, 목기, 동물뼈 등 출토
7	a	2016	토성 추정 서문지	대동문화재연구원	5세기 추정 토성 성체부 확인. 석축하단 일부 토기편 출토
8	b	2017	비산동 130-12유적 공영주차장 부지 (토성 밖 서편)	대동문화재연구원	토성 성벽 하단부 능선 암반을 굴착한 암광유구 확인
9	c	2017	비산동 406-9유적 커뮤니티센터 부지 (토성 밖 서편)	대동문화재연구원	서쪽 성벽 기저부에 연접하여 성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를 채석한 삼국시대 암광유구와 토기편 확인.
10	d	2008	비산동 405-1유적 서부초등학교 개축공사부지 (토성 밖 서편)	대동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석곽묘와 고려~조선시대 생활·분묘유구 확인.
11	e	2020	달성동 218-11유적 달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토성 밖 북동편)	동국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석축제방과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 수혈, 논 등 조사
12	f	2021	비산동 146-17유적 (토성 밖 서편)	대동문화재연구원	유구·유물 없음
13	g	2011	비산동 403-3유적 (토성 밖 서편)	한국문화재재단	유구·유물 없음

[도면 1] 대구 달성의 조사현황(대동문화재연구원 2019b; 삼한문화재연구원 · 대구광역시 중구 2022)

2010년대에 들어 달성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다. 대구광역시 서구의 주관으로 진행된 정비 · 활용 사업의 과정에서 추정 서문지 주변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성벽 외측의 커뮤니티센터와 공영주차장 건립에 앞선 발굴조사를 통하여 달성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9a, 2019b).

2. 성벽 조사내용 검토

대구 달성의 성벽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총 3차례 실시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2017년에는 2차례의 조사를 통해 성과 관련된 외부시설인 암광유구가 확인되었다.

1차 조사는 1917년 12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조사단이 추정 동문지의 절개면 유물포함층, 성 내부 2개소의 유물포함층, 북벽 외부 하부 유물포함층, 북벽 성 밖 구릉부 등 5개 지점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루편, 고배 대각편, 승선문 · 격자문 토기편, 각종 동물뼈, 패각류가 출토되었다(도면 2).

2차 조사는 1968년 10월 경북대학교 박물관팀이 실시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달성공원 입구 남편으로 종합문화관(현 향토역사관)을 건립과정에서 굴착된 지점에 대한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깊이 6m 내외로 굴착한 남쪽 절개면을 활용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단은 기반층 위의 층을 총 4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아래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Ⅳ기 문화층은 성벽 축조 이전의 문화층으로 보고되었으며 하천 주변에 형성된 土砂층이다. 체성의 정상에서 6.5m 정도 깊이에 위치한다. 평탄지에서 경사지로 이어지는 지점 4m 구간에 직경 10㎝ 내외의 원목 말뚝이 10여 개정도 확인되었다. 이 층에서는 고식와질토기편, 타날문토기편, 골촉, 목심칠기, 참빗, 각종 동물뼈, 패각류, 씨앗류가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이 문화층의 시기에 대해 기원전 1세기로부터 기원후 2세기 전반으로 파악하였다.

제Ⅲ기 문화층은 점토퇴적으로서, 하층은 흑색부식토층이며 그 위로 소토층이 넓고 길게 확인되는 층군이다. 해당 층군은 하천 안쪽 깊숙한 지점까지 매립된 점과 외부와의 높이 차가 3m 이상 차이가 나며, 소토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토층임이 분명하다. 소토층은 아래층의 말뚝이 분포하는 범위에서 확인되지



[도면 2] 1917년 1차 조사 조사지 전경 및 유물(삼한문화재연구원 2022: 사진 5)

않으며, 여기로부터 안팎으로 약간 경사지게 형성되었다. 특히 소토층이 확인되지 않는 말뚝의 분포범위의 층을 살펴보면 단면형태가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金相憲 2021). 이 층에서 출토된 유물 대부분은 와질토기이며 소수의 도질토기도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승문과 격자문 타날 와질토기 등의 출토양상을 통해 기원후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경의 연대를 부여하였으며, 도질토기의 존재에 주목해 4C 전반으로 판단하기도 한다(金相憲 2021; 張容碩 2018).

제Ⅱ기 문화층에서도 소토층이 연속적으로 확인되며, 조사단은 '판축현상'이 확인된다고 지적하였다. 소토층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단절되지 않고 체성 중심부까지

이어진다. 체성 중심으로부터 서편(내측)은 수평상, 동편(외측)은 바깥쪽으로 경사상을 띤다. 내측 수평상의 소토층에는 잡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측 경사상 소토층에서는 잡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외측 경사상 토층에서 출토되었다. 고배, 기대, 단경호 등의 토기편, 철편, 방추차, 동물뼈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이 문화층의 달성고분군 고총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4C 전반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토유물에 대해 4C 중반으로 보거나(張容碩 2018), 신라양식의 이단투창고배에 주목해 5C 전후한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金相憲 2021).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제Ⅲ기층의 유물 양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분명하다.

제Ⅰ기 문화층은 토석혼축으로 체성이 쌓아진 층이다. 단면 양상은 제Ⅱ기 문화층의 동쪽 끝부분이 경사진 소토층 위로 막돌을 높게 쌓고 그 바깥쪽과 안쪽면을 흙으로 포장하듯 쌓아 올린 구조이다. 토석혼축의 층군은 바깥으로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조사단은 이 층에서 출토된 유물과 축조시기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3차 조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추진한 달성토성 정비 · 활용 시범사업 진행에 앞서, 현 달성공원 정문(추정 동문지)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추정 서문지 일대의 진입로 개설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굴트렌치는 달성공원 옹벽을 기준으로 안쪽 토성 외면(제1트렌치)와 바깥쪽(제2트렌치)로 구획하였으며, 제1트렌치는 조사여건 상 4개의 피트 조사로 진행하였다(도면 3).

조사결과, 토성의 외피토루 또는 기초부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성토층 내부에서 경사식으로 쌓은 판상석이 확인되어 조사단은 이에 대해 토성의 기단부 적심석으로 판단하였다. 그 위에는 점토블럭(토낭으로 보고)을 이용한 다짐성토층이 확인되었다. 경사면의 하단부에는 다짐성토층의 위에 석비레와 점토가 혼합된 층과 자갈층이 구축된 양상이 확인되어 토성의 경사면 하부를 보강하는 구조로 판단되었다. 이의 상층부는 1968년에 조사된 제Ⅰ기 문화층 단계에 조성된 토석혼축층이 붕괴퇴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토성의 기반에 해당하는 암반층은 제1트렌치의 4피트 하부에서 노출되었다. 외벽의 정상부 부근에 해당하는 제1트렌치 1피트에서는 적식석축면이 단절된 지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를 두고 조사단은 기단부와 체성으로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지점은 1968년 조사지의 제Ⅱ기 또는 제Ⅲ기 문화층의 소토층이 여러 겹 평탄하게 조성된 지점의 하단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물은 통형기대편, 발형기대편, 고배편, 승문타날토기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대부



[도면 3] 2016년 3차 조사 내용(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분 5세기 무렵에 해당한다.

성과 관련된 외부시설로는 2개소에서 확인된 암광유구가 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9a, 2019b).

우선 달성의 서문 출입로 남편 100m 거리의 비산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비산동 406-9번지)에서 확인된 암광유구는 달성 서편 성벽 하단부 자연구릉의 암반을 굴착하고 조성된 유구이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0m, 폭 5m, 깊이 1~2m이다. 장축은 남-북으로서 달성의 성벽 진행방향과 동일하다. 암광유구의 바닥에서는 1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바닥에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편으로, 대호, 파수, 대각, 호편이 출토되었다.

다음으로 달성의 서문 출입로 북편 100m 거리의 비산동 공영주차장부지(비산동 130-12번지)에서도 암광유구가 확인되었다. 암광유구의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어 바닥만 잔존하며 확인된 규모는 길이 10m, 폭 5~8m, 깊이 0.3~0.7m이다. 장축은 남서-북동으로 역시 달성의 성벽 진행방향과 비슷하다. 출토유물은 총 105점이며, 하부 퇴적층에서는 고배, 호, 기대, 시루 등 5세기 무렵의 삼국시대 토기류 89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



[도면 4] 대구 달성 외벽에서 확인된 암광유구(대동문화재연구원 2019a, 2019b)

이상의 2개소에서 확인된 암광유구에 대해 조사단은 축조 기획단계부터 계획된 구조물로 판단하였다. 암광유구를 굴착하면서 채석한 석재와 달성 추정 서문지 주변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경사식 적심석의 석재가 같기 때문이다. 암광유구를 통해 채석된 석재는 성벽 축조의 재료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굴착된 암광은 웅덩이 형태로 남아 자연스럽게 성벽의 외부 방어시설 외황이나 해자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Ⅲ. 축조기술에 대한 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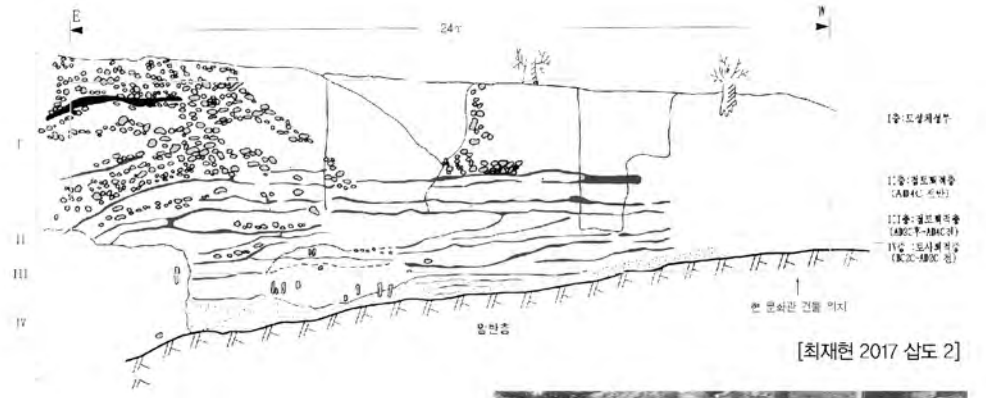
그간 필자는 삼국시대 가운데 조사성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백제 토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동시기에 공존했던 주변 국가의 토성과 비교도 병행하였다(이혁희 2019, 2020, 2022a, 2022b, 2023). 대구 달성 또한 필자의 분석 틀 즉, 축조공정('기저부 조성→체성 축조→수축 및 증축')별 세부기술에 대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겠다. 그 대상은 체성의 최상부로부터 기반암까지 굴착하여 토층정보를 남긴 1968년의 2차 조사이다. 이를 중심으로 1차 조사와 3차 조사내용도 반영하겠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달성의 성벽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사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축조기술과 공정을 추정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축조공정 및 기술에 대한 명확한 추론이 어렵다. 단정적인 해석보다는 여러 가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축조기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시행하겠다. 이를 통해 달성에 대한 논의의 다양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1. 기저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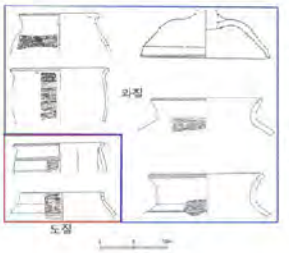
필자는 토성에서 확인되는 기저부 조성의 공정을 '기저부 정지'와 '기초성토'라는 2단계로 세분하여 이해하고 있다(金武重 외 2012; 李奕熙 2013a). 대구 달성의 기저부 조성공정에 대해서는 동벽 저지대와(2차 조사)와 서벽 고지대(3차 조사)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도면 5).

동벽 저지대는 1968년 조사단이 4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최하층의 제Ⅳ기 문화층(토사퇴적층)은 성벽 축조 이전의 문화층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Ⅳ기 문화층은 성벽 축조 이전의 문화층이 아니라, 초축성벽의 기저부 조성층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金相憲 2021). 이러한 반론은 성벽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반이 필요하므로 구지표 위에 성벽을 축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측의 해석에 기초하여 기저부 조성방식에 대해 추론해 보겠다.

우선 1968년 조사단의 판단에 따르면, 제Ⅳ기 문화층과 제Ⅲ기 문화층의 경계를 통해 기저부 조성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제Ⅲ기 문화층에서 말목이 확인된 위치, 즉 소토층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의 직하부에 오목한 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수평에 가깝



[최재현 2017 삽도 2]



제Ⅲ기 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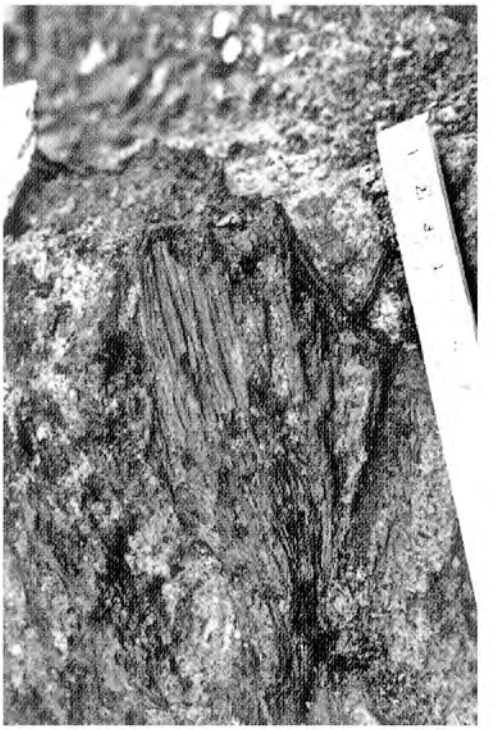
[김상현 2021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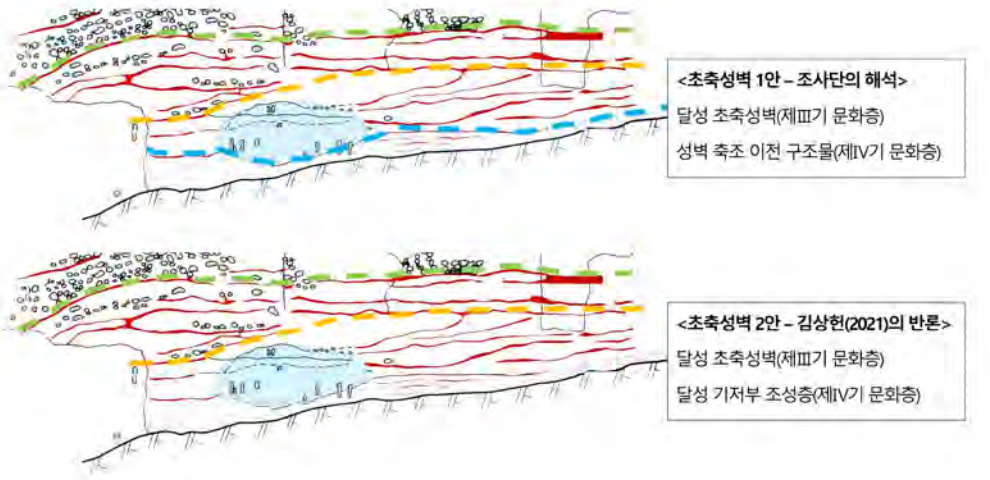
제Ⅱ기 문화층







[도면 5] 대구 달성 1968년 2차 조사내용 및 출토유물(金相憲 2021; 윤용진 2007; 최재현 2017)



[도면 6] 대구 달성의 초축성벽 설정안

게 기저부 정지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오목하게 정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Ⅲ기 문화층을 조성할 때 오목한 면 상부에 설치된 말뚝의 존재가 중요하다(도면 6). 이에 대해서는 목책과 같은 구조물일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최재현 2017). 또한 제Ⅳ기 문화층에서는 다양한 유기물이 출토되는 점과 말뚝이 온전하게 잔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제Ⅳ기 문화층 내에는 국지적인 연약지반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강공법으로 설치된 지정말뚝공법을 상정할 수 있다(金相憲 2021; 조인규 2022).

또한 지정말뚝이 설치된 오목한 면과 그 상부도 주목된다. 제Ⅲ기 문화층의 하층과 맞물려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볼록한 구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Ⅲ기 문화층에서 연속적으로 조성된 소토층이 해당지점을 경계로 끊겨있다. 이 볼록한 구조물은 높이 약 1.2m, 폭 약 2m 정도의 규모이며, 위치가 평탄면에서 외측의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경계부에 자리한다. 이 볼록한 구조물에 대해 토제로 추정한 견해가 金相憲(2021)에 의해 발표된 바 있으며, 필자 또한 적극 공감한다. 이러한 토제를 성벽의 외벽부 기저부에 조성하여 상부에 조성된 체성을 안정적으로 견디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토제의 내부와 하부에는 10여 개의 지정말뚝을 보강하는 세부기술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68년 조사단의 해석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면(金相憲 2021), 달성의 기저부 정지면은 암반면이며 외측에서 내측으로 13° 정도 약간 경사지게 정지하였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성벽 외측 기저부에 해당하는 암반면이 약간 돌출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정지한 흔적일 경우, 일종의 밀림방지턱 역할을 하였던 암반돌출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지면(암반면) 위에서 확인되는 제Ⅳ기 문화층은 자연스럽게 기초성토층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제Ⅳ기 문화층이 자연퇴적층인지, 인위적 성토층(인위층)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Ⅳ기 문화층(토사퇴적층)은 그 형태가 의미심장하다. 외벽 부근은 교란으로 인해 불분명하지만, 외측으로 진행할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암반면의 경사도에 순응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제Ⅳ기 문화층의 내측에서는 제Ⅱ기 문화층과 제Ⅲ기 문화층처럼 얇은 소토층이 연속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최근 달성을 검토한 여러 연구에서는 소토층을 제Ⅱ기 문화층과 제Ⅲ기 문화층의 성격을 성토층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꼽고 있다. 1968년 조사단은 제Ⅳ기 문화층에 대해 토사층이라는 제한된 기술만 하여 층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토층 형태가 기반암의 경사각과 다른 점, 내측을 중심으로 연속된 소토층이 확인된 점을 통해 인위층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제Ⅳ기 문화층에서는 그 상부의 다른 문화층과 달리 유기물의 출토가 현저하다. 외측으로 지정말뚝을 통한 지반보강공법이 적용된 요소도 종합하면 인위층일 경우에는 유기물을 활용한 성토, 즉 부엽공법과 같은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정리하면, 달성의 성벽 기저부 조성면 및 조성층은 제Ⅳ기 문화층을 성벽 이전의 층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설정이 달라진다. 설령 제Ⅳ기 문화층을 성벽 축조 이전의 문화층으로 보더라도 인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제Ⅳ기 문화층 내 출토 토기는 모두 고식와질토기이며 이를 근거로 1968년 조사단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전반의 연대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Ⅳ기 문화층 내 출토유물의 가장 늦은 연대인 3세기 이전 또는 늦어도 3세기 단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반대로 기반암을 정지하는 것으로부터 달성의 축조가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제Ⅳ기 문화층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기초성토층이 된다. 이 과정에서 소토를 비롯한 여러 물성의 흙을 섞어 다졌으며 유기물과 말뚝이 온전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일부는 부엽공법의 시설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성토층 상부로 평탄지와 외측 경사면의 경계지점에는 토제와 지정말뚝이라는 보강기술이 확인된다. 이 경우 초축

성벽의 축조 상한은 기초성토층+초축성벽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늦은 유물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서벽 고지대의 기저부 정지 방식과 관련해서는 급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상 기저부 정지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2016년에 설치된 제1트렌치의 4개 피트에서는 기반암이 노출된 지점은 가장 외측에 해당하는 4피트에서만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외벽의 경사도와 높이를 고려하면 계단식 정지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는 1917년 1차 조사 대상지인 추정 동문지 절개지점의 단면에 대한 유리건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면 2).

2. 초축성벽의 설정과 체성 축조

기저부 조성층 상부로 본격적인 체성의 축조공정이 진행된다. 대구 달성의 1968년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제Ⅰ기 문화층은 고려~조선시대에 조성된 토석혼축의 구조물이므로 초축성벽의 후보에서 제외되므로, 제Ⅱ기 문화층과 제Ⅲ기 문화층 사이에서 초축성벽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Ⅲ기 문화층은 내부의 소토층이 존재하며, 외부와의 높이 차가 3m 이상이기 때문에 인위층임이 분명하다. 특히 소토층은 내벽에서 외벽을 향하며 수평에 가깝게 진행하다가 외벽부 쪽에서는 급하게 꺾여 경사진 형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소토층은 외벽 부근에 끊겨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해당 지점은 볼록한 구조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토제로 판단된다(金相憲 2021). 토제에 기대고 하부로부터 점질토와 소토층을 교호로 성토한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판축구조물과 관련된 근거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제와 물려있는 말뚝들 또한 정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판축구조물로서 기능하였던 판축목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달성의 초축성벽은 성토기법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金相憲 2021; 안성현 2023).

제Ⅱ기 문화층 또한 연속적인 소토층이 확인된다. 내벽에서 외벽으로 단절되지 않고 체성 중심부까지 이어진다. 체성 중심으로부터 서편(내측)은 수평상, 동편(외측)은 바깥쪽으로 경사상을 띤다. 내측 수평상의 소토층에는 잡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측 경사상 소토층에서는 잡석이 많이 포함된 특징이 있다.

제Ⅱ기 문화층에 대해 조사단은 '판축현상'이 관찰된다 하였다. 그런데 제Ⅱ기 문화층의 내부에서는 판축관련 증거를 찾기 어렵다. 소토층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

어지는 점, 그 층의 형태가 외벽을 향하며 경사지는 형태라는 점, 목주흔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점, 당시는 수평상의 성토층을 두고 판축으로 인식할 수 있던 시기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Ⅱ기 문화층의 '판축현상'을 곧 판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판축의 여부보다도, 조사단이 '판축현상'을 별도로 지적할 만큼 제Ⅲ기 문화층과 제Ⅱ기 문화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출토유물에서도 감지된다. 제Ⅲ기 문화층에서는 와질토기와 도질토기가 섞여서 출토됨에 따라 와질토기에서 도질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4C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金相憲 2021; 張容碩 2018). 그런데 제Ⅱ기 문화층에 대해 최근의 편년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4C 중반으로 보거나(張容碩 2018), 신라양식의 이단투창고배이 출토된 점에 주목해 5C 전후한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金相憲 2021). 연구자별로 제Ⅱ기 문화층에 대한 연대관의 차이가 있지만, 제Ⅲ기 문화층의 유물 양상과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제Ⅲ기 문화층과 제Ⅱ기 문화층은 세부적인 특징과 출토유물 상에서 차이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달성의 초축성벽은 앞서 살펴본 기저부 조성층으로부터 제Ⅲ기 문화층에 해당하는 범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제, 지정말뚝공법, 교호성토를 특징으로 하는 성토기법에 의해 조성되었던 구조물로 판단할 수 있다. 초축성벽의 축조시기는 현재의 자료로는 제Ⅲ기 문화층 내 출토유물을 통해 설명할 수 밖에 없으므로, 4C 전반을 상한으로 잠정한다.

3. 수축 및 증축

토성은 방어력 보강, 내부시설 및 토지 활용의 변화, 지속적인 유실 등으로 인해 초축 이후 증축, 개축, 수축, 보수가 이루어진다. 이는 토성뿐만 아니라 석축성곽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성곽의 특성상 사용 주체가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증축, 개축, 수축, 보수는 초축성벽 완공 이후 꾸준한 사후관리의 산물인 셈이다. 증축과 개축은 성벽의 외연 확장이자 근본적인 변화라면, 수축과 보수는 국지적인 수리, 보수, 보강을 의미한다(李奕熙 2013a, 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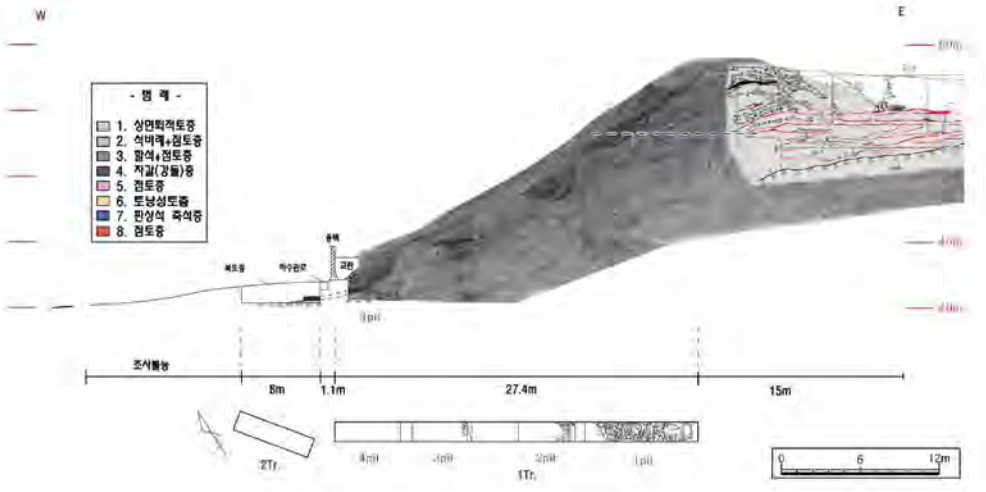
대구 달성의 초축성벽 완공 이후 여러 차례의 수축, 증축, 개축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대구 달성 성벽의 변화과정

<table>
<tr><td colspan="2">제Ⅳ기 문화층+제Ⅲ기 문화층 하층</td><td>제Ⅲ기 문화층</td><td colspan="2">제Ⅱ기 문화층+외벽 석축부</td><td>제Ⅰ기 문화층</td></tr>
<tr><td colspan="2" rowspan="2">초축 성벽 기초성토</td><td rowspan="3">초축 성벽
체성</td><td colspan="2">증축 성벽
(토성→토성, 석축부 비노출)</td><td rowspan="3">증축 성벽 체성</td></tr>
<tr><td colspan="2">개축 성벽
(토성→석성, 석축부 노출)</td></tr>
<tr><td>제Ⅳ기 문화층</td><td>제Ⅲ기 문화층 하층</td><td>제Ⅱ기 문화층</td><td>외벽 석축부</td></tr>
<tr><td>성벽 축조 이전
구조물</td><td>초축 성벽 기초성토</td><td>증축 성벽
(토성→토성)</td><td>개축 성벽
(토성→석성)</td><td></td></tr>
<tr><td>3세기 이전?, 3세기?</td><td colspan="2">4세기 전반 이후</td><td colspan="2">4세기 중반 이후?, 5세기 이후?</td><td>고려~조선시대</td></tr>
</table>

우선 초축성벽의 상부에 조성된 1968년 2차 조사의 제Ⅱ기 문화층을 통해 초축성벽의 상부와 외벽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그 규모로 보아 국지적인 수축이나 보수이기보다는 증축이나 개축으로 판단된다. 변화의 시기는 제Ⅱ기 문화층의 출토유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C 후반 또는 5C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金相憲 2021; 張容碩 2018).

그런데 2016년의 3차 조사단은 제1트렌치 제1피트에서 적심석축면이 단절된 점에 주목하여, 기단부와 체성이 구분되는 지점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당지점을 1968년의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제Ⅱ기 또는 제Ⅲ기 문화층의 하단면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하였다(최재현 2017). 3차 조사단은 추정 서문지 시굴조사 트렌치에서 출토된 유물과 3차 조사의 이듬해에 실시된 2017년의 암광유구 2개소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5세기 이후의 연대를 부여하였다(도면 7).



[도면 7] 대구 달성 단면 추정도(최재현 2017: 삽도 6)

2차 조사지점은 동문지 남측, 3차 조사지점은 추정 서문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위치상 정반대이며, 입지도 상대적으로 고지대인 서벽에 비해 동벽은 저지대라는 점에서도 2개 지점을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3차 조사는 '적심석축면'으로 해석한 석축부의 노출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하부의 토축 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3차 조사단은 '적심석축면'으로 판단하고 '기단부'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구조물의 하부구조라고 판단하기에는 성벽의 외면을 따라 전체적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기단부'의 가능성과 더불어 석축성벽의 면석일 가능성이 공존한다.

2차 조사지점의 인근에 해당하는 1917년 조사지점의 유리건판을 관찰하면 3차 조사 시 노출된 석축부와 유사한 판상형의 석재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내측의 토축부에 맞물려 조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서벽과 동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술의 적용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Ⅱ기 문화층의 연대를 4C 중반으로 보거나, 5C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하였던 점도 양 지점을 연결하는 정황 증거로 재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초축성벽 이후 성토된 제Ⅱ기 문화층은 3차 조사에서 확인된 외벽의 석축부(3차 조사단의 '적심석축면')와 동시에 조성된 내벽부 또는 뒷채움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초축성벽은 토성이었다가 석성으로 개축된 근본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제Ⅱ기 문화층 자체가 초축성벽 상부에 조성된 1차 증축 성벽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토축성벽으로 우선 증축된 후, 이것을 다시 일정 시기 뒤 석축성벽으로 개축하였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 단계의 자료적 한계 상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해 둔다.

이러한 변화 뒤에 조성된 석축부의 외면에는 토괴(토낭으로 보고)와 함께 교호성토된 토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석축부와 토괴의 관계를 동시 축조로 보게 되면, 토성에서 토성(일종의 석심토축)으로 증축한 것이 된다. 반면, 석축부와 토괴의 관계를 구분하게 되면 초축성벽 축조 이후 외벽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개축이 진행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안성현 2022).

이상의 복잡한 변화가 삼국시대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68년의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최상층에 해당하는 제Ⅰ기 문화층 즉, 토석혼축의 층이 다시 대대적으로 증축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17년 1차 조사의 유리건판에서도 관찰되며, 2016년 3차 조사 제1트렌치 1피트 중상위의 석축부(적심석축면)가 단절되

는 바로 윗부분과 유사한 층으로 연결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 또는 조선시대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최재현 2017).

Ⅳ. 국내 성곽과의 비교

앞서 Ⅱ장에서 대구 달성의 입지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Ⅲ장에서는 1~3차 조사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여 달성의 공정별 축조기술 및 변화과정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기초로 3세기 이전 또는 이후의 '성벽 축조 이전 구조물'의 가능성, 4세기 전반 이후의 초축성벽, 4세 후반 또는 5세기 이후의 증축 및 개축성벽으로 크게 구분하고 세부적인 특징에 따른 다양한 가설을 추출하였다(표 1).

여기에서는 앞서 제기한 여러 가설과 추정들이 당대에 실현 가능한 구조 및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신라, 백제, 가야의 성곽과 비교를 하겠다.

1. '성벽 축조 이전 구조물'의 성격

1968년의 2차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제Ⅳ기 문화층의 성격에 대해 필자는 인위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암반층의 경사도와 달리 수평에 가까운 층군의 형태, 내측을 중심으로 연속된 소토층이 확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중심부 내지는 외측을 중심으로 저습한 조건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는 등 복합적인 상태라는 점에서 인위층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제Ⅳ기 문화층이 인위층이라는 전제에서 이 구조물의 시기와 성격에 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선 1968년 2차 조사단은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이라는 연대를 부여하였지만 인위층이므로 가장 늦은 유물의 시간적 위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3세기 이전 단계 또는 3세기의 구조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경주 월성일 것이다(도면 8).

최근 월성의 남성벽 구간에 대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초축성벽 하부에서 월성 축조 이전에 해당하는 취락의 대지조성층이 확인되었다(장기명 2022). 조사단에 따르면 그 시기는 3세기 전~중엽의 사로국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로국 시기에 행해진 대지 조성은 정지작업→기초 지반 조성의 순서로



[도면 8] 경주 월성 남성벽 토층 단면도 및 대지조성면의 토기 매납시설 출토유물(장기명 2022: 그림 6 · 9 편집)

조성되었다. 정지작업은 구지표면인 모래 퇴적층을 울퉁불퉁하게 정지하였고, 취락 내부에 들어설 경계지점에는 최대한 굴착하였다. 이후 울퉁불퉁한 정지면으로 삭토된 구지표를 따라 30㎝ 내외의 두께로 얇게 정지면을 구축하고 마감된 표면을 경화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지면 위로 내부 → 외부 방향으로 기초 지반이 조성되었으며 내부면에는 볏짚을 포함한 유기물질 및 점질토 등의 재료가 우세하며, 외부면은 패각과 목탄이 혼입된 사질점토를 활용하였다 한다. 또 외부 최외곽 지점에는 구덩이를 굴착하여 목주를 박았던 흔적이 관찰됨에 따라, 목책 방어시설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지 조성의 최상면 내측에서는 마직물로 감싼 목제 시설 안에서 토기 17점을 매납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단경호, 옹, 시루 등 생활용기와 노형토기 2점, 고배 1점이 확인되어 3세기 전~중엽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월성 축조 이전의 대지조성층은 남천에서 비교적 떨어져 모래 퇴적층 위주로 쌓인 지점부터 대지 조성의 개시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천 퇴적층이라는 불리한 토대 위에 취락을 조성, 확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추정되었으며, 토기 매납시설은 취락 내부의 경계지점에서 대지 조성의 완료시점에 시행된 제의 행위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한다.

이처럼 경주 월성의 성벽 축조 이전 대지조성층은 달성의 2차 조사 제Ⅳ기 문화층을 축조 이전에 성토된 구조물로 가정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 성곽은 문지

주변의 저지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조성되었으며, 하천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성벽 축조 이전의 성토층이 성벽 단계 이전 취락의 대지조성층이거나, 한발 더 나아가 방어시설과 관련된 층일 경우에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國邑과 관련될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조효식 2020). 향후 달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층의 성격과 시기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2. 초축성벽의 축조공정별 비교

대구 달성은 해발 37~70m의 독립구릉에 축조된 1,300m 규모의 평산성이다. 하천의 남쪽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시계가 양호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西高東低의 지형이므로 주방어선은 서쪽임이 잘 드러난다. 초축성벽의 축조공정은 입지 선정 → 기저부 조성 → 체성 축조 → 피복 마감 순으로 판단되며, 초축 성벽 완공 이후에는 수축 등의 꾸준한 사후관리가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각 축조공정별 세부 특징을 신라 및 주변국가의 성곽과 비교해보겠다.

1) 입지 및 규모

築城은 그야말로 대역사이므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규모로 축조되지 않는다. 입지와 규모는 곧 성곽의 목적과 기능을 말해주는 요소이다(심광주 2007).

신라 토성의 최신 성과를 집성한 연구를 참고하면(金相憲 2021; 조인규 2022), 달성은 신라의 지방 토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표 2). 또한, 평산성임에도 평지성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내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 초축성벽의 축조시기도 4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신라의 초기 성곽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달성의 초축성벽은 입지 및 규모적 요소를 조합할 때, 가장 높은 위상을 갖은 신라 초기의 지방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하여, 대구지역의 신라화를 보여주는 대표 자료이자 신라의 정치 · 군사 · 경제적 요소의 교두보로 평가하거나(조효식 2020), 왕성인 경주 월성으로부터 50㎞ 내외에 위치한 위성도시 또는 교통로 상에 자리한 외곽방어시설로 평가하는 견해도 참고된다(金相憲 2021; 조인규 2022).

2) 기저부 조성

토성을 포함한 모든 성토구조물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설계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인 축조공정을 밟게 된다. 고대한 성토구조물이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견고한 기초가 필수이므로 다양한 보강기술이 동원된다(이혁희 2013a, 2013b). 토성은 길이가 길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지형을 지나게 된다. 저습지, 평지, 능선부, 완경사, 급경사가 그러하다(심상육 외 2014).

달성도 예외가 아니다. 달성은 조사지점별로 세부지형의 차이가 있다.

2차 조사지점은 달성 내에서 가장 저지대에 해당한다. 2차 조사의 제Ⅳ기 문화층을 성벽 축조 이전층 또는 초축성벽의 기초성토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기법의 차이가 있지만, 수평에 가깝게 정지하였다는 점이 공통된다. 이후 기초성토가 진행된다. 제Ⅳ기 문화층을 기초성토로 판단할 경우 앞서 성벽 이전 성토층으로 판단한 인위적인 요소가 기초성토의 세부기술로 재인식된다. 물성이 다양한 재료로 교호성토, 지정말뚝, 부분적으로 유기물이 양호하게 잔존할 수 있는 부엽공법과 같은 성토재료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제Ⅲ기 문화층의 하층을 기초성토층으로 판단하면 외벽의 기저부

[표 2] 신라 토성의 입지 및 현황(金相憲 2021: 표 6)

유적명	입지(해발,m)	둘레(m)	도성에서의 거리	입지적 특징
월성	독립구릉(44~48)	1,800	도성	- 성의 남쪽에 인접하여 하천 위치 - 성의 남쪽 하천 인접한 곳에 산이 위치함 - 사방으로 시계가 양호함
도당산토성	구릉(101.8)	1,000	남쪽 약 0.5km	- 성의 북쪽으로 도성이 조망됨 - 성의 동남쪽에 산이 위치함 - 성의 동쪽과 동남쪽을 제외한 방향의 시계가 양호함
달성	독립구릉(44~70)	1,300	서쪽 약 58km	- 사방으로 시계가 양호함
임당토성	구릉(59~65)	950	서쪽 약 43km	- 성의 서쪽과 남쪽으로 하천, 동남쪽으로 구릉이 위치함 - 대구에서 경주로 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함 - 동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시계가 양호함
순지리토성	구릉(185~213)	960	서남쪽 약 40km	- 김해에서 경주로 가는 교통로의 중간쯤에 위치함 -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산맥의 서쪽 완사면부에 위치함 - 성의 남쪽과 북쪽으로 시계가 양호함
이부곡토성	구릉(141~158)	1,250	북서쪽 약 114km	-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산맥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남북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시계가 양호함 - 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낙동강이 위치 - 낙동강을 건너 서쪽으로는 보은, 남쪽으로는 김천으로 가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
강문동토성	독립 구릉(7~25)	-	북쪽 약 220km	- 성의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동해 바다. 성의 남쪽에 하천 위치
이성산성	독립 구릉(115~155)	1,140	북서쪽 약 143km	- 성의 서쪽, 북서쪽으로 산이 위치하며, 성의 동쪽으로는 하천이 인접 - 성의 서쪽과 북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시계가 양호 - 추풍령을 넘어 보은으로 가는 교통로의 중간에 위치

에 해당하는 지점에 설치된 볼록한 토제를 특징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사질토, 점토, 소토, 목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기초성토를 실시하는 사례는 신라, 백제, 가야지역 토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기반암 정지 후 곧장 체성을 올리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체성을 판축으로 조성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성토에 부엽공법, 치환공법, 지정말뚝공법 등의 기술이 저습지 또는 저지대의 평탄지 지형을 극복을 목적으로 추가된다.

부엽공법은 뻘흙과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반복적으로 깔아 기초부를 조성하는 기술로서, 함안 성산산성의 토목공학적 분석을 통해 부엽공법의 탁월한 하중경감효과가 입증되었다(김진만 2012). 부엽공법에 의한 성토층에 다수의 말뚝을 박아 통해 부피를 늘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지정말뚝공법). 대구 달성의 2차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이 같은 요소들은 신라지역의 경우 경주 월성, 백제지역의 경우 서울 풍납토성 · 공주 공산성 · 부여 사비나성, 가야지역의 경우 김해 봉황토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초대형 또는 대형이자 여러 지형을 포괄하여 가용면적이 넓은 성곽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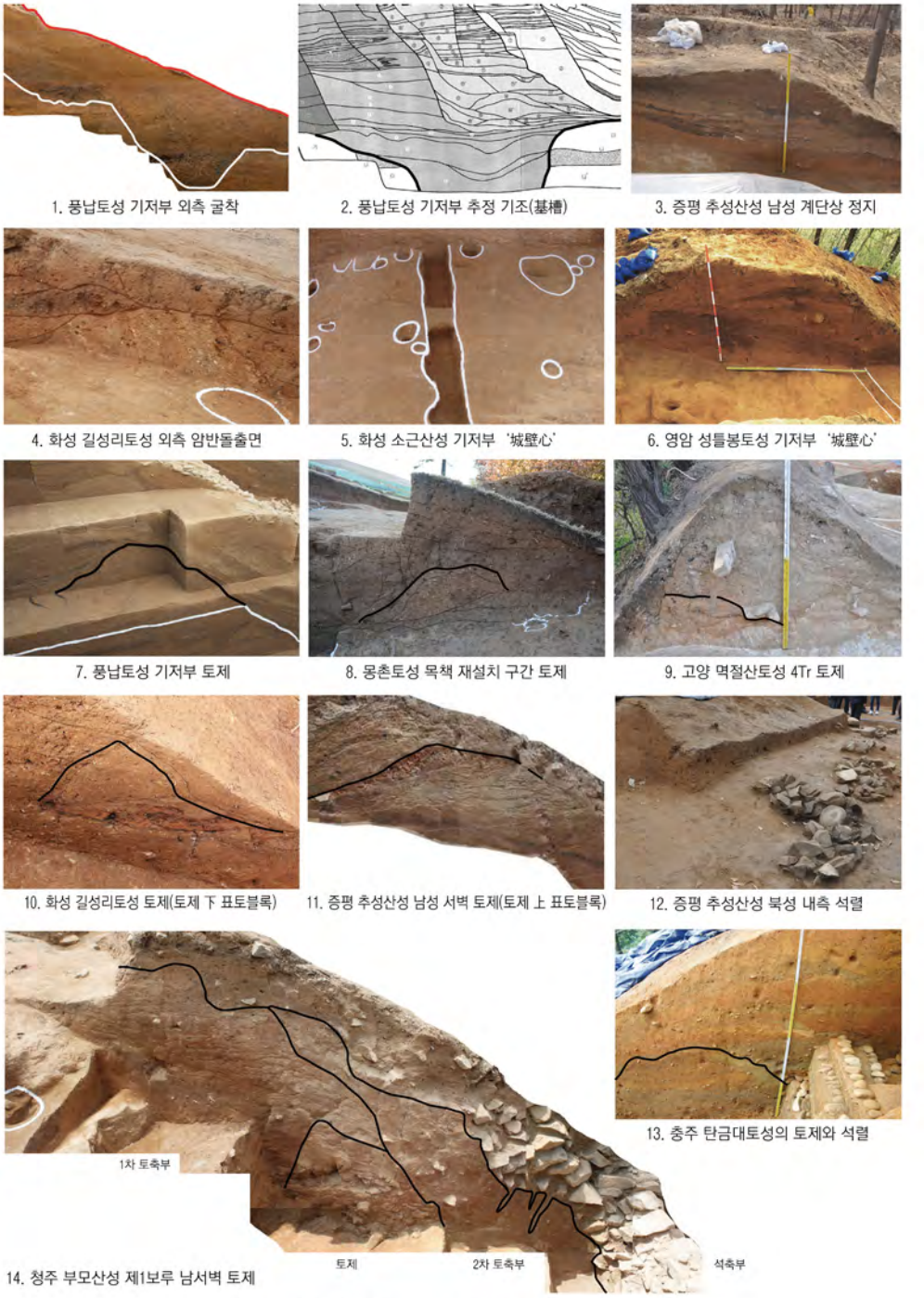
토제는 토성의 기초성토 공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다. 토성벽의 외연을 따라 볼록한 돌출부를 구축하는 기술로서, 기초성토 과정 중 또는 마무리 단계에 조성된다. 그리고 체성을 성토기법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초성토뿐만 아니라 체성축조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시설하기도 한다(도면 9).

토제는 신라의 경주 월성, 경주 도당산토성, 경산 임당토성, 강릉 강문동토성에서 확인되며, 백제 한성기 토성에서는 세부지형 또는 체성축조기술(성토기법, 판축기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된 기술이다. 최근 조사 사례가 증가한 가야지역의 토성에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토제의 인식은 고분의 봉토 및 분구 축조기술에서 출발하며, 고대 제방에서도 일반적인 기술이다. 고대 성토구조물을 대표하는 기술이자 기술공유를 살펴볼 수 있는 세부기술로 주목받아왔다(권오영 2012; 이혁희 2013a; 최경규 2019).

한편, 3차 조사지점은 달성 내부에서 가장 고지대이며 급경사의 지형 조건이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주로 외벽 기저부를 정지하여 암반을 볼록하게 만드는 암반돌출면[1]을 두거나, 계단상 혹은 'L'자형으로 삭토를 반복하여 후속공정의 공간을 마련한다.

---

1) 암반돌출면(밀림방지턱)은 신라지역은 강릉 강문동토성 A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백제지역에서는 화성 길성리토성과 충주 탄금대토성, 가야지역에서는 합천 성산토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면 9] 백제 한성기 토성에서 확인되는 기저부 조성의 다양성(이혁희 2016: 도면 3)

경사가 급할수록 단을 반복적으로, 더욱 깊게 'L'자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마찰력을 높인다. 이 가운데 경사 지형을 계단상으로 정지하는 방식이 대구 달성 축조에 동원된 것이다. 계단식 정지 방식은 신라에서는 경주 도당산토성, 상주 이부곡토성, 강릉 강문동토성, 옥천 이성산성의 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金相憲 2021; 조인규 2020). 백제는 평지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평산성과 산성에서 확인되며, 가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모든 토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현봉 2022; 심광주 2022; 이혁희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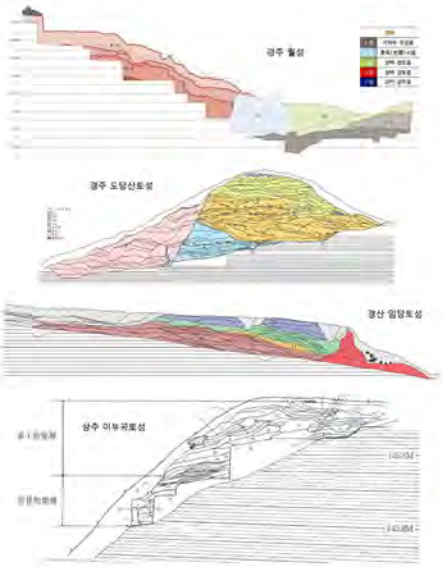
3) 성토기법으로 구축된 체성

달성의 초축성벽에서 확인된 체성축조 공정의 큰 특징은 판축구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백제의 토성에 분류를 적용하면 성토기법(필자의 A식)에 해당한다. 필자(2013a)는 토성의 성토기법에 대해 협판과 목주로 조합되는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므로 토제를 반복적으로 시설하며 여기에 기대어 경사성토와 수평성토를 반복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특히 성토과정에서 다양한 물성의 흙을 섞어 교대로 다지는 교호성토 방식이 일반적이며, 토괴(주로 점토블럭과 표토블럭), 소토와 목탄, 풍화암반편, 유기물, 석재 등의 다양한 재료가 활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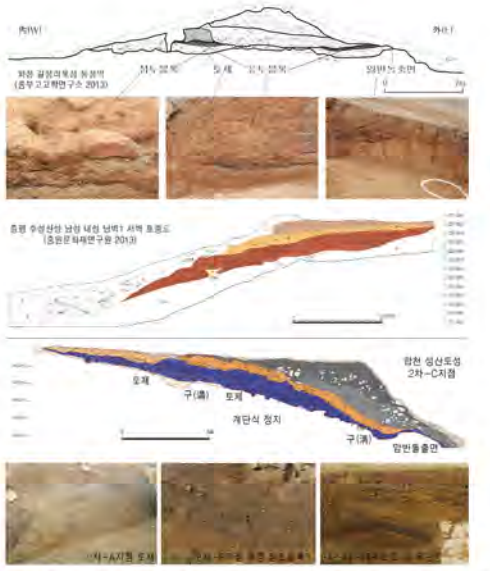
달성의 초축성벽 체성축조 공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이 감지된다. 토제, 점질토와 소토를 교대로 다지는 교호성토 방식, 경사성토와 수평성토의 반복이 바로 그것이다. 토제에 기대어 성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토 공정의 방향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향하는 내향적 공정일 가능성이 크다.

달성에서 확인되는 성토기법의 요소들을 신라지역에서는 경주 월성, 도당산토성, 경산 임당토성, 상주 이부곡토성, 강릉 강문동토성 A · B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金相憲 2021; 조인규 2022). 신라의 성토기법 토성은 4세기 전반~5세기 전반에 해당한다(金相憲 2021). 성토기법은 5세기 후반부터 도입된 판축과 석축성곽으로 대체됨에 따라 토성의 축조에 더는 활용되지 않는다. 백제지역에서는 화성 길성리토성, 증평 추성산성, 충주 탄금대토성 등 4세기의 토성에서 확인되고 5세기부터는 판축으로 대체되어 잘 확인되지 않는 기술이다. 가야지역에서는 특유의 석축부가 부가된 '석심토축공법'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벽의 석축부와 조합된 체성의 대부분은 성토기법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토기법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심광주 2022; 이혁희 2022a, 2022b, 2023).

이처럼 달성 초축성벽의 체성에서 확인된 성토기법이라는 요소는 기저부 조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4~5세기 특징, 4C 전반 이전의 출토유물, 신라 · 백제 · 가야지역의 비교를 통해서도 삼국시대 초기 토성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짐을 지적할 수 있다(도면 10 · 11).



[도면 10] 성토기법으로 축조된 신라 토성
(金相憲 2021: 그림 25 수정 후 인용)



[도면 11] 백제의 성토기법 토성과 합천 성산토성의 세부기술 비교
(이혁희 2022a: 그림 18)

3. 증축 및 개축성벽의 특징과 의미

Ⅲ장에서의 검토를 통해 대구 달성의 초축성벽 완공 후 여러 차례의 증축 및 개축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968년 2차 조사의 제Ⅱ기 문화층은 증축된 토축성벽일 수도 있다. 또한 이와 조합된 2016년 3차 조사의 외벽 석축부가 '적심석축면'이거나, 노출된 면석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석축성곽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표 1). 증축의 시기는 4C 중반으로 보거나(張容碩 2018), 5C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된다(金相憲 2021).

우선 2차 조사의 제Ⅱ기 문화층의 토축 양상에 대해 조사단은 '판축'으로 판단하였지만 판축의 요소는 현재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증축 또는 개축 시 동원된 토축기술은 초축성벽과 유사한 성토기법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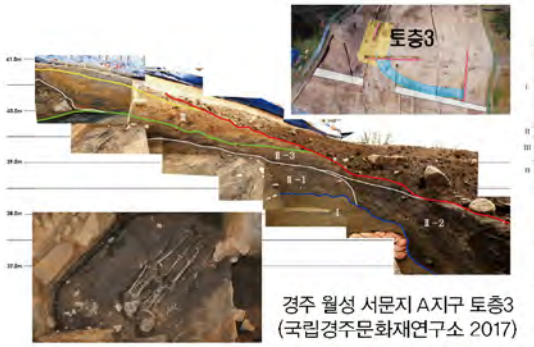
다음으로 3차 조사단이 가능성을 제시한 바와 같이, 제Ⅱ기 문화층과 3차 조사의

외벽 석축부를 조합 관계로 설정할 경우, '적심석축면'을 기단부로 삼고 최종적인 외벽을 토축으로 만든 구조물이 된다. 즉, '적심석축면'은 비노출구조이므로 토성→토성으로 증축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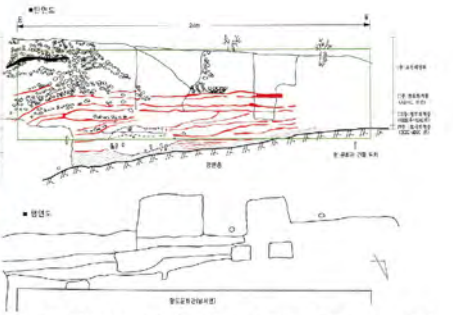
이처럼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외벽의 구조는 토축이지만 외벽부에 석축으로 보강한 사례는 특히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도면 12). 토성의 내부에서 확인되는 석축부는 설치 위치와 기능을 통해 백제지역 토성과의 비교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혁희 2022a, 2022b). 신라지역의 성곽에서는 경주 월성의 서성벽과 남성벽 확인된 중심토루 외측으로 석축을 시설한 구조에 점토블럭으로 보강한 구조와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장기명 2022). 달성과 주변한 대구 화원토성(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8)과 대구 팔거산성(오승연 2023)의 초축성벽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신라 성곽의 축조기술 전개 과정에서 토성과 석성의 과도기적 대상으로 대구 달성의 증축성벽이 조명될 것이다(박종익 2023). 또한 내벽과 외벽은 토축이며, 특히 외벽부를 중심으로 석축부로 보강한 구조는 가야 토성의 특징으로 꼽히는 석심토축공법(심광주 2019, 2020, 2022)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

반면, 제Ⅱ기 문화층과 외벽 석축부를 시간적 선후 관계로 전제할 경우, 토성의 외연을 삭토하고 석성으로 개축한 사례가 된다(안성현 2022). 3차 조사의 외벽 석축부를 석축성벽 면석을 설정하여 검토할 때, 주목되는 지점은 축조시기와 구조적 특징일 것이다. 우선 달성의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 외벽 바깥으로 조성한 암광유구에서는 5세기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신라 초기의 석축성곽 즉, 보은 삼년산성, 문경 고모산성, 영월 정양산성 등일 것이다. 이들은 성벽이 20m 이상의 수직에 가까운 협축식 구조이며, 세장방형의 석재를 정교하게 바른층쌓기한 구조이다. 여기에 기단보축을 더해 보강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차용걸 2008). 그런데 달성은 판상형석재를 경사지게 쌓은 내탁식 구조이며 외벽은 허튼층쌓기에 가깝고 기단보축이 확인되지 않아 판이하다. 달성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앞서 언급한 대구 화원토성이나 대구 팔거산성과 공유되는 상황이다(최관호 2022).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와 축조기술이 공존하는 신라 초기의 성곽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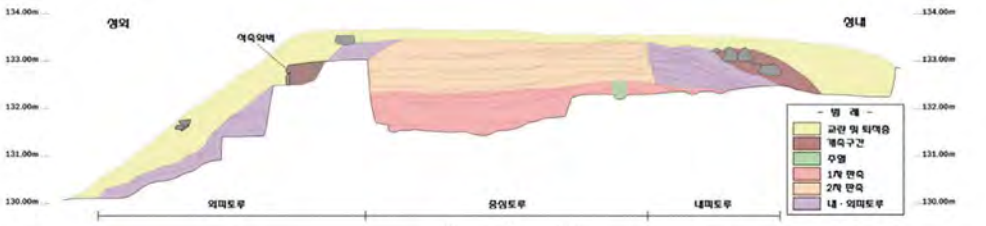
이렇듯, 달성의 증축 및 개축성벽에 대해서는 2개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구조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외벽 석축부가 비노출구조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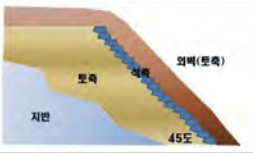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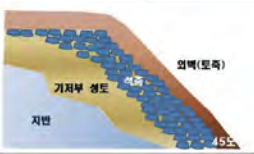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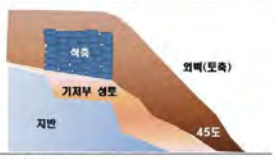
경주 월성 서문지 A지구 토층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대구 달성 1968년 수습조사 평 · 단면도(최재현 2017b)



옥천 이성산성 북벽Tr. 북벽토층(조인규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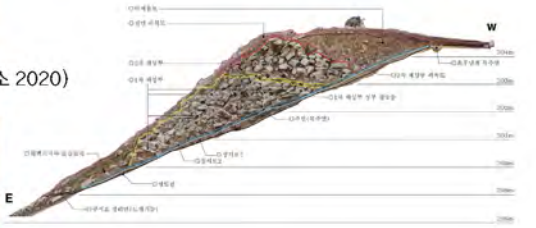
구분	석축보강형	편축식 석축 보강형	협축식 석축 보강형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모식도			
해당 성곽	김해 봉황토성 합천 성산토성 고령 주산성 선축성벽	합천 대야성 합천 초팔성	함안 칠원산성 함안 안곡산성 의령 유곡산성
특징	1겁~4겁의 석축	외벽 층단식 쌓기	목주를 세우고 석축

석심토축공법으로 축성된 가야 토성의 유형(심광주 2020: 표1)



김해 봉황토성(가경고고학연구소 2020)





함안 안곡산성 토층도(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9)

[도면 12] 신라지역과 가야지역의 토성(이혁희 2020: 그림 10)



[도면 13] 대구 달성의 외벽 석축부와 신라 성곽의 비교

우 석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토성의 한 사례가 되며, 월성 또는 주로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토성의 구조적 특징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외벽 석축부가 노출된 구조로 설정하면, 신라 석축성곽의 성립 및 전개 과정을 새롭게 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세기대에는 토성이었다가, 5세기대에는 석성으로 개축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신라의 성곽 축조기술에 이해에 있어서 특별한 토목기술사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국내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 대구 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달성의 입지 및 현황과 조사내용을 검토하였다. 달성의 성벽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사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축조기술과 공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축조공정 및 기술에 대한 명확한 추론이 어렵다. 그로 인해 축조공정마다 여러 가설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축조공정별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성벽 축조 이전 구조물'의 가능성, 초축성벽, 증축 및 개축 성벽을 크게 구분하고 세부적인 특징에 따른 다양한 가설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 가설들이 동시기에 실현 가능한 구조 및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백제, 가야)와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달성은 신라 성곽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축성벽의 축조에 앞서 조성된 구조물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은 달성의 축조 이전부터 점유한 세력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 또한 1,300m에 달하는 신라의 최대급 지방성이 축조되었으며, 축조기술은 성토기법이어서 판축 도입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료로는 4세기대로 추정되므로 왕성인 경주 월성과의 비교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후 5세기 어느 시점에 토성으로 증축 또는 석축성벽으로 개축된 것 같다. 특히 외벽 석축부에서 확인된 석축기술은 그간 논의되어온 신라 석축성곽의 석축기술과 판이하며, 오히려 최근 확인된 대구지역 성곽 자료들과 유사성이 강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달성의 변화 속에서 추출한 세부기술의 특징은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신라, 백제, 가야 성곽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는 당대의 기술이다. 4세기대 성토기법은 보편적인 기술이며, 5세기대 외벽 석축부의 부가를 통한 증축 또는 개축의 상황 모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이다. 오히려 각 기술이 달성에 구현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편이므로 신라 성곽의 축조기술, 나아가 고대 토목기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해석과 전망은 한계가 뚜렷하고 매우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달성의 구조 및 축조기술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결국 추가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 달성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진면모와 가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 글은 2023년 9월에 개최된 〈대구 달성의 역사 · 고고학적 성격과 문화유산 가치, 대구광역시 중구 · 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 · 보완한 글이다.

투고일 2024. 4. 10 | **심사완료일** 2024. 5. 21 | **게재확정일** 2024. 6. 3

참고문헌

권오영, 2012, 「고대 성토구조물의 재료에 대한 재인식」, 『백제와 주변세계』, 성주탁 교수 추모논총 간행위원회.

金相憲, 2021, 「三國時代 新羅土城 築造技法에 관한 고고학적 硏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김진만, 2012, 「함안 성산산성 축조기법의 토목공학적 연구」, 『함안 성산산성 고대환경복원연구 결과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현봉, 2022, 「금관가야, 아라가야 토성의 축성 기술」, 『신라와 가야의 토목기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구광역시 중구, 2019, 『달성토성 · 경상감영 ·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추진 연구』.

_____, 2020, 『대구 달성 기록화 조사보고서』.

_____, 2021, 『대구 경상감영지 기록화 조사보고서』.

_____, 2022, 『대구 달성 문화재 물리탐사 보고서』.

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달성토성 정비 · 활용 시범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_____, 2019a, 『대구 달성Ⅰ -대구 비산동(406-9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_____, 2019b, 『대구 달성Ⅱ -대구 비산동(130-12번지) 달성토성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박종익, 2023, 「가야문화권역 고대 성곽 검토와 과제」, 『가야고분군Ⅷ』,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9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삼한문화재연구원 · 대구광역시 중구, 2022, 『大邱 達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8,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심광주, 2007, 「중부 내륙지역 고대산성의 성격과 특성」,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등재대상 선정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_____, 2019, 「가야리토성의 축성법과 의의」, 『아라가야의 전환기, 4세기』, 도서출판 선인.

_____, 2020, 「가야 성곽으로 본 토목 기술」, 『가야인의 技術』,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_____, 2022, 「가야성곽의 축성법 검토」, 『성곽을 통해 본 고대 토목기술의 발전과 전개』, 2022 백제왕도핵심유적 학술대회,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추진단.

심상육 · 이명호 · 김태익 · 김선옥, 2014, 「부여나성 동나성 2문지 발굴조사의 의의」, 『百濟文化』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안성현, 2022, 「상주지역의 고대성곽」, 『선사 · 고대의 상주』, 상주박물관문화총서9, 민속원.

_____, 2023, 「대구 팔기산성의 성격」, 『대구 팔거산성 조사성과와 활용방안』사적 승격기념 학술대회, 대구광역시북구 · 화랑문화재연구원.

오승연, 2023,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 성과」, 『대구 팔거산성 조사성과와 활용방안』사적 승격기념 학술대회, 대구광역시북구 · 화랑문화재연구원.

윤용진, 2007, 「달성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達城-잊혀진 유적의 재발견』, 대구문화예술회관.

李奕熙, 2013a, 「漢城百濟期 土城의 築造技法」,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3b,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89, 한국고고학회.

_____, 2016, 「Ⅶ. 고찰 1. 조사구역 성벽의 축조 양상」, 『몽촌토성Ⅱ-2014년 몽촌토성 북서벽 구 목책설치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9, 「백제토성과 함안 가야리토성의 비교」, 『아라가야의 전환기, 4세기』, 도서출판 선인.

_____, 2020, 「대가야 도성구역 성곽과 인접국가 성곽의 비교」, 『대가야의 도성_都城』, 대가야학술총서14, 고령군 · 대가야박물관 · 영남대학교 박물관.

_____, 2022a, 「백제의 토성과 합천 성산토성의 축조기술 비교」, 『嶺南考古學』93號, 嶺南考古學會.

이혁희, 2022b, 「대가야, 소가야 지역 토성의 축조기술」, 『신라와 가야의 토목기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_____, 2023, 「백제 토성과 가야 왕성의 축조 기술 비교」, 『가야고분군Ⅷ』,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9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이혁희 · 김진현, 2023, 「영남지역 신라 · 가야 토성의 축조기술」, 『가야 토성의 성격과 의미』, 2023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장기명, 2022, 「신라 왕경 토성의 축성 기술」, 『신라와 가야의 토목기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張容碩, 2018, 「嶺南地方 三國時代 土城의 築造技法과 材料」, 『水利 · 土木考古學의 現況과 課題Ⅱ』, 우리문화재연구원.
조인규, 2022, 「영남지역 토성과 이부곡토성 비교검토」, 『상주 이부곡토성의 성격과 활용방안』, 제10회 상주박물관 학술대회, 상주박물관.
조효식, 2020, 「대구 달성유적 검토」, 『1,500년 전의 기억, 대구 달성유적』, 2020년 국립대구박물관-영남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차용걸, 2008, 「신라 석축산성의 성립과 특징」, 『石堂論叢』4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최경규, 2019, 「아라가야 토목구조물의 기술적 특징과 그 의미」, 『文物硏究』제36호, 동아문화재단.
최관호, 2022, 「대구 팔거산성 축성의 특징과 의의」, 『신라의 지방거점, 대구 팔거산성』, 국회의원 김승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재현, 2017, 「달성(達城)의 축조방법에 대하여」, 『古代城郭의 修築과 改築』, 한국성곽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43

Characteristics of Daegu Dalseong through Comparison with fortification in Korea

Lee, Hyeok-Hee(Curator, Seoul Baekje Museum Institute of Baekje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Silla, Baekje, and Gaya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Daegu Dalseong. A total of three surveys on the walls of Dalseong were conducted during the long perio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2016. Since the survey of the Dalseong Wall has been limited, it is difficult to infer clearly due to fundamental limitations in estimating construction techniques and processe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process were extracted by selecting a method of listing various hypotheses for each construction proces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Dalseong was in a special position among the Silla fortification. The confirm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structure built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build Wall raises questions about the existence and status of the forces occupied even before the construction of Dalseong. In addition, Silla's largest provincial fortification of 1,300m was buil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is embankment structure, so it seems that it was built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tamped arthen wall. Since the current data are estimated to be in the 4th century, it is of great value as a comparative data with the king's capital Gyeongju Wol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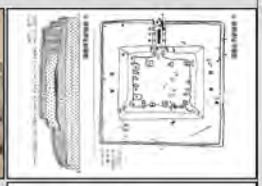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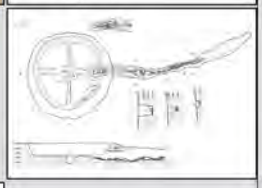
After that, it seems to have been rebuilding as a extension or Stone-walled fortification to Earthen fortification at some point in the 5th century.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Stone-walled technology identified in the outer wall stonework is different from the Stone-walled technology of Silla Stone-walled fortification that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rather, it has a strong similarity to the recently identified fortification in Daegu.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ailed techniques extracted amid the changes in Dalseong are those of the time sufficiently prove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illa, Baekje, and Gaya fortification that coexisted at the same time. Rather, since the time when each technology was implemented in Dalseong was relatively early, it can be seen that it is an important data fo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Silla fortification and further the study of ancient civil engineering history.

Key words : Silla, fortification, Earthen fortification, Stone-walled fortification, Embankment Structure.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79


古代 韓中日 氷庫의 고고학적 비교연구

An Archaeological Comparative Study on Ice-storage in Korea, China and Japan

유 병 록
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Ⅱ. 고대 한중일 빙고 문헌 사례 비교

Ⅲ. 한중일 빙고의 고고학적 비교

Ⅳ.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빙고와 얼음 운영 체계(빙정)는 일찍이 중국 고대 권력의 출현을 상징하는 한 요소로 문헌상으로 언급되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고학 자료 중 하나이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그 보관의 대상물이 유존될 수 없는 얼음이었다는 점에서 한중일 모두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확인된 빙고의 핵심은 일정한 깊이를 가진 수혈 안에서 외부 온도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두꺼운 벽과 녹는 물(용해수)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수시설이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구조는 3국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일부는 내부에 배수시설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3국 중 빙고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곳은 한국으로 전국적으로 20곳이 넘는다. 즉, 고대 빙고에 관한 관련 문헌은 중국이 단연코 가장 많지만 고고학적 자료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대 빙고를 둘러싼 빙정를 검토하는데 우리나라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빙정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분명하고, 그 핵심 요소인 빙고 역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시기상 500년 이상 앞서면서 규모나 구조면에서 정형화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기나 구조면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고대 사회의 빙정 체계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그 영향하에 있으면서 한일 양국의 문화 전파와 교류 양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빙고, 빙정, 중국, 한국, 일본, 고고학

Ⅰ. 머리말

기후변화가 현 사회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에서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은 매우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행히 현대사회는 냉방시설이나 냉장시설의 발달로 高溫을 견뎌내는데 크나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냉장 혹은 냉방시설에 관해 고대부터 인위적인 시설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문헌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분야였다. 동아시아에 있어 다른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가장 먼저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1,000년 이전에 겨울에 생성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하는 기술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참 후이긴 하지만 한반도 및 한반도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기술이 전해져 문헌 및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된다.

다만, 얼음을 채취하고, 옮기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氷政[1]은 삼국 모두 문헌으로는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그 핵심요소인 얼음저장시설, 즉 氷庫에 대한 기록은 빈약한 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그 동안 빙고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제한된 자료만이 빙고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고대사회에서 고난이도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빙고의 실체 파악과 한중일 삼국간의 연관성과 차이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 권력의 존재를 대변하는 한 요소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Ⅱ. 고대 한중일 빙고 문헌 사례 비교

1. 각국의 관련 문헌자료

1) 중국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먼저 얼음의 채취 및 보관, 활용 기록이 보이는 곳은 중국으로 권력에 의한 공적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고대 先秦시기인 戰國

1) '빙정'은 자연 얼음의 채취, 보존, 관리, 운용 등을 둘러싼 일정한 공적 체계를 의미한다.

시대의 내용을 언급한 『禮記』에는 얼음을 관리하는 전문직인 '凌人'이라는 직책이 확인[2]된다. 능인은 천관의 冢宰 六十三職에 下屬된 기구로서 구체적인 설치 연대는 미상이나 춘추시기는 물론 그 이전인 周代부터 얼음의 채취와 보존을 위한 전문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춘추시대 역사서 『春秋』의 주석서인 『春秋左傳 · 昭公四年』에 얼음의 보관과 용도 및 의미 등에 관한 정황들이 확인된다.

춘추시대에 들어서는 왕과 제후 외 다수의 귀족계층에서도 능인을 설치하고 '凌陰'시설을 설치하여 얼음을 사용하였다. 藏氷은 매우 엄밀하게 보관하고 관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채빙과 장빙에는 능인의 구성원 중 주로 '輿人'이라는 노예로 추정되는 특수계층이 담당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에 의해 장빙시설의 보관과 유지 기술[3]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으로는 얼음을 채취할 때 보관과정에서 얼음의 熔化量을 감안하여 수요량의 3배 정도를 채취하였다[4]고 전해진다.

문헌상 장빙에 대한 언급은 주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장빙시설, 즉 빙고의 실체는 魏晉시기부터 보인다. 曹操는 도성인 鄴城에 氷井臺를 설치하였는데, 높이는 8丈으로 상부에 145칸의 방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 빙정대에는 氷室도 조성하여 실내에는 깊이 15丈의 藏氷시설을 하였다.[5] 16國시기에는 後趙의 石季龍이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三伏에 대신들에게 사여한 기록[6]이 있으나 빙고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 수 없다. 南北朝시기에도 南朝 孝武帝시기 建康城 내에 凌室을 시설하여 장빙하였다고 하고, 북위에서도 洛陽城 성내 華林園 내부 天淵池(漢代 조성) 서쪽에 빙실을 축조했다고 한다.

통일된 隋唐시기에는 이전보다 채빙이나 장빙의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隋代에는 장빙업무를 보는 관리의 명칭이 '氷井使'로 변경되고 황제직속의 내직으로 개편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빙고의 위치나 명칭은 알 수 없다. 唐代에는 宮庭 동서 양쪽에 氷井을 설치[7]하였다고 전해지나 빙고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

2) 『禮記 · 天官』: '凌人掌氷政'
3) 『左傳 · 昭公四年』 "其藏之也周"의 "周"는 "密"과 어의가 상통한다.
4) 『周禮 · 天官冢宰』 "凌人, 掌氷政. 歲十有二月, 令斬氷, 三其凌"
5) 『水經註』 "氷井臺亦高八丈, 有屋一百四十五間, 上有氷室, 室內數井, 深十五丈. 藏氷及石墨焉"
6) 『鄴中記』 "石季龍於氷井台藏氷, 三伏之月, 以氷賜大臣"
7) 『唐會要』卷23 · 錄祀哉制: '二月十祭…開氷井 · 祭司寒之神. 祭東氷井, 西氷井'

2) 한국

한국에서 氷政 관련 기록은 국가의 성립 이후인 삼국시대부터이다. 물론 고대 부여의 喪葬禮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으로 『三國志』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둔다"라는 언급[8]이 있는데, 이는 중국 『後漢書』 儀禮誌와 『禮記』 등에 "시신의 아래에 얼음을 담은 盤을 두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였다"는 기록과 연관되는 중국의 영향으로 보인다.

빙정의 구체적인 양상은 『三國史記』[9]와 『三國遺事』[10]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 『삼국유사』에 보이는 노례왕은 신라 3대 왕인 유리이사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연대는 A.D. 24~57년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연대의 신뢰성 문제와 신라가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 지증왕 6년(505년)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추가적인 빙정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신라 지증왕대의 기록은 正史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라는 점과 지증왕은 처음으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이전에 왕의 명칭인 '麻立干'에서 중국식의 왕으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殉葬을 금하고 州郡縣制를 실시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주지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氷庫典'이라는 전문 관청을 두고 빙고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 이전부터 빙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증거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를 『삼국유사』에 보이는 유리이사금대까지 소급하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라와 달리 백제 빙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蓋鹵王대 "선왕의 유골을 露地에 모다 두었다가 후에 곽을 만들어 장사지냈다"라는 기록[11]이나 武寧王과 왕비 誌石상의 殯殿으로 추정되는 정지산유적에서 발굴된 빙고 기능의 유적으로 보아 삼국시대 국가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장례의 일환으로 빙고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빙고 관련 기사가 보이는데, 고려시대 正宗 2년(1036) 입하절(5월 초)에 얼음을 진상케 한

---

8) 『三國志』卷 30 烏丸鮮卑東夷傳 扶餘條 : "其死 夏月皆氷"
9) 『三國史記』卷 4 智證王 6年條 : '冬十一月始命所司藏氷'
『三國史記』卷 第39(職官 中) : '氷庫典大舍一人舍一人'
10) 『三國遺事』卷 1 第3 弩禮王條 : '製犁耜及藏氷庫'
11) 『三國史記』百濟本紀 第3 蓋鹵王條 : '先王之海骴 權瘞於露地…作槨以葬夫骨"

기록이 보이며,[12] 文宗 3년(1046)에는 매년 6월부터 입추까지 벼슬에서 물러난 대신에게 3일에 한번, 좌 · 우복시, 육부상서 등의 고급관리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씩 얼음을 나누어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頒氷제도가 마련[13]되었다.

조선시대 太祖 5년에 빙고의 관리 관청을 禮曹의 屬衙門에서 맡게 하여 東氷庫와 西氷庫 兩빙고를 설치 · 운영하였고 궁궐내에 별도로 內氷庫를 두었다.[14]

3) 일본

일본의 경우 빙정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720년 완성된 『日本書紀』 仁德天皇 62年條에 보인다. 都祁(츠게, 闘鷄)에 사냥을 나간 額田大中彦皇子가 우연히 술을 저장하던 민가의 氷室을 알게 된 후 조정에서도 氷庫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민가에서 이미 빙고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서기』의 연대로 보면 인덕천황의 시기는 313년~399년이 된다. 그러나 이 연대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우리 『삼국사기』의 경우도 그렇지만 초기 기록보다는 후대의 기록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서기』 완성 시기에 근접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孝德天皇 4년(653) 「氷運老人」, 「氷連眞玉」이나 天武天皇 13년(684) 「氷宿禰」 등의 사람 이름이나 성씨에서, 얼음을 이름으로 하는 씨족이 大和改新(645) 전후에는 조정의 빙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竹井 嚴 2022). 또한 唐 律令을 모방한 『大宝律令』(701)에서는 조정의 빙실을 관할하던 역소로서 '主水司''를 설치하였고, 조금 후대인 『延喜式』(927)에서 主水司의 職役이나 빙실에 관한 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발굴을 통한 木簡자료를 통해서도 빙고의 구체적 양상을 알 수 있었다. 1988년 발굴된 平城京 長屋(나가야)王家목간에서 츠게지역 2개의 빙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되어 있다. 깊이가 1丈(약 3m), 빙고수혈의 원주는 6丈(약 18m)으로, 환산하면 직경이 약 5~6.5m정도가 된다. 그리고, 채빙된 얼음의 두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

12) 『增補文獻備考』 第63卷 藏氷

13) 『高麗史節要』 卷4 己丑(文宗 3年) : "制每年自六月至立秋頒氷于諸致仕輔臣三日一次 左右僕射六尙書御監 大將軍以上七日一次 以爲氷制"

14) 우리나라와 중국 문헌상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 '氷庫'라는 명칭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쓰여지는 것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凌陰', '冰室' 등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어 있는데, 하나의 빙고에는 3寸(약 9㎝),[15] 또 다른 빙고에는 2寸 반(약 7.5㎝)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얼음 상부에 덮는 草類의 양까지도 언급[16]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자료의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빙고 내부의 양상이나 부속시설 등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2. 문헌을 통해 본 三國 古代 氷庫와 氷政

먼저 본 논문에서는 얼음 보관시설을 '빙고'라고 지칭하였지만, 본디 삼국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은 시기에 따라서도 그 용어가 다른데, '凌陰', '凌室', '氷室', '氷窖', '氷窖' 등으로 다양하다. 단 주목되는 점은 기원전후까지 많이 사용되던 '氷陰'이 西漢시대(A.D. 222~589) 이후 '凌室'로 대체되는데, 도성체계에서 공간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趙胤宰 2017: 175). 先秦시기 연회와 상장 등에 주로 사용되던 얼음이 서한시대 들어서는 도성 내부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장빙시설 자체도 도성의 주요 구조물로 격상되고 통제와 관리도 엄격해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모두 공통적으로 '氷庫'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이는 이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빙고라는 용어 외에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도 『日本書紀』를 비롯한 고대 문헌에서 '氷室'로 지칭된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고고학적 조사 결과물인 '長屋王家木簡'에서도 '빙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한편, 얼음이 적당한 두께로 얼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채빙하여 운반하기 위한 인력의 동원과 최장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한 공간을 제작하는 기술력을 통한 빙정의 시작은 곧 고대 국가 권력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겠다.

고대 중국 문헌에서도 採氷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하천을 가까인 둔 평원지대의 도성이나 주요 성지에서는 얼음을 채

15) 이는 조선시대의 문헌기록과 비교해 그 얼음의 두께가 거의 일치한다.

16) 木簡前面 : 都祁氷室二處深各一丈(廻各六丈)取置氷(一室三寸 一室二寸半)令被初干束(一室各五百束)刈二十人(一人五十束)功應給布三常(…) 米四斗鹽一升好如須加□二□応造□□斤

木簡後面 : 和銅五年二月二日火三田次

빙하는데 있어 공간적 편이성은 있으나 오염이나 얼음 두께의 미비 등 부적격인 경우가 더 빈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채빙은 주로 하천 하류 혹은 塘池보다는 일조량이 적은 곡부나 심산 협곡에 생성된 자연빙을 선호[17]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 삼국시대의 실제 사례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채빙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얼음의 所用處가 다양한 만큼 사용량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양의 얼음을 채취하였을 것이다. 잔존한 중국 秦代 雍城유적의 凌陰(빙고) 규모는 동서 길이 16.5m, 남북 17.1m로 파악되는데, 시설 공간의 높이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적지 않은 양의 얼음이 저장될 수 있는 규모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화량을 감안하여 채빙시 수요량의 3배를 채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보관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저장된 얼음의 보관 및 활용에는 중국의 경우 전문 관인의 존재하였고, 보관시 얼음의 熔化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면 저장된 얼음의 용도는 일차적으로 喪葬禮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대사회에 있어서 권력자의 喪禮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서 시신 냉장을 위한 얼음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상장례와 관련된 장빙의 또 하나 목적은 상장례에 쓰일 祭物의 저장과 조문 사절 대접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다.[18] 각종 제물은 부패를 늦추기 위해 최소한의 온도 저감 시설이나 저장공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후술할 중국의 사례에서 빙고와 구조적 차이가 보이는 冷藏시설이 확인되는 점은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빙고의 목적은 일상적인 식용으로서의 활용이다. 중국에서 周代이래 얼음 빙수를 마시거나 술을 담은 청동 그릇에 얼음에 담가서 차게 한 冷酒를 마셨다는 사실(林 己奈夫 1992)이나 일본의 일본서기에 나오는 빙고설치의 계기가 민간의 술 저장과 관련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

17) 『春秋左傳, 昭公四年』 "今歲川池之氷, 棄而不用, 深山窮谷, 固陰沍寒, 於是乎取之"

18) 조선시대의 자료이지만 "중국의 사신이 있으므로 무더운 날에 마시고 먹이는 데에 얼음이 없을 수 없다(世宗 20年 11月 23日條)"나 "百木洞의 빙고는 御膳, 國賓 待接, 百官에게 쓸 얼음이다(『世宗實錄 地理志』)"라는 기록 등에서 얼음의 다양한 용도를 알 수 있다.

Ⅲ. 한중일 빙고의 고고학적 비교

1. 빙고의 고고학적 인정기준

통상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구조물의 경우 그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그 형태나 구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이나 유기물과 같은 유존물, 마지막으로 거기에 더해 빙정과 관련된 주변 정황도 중요하다.

빙고는 얼음이 보관되는 곳이므로 고고학적으로 잔존 증거물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얼음은 용기에 담아 긴 시간 보관하기도 어려운 만큼 그 실체를 확인하기는 더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빙고는 정황적 증거물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모두 고고학적 확신으로 빙고로 인정이 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19]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한중일 삼국 고대관련 문헌 모두 빙고의 존재는 언급되어 있지만 그 구조까지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기에 빙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구조물의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다. 한중일 중 문헌에 빙고에 저장할 얼음 두께의 규정이 제시된 것은 한국과 일본 목간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조선시대에 채빙시 얼음의 두께가 3寸(약 10㎝)이상[20]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목간자료에는 7.5~9㎝로 두 나라의 기록상[21] 비등비등하다. 근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채빙광경을 담



[사진 1] 한국 하천에서의 채빙광경(좌:1910년대 대동강, 우:1954년 한강)

19) 실제 한중일 발굴조사보고서 모두 빙고로 추정되는 시설을 빙고로 지칭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 '저장시설', 혹은 '수혈' 등으로 지칭하곤 하였다.

20) 『仁祖實錄』17年(1639) 12月 22日, "李浣, 以漢城府言啓曰, 自今冬日溫暖, 有若春煦, 氷不堅凝, 氷庫所納之氷, 長廣則有餘, 而氷厚則不過二寸許, 不及於平時三寸之規, 若無備于三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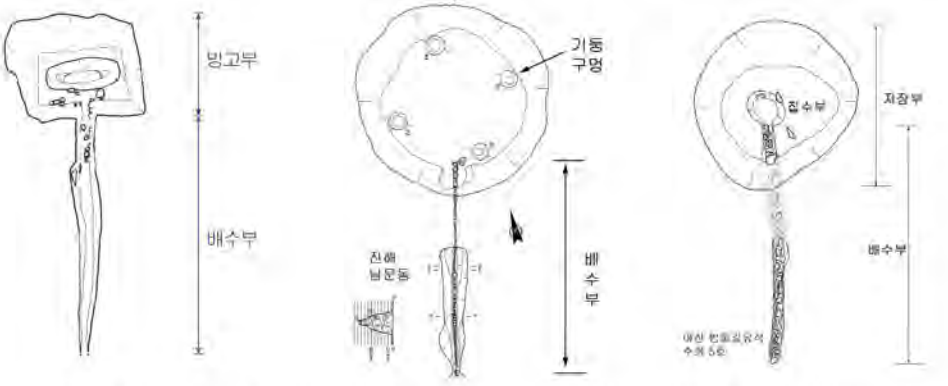
21) 앞의 주 15) 참고.

은 實寫를 통해 보더라도 두께가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 보인다(사진 1).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의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빙고의 규모가 일정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대의 경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빙정은 소수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크기에 따라 가장 중요한 빙고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상의 문제인데, 빙고에 장빙시 외부의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얼음이 조금씩 녹아서 물로 용해되고, 그 물이 다른 얼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빠른 排水가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빙고라면 당연히 구조상 바닥에 배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조선 후기의 자료이긴 하지만 확실한 빙고인 석빙고[22]의 경우 얼음보다 낮은 곳에 용해된 물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면 1]은 한국에서 확인되는 수혈식 빙고의 명칭을 부여해 놓은 것이다(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 유병록 · 진성섭 2022). 기본적으로 원형 혹은 방형의 얼음 저장시설을 만들고 여기에서 녹아내린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수부가 설치되었다. 다만, 저장부에 상부 지붕을 받치는 기둥구멍이 확인되거나, 중앙부에 일단 먼저 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집수부가 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외부로 이어지는 시설이 없더라도 빙고 중앙부에 저수역할을 하는 원형의 저수부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가능한데, 일부 구릉 입지의 빙고 중 기반층이 자연배수가 용이한 마사암반층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로 배수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면 1] 빙고의 부위별 명칭부여(좌:익산 도순리(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우:유병록 · 진성섭 2022)

22)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석빙고가 7기 잔존하고 있다. 북한의 해주 1곳을 비롯하여, 남한의 안동, 청도, 경주, 현풍, 창녕, 영산 등 6곳이다. 그런데, 그 축조시기는 숙종대 만들어진 청도의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영조대에 축조된 것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고의 인문학적 입지이다. 빙정이 가장 먼저 정착된 중국의 경우 얼음의 용도에 대해 지배층의 접객용과 喪事 및 祭祀에 사용된다고 하였다.[23] 한국의 경우에도 문헌상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용처를 감안하면 빙고는 궁성이나 도성,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군 근처에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삼국 중 가장 많은 빙고가 확인된 한국의 경우 전체의 2/5(전체 21기 중 8기) 정도는 대형고분군내에 위치하며 일부는 대규모 취락지 근처에 입지한다.

이상의 빙고로서의 적격기준을 감안해서 한중일의 빙고시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대 한중일 빙고자료의 고고학적 검토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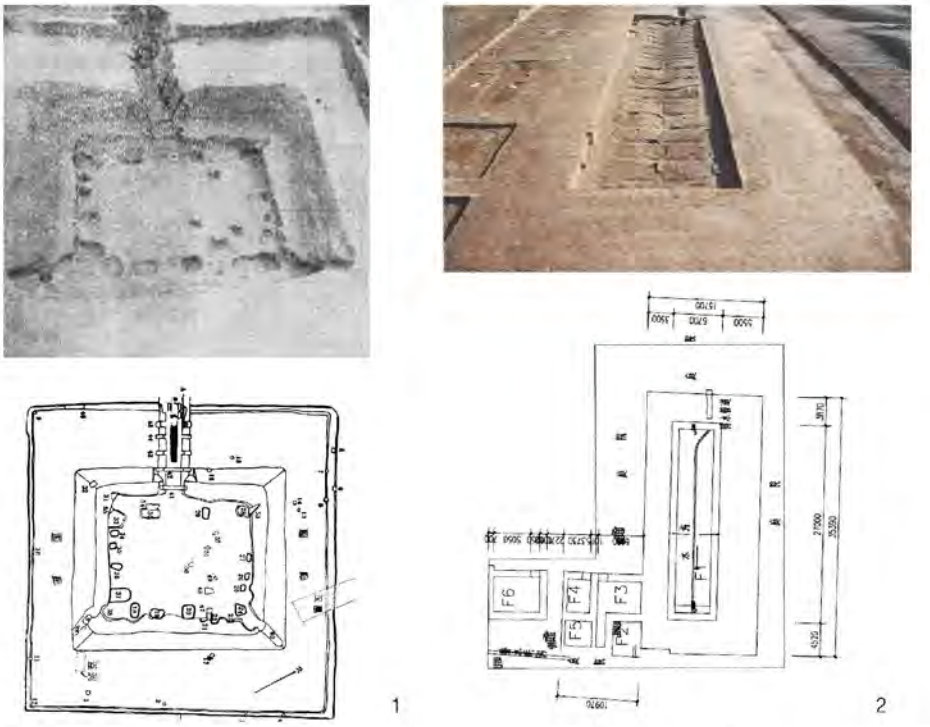
사실 중국의 빙고 역사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일찍 시작되었다. 同시기 선사시대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고대사회로 진입하였고, 빙정의 성립 또한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경우를 보면 고대시기에 확실한 빙고라고 볼 수 있는 유적은 오히려 한국보다 적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빙정관련 자료는 商代 궁성에서 造水을 위한 추정 연못유적이 있다. 河南 偃師商城 宮城과 鄭州商城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조빙을 위한 전용 연못이라기보다는 放火, 給水, 花園을 위한 다용도의 목적으로 추정된다(杜金鵬 2006: 57).

이에 비해 실제 중국의 빙고 사례 중 가장 명확한 경우는 陝西省 秦代 鳳翔 桃家崗 凌陰유적(韓偉 · 董明檀 1978)이다(도면 2-1). 흙담을 3m의 두께로 두껍게 돌리고 그 내부에 폭 10여 m의 크기로 지어진 평면 방형의 건물은 동서 16.5m, 남북 17.1m인데, 반수혈식으로 추정된다. 구조상으로 네모난 구조물을 깊게 만들고 그 가장자리로 상부의 지붕을 받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구멍이 배치됨과 동시에 서쪽으로 외부의 하천과 연결되는 배수시설(通道)이 설치된 것이 눈에 띈다.

또 한 예로 秦代 이후인 漢代 長安城의 長樂宮 5호 건물지에 포함된 빙고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漢長安城工作隊 2005)(도면 2-2). 빙고는 중심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F1건물인데, 동서 27m, 남북 6.7m의 장방형 건물이다. 이 건물 역시 반수

23) 『春秋左傳 昭公四年』: 朝之祿位 賓食喪祭



1 2

[도면 2] 중국 秦漢시기 빙실의 고고학적 조사 사례(1. 秦 鳳翔 桃家崗 빙실, 2. 漢 長安城 長樂宮 5호 건물지 및 빙실(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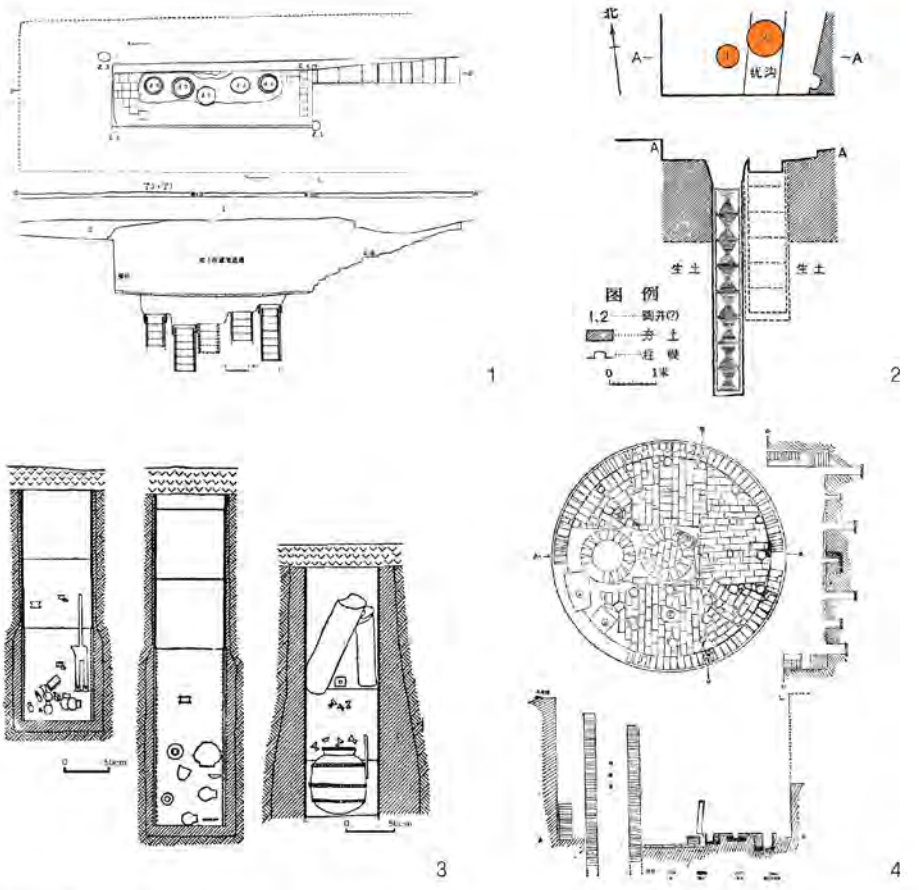
혈에, 벽면의 두께가 3.5~5.5m에 이를 정도로 두꺼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동서방향으로 건물지 중앙을 관통하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두 사례를 보면 그 평면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반수혈에, 두터운 벽, 배수시설의 구축에 더해 무엇보다 모두 지배층이 거주하는 성이나 궁성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구조적 측면뿐 아니라 인문적 입지 또한 빙고로 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국의 경우 사실 위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고고학적으로 뚜렷하게 빙고로 추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 가령 新鄭 戰國시대 鄭韓古城 지하실유적(安金槐 · 李德保 1991)이나 湖北 楚나라 수도인 紀南城의 수혈, 河北 戰國시대 燕下都 저장시설(河北城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등은 그 정황상 빙고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하구조물을 활용한 냉장보관시설로 볼 수 있다(도면 3-1~3). 모두 평면 원형의 우물과 같은 깊은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내부에서 용기류로 보이는 유물과 함께 돼지, 양, 닭 등의 동물 유해와 각종 곡물이 출토되는 점이 공통된다. 다만, 그 원형의 구조물 직경이 모두 1m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얼음을 보관하는 공간보다는 일정한 온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하구조물을 활용한 식재료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지하를 굴착하고 만든 것이 아닌 벽돌구조물인 韓魏 洛陽古城 건축유적(馮承澤 · 楊鴻薰 1990)(도면 3-4)은 검토가 필요하다. 잔존벽면의 높이가 360㎝에 원형구조물의 직경이 약 2.5m에 이른다. 바닥에 작은 구멍들을 여럿 만들었지만 별도로 외부로 이어지는 배수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24]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다소 좁은 내부의 규모나 배수시설의 不在 등에서 빙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도면 3] 고대 중국의 추정 冷藏시설 사례(1. 戰國 鄭韓古城 西城宮殿 주변 지하실(수혈), 2. 戰國 燕 燕下都 냉장시설(수혈), 3. 戰國 楚都 紀南城 우물유적(수혈), 4. 韓魏 洛陽古城 원형 건축유적)

24) 趙亂宰(2017)는 지하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新鄭 鄭漢古城내 수혈이나 이 유적 모두 얼음저장과 관련된 시설로 보고 있다.

2) 한국

한국은 삼국 중 가장 많은 고대의 빙고가 조사되었지만 그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표 1]에서 보듯이 주로 삼국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수혈식 혹은 반수혈식이다. 그리고 평면상으로는 저장부가 원형과 방형으로 나뉘며 대부분 배수부가 달린 형태이다. 아주 일부 유적에서 배수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중앙부에 집수부가 있어 조금씩 흘러내리는 용해(溶解)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빙고시설의 경우 대부분 수혈 내지 반수혈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벽면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가진 것과 가장 핵심시설인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 빙고구조와의 유사성이 간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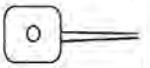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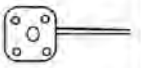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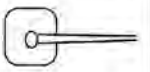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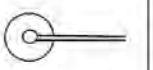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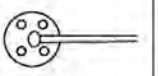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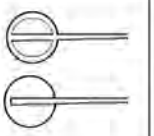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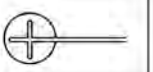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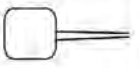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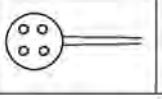
또한 동일 국가나 동일 지역권에서 평면형태가 다른 빙고가 혼재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물론 방형은 백제권, 원형는 신라권에서 다수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구조가 평면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당시 빙고에 대한 인식은 국가를 초월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확인된 빙고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많지만 유적에서 처음부터 빙고로 인식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빙고라는 구조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가장 먼저 빙정이 개시된 중국의 사례도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본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조사가 되지 못한 빙고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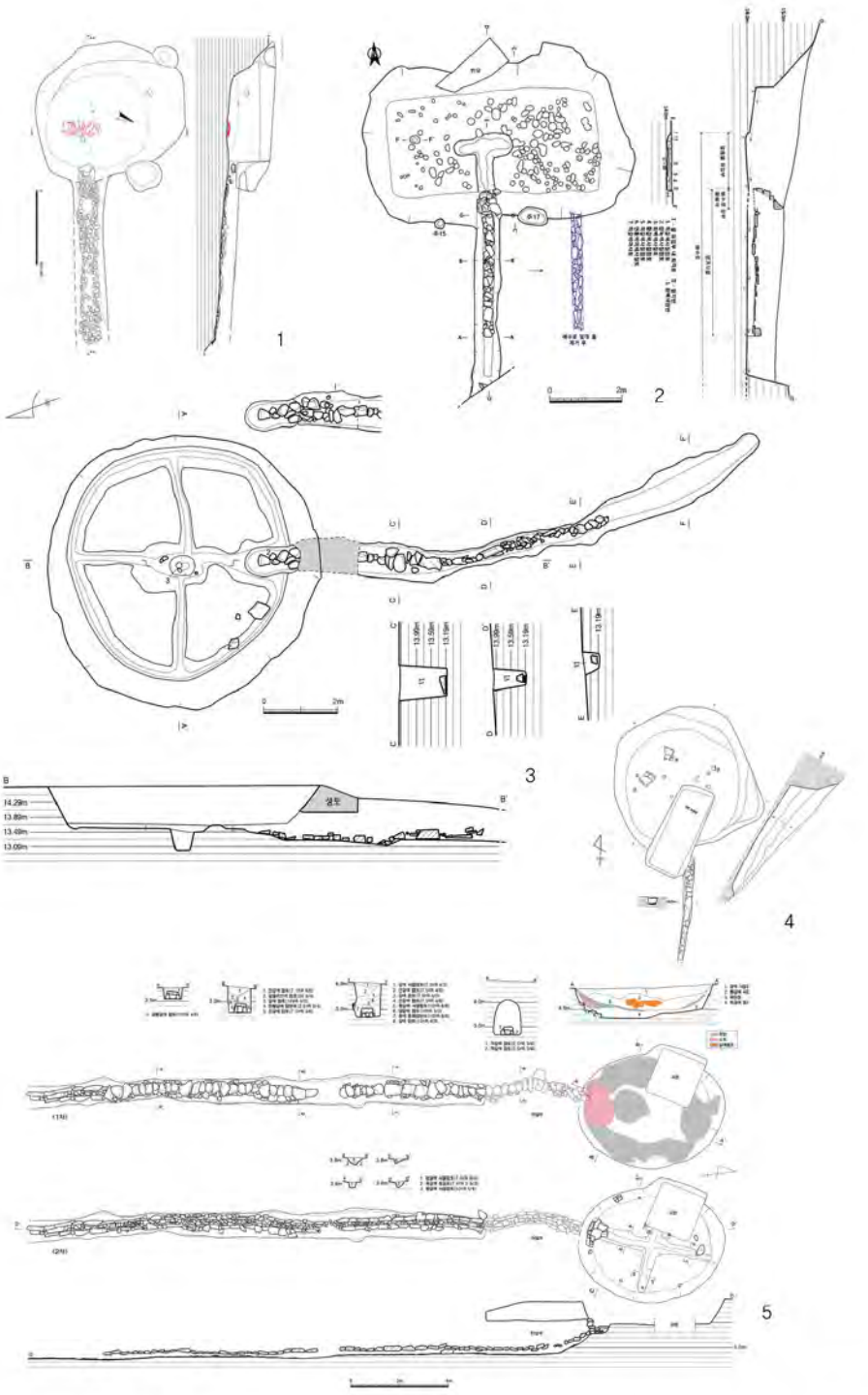
[도면 4]는 한국에서 조사된 바 있는 빙고 유적의 일부이다. 그 동안 이러한 빙고의 고고학적 사례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있어 조사자가 다양하게 판단하였다. '대장간', '토기제작관련시설', '곡물저장소' 등 다양한데, 최근에는 동일사례가 공유되면서 빙고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내에서 확인된 빙고위치와 주변의 인문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중 大고분군내 공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결국 빙고의 용처가 喪制와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변에 뚜렷한 유적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대고분군의 사례와 같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고학적 조사가 주변에 넓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도 있다. 고분군의 경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외형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취락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 못하면 유적의 존재유무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 빙고의 평면형태별 분류표(삼국~통일신라, 유병록 · 진성섭 2022)

방형계(□)			원형계(○)		
형태	특징	유적	형태	특징	유적
	저장부 중앙수혈 배수부× (자연배수)	공주 정지산(백) 강릉 안현동 2기(신)			
	저장부 중앙수혈 4주식,배수부×	강릉 안현동(신)			
	저장부 중앙수혈 벽면연결 배수부	공주 정지산(백) 화순 도순리(백) 강릉 안현동(신) 화성 요리(백)			
	저장부 중앙수혈 2주식,4주식 벽면연결 배수부	화성 마하리(백)			
	저장부 중앙수혈 수혈연결 배수부	공주 정지산(백) 부여 구교리(백)		저장부 중앙수혈 수혈연결 배수부	아산 밤즐길(백) 상주 병성동 5기(신) 구미 오상리(신)
				저장부 중앙수혈 4주식 수혈연결 배수부	김해 어방동 분산(통)
				벽구 내부관통 배수부	나주 신도리 3기(백) 경주 경마장A 수(신) 경주 경마장C 수(신)
				저장부 十자부 배수부	부산 낙민동(통) 나주 학산리(벽구,백)
	저장부 무시설 벽면연결 배수부	성주 유월리(신) 화성 마하리(백) 청원 국사리(통) 천안 용원리C(백)		저장부 무시설 벽면연결 배수부	세종 나성리(백)
				4주식 벽면연결 배수부	창원(진해) 남문동(신)

* (신) : 신라, (백) : 백제, (통) : 통일신라



[도면 4] 한국 고대 빙고유적의 사례(1.연기 나성리, 2.부여 구교리 구드래, 3. 나주 학산리, 4.성주 유월리, 5.부산 낙민동(1/300), 1~4:1/200)

[표 2] 빙고와 주변유적의 양상(빙고 기준 반경 1㎞ 기준, 유병록 · 진성섭 2022)

구분	유적	비고
대고분군 주변	공주 정지산, 화성 요리, 화성 마하리, 상주 병성동 · 헌신동, 경주 경마장, 강릉 안현동, 청원 국사리, 구미 오상리	유적내 공존
취락지 주변	부여 구교리 구드래, 연기 나성리, 나주 신도리, 경주 경마장, 성주 유월리	
뚜렷한 유적의 부재	아산 밤줄길, 익산 도순리, 나주 학산리, 나주 신도리, 화성 왕림리, 진해 남문동, 김해 어방동 분산, 부산 낙민동	

[표 2]를 통해 한국 빙고의 특성이 하나 언급된다면, 위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한강 이남 각지에서 고루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해, 창원(진해), 부산 등 상대적으로 위도가 가장 낮은 남해안에 근접한 곳에서도 빙고가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기후나 환경이 지금과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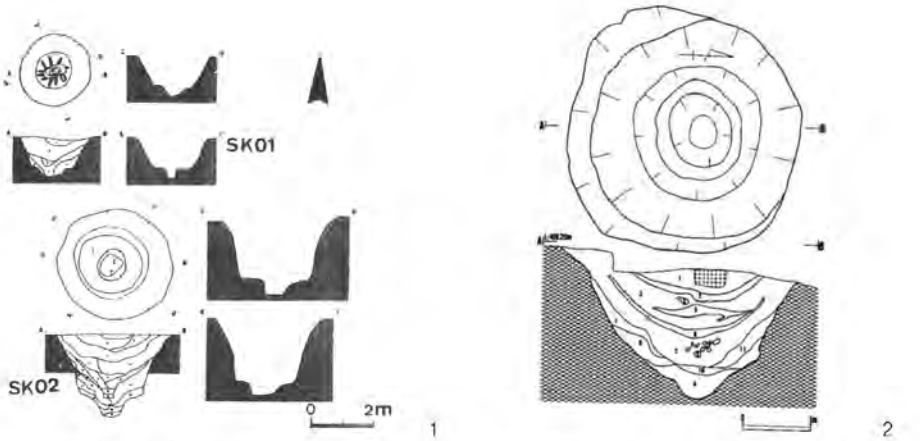
3) 일본

일본도 『일본서기』의 츠게 빙실에 관한 기록을 시작으로 중근세까지 지속적으로 빙고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으로 그 실체를 확인함에 있어 중국과 한국처럼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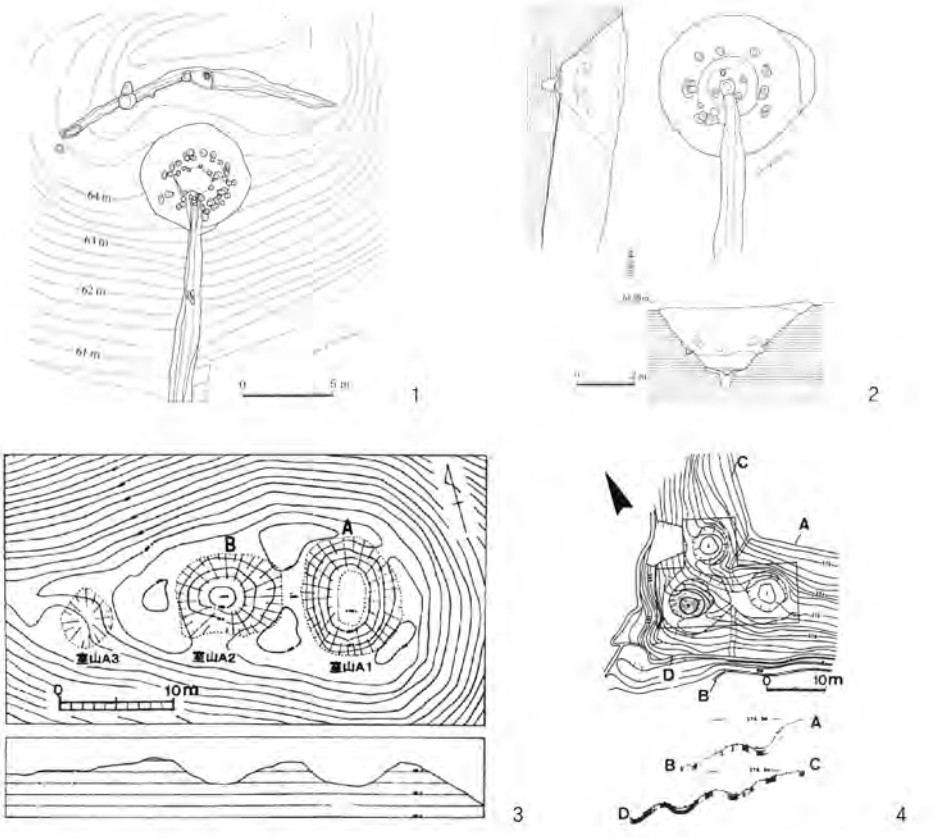
일본도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 후 이러한 유구들을 바로 빙고로 추정한 경우는 없다.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없기에 그 형태를 보고 '圓形 有段遺構(中山 晉 1996)', 혹은 '鉢形(吉留秀敏 1997)', '우물(井戶)(岩手縣文化進行事業團埋藏文化財センタ 1995)' 등으로 불리우며 처음부터 빙고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중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도 문헌상으로 빙고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일반 구조물에 비해 그 조사빈도가 낮아 고고학자들간에 자료 공유가 미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처음으로 빙고의 실체에 다가선 것은 中山晉(1996)의 논문에서였다. 그는 토치키(栃木)현에서 조사 · 보고된 '圓形 有段 遺構'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빙고의 실체에 다가섰다(도면 5). 그는 토치키현에서 조사된 33기의 유구의 형태, 바닥면의 배수기능, 일부 주변 창고유구들, 그리고 기저부 퇴적토의 규조류 분석 등을 통해 빙고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유구가 나오는 관동지역 및 나가노현, 나라현에서 나오는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을 빙고로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된 일본 빙고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입지가 모두 높은 산지이거나 구릉이다. 한국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지만 평지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도면 5] 일본 빙고 추정사례(中山 晉 1996) (1. 栃木縣내 원형유단유구 事例, 2. 岩崎台地遺蹟群 D I w23號)



[도면 6] 일본의 추정 빙고 출토유적 사례(1. 북부 九州 카쿠치가우라(カクチガ浦)유적 1호 鉢形土壙, 2. 奈良縣 都祁지역 室山A支都유적, 3. 京都 西賀茂群 氷室狀 대형수혈)

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배수부가 달린 형태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점과 배수부가 달리 것은 한반도와 근접한 북부구주지역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도면 7]은 일본 고대 문헌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빙고의 위치인데, 크게 三分할 수 있다. 북부구주권역, 그리고 옛 나라(奈良)시대의 수도인 나라를 중심으로 한 권역, 그리고 이후 평안시대의 중심인 관동지역이다.



[도면 7] 일본 고대(奈良 · 平安시대)의 문헌 및 고고학적 자료상의 빙고분포도(竹井 嚴 2022)

이 중 북부구주의 빙고는 모두 고고학적 조사를 통한 경우인데, 그 형태가 한반도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일본은 당시 한반도 삼국시대 백제나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여서 빙고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신라와 가장 근접한 북부구주 지역의 빙고 형태가 한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나라지역이나 관동지역의 추정빙고는 형태상 배수부가 없는 것만 확인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지형적인 요인을 감안한 것인지는 미 조사지역의 빙고가 더 확인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부 배수부가 없기는 하지만 주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차이가 존재한다.

3. 고대 삼국 빙고의 비교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문명의 시작 및 국가권력이 가장 먼저 발생한 중국은

다방면에서 주변국보다 제도 및 문물에서 앞선다. 그런 까닭에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대부분의 물질문화에서 직간접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빙고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삼국은 각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형태의 빙고를 제작하고 이를 운용하여 왔다. 위에서 언급한 삼국의 고대 빙고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빙고가 존재한 시점은 문헌상으로 보면 적어도 기원전 1,000년 이전인 商代에서부터로 보이지만,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은 기원전 200년 전후의 秦 鳳翔 桃家崗 빙실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소 간단한 형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원 전후부터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아 喪事에 얼음을 사용한 문헌기록으로 보아 인접한 고구려 역시도 일찍부터 빙정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한국의 고대 빙고는 신라와 백제의 것들만 있다. 그리고 그 규모에서 중국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 빙고와 비교해 저장부와 배수부가 존재하는 기본적 구조는 차이가 없어 구조적인 유사성은 분명하다. 현대와 같은 강력한 냉방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고대에 있어 자연적인 溶解水를 처리하는 상식적인 방식으로서 배수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나라 간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비록 중국에 빙고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냉장시설이나 盛氷용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진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빙고나 냉장시설 등이 대부분 궁성이나 城內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빙정이 권력의 제도내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은 그 확인지점이 대부분 고분군이 자리잡은 산지나 정치적 중심지의 외곽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한국의 경우 연기 나성리 빙고(KK-077)나 부여 구교리 구드래 83지구 빙고가 정치적 중심지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사례도 있지만 빈약하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빙고(빙실)의 시작을 보여주는 일화가 『일본서기』의 인덕천황조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왕실이나 권력층의 관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는 중국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빙정의 역사에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아 보인다. 일단 구조상 수혈식이 다수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입지

에 있어서도 높은 산지나 구릉지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극히 일부 평지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역시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에 입지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요인의 하나인 고분군과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고분군과 결합된 빙고유적의 사례는 아직 없다. 구조적으로 가장 한국의 삼국시대와 닮아 있는 북부구주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처럼 산지 고분이 거의 없는 까닭일수 있다. 구조상으로는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활용은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부구주를 벗어난 중부(나라)와 동부(관동)지역에서는 배수부가 확인되지 않는 형태가 주로 확인되는데, 저장부의 단면이 아래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빙고라는 구조물 자체에서 중국과 한국 · 일본과는 시기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시간적, 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표 3] 韓中日 三國의 고대 빙고 비교 정리

지역	시기	용어	형태적 특징	
			차이점	공통점
중국	秦 (B.C.221~)	凌陰, 凌室, 氷室 등	명확한 빙고유적 빈약, 장빙시설이 城內 존재, 冷藏 시설 및 盛氷용기 출토	구조적으로 바닥에 배수시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구조상으로는 수혈식이 다수이면서 입지상으로 구릉 입지가 많음
한국	삼국시대 (A.D.5C~)	氷庫	빙고유적 남한 전역 분포, 구조적으로 배수부 다수, 고분군과 결합사례 많음(구릉 입지)	
일본	나라시대? (8C?)	氷室	빙고유적의 지역적 편중, 구릉 입지 다수, 지역별 구조 차이 존재	

Ⅳ. 맺음말

이상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중국, 한국, 일본 삼국의 빙고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역사가 길고 그 공간적 범위가 넓은 중국에 가장 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문헌상으로 보면 중국이 고대부터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실상과 고고학적 자료의 차이는 분

명히 존재하며, 이는 곧 고고학적 자료 그 자체만으로 역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럼에도 고고학자료가 중요한 점은 문헌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실과 실체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상식을 상기시켜 준다.

氷庫와 이를 운용하는 氷政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국가 정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한 요소로서 그 동안 문헌상으로는 언급되었지만 실체로서는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그 보관 대상물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얼음이라는 점에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조차 그 실체 확인에 있어 한중일 삼국 모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빙정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핵심요소인 빙고 역시 다른 두 국가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정형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시간적 차이는 많이 나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한반도 소재 고대 국가에게 빙고는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물로서 한국 및 일본의 빙고는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인 면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고대사회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간 문화적 전파 및 교류양상이 이러한 빙정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례이다.

투고일 2024. 5. 3 | **심사완료일** 2024. 5. 20 | **게재확정일** 2024. 6. 7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端宗實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水經註』
『舞中記』
『周禮 · 天官冢宰 』
『增補文獻備考』
『春秋左傳』
『禮記 · 天官』

吉留秀敏, 1997, 「九州における氷室の調査」, 『古文化談叢』38.
杜金鵬, 2006, 「試論商代早期王宮池苑考古發現」, 『考古』11期.
安金槐 · 李德保, 1991, 「鄭韓古城內戰國時代地下冷藏室遺蹟發掘簡報」, 『華夏考古』2期.
유병록 · 진성섭, 2022, 「수혈식 氷庫의 고고학적 연구」, 『야외고고학』제43호.
林 己奈夫, 1992, 『中國古代の生活史』, 吉川弘文館.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익산 도순리 산 48-14유적』
(財)岩手縣文化進行事業團埋藏文化財センタ, 1995, 『岩崎台地遺蹟群發掘調査報告書』.
趙胤宰, 2017, 「中國 先秦 · 漢唐時代 藏氷, 造氷 및 冷藏遺蹟 考古資料 考察」, 『先史와 古代』54, 韓國古代學會.
竹井 嚴, 2022, 「日本における氷室 · 雪室の歷史文化とその現狀」, 『北陸大學紀要』第52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漢長安城工作隊, 2005, 「漢長安城長樂宮發掘凌室遺址」, 『考古』9期.
中山 晉, 1996, 「古代日本の'氷室'の實體 -枥木縣下の事例中心として-」, 『立正史學』第79号.
馮承澤 · 楊鴻勳, 1990, 「洛陽韓魏古城圓形建築遺址初探」, 『考古』3期.
河北城文化局文物工作隊, 1965, 「河北易縣燕下都古城勘察和試掘」, 『考古學報』1期
韓偉 · 董明檀, 1978, 「陝西鳳翔春秋秦國凌陰遺蹟 發掘簡報」, 『文物』3期.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79

An Archaeological Comparative Study on Ice-storage in Korea, China and Japan

Yu, Byoung-Rok(Senior Researcher, Sejong Research Institue of Cultural Heritage)

The Ice-storage and Ice operating system are a major el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 starting from ancient China, which has been mentioned in literature but is difficult to confirm as a substance. In particular, it took a long time for both Korea, China and Japan to confirm its identity, even from an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given that the object was ice that could not be stored tangibly or tempo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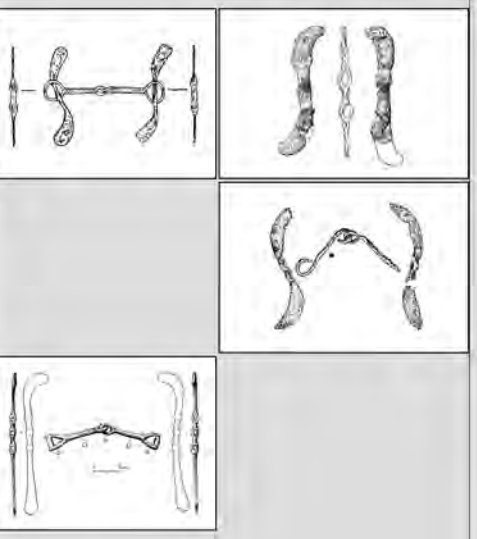
The core of Ice-storage, which has been identified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is a special wall that can withstand external temperatures for a long time in a pit with a certain depth, and a drainage facility that discharges molten water to the outside. Such structures are identified in all three countries, but some drainage facilities have been built inside.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re are more than 20 places nationwide where Ice-storage is most frequently identified. For this reason, China is by far the most literature on ancient Ice-storage, but Korea is overwhelmingly the most archaeological data, so Korean data are very important for reviewing the ice surrounding ancient Ice-storage.

In terms of time, it is clear that China's ice sheet has the longest history, and Ice-storage, its core element, is also overwhelming in terms of scale and structure compared to the other two countries. In contrast, it is clear that Korea and Japan are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timing and structure. This is noteworthy in

that it is an important example showing that cultural propagation and exchange patter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eflected in this Ice operating system in ancient society.

Key words : Ice operating system, Ice-storage, korea, china, japan, Archaeology

http://doi.org/10.20292/jcich.2024.44.205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propeller-shaped bits on the Eurasian continent

정 석 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

Ⅲ.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과 기원 문제

Ⅳ.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한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마구와 관련하여 중요 논점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한반도를 너머 중국지역과 바이칼호 남쪽 지역, 알타이지역, 그리고 서쪽으로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까지의 광대한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각 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발견 현황을 소개하였고, 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익단이 뾰족하게 점으로 마무리되는 점익단(點翼端)을 가졌는지, 둥글거나 곧은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線翼端)을 가졌는지, 익부(翼部)의 형태는 어떠한지 등 익단과 익부의 형태에 주목하여 형식분류를 하였다.

각 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에 대한 지역적 분포양상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이 강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본고의 A 그룹 Ⅰ형식과 B-1 그룹 및 B-2 그룹 Ⅰ형식과 Ⅱ형식 재갈멈치는 카스피해 서쪽의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A 그룹 Ⅲ형식과 B-1 그룹 Ⅷ형식은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특징적인 형태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임이 확인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6세기 말 무렵에 쿠반강 유역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그 외 드네프르강 유역과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에서도 사용되었고, 또 알타이지역에서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3세기에 발전한 파지리크 문화에서도 사용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는 기원전 8~7세기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되는 알타이의 보이뜨이겜-2 고분군 출토 3공식 재갈멈치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동일 형식이 알타이의 흉노 시기 얄로만-2 고분군, 바이칼호 남쪽 흉노 시기 데레스뚜이 고분군, 전국시대 연하도 유적, 부여 시기 서풍 서차구 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알타이지역에서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한편으로는 연하도 유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칼호 남쪽과 서풍-유수 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서풍 서차구 유적 출토품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다만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지는 북코카서스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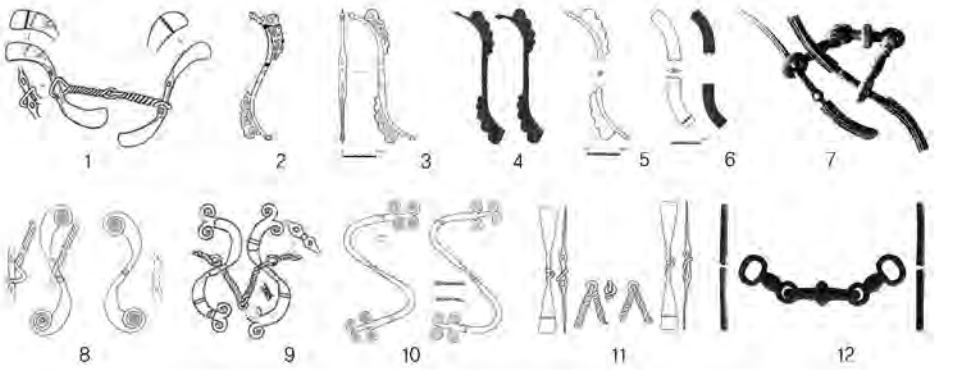
주제어 : 마구, 재갈, 재갈멈치, 프로펠러형, 유라시아대륙

Ⅰ. 머리말

한반도에는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 초 무렵에 재갈이 등장한다. 국내 학계에 발표된 재갈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한반도 재갈의 변천 과정은 물론이고 제작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게 한다(허미연 2014; 윤서경 2016; 노형신 2018; 정한나 2018; 황다운 2019; 이재혁 2022).

한반도 초기 재갈멈치의 종류로는 S자형(도면 1-1~10)과 노(櫓)형(도면 1-11)[1] 그리고 직봉(直棒)형(도면 1-12)이 있다. S자형은 프로펠러형(도면 1-1), 날개 장식 S자형(도면 1-2~5), 날 장식 S자형(도면 1-6~7), 궐수(고사리) 장식 S자형(도면 1-8~10)으로 구분된다. 그중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서북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날개 장식 S자형과 날 장식 S자형 재갈멈치는 서북지역에서만, 노형과 궐수 장식 S자형 재갈멈치는 영남지역에서만 사용되어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윤서경 2016: 그림 27 및 29 참조).

영남지역의 경우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노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후 2세기 중엽, 궐수 장식 소형 S자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1세기 후엽~기원후 2세기 후엽, 궐수 장식 대형 S자형 재갈멈치는 기원후 2세기 중엽~3세기 중엽으로 각각 편년된다(윤서경 2016: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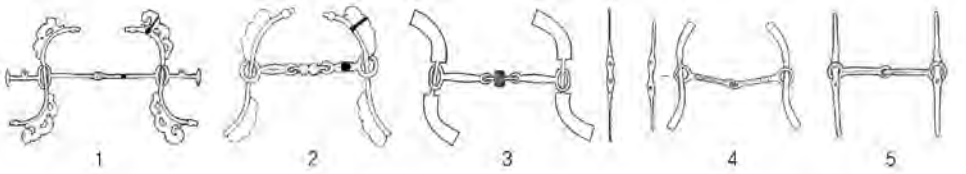


[도면 1] 한반도 지역 기원전 2~서기 3세기의 재갈멈치 각종(윤서경 2016 참조 및 재편집)

1. 프로펠러형(창원 다호리 69호), 2, 3. 투조 날개 장식 S자형(평양시 정백동 37호, 평양시 석암리 219호), 4, 5. 비투조 날개 장식 S자형(평양시 석암리 219호), 6, 7. 날 장식 S자형(평양시 석암리 219호, 석암리 9호), 8~10. 궐수 장식 S 자형(울산 창평동 810번지 2호, 경주 사라리 130호, 경주 황성동 513 · 545번지 2호), 11. 노형(경주 화천리 251-1번지 5호), 12. 직봉형(평양시 정백동 127호)

1) 윤서경(2016)은 노형을 I자형으로 지칭하였으나, I자형에는 직봉형도 포함되어 이를 구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본다면 노형은 흉노의 재갈멈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장은정 2012; 허미연 2014). 중국 한나라 관련 유적에서는 날개 장식 S자형(도면 2-1~2), 날 장식 S자형(도면 2-3), 판상 S자형(프로펠러형) (도면 2-4), 직봉형(도면 2-5)의 재갈멈치도 있는데, 한반도 발견 날개 장식 S자형 및 날 장식 S자형 재갈멈치는 중국 한나라 재갈의 범주에 속하는 낙랑 재갈멈치이다(윤서경 2016: 47). 이에 반해 궐수 장식 S자 모양 재갈멈치는 한반도 영남지방에만 보이는 독특한 형식이다(허미연 201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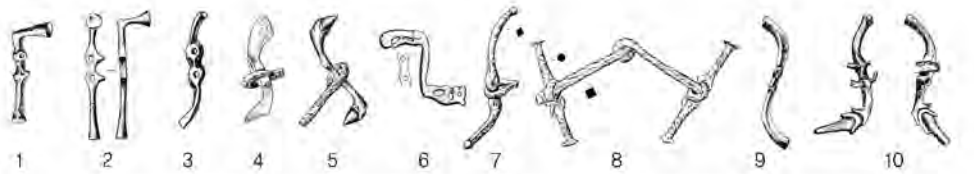


[도면 2] 한나라 재갈멈치 각종(윤서경 2016 참조 및 재편집)
1. 투조 날개 장식 S자형(강둔 한묘 41호), 2. 비투조 날개 장식 S자형(강둔 한묘 45호), 3. 날 장식 S자형(서교 한묘), 4. 판상 S자형(강둔 한묘 22호), 5. 직봉형(장안 빈의관 4호)

다만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여 계통으로 보는 의견(신경철 1994), 알타이 계통으로 보는 의견(김두철 2000), 위만의 남하와 함께 서북지역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면서 연나라 계통이라는 의견(이상률 2008; 허미연 2014) 등이 제기되었고, 또 흉노유적에서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다수 출토되었음이 지적되었다(장은정 2012).

이것은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에 관한 의견들이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S자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세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G.뻬뜨렌꼬는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의 2공식 재갈멈치를 "ㄱ"자 모양(도면 3-1~2), "S"자 모양(도면 3-3~7), "버섯 머리 I"자 모양(도면 3-8)으로 크게 구분한 다음에 "S"자 모양은 다시 구멍 부분은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단면이 원형 혹은 타원형인 것(도면 3-3), 구멍이 있는 가운데 부분은 8자 모양으로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넓은 날 모양인 것(도면 3-4), 양쪽 끝부분이 말굽이나 동물의 머리로 장식된 것(도면 3-5~6), 양단에 "혹"이 있고 단면은 원형 혹은 능형인 것(도면 3-7)으로 세분한 적이 있다(뻬뜨렌꼬 1967: 36~37). "S"자 모양 재갈멈치는 그 외에도 단면이 방형인 것도 있고(일린스까야

1968: 도판 V-23) (도면 3-9), 또 다른 특징을 가진 것도 있다(일린스까야 1968: 도판 XVI-2~3) (도면 3-10).



[도면 3] 드네프르강 유역 2공식 재갈멈치의 종류: 뻬뜨렌꼬 1967(1~8) 및 일린스까야 1968(9 · 10), 재편집

여기에서 "구멍이 있는 가운데 부분은 8자 모양으로 두껍고 나머지 부분은 넓은 날 모양인 것"이 바로 프로펠러형에 해당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넓게 펴진 날 모양의 굽은 끝부분이 있는 S자 모양"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마호르뜨이흐 2010: 62). S자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기원전 4세기에 "트라키아부터 시베리아까지"의 유라시아대륙에서 유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지만(뻬뜨렌꼬 1967: 37), 북코카서스 울스키 고분군의 예를 통해 볼 때 기원전 6세기에도 이미 사용되었다(이반치크 외 2015).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종류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대륙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중요 특징은 2개의 구멍이 있는 중심부가 8자 모양을 이루면서 두텁고, 이에 반해 날개 부분은 납작하면서 그 중간 혹은 바깥 부분의 폭이 넓어지고, 위와 아래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S"자 모양을 이루며 굽었다는 점이다. S자형 재갈멈치는 모두 막대기 모양의 표비(鑣轡)에 해당한다.

한국학계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마구와 관련하여 중요 논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흉노 이전 단계인 스키타이-파지리크 문화 단계에서도 사용되었고, 또 그 시원적인 형태는 알타이 및 인접 지역의 마이에미르 문화 단계에서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먼저 출현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식과 기원 문제를 유라시아대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Ⅱ.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

필자가 파악한 바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한반도 외에도 청하-제2송화강 지역, 요동반도 지역,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낙양-서안 지역, 황하 중상류 지역, 바이칼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알타이지역,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등에서도 발견된다(도면 4).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그림이나 사진이 제시된 유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도면 4]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현황(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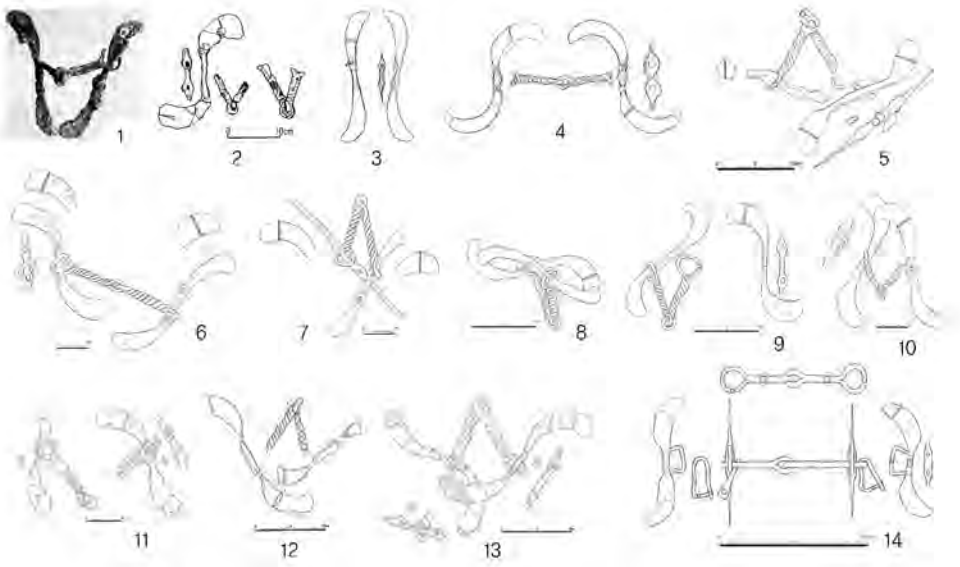
1. 한반도 지역

1) 평양 석암리 목곽묘

1962년에 평양시 낙랑구역 석암리에서 건설 공사 도중 발견된 무덤에서 화분형 토기, 청동제 세형동검, 을자형 동기 등과 함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철제 2연식 재갈쇠와 결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물의 사진만 흑백으로 제시되었고(백련행 1965: 그림 2-1) (도면 5-1), 크기나 다른 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다. 유물은 현 지표 아래 4m 깊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묘광의 서남쪽 바닥으로 보이는 곳에서 판자 썩은 자리가 50×50㎝ 정도 남아있었다. 낙랑군 이전 위만조선 유적으로 보기도 한다(윤서경 2016: 42).

2) 대동군 상리 목곽묘

1932년에 평안남도 대동군 용악면 상리에서 철도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유적은 평양에서 동북쪽 20㎞ 떨어진 대동강 지류에 면한 구릉 기슭에 위치한다. 지하 0.9~1.2m 깊이 3×4m의 범위에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바닥에서 목질 부식 흔적이 발견되어 목곽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형동검, 철제 검과 창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편 상태인 철제 재갈멈치와 재갈쇠도 출토되었는데, 재갈멈치는 복원도가 있다(윤무병 1996: 도 18) (도면 5-2). 낙랑군 이전 위만조선 유적으로 보기도 한다(윤서경 2016: 42).



[도면 5] 한반도 발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평양 석암리 목관묘(백련행 1965: 그림 2-1), 2. 대동군 상리 목곽묘(윤무병 1996: 도 18), 3,4. 대구 평리동(윤용진 1981: 그림 15,16), 5. 성주 예산리 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6~10. 창원 다호리 유적(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김해박물관 2013,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11~13. 경산 임당동 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14. 충주 금릉동 유적(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그림 95-2)

3) 대구 평리동 일괄 유물

1974년에 대구 평리동 와룡산 기슭에서 발견되었다(윤무병 1996: 251~265). 유구는 모두 파괴되어 알 수 없다. 청동제 세형동검 등 다수의 청동제 유물과 함께 청동제와 철제의 재갈이 발견되었다. 재갈멈치는 모두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 청동제 재갈멈치는 2쌍에 해당하는 4점이 발견되었는데 2점이 도면으로 제시되었다(도면

5-3). 길이는 19.3㎝이다. 재갈쇠는 철제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윤용진 1981: 그림 15). 철제 재갈멈치는 1쌍에 해당하는 2점이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20.5㎝이다(도면 5-4). 철사를 꼬아 만든 재갈쇠는 길이 약 20㎝이다(윤용진 1981: 그림 16).

4) 창원 다호리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2번지 일대의 구릉에 위치한다. 목관묘로 추정되는 1992년에 발굴한 69호와 70호 무덤, 2011년에 발굴한 119호 무덤 및 2012년에 재발굴한 104호 무덤에서 각각 다수의 다른 유물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부착한 재갈이 출토되었다.

다호리 69호 무덤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6).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 구멍의 간격은 5.5~5.8㎝, 길이는 21.8~22.7㎝이다. 재갈쇠는 3조 꼬기로 제작하였고, 2연식이다.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395~403).

다호리 70호 무덤에서도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7).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인데 간격이 5.5㎝이다. 길이는 25.2㎝와 19.0㎝이다. 재갈쇠는 3조 꼬기로 만들었고, 2연식이다.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길이는 11.9㎝와 11.4㎝이다. 그 외에도 작은 편 상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하나 더 출토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404~413).

다호리 104호 무덤에서는 철제 재갈이 2쌍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모두 2공의 프로펠러형이며, 재갈쇠는 3조 꼬기한 2연식이다.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함께 연결된 채로 발견된 재갈은 재갈멈치 길이 16.7~18.5㎝, 너비 0.9~2.6㎝, 두께 0.2~0.9㎝, 두 구멍 간격 4.5㎝이고, 재갈쇠는 길이 22.1㎝, 재갈쇠 두께 0.5㎝이다(도면 5-8). 다른 1쌍은 재갈멈치 길이 18.2㎝, 너비 0.7~3.1㎝, 두께 0.3~0.7㎝, 두 구멍 간 거리 5㎝이며, 재갈쇠 길이는 22.5㎝, 재갈쇠 두께 0.5㎝이다(도면 5-9). 104호 목관묘는 기원전 118년 오수전 주조 이전까지 사용된 중국 한의 동전인 반량전 및 공반 유물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전 · 중엽으로 편년된다(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18~43, 221).

다호리 119호 무덤 출토 철제 재갈의 재갈쇠는 3조 꼬기한 2연식이며, 길이는 16.5㎝, 두께는 0.5㎝이다(도면 5-10).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길이 20.5㎝와 20.6㎝이고, 너비는 0.9~3.1㎝, 두께는 0.2~0.9㎝, 두 구멍 사이 간격은 3.3~3.8㎝이다. 다

호리 119호 무덤은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된다(국립김해박물관 2013).

5) 경산 임당동 유적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1996년에 발굴되었다. 목관묘로 추정되는 A-Ⅰ-96호, A-Ⅰ-139호, A-Ⅰ-145호 무덤에서 각각 다수의 다른 유물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된 재갈이 출토되었다.

경산 임당 A-Ⅰ-96호 묘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11). 재갈멈치 하나는 전체 형태가 거의 확인되었다. 2공이며, 길이 22.4㎝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든 2연식이고, 외환 안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잔존 길이 23.2㎝이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190~193).

경산 임당 A-Ⅰ-139호 묘에서는 무덤구덩이의 서쪽 주구 내에서 철제 재갈 1쌍이 출토되었으나, 잔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철사를 꼬아 만든 재갈쇠는 2연식(도면 5-12)이다. 재갈쇠의 잔존 길이는 15.0㎝이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284~287).

경산 임당 A-Ⅰ-145호 묘에서는 1쌍의 철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2공이다(도면 5-13). 끝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을 수도 있는데 길이는 29.4㎝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들었고, 외환에 재갈멈치가 들어가 있다. 원래 목관 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299~301).

6) 성주 예산리 유적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2002~2003년에 발굴되었다. Ⅲ-1호 무덤에서 철검 등과 함께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프로펠러형이며, 하나는 전체 모양이 확인된다(도면 5-5). 2공이며, 길이는 20.6㎝이다. 재갈쇠는 철사를 꼬아 만들었고, 외환이 재갈멈치를 감싸고 있다. 2연식 재갈쇠 중 한쪽은 길이가 11.3㎝이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63~70).

7) 경주 화천리 (산251-1) 유적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251-1번지에 위치한다. 2009~2010년에 발굴되었다. 5호 무덤에서 철제 노(櫓) 모양 재갈멈치 1쌍과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편 상태이다. 단조 제품이다. 2공식이며, 재갈쇠는 외환만 일부 확인된다. 그 외에 꼬아 만든 재갈쇠가 3개 확인된다. 모두 2연식으로 생각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한쪽 길이가 9.5㎝이며, 다른 하나는 길이가 8.9㎝와 9.4㎝이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51~61, 540~541).

8) 충주 금릉동 유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27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2004년에 발굴되었다. 78-1호 토광묘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5-14). 2연식 재갈쇠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연결되어 있다. 재갈쇠 외환에 고삐쇠가 달려 있고, 재갈멈치 중심부의 2공에 입문(立聞)이 형성되어 있다. 재갈쇠는 9.8+11.1㎝이며,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5.6㎝와 16㎝이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158~164).

2. 청하-제2송화강 지역

1) 유수 노하심(老河深)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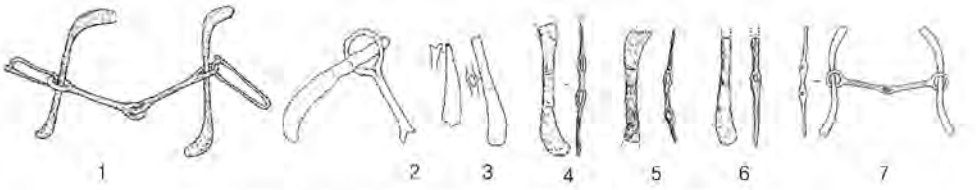
길림성 유수현(楡樹縣) 노하심촌(老河深村) 남쪽 500m 거리의 들판 낮은 둔덕에 위치한다. 1980~1981년에 발굴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3개 문화층이 구분되었는데 하층에서는 청동기시대 서단산문화 주거지(2기), 중층에서는 부여 무덤(129기), 상층에서는 말갈-발해 무덤(37기)이 각각 조사되었다.

부여 시기에 속하는 6기의 무덤에서 철제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는데 온전한 것이 9점이다. 4개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그중에 3형식으로 구분된 것이 프로펠러형이다(도면 6-1). 이 재갈멈치는 2공이며, 길이 17.4㎝, 최대 너비 1.8㎝, 최소 너비 0.8㎝이다. 철제 재갈멈치 중에는 노형, 직봉형, 날개 장식 S자형도 있다. 그 외 청동제 S자형 재갈멈치도 발견되었다.

발굴 보고자는 유수 노하심 유적 부여 시기 문화층을 17호 무덤 출토 오수전(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2세기), 채집 사신규구경(기원 전후~기원후 2세기), 삽, 낫, 재갈멈치(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등을 통해 기원 전후로 편년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이와는 달리 정상석은 이 유적을 토기의 조합 등과 동경, 동복의 편년을 통해 기원전 1세기 초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 이후로 판단하였다(정상석 2012).

2) 서풍 서차구(西岔溝) 고분군(遼寧省博物館 外 編著, 2022)

요녕성 서풍현(西豊縣) 낙선향(樂善鄕) 집중촌(執中村) 서북쪽 산에 위치한다. 유적은 도굴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1956년에 63기 무덤을 발굴하였고, 도굴된 유물 다수를 회수하였다.



[도면 6] 청하-제2송화강 지역(1~6) 및 요동반도 지역(7)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유수 노하심 유적(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2~6. 서풍 서차구 고분군(遼寧省博物館 外 編 2022), 7. 요동반도 강둔 한묘(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윤서경 2016 재인용)

철제 재갈멈치는 21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단조품이다. 그중 Aa형으로 구분된 3점은 S자형이면서 양쪽 끝부분이 넓어지는 프로펠러형이며, Ab형으로 구분된 1점은 양쪽 끝부분이 넓어지지는 않는 S자형이다.

중구 제52정리구에서는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각각 편 상태로 함께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 10.6㎝이며, 비교적 좁은 나선장형(螺旋槳形)으로 보고되었다. 재갈쇠는 잔존 길이 9.4㎝, 외환 직경 약 3㎝이다(도면 6-2).

중구 제60정리구 476정리갱에서는 철제 재갈멈치가 부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긴 것은 잔존 길이 10.4㎝이다(도면 6-3). 착나선장형(窄螺旋槳形)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에 회수한 유물 중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3점이 확인되는데, 각각 考 4049-7(도면 6-4), 考-4049-5(도면 6-5), 考 4049-4(도면 6-6)라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중 考 4049-4 재갈멈치는 중구 제60정리구 476정리갱 출토 재갈멈치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서차구 고분군은 동경, 오수전, 반량전 등의 유물, 흉노문화, 한서2기문화 등의 자료를 통해 서한(기원전 206~기원후 8년) 조기 만단~서한 중만기 시기로, 중심연대는 서한 중기로 판단되었다(遼寧省博物館 外 編 2022: 504).

3. 요동반도 지역

1) 보란점시(普蘭店市) 강둔한묘(姜屯漢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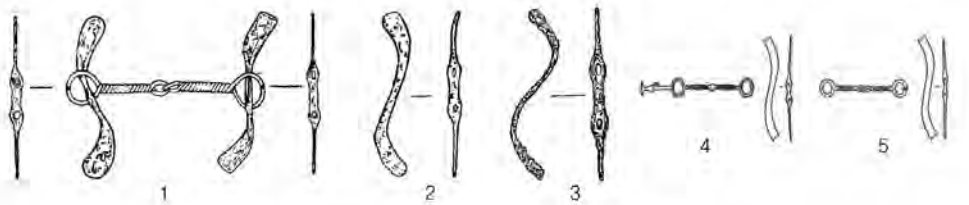
요령성 보란점시(普蘭店市) 강둔(姜屯) 일대에 위치한다. 22호 묘에서 금동제 재갈 1점, 41호 묘에서 금동제 재갈 6점이 출토되었다. 재갈쇠가 1연식, 2연식, 3연식으로 구분되었는데, 그림이 확인되는 2연식 재갈은 프로펠러형으로 볼 수 있는 "판상 S자형"이다(도면 6-7). 재갈쇠는 길이 9.8㎝, 재갈멈치는 길이 9.0㎝이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윤서경 2016 재인용).

4.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1) 연하도 유적

하북성 이현(易縣) 동남쪽 2.5㎞ 거리에 위치한다. 1929년에 첫 발굴이 이루어졌고, 1949년부터 198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발굴되었다. 연하도 유적의 규모는 동서 약 8㎞, 남북 4~6㎞이며, 크게 동성(東城)과 서성(西城)으로 구분된다.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동성에 위치하는 무양대촌에서 발견되었다.

전국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무양대촌(武陽臺村) 노야묘대(老爺廟臺) V호 지하항토건축유적 출토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점은 가운데 2개의 구멍이 있고, 길이는 20.4㎝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52~53, 도 28-6) (도면 7-2). 전국시대 만기로 편년되는 무양대촌 21호 작방(作坊) 유적에서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1점 출토되었다(도면 7-3). 이 재갈멈치는 가운데에 2개의 구멍이 있고, 길이는 16.2㎝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148~149, 도 89-4). 무양대촌 서쪽 부분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수습되었는데 꼬아 만든 재갈쇠(銜)는 길이 24㎝이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鑣)는 길이 19.8㎝이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816~817, 도 468-16) (도면 7-1).



[도면 7] 영정하-호타하 사이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3. 연하도(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4, 5. 하북성 만성 한묘 1호(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 究所 1980, 윤서경 2016 재인용)

2) 보정시(保定市) 만성한묘(滿城漢墓)

하북성 보정시(保定市) 만성현(滿城縣)에 위치한다. 1호 묘에서 다수의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판상 S자형"도 확인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윤서경 2016 재인용) (도면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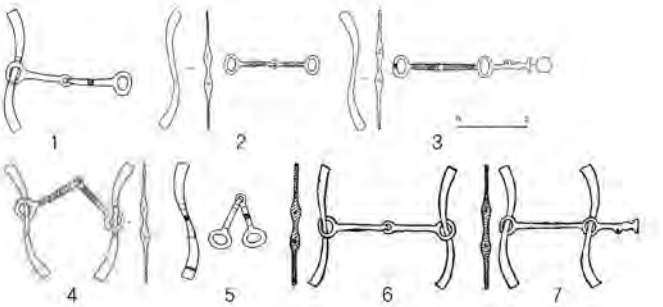
5. 황하 중 · 상류 지역

1) 납림투해(納林套海)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파언뇨이(巴彦淖爾) 지구에 위치한다. 1992~1993년에 45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魏堅 編 1998: 12~51). 그중 42호 무덤에서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2연식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8-1). 재갈멈치는 길이가 9.1㎝, 재갈쇠는 각 짝의 길이가 5.1㎝이다. 42호 무덤은 사파식(斜坡式)의 묘도가 있는 전벽목곽묘 B형으로 분류된 무덤이다. 이 고분군에서 전벽목곽묘 B형은 제1기(서한 만기) 조단으로 편년되었다.

2) 소만(召灣) 51호 고분

내몽고 중남부 포두시(包頭市) 소만촌(召灣村) 서북쪽에 위치한다. 1982년에 발굴되었다(魏堅 編 1998: 203~214). 목곽 봉토분이며, 묘도와 갑실(甲室) 및 을실(乙室)로 구성되어 있다. 갑실에서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1쌍 재갈의 재갈멈치는 길이 9㎝이고, 2공이다. 2연식 재갈쇠는 길이 7.3㎝이다(도면 8-2). 다른 1쌍 재갈은 재갈쇠가 일절식(一節式)인데 양쪽 끝 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고, 한쪽에 개궁모(蓋弓帽) 모양 물건이 부착되어 있다(도면 8-3). 재갈쇠의 길이는 10.4㎝, 재갈멈치는 길이 9㎝이다. 재갈멈치는 모두 2공식이다.



[도면 8] 황하 중 · 상류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내몽고 납림투해 고분군 42호(魏堅 編 1998), 2, 3. 내몽고 소만 51호 고분(魏堅 編 1998), 4. 내몽고 하와이 토호 고분군 6호 목곽묘(魏堅 編 1998), 5. 내몽고 팔배 고분군 3호(魏堅 編 1998), 6, 7. 청해성 상손가채 115호 (靑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3) 하와이토호(下窩爾吐壕)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포두시(包頭市) 하와이토촌(下窩爾吐村) 남쪽에 위치한다. 1993~1994년에 목곽묘와 전실묘 등 7기 무덤이 발굴되었다(魏堅 編, 1998: 290~297). 그중 6호 목곽묘에서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도면 8-4). 재갈쇠는 2절식이며, 길이 10.2㎝이다. 재갈멈치는 2공이고, 길이는 8.7㎝이다. 6호 무덤에서는 서한 만기의 오수전(五銖錢)과 소명경(昭明鏡)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4) 팔배(八拜) 고분군

내몽고 중남부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팔배촌(八拜村) 동남쪽 4㎞ 거리에 위치한다. 1995년에 3기 무덤이 조사되었다(魏堅 編 1998: 308~313). 그중 파괴가 심한 3호 무덤에서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재갈멈치는 5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금동이며, 그림이 제시된 1점은 프로펠러형이다(도면 8-5). 이 재갈멈치는 2공이고, 길이는 9.2㎝이다. 청동제 재갈쇠는 2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2절식이다. 금동이고, 전체 길이는 8.5㎝와 7.1㎝이다. 3호 무덤은 압형훈로(鴨形熏爐), 소명경(昭明鏡), 정(鼎), 오수전(五銖錢) 등의 유물을 통해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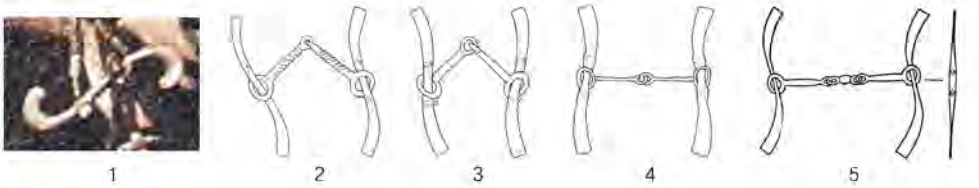
5) 대통(大通) 상손가채(上孫家寨) 115호묘

청해성 대통현(大通縣) 상손가채촌(上孫家寨村) 서북쪽에 위치한다. 1978년에 발굴된 상손가채 115호 무덤은 토광목곽묘이다(青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목간, 동전, 부뚜막 모양 명기, 마구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출토 동전 중에 서한 무제(武帝), 소제(昭帝), 선평(宣平) 시기의 오수전은 보이나 왕망(王莽) 시기의 것은 보이지 않아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차마구는 9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크기가 작은 명기(明器)로 보고되었다. 차마구가 명기인 사실은 출토 마면이 길이 10.6㎝, 너비가 3.1㎝인 사실로서 뒷받침된다. 재갈은 4쌍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2쌍이 "판상 S자형"이다(도면 8-6~7). 그중 1쌍의 재갈쇠는 길이 9㎝, 재갈멈치는 길이 9.8㎝이다(도면 8-6).

6. 낙양-서안 지역

1) 진시황릉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동북쪽 임동현(臨潼縣) 여산(驪山) 북쪽에 위치한다.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 출토품으로 소개된 말과 말고삐를 잡은 군인 테라코타 상이 있는데 그 말의 입에 물린 재갈쇠에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되어 있다(도면 9-1). 말은 높이가 192㎝이고,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203㎝로서 거의 실물 크기로 생각된다(傳天仇 主編 1988: 사진 24). 진나라가 기원전 221~기원전 206년에 존재하였기에 이 유물은 기원전 3세기 말로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9] 낙양-서안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傳天仇 主編 1988, 사진 24), 2, 3. 서안 남교 서한벽화묘 1호(2)와 2호(3)(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도 23-1, 도 77-2), 4. 서안 남교 서한묘(西安市文物保护考古研究院 2012: 도 56-2), 5. 낙양 서교 한묘(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도 24-9)

2) 서안 남교 서한벽화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남교(南郊) 서안이공대학(西安理工大學)에 위치한다. 2004년에 약 40기의 한나라 시기 무덤 중 1호와 2호 무덤을 발굴하였다(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전실벽화묘인 1호 무덤에서는 2쌍의 철제 및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다. 그중 청동제 재갈 1쌍은 2공의 "판상 S자형"이다(도면 9-2). 이 유물의 재갈쇠는 길이 10㎝, 재갈멈치는 길이 9.2㎝이다. 2호 무덤도 전실묘이다. 2쌍의 청동제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1쌍이 "판상 S자형"이다(도면 9-3). 재갈쇠는 길이 4.4㎝로 보고 되었으나 아마도 절 하나의 길이일 것이다. 재갈멈치는 길이 7.6㎝이다. 1호와 2호 무덤 모두 서한 만기로 편년되었다.

3) 서안 남교 서한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남교(南郊)에 위치한다. 2004년에 한나라 시기 무덤 3기와 원나라 시기 무덤 1기가 조사되었다(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2012). 1호 무덤에서는 투조 날개 장식 청동제 재갈 1쌍이, 3호 무덤에서는 "판상 S자형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 전권동실묘(磚券洞室墓)인 3호 무덤 출토 재갈은 재갈쇠 길이 7.5㎝, 재갈멈치 길이 7㎝이다(도면 9-4). 3호 무덤은 서한 만기~왕망 시기로 편년되었다.

4) 낙양 서교 한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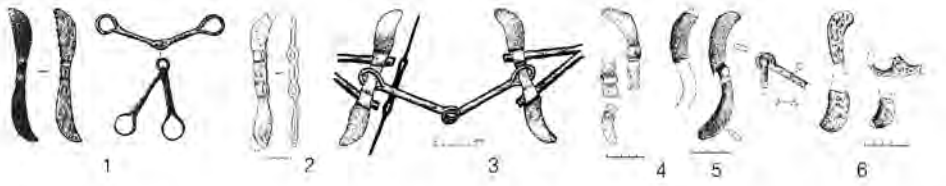
하남성 낙양시(洛陽市) 서교(西郊)에 위치한다. 1957~1958년에 약 400기의 무덤을 정리 조사하였다(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그중 217기는 서한 중엽~동한 만기의 전축묘이다. 한나라 시기 무덤에서 모두 4쌍의 "판상 S자형 재갈"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3142호 무덤 출토품이 그림으로 소개되었다(도면 9-5). 청동제이며, 재갈쇠와 재갈멈치 모두 길이가 각각 10.3㎝이다. 명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7. 바이칼호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1) 이헤리끄 고분군

우스찌-꺄흐따에서 북서쪽 약 28㎞, 데레스뚜이 라마교 사원에서 약 4㎞ 거리의 셀렝게강 지류인 지다강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모두 25기의 고분이 집계되었다(딸꼬-그린께비치 1999). 1898년에 딸꼬-그린께비치가 그중 15기를 발굴하였다. 그중 8호 무덤에서 프로펠러형 철제 재갈멈치와 2연식 철제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10-1). 8호 무덤은 2×1m 크기의 장방형이며, 깊이는 1m이다. 철제 재갈멈치는 길이 16.5㎝이고, 2개의 구멍이 있다. 재갈쇠의 길이와 특징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무덤에서는 약간의 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이 재갈멈치와 재갈쇠는 모사도가 소개되어 있다(도면 10-1). 츨레노바(1992: 248)에 의하면 이 유물은 G.P.소스놉스끼에 의해 판석묘 문화의 늦은 단계(기원전 3~기원전 2세기)로 편년된 바 있다.



[도면 10] 남바이칼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이헤리끄 고분군 8호(딸꼬-그린께비치 1999, 츨레노바 1992: 도판 102-2 · 3), 2. 이볼가 성(다브이도바 1995: 도판 14), 3~6. 데레스뚜이 고분군 29호, 48호, 81호, 112호 무덤(꼬노발로프 1976, 미냐예프 2007)

2) 이볼가 성

부랴트 공화국 울란-우데에서 남서쪽 16㎞ 거리의 셀렝게강 좌안에 위치한다.

이볼가 성은 평면 장방형이며, 크기는 남북 348m, 동서 194~216m이다. 전체 너비 35~38m에 걸쳐 4개의 성벽과 3개의 해자가 동쪽을 제외한 성의 나머지 부분을 두르고 있다.

이 유적은 1928~29년에 G.P.소스놉스끼가 처음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3기의 주거지를 발굴하였다. 이후 1949~1950년, 1955~1956년, 1958~1959년, 1961~1962년, 1974년에 7,000m^2의 면적에서 51기의 주거지와 수 백기의 경제 구덩이 등이 발굴되었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다브이도바 1995).

흉노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다량의 동물 뼈와 토기, 골각기, 철제와 청동제 유물, 석제품, 목제품, 유리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품 중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보고되었다. 문화층에서 출토된 이 재갈멈치는 가운데에 일정 거리를 두고 2개의 구멍이 있고, 양쪽 날개의 끝부분은 모두 결실되었다(도면 10-2). 축척은 제시되었지만 크기 등 구체적인 특징은 소개된 것이 없다. A.V.다브이도바는 이 유적을 기원전 2~기원전 1세기로 편년한 바 있다(다브이도바 1995: 58).

3) 데레스뚜이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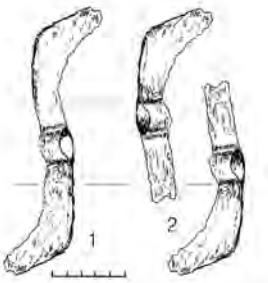
셀렝게강의 지류인 지다강 좌안에, 데레스뚜이 마을에서 상류 쪽 약 8㎞ 거리에 위치한다. 딸꼬-그린께비치가 1900년에 발견하였고, 그해 여름에 1일, 1901년에 2일 동안 모두 26기 무덤을 발굴하였다. 1968년과 1977년에는 꼬노발로프가 9기 무덤을 발굴하였으며, 1984~1996년에는 미냐예프가 다시 이 고분군에서 95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흉노의 토기, 동복, 화살촉, 활과 화살통 부속품, 마구, 각종 도구, 띠 부속품, 장신구, 오수전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기원전 1~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미냐예프 2007).

마구 중에는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출토되었다(꼬노발로프 1976: 50, 57, 90, 94, 99, 137, 도판 30-9~12, 도판 63-16~17, 도판 95-10~12, 도판 108-13). 29호 무덤(도면 10-3), 48호 쿠르간(도면 10-4), 81호 무덤(도면 10-5), 112호 무덤(도면 10-6), 120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29호 무덤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편상태이다. 그중 2점은 날개와 함께 구멍이 하나씩 남아있다. 그림에 축적이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유물의 크기는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29호 무덤에서는 목관에 안치된 인골의 발 부분에서 다수의 철제 유물과 함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2연식 재갈쇠가 출토되었다. 인골은 12~13세의 어린이로

추정되었다(꼬노발로프 1976: 138).

S.S.미냐예프는 이 고분군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관련하여 전체 모양이 확인되는 그림을 하나 제시하였는데(도면 11-1), 48호 쿠르간 출토품을 기초로 하는 추정 복원도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48호 쿠르간 출토품 그림과 1개의 구멍이 있는 추정 복원도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어색한 점이 많고, 과연 그 재갈멈치에 1개의 구멍만 있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필자 생각에 그 추정 복원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볼가 성(도면 10-2) 및 데레스뚜이 29호 무덤(도면 10-3) 출토 비슷한 모양 재갈멈치와 비교해 볼 때 원래는 2개의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면 11] 데레스뚜이 고분군 재갈멈치 복원도(1)와 비교 자료(2) (미냐예프 2007)

S.S.미냐예프가 제시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모두 철제이며, S자 모양이다. 길이는 약 20㎝로 추정되었고, 가운데 부분 너비는 1.5㎝, 단면은 장방형이며, 양쪽 날개는 끝부분이 넓어진다(미냐예프 2007: 31).

8. 알타이지역

1)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2)]

몽골 알타이 산악지역인 바양울기 아이막 올론-쿠린-골 강 좌안에 위치한다(몰로딘 외 2006). 3기의 적석 쿠르간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직경 11m인 1호 쿠르간은 그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1호 쿠르간의 깊이 185㎝인 무덤구



[도면 12] 알타이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몰로딘 외 2006), 2~6. 알로만-2 고분군(띠쉬낀 2011: fig 12, 마뜨레닌 2018: 그림 1-2~3., 띠쉬낀 외 2006: 그림 1-43)

2) 이 고분은 도면 캡션에는 올론 쿠린 골-6 고분군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용상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이 정확하다(필자).

덩이와 그 안에 안치한 목곽 사이에서 고전적인 파지리크 문화 스타일로 장식한 마구가 착장된 2필의 말뼈가 발견되었다. 마구 중에는 철제 고리 재갈쇠,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2-1), 그리핀이 표현된 마구 장식품, 안장 부속품 등이 있다.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은 우코크 고원의 베르흐 깔쥔-2 고분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원전 6~기원전 3세기로 편년된다.

2) 얄로만-2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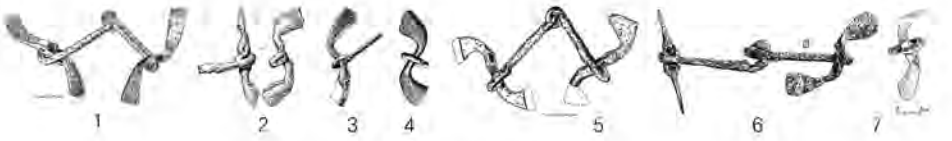
알타이 공화국 온구다이 지구 볼쇼이 얄로만 강이 카툰강과 합류하는 곳 부근에 위치한다. 출토 유물 중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확인된다. 2003년에 43호 쿠르간에서 다수의 금제 유물 및 철제 재갈쇠와 함께 2공식의 철제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띠쉬낀 2011: 539~558) (도면 12-3). 54호 쿠르간에서도 1쌍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마뜨레닌 2018) (도면 12-2).

그 외에 46호 쿠르간에서는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는데 재갈쇠 외환에 재갈멈치와 인수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마뜨레닌 2018) (도면 12-5). 이 재갈의 재갈멈치는 복원도(띠쉬낀 외 2006) (도면 12-6)를 통해 볼 때 고분 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2-4)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A.A.띠쉬낀 등은 이 쿠르간을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의 흉노 시기에 상응하는 우스찌-에디간 단계로 파악한다(띠쉬낀 외 2006: 31, 마뜨레닌 2018).

9.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1) 꿀레쇼브까 고분군

드네프르강 하류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유역의 꿀레쇼브까 마을 가까이 위치한다. 10기 이상의 쿠르간이 분포하였는데 1898년에 N.E.브란덴부르가가 발굴하였다(일린스까야 1968; 갈라니나 1977). 청동기시대 425호 쿠르간의 봉분에 만든 스키타이시대 덧무덤에서 철제 검, 청동제 화살촉 등과 함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부착된 철제 재갈이 1쌍 출토되었다(도면 13-1). 유물의 크기 등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대신 축척이 있다. 이 덧무덤 출토품은 V.A.일린스까야에 의해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었다.



[도면 13]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 꿀례쇼브까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47-5), 2. 브로바르끼 고분군(갈라니나 1977: 도판 28-5), 3, 4. 볼콥츠이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32-9, 도판 35-11), 5. 뽀뽀브까 고분군(일린스까야 1968: 도판 53-4), 6. 뻬레셰뻬노 고분군(마호르뜨이흐 2012: 그림 3-10), 7. 스멜라 고분군(베뜨렌꼬 1967: 도판 26-12)

2) 브로바르끼 고분군

드네프르강 하류의 좌안 지류인 프숄강 우안에 있는 브로바르끼 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1902년에 N.E.브란덴부르가가 발굴하였다(갈라니나 1977: 50).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발견된 쿠르간은 높이 3.55m, 둘레 길이 100보였다. 무덤은 도굴되었으나, 인골과 함께 철제 창, 재갈, 청동제 장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재갈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하나와 재갈쇠 일부가 남아있었다(도면 13-2). 이 쿠르간은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었다.

3) 볼콥츠이 고분군

드네프르강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상류 롬니시(市) 북동쪽 가까이에 위치한다. 104기의 쿠르간이 분포하고 있으며, 높이 10m 이상, 직경 60m의 대형 쿠르간도 있다(일린스까야 1968: 10, 16, 44~45, 47). 그중 1호와 8호 쿠르간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 S.A.마자라카가 1886년에 발굴한 1호 쿠르간은 봉분 높이 3.5m의 대형에 속한다. 부장품 중에는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재갈쇠, 골제 재갈멈치도 있다(도면 13-3). 1886년에 발굴된 8호 쿠르간은 봉분 높이 2.1m이며, 부장품 중에는 철제 재갈쇠와 결합한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있다(도면 13-4).

4) 뽀뽀브까 고분군

드네프르강의 좌안 지류인 술라강 상류 롬니시(市) 남서쪽 가까이에 위치한다. S.A.마자라카가 발굴하였다(일린스까야 1968: 60). 42기의 쿠르간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봉분 높이 1.4m인 14호 쿠르간에서 철제 재갈멈치와 재갈쇠가 출토되었다(도면 13-5).

5) 베레셰베노 고분군 24호 쿠르간

드네프르강 좌안 지류인 보르스클라강 유역의 벨스크 성 부근에 위치한다. 약 130기의 쿠르간이 있으며 40기 이상 조사되었다(마호르뜨이흐 2012). 그중 24호 쿠르간 1호 무덤에서 양단이 납작하고 넓어지는 S자 모양 철제 재갈멈치가 2연식의 철제 재갈쇠와 함께 출토되었다(도면 13-6). 고분군은 기원전 7세기~기원전 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철제 재갈멈치가 발견된 24호 쿠르간 1호 무덤은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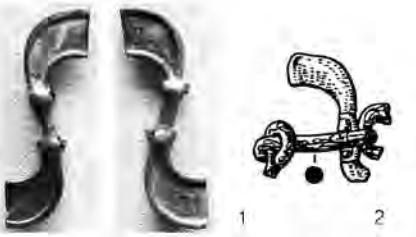
6) 스멜라 고분군 522호 쿠르간

드네프르강 중류 지역 체르카시 남서쪽 스멜라 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출토 유물 중에는 프로펠러형 청동제 재갈멈치도 1점 확인된다(도면 13-7). 기원전 5세기 초로 편년된다(베뜨렌꼬 1967: 37).

10.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1) 호세우또보 고분군

볼가강이 카스피해와 합류하는 곳 가까이 볼가강 좌안 호세우또보 마을 부근에 위치한다.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에 1쌍의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전시되어 있는데 스키타이 시대 사브로마트 문화에 속하며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된다(도면 14-1).[3]



[도면 14]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 1. 호세우또보 고분군(모스크바 역사박물관, 필자 촬영), 2. 유타예브까 고분군(모쉬꼬바 1989: 도판 81-2)

2) 유타예브까 고분군

돈강이 남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남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 가까이 일로블라강 하류 우안 지역에 위치한다. 중기 사르마트 문화(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2세기 초)에 속하는 한 쿠르간에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1점 출토되었다(모쉬꼬바 1989: 177, 185) (도면 14-2).

---

3) 2018년 2월에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실견하였다.

11.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1) 울스끼 고분군



[도면 15] 울스키 쿠르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이반치크 외 2015)
1, 2. 철제, 3. 은제, 4. 청동제

코카서스산맥 북서쪽 아디게이 공화국 울랴프 마을 남동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한다. 유적이 있는 곳은 쿠반강의 지류인 라바강 좌안 들판이다. N.I.베셀롭스끼가 자신이 확인한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10기의 쿠르간 중 1898년에 2기, 1908년에 3기, 1909년에 4기 등 모두 9기의 쿠르간을 발굴하였다. 이후 A.M.레스꼬프를 단장으로 하는 동양예술국립박물관 조사단이 1982년에 베셀롭스끼가 발굴하지 않은 나머지 1기(10호) 쿠르간을 발굴하였고, 그 외에 1983년에 도로 확장 공사 중에 확인된 11호 쿠르간의 북쪽 일부를 조사하였다(이반치크 외 2015). 2007년에는 베셀롭스끼가 발굴한 1898-1호 쿠르간과 1908-1호 쿠르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된다.

이 유적에서는 사슴, 표범, 그리핀 등의 스키타이 동물 양식 장식품과 함께 다수의 마구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1898-2호 쿠르간, 1909-2호 쿠르간, 1982-10호 쿠르간에서 출토되었다.

재갈멈치는 철제, 청동제, 은제가 있으며, 모두 가운데에 2개의 구멍이 있다. 철제는 세부 형식이 날개의 단면이 납작한 것과 원형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납작 날개를 가진 것은 끝이 뾰족한 것과 "혹"이 있는 것으로 세분된다. 납작 날개이면서 끝이 뾰족한 재갈멈치는 1982-10호 쿠르간 1호 말(馬)에서 출토된 것이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도면 15-1). 이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6.5㎝이며, 쌍으로 발견된 다른 재갈멈치는 잔존 길이가 17㎝이다. 날개가 납작하면서 양쪽 끝에 "혹"이 있는 재갈멈치는 1982-10호 쿠르간 22호 말에서 발견된 것이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길이가 19㎝이다(도면 15-2). 이 재갈멈치와 쌍을 이루는 재갈멈치는 곧은 막대기 모양이고 양쪽 끝이 양식화된 새의 머리 형상이다. 길이는 22㎝이다. 이 재갈멈치 쪽 재갈쇠 고리에 비튼 8자 모양 고삐이음쇠가 부착되어 있다. 그 외에도 편 상태의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다수 출토되었다.

청동제와 은제는 각각 한 쌍이 1909-2호 쿠르간에서 출토되었다. 은제 재갈멈치 한 쌍은 길이가 22㎝이고, 양쪽 날개가 모두 주조, 투조, 선각에 의한 동물 형상들로 장식되어 있다(도면 15-3). 두 구멍 사이의 공간에는 철제 재갈쇠의 흔적이 있다. 청동제 한 쌍은 하나는 한쪽 날개 부분만 남아있고(길이 12.1㎝), 다른 하나는 한쪽 날개의 끝부분이 결실되었다(길이 22㎝) (도면 15-4). 청동제 역시 날개가 동물의 형상들로 장식되었다. 가운데 2개의 구멍 바깥쪽이 세로와 가로 방향의 돌선으로 장식된 점이 주목된다.

Ⅲ.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과 기원 문제

1. 형태적 특징과 분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아직 그 자체로서 연구 대상이 된 적이 없어 형태적 특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속성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허미연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양쪽 끝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선이 표신의 중앙인지,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 한쪽 구멍 부분인지, 혹은 구멍보다 더 바깥인지를 기준으로 표신 양단의 대칭성을 중앙, 편향, 외곽으로 구분한 바 있다. 허미연은 이를 기준으로 한반도 동남부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이른 시기의 것은 표신의 양단이 서로 대칭적으로 만곡하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점차 대칭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 연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영남지역 프로펠러형 표비 중 이른 시기의 예와 동일하게 표신이 대칭적임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허미연은 연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표신의 양단이 직선적인 형태로서 평양 상리, 성주 예산리 Ⅲ-1호, 경주 화천리 5호 등의 출토품과 형태적으로도 유사함을 지적하였다(허미연 2014: 47~48, 53, 62~63). 다시 말해서, 허미연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주요 속성으로 표신의 대칭성과 양단(익단)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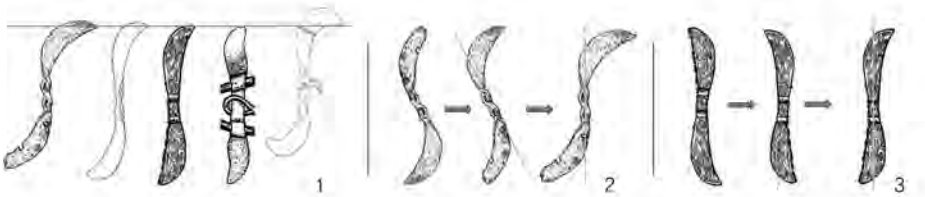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익단의 형태는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되나, 표신의 대칭성은 한반도에서는 시간적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을지라도, 유라시아대륙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드네프르강 유역의 볼쿱츠이 8호 쿠르간 출토 청동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대칭적이나(도면 13-4),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베레세베노 24호 쿠르간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완전히 비대칭적이다(도면 13-6). 또한 기원전 6~기원전 5세기로 편년되는 울스키 쿠르간 출토 은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1쌍은 하나는 대칭적이나 다른 하나는 완전 비대칭적이다(도면 15-3). 그 외에도 연하도 무양대촌 서쪽 수습 재갈 1쌍에 부착된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하나는 대칭적이나 다른 하나는 비대칭적이다(도면 7-1).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가운데 2개의 구멍이 있는 공부(孔部) 혹은 중심부(中心部)와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익부(翼部)가 구분된다. 날개의 끝부분, 즉 익단(翼端)은 선(線)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과 익단의 경계가 모호하면서 뾰족하게 점(點)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구분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선익단(線翼端), 후자는 점익단(點翼端)으로 부르고자 한다. 익단의 형태에 대해서는 허미연이 예산리 출토품과 연하도 무양대촌 서쪽 수습 재갈멈치 하나의 끝부분을 "직선적인 형태"로 파악하였듯이 이미 학계에서 주목한 적이 있다. 중심부 두 구멍 간의 간격도 의미 있는 속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드물어 검토가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익부 및 익단의 형태를 고려하여 분류해 보았다. 먼저 익단이 뾰족한 점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A 그룹, 선을 이루면서 마무리되는 것을 B 그룹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다음에 A 그룹은 익부의 형태와 점익단의 위치(도면 16-1) 등을 고려하여 7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B 그룹은 익단의 선이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는 곡선익단(曲線翼端)의 B-1 그룹과 익단의 선이 직선 혹은 거의 직선인 직선익단(直線翼端)의 B-2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다음에는 익부의 형태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각각 9개 및 5개 형식으로 세분하였다(도면 17).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림이나 사진에서 두 구멍이 있는 중심부를 수직으로 세우고, 익부의 굽은 방향을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게



[도면 16] 점익단 위치 예시(1), 그림 회전의 예(2), 그림 회전과 "가로 뒤집기"의 예(3)(필자 작성)

하였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 그림 자체를 180도까지 회전하거나 혹은 "가로로 뒤집기"한 것도 있다(도면 16-2~3).

A 그룹

Ⅰ형식 – 익부의 외곽이 크게 호선을 그리면서 낫의 모양을 갖는다(도면 17-1~4). 익단이 모두 뾰족하나 세부 형식이 구분되는데 Ⅰ-1형식은 익단의 뾰족한 것이 일반적인 점익단이고(도면 17-1), Ⅰ-2형식은 점익단에 꼭지가 있으며(도면 17-2), Ⅰ-3형식은 익부에 동물의 형상을 새기었고, 익단이 새의 부리 모양이다(도면 17-3~4).

Ⅱ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나이프 모양이다(도면 17-5~9). 점익단이 모두 익부 최대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Ⅲ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강하여 점익단에서 수평선을 그을 때 익부 안쪽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도면 17-10~12). 익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과 긴 것이 확인된다.

Ⅳ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와 낫 모양은 Ⅰ-1형식과 비슷하나, 중심부와 익부의 연결 지점 바깥쪽에 '턱'이 진 것이 차이가 난다(도면 17-13).

Ⅴ형식 – 뾰족한 점익단이 익부의 최대 높이 부분에 위치하며, 익부가 나이프 모양이다(도면 17-14~15).

Ⅵ형식 – 뾰족한 점익단이 익부의 최대 높이 부분에 위치하며, 익부가 게의 집게발 모양이다(도면 17-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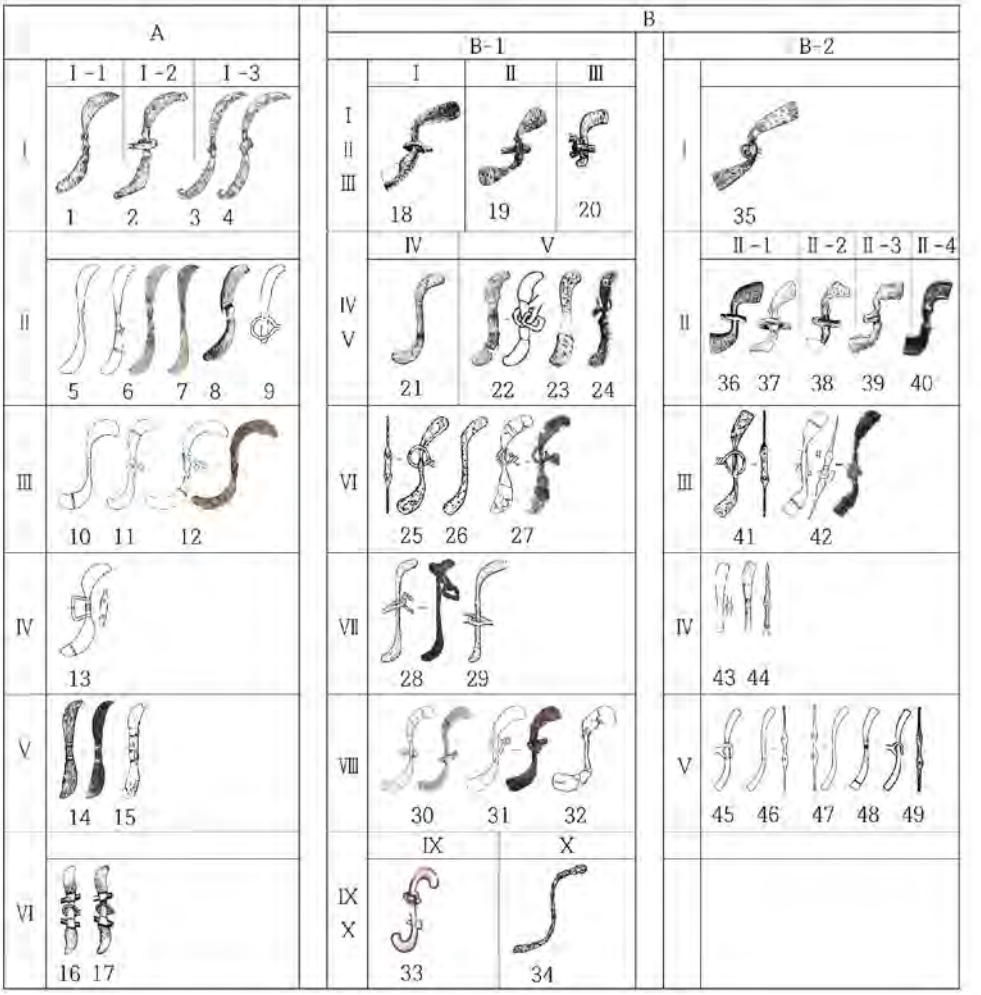
B-1 그룹

Ⅰ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길고 둥근 익단이 있는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18).

Ⅱ형식 – 익부의 안쪽이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고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19).

Ⅲ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의 양측 가장자리가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미약하게 넓어진다(도면 17-20).

Ⅳ형식 – 익부가 상대적으로 길면서 부드럽게 굽었고 익단은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되며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도면 17-21).



[도면 17]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형식 분류표(필자 작성)

1~4. 울스키, 5~7, 12. 대구 평리동, 8, 16, 17, 23. 데레스뚜이, 9, 43, 44. 서차구, 10, 11, 19. 창원 다호리, 13. 충주 금릉동, 14. 이헤리끄, 15. 이볼가성, 18, 36. 볼콤츠이, 19. 베레셰삐노, 20. 유타예브까, 21. 올론-쿠린-골-10, 22. 알로만-2, 24. 평양 석암리, 25, 26, 34, 41. 연하도, 28, 29. 유수 노하심, 30, 31. 경산 임당동, 32. 대동군 상리, 33. 진시황릉 2호 병마용갱, 35. 꿀레쇼브까, 37. 스멜라, 38. 뽀뽀브까, 39. 브로바르끼, 40. 호세우또보, 42. 성주 예산리, 45. 납림투해, 46, 47. 소만, 48. 팔배, 49. 상손가채(각 재갈멈치 출토 유적의 출처는 유적 소개 부분에 모두 제시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B-2 그룹 V형식 재갈멈치는 형태와 크기가 모두 천편일률적이어서 일부 유적 출토품만 예시함. 일부 재갈멈치는 180도까지 회전 혹은 가로 뒤집기 함.)

V형식 –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부드럽게 굽었다. 익단의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도면 17-22~24).

VI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둔각을 이루며, 익단의 무게 중심이 가운데에 있다(도면 17-25~27).

VII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둔각을 이루는 것은 VI형식과 비슷하

나, 익부가 중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또 폭이 좁다(도면 17-28~29).

Ⅷ형식 - 익부가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지고 익단은 미약하게 호선을 그리다가 안쪽에서 약간 뾰족하게 점을 이루면서 마무리된다(도면 17-30~32). 익단의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다.

Ⅸ형식 - 익부가 알파벳 C자 모양에 근접하게 크게 굽었다(도면 17-33).

Ⅹ형식 - 중심부와 익부의 폭이 매우 좁아 전체적으로 가늘다(도면 17-34).

B-2 그룹

Ⅰ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고 또 상대적으로 긴 것은 B-2 그룹 Ⅰ형식과 비슷하나 익단이 곧은 것이 서로 다르다(도면 17-35).

Ⅱ형식 - 익부가 중심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며, 익부가 상대적으로 짧고 바깥으로 가면서 넓어진다(도면 17-36~40). Ⅱ-1형식은 익부가 익단으로 가면서 크게 넓어졌고(도면 17-36~37), Ⅱ-2형식은 익부가 삼각형 모양이며(도면 17-38), Ⅱ-3형식은 익부의 위와 아래가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미약하게 넓어졌다(도면 17-39). Ⅱ-4형식은 익부 양쪽 가장자리에 주연이 있다(도면 17-40).

Ⅲ형식 - 익부가 바깥으로 가면서 아주 미약하게 넓어지는 도끼날 모양이다(도면 17-41~42).

Ⅳ형식 - 익부의 굽은 정도가 미약하여 중심부와 익단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이 거의 동일 축 선상에 위치한다(도면 17-43~44).

Ⅴ형식 - 익부가 좁은 끌날 모양이다(도면 17-45~49). 대부분 길이 10㎝ 내외의 미니어처이며, 명기(明器)로 보고되었다.

2. 지역적 특징과 기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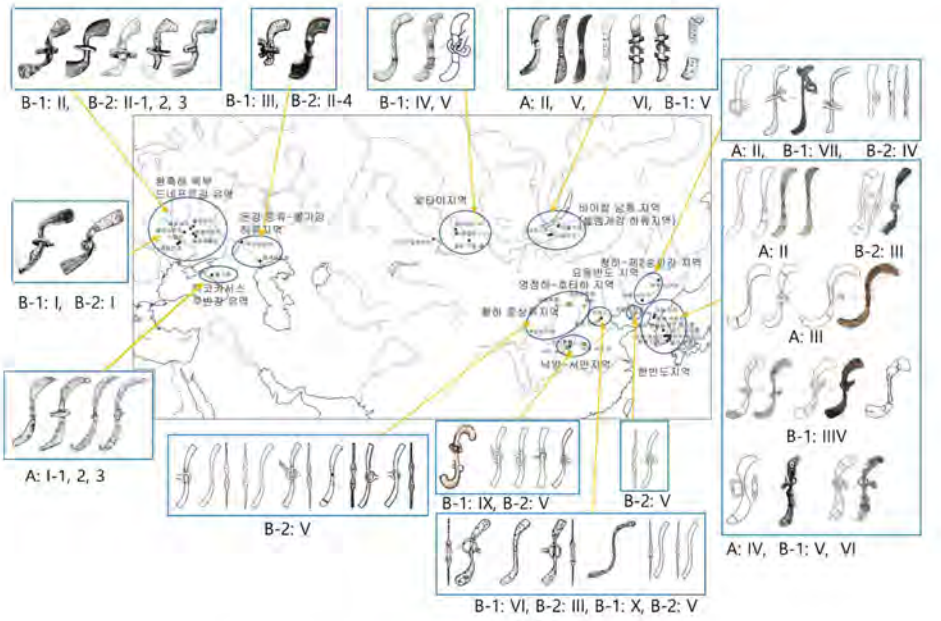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지역적 특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북코카서스 지역의 울스키 고분군에서는 A 그룹 Ⅰ형식 재갈멈치들만,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및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는 B-1 그룹 Ⅰ형식과 Ⅱ형식

및 Ⅲ형식 그리고 B-2 그룹 Ⅰ형식과 Ⅱ형식 재갈멈치들만 출토되었다(도면 18).

알타이지역에는 B-1 그룹 Ⅳ형식과 Ⅴ형식 재갈멈치들이, 남바이칼 셀렝게강 하류 지역에서는 A 그룹 Ⅱ형식, Ⅴ형식, Ⅵ형식, B-1 그룹 Ⅴ형식 재갈멈치가 각각 출토되었다. 청하-제2송화강 지역의 서풍 서차구 유적과 유수 노하심 유적 출토 재갈멈치는 A 그룹 Ⅱ형식과 B-2 그룹 Ⅳ형식 및 B-1 그룹 Ⅶ형식이 확인된다. B-2 그룹 Ⅴ형식 재갈멈치는 중국지역 한나라 시기 유적에서만 예외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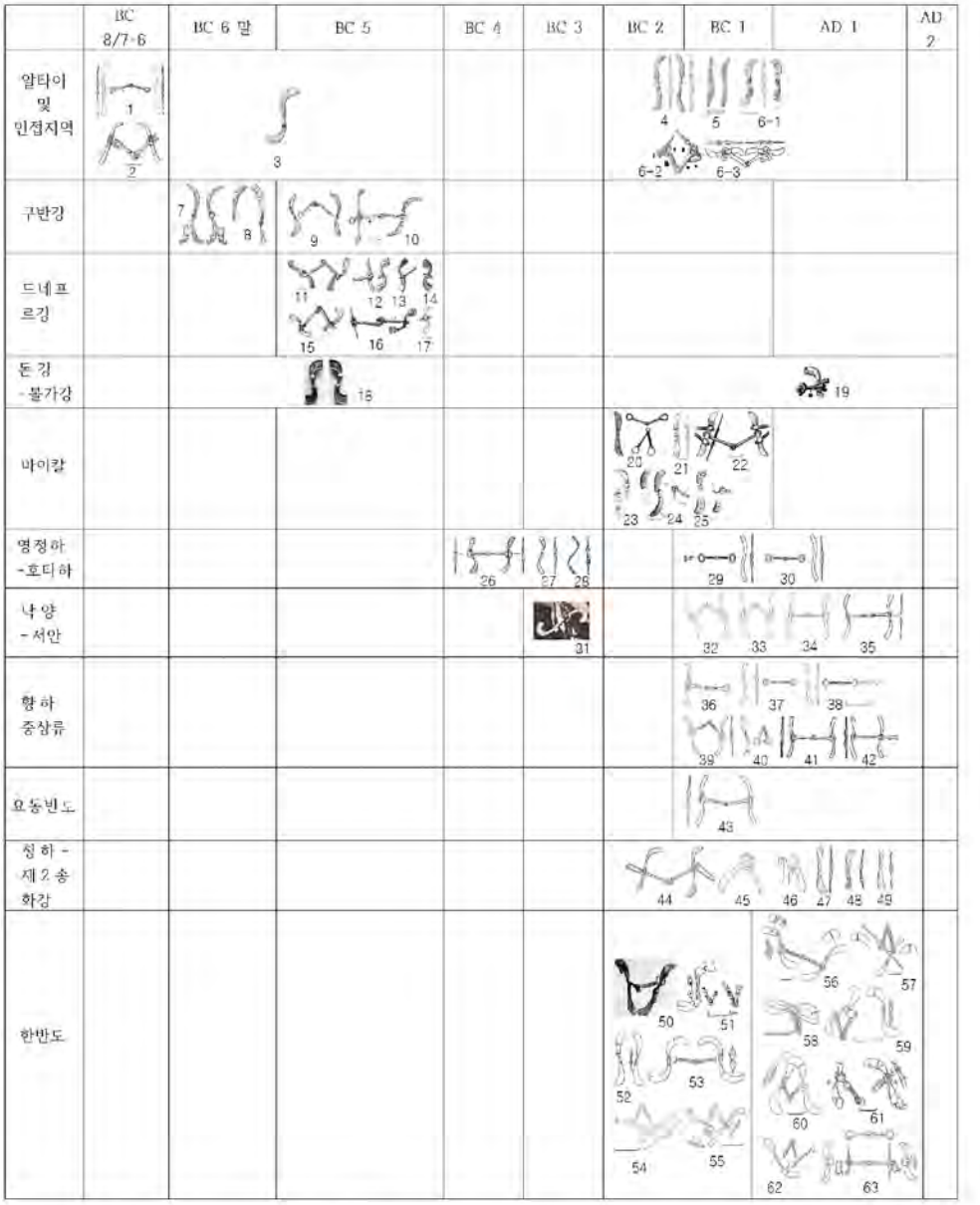
이에 반해 한반도 지역은 A 그룹 Ⅱ형식, Ⅲ형식, Ⅳ형식, B-1 그룹 Ⅴ형식, Ⅵ형식, Ⅷ형식, B-2 그룹 Ⅲ형식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확인된다(도면 18). 그중 창원 다호리 104호 및 119호 무덤 출토(도면 17-10~11) 및 대구 평리동 출토(도면 17-12) A 그룹 Ⅲ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 아직 동일 형태가 발견된 적이 없다. 임당 145호 무덤과 창원 다호리 69호 무덤 및 평양 부근 상리 출토 B-1 그룹 Ⅷ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30~32)도 동일 형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도면 18). 따라서 이 재갈멈치들은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특징적인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평양 석암리 출토 B-1 그룹 Ⅴ형식 재갈멈치(도면 17-24)는 동일



[도면 18] 유라시아대륙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분포 현황도(필자 작성)

형식이 알타이지역 얄로만-2 유적(도면 17-22)과 셀렝게강 하류 지역 데레스뚜이 고분군(도면 17-23)에서 출토되었다. 대구 평리동 출토 A 그룹 Ⅱ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5~7)는 동일 형식이 셀렝게강 하류의 데레스뚜이 고분군(도면 17-8)과 서풍 서차구 고분군(도면 17-9)에서 출토되었다. 임당 96호 무덤에서 출토



[도면 19] 유라시아대륙 발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및 기원 관련 재갈멈치 편년표(필자 작성)
(각 재갈멈치 출토 유적의 출처는 유적 소개 부분에 모두 제시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함).

된 B-1 그룹 Ⅵ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27)는 익부와 익단의 형태가 연하도 출토품(도면 17-25)과 비슷하다. 예산리 출토 B-2 그룹 Ⅲ형식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42)는 연하도 무양대촌 수습 재갈멈치(도면 17-41)와 동일 형식이며,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출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동일 형식이 발견된 곳은 알타이지역 얄로만-2 고분군, 남바이칼 셀렝게강 하류 지역 데레스뚜이 고분군, 청하-제2송화강 지역 서풍 서차구 고분군,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의 연하도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을 이 지역들에서 찾아야 함을 말해 줄 것이다.

이 의견은 각 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 보았을 때도 모순되지 않는다(도면 19). 한반도의 평양 석암리 유적과 평양 부근 상리 유적이 기원전 2세기 말 혹은 기원전 1세기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남동부 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은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 서차구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 연하도 유적은 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 얄로만-2 고분군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출토 고분과 데레스뚜이 고분군은 기원전 2~기원후 1세기로 각각 편년된다.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과 관련하여 일찍이 알타이지역을 지목한 연구자가 있다. 김두철은 "스키타이계" 재갈멈치는 3공식이고, "알타이계"는 2공식임을 지적하면서 2공식인 한반도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지역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김두철 2000: 179~182).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알타이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의견은 타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최신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환흑해 북부지역 스키타이 문화에서는 기원전 7세기 말~6세기에 3공 혹은 3고리 표비가 널리 유행하였지만, 기원전 5세기 초에 이미 가운데가 8자 모양으로 넓은 2공 표비가 3공 및 3고리 표비를 대체하였고, 스키타이 시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멜유꼬바 1989: 96). 알타이지역에서 마이에미르 단계에는 3공식의 재갈멈치가, 파지리크 문화 단계에는 2공식의 재갈멈치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슐가 2008: 64~68). 이 사실은 3공과 2공은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지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재갈멈치의 구멍 개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강나리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강나

리가 "조기 스키토-시베리아문화 시기에는 3공의 표비가 동부스텝 지역의 여러 문화에서도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서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강나리 2022: 115), 이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가 인용하고 있는 아르잔 1호 쿠르간 출토 3공의 재갈멈치와 유사한 재갈멈치가 아르잔 1호와 비슷한 시기에 흑해 북안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랴즈노프 1980: 55).

다음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자체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북코카서스 울스키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울스키 1909-2호 쿠르간에서 출토된 기원전 6세기로 편년되는 A 그룹 Ⅰ-3형식 은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3~4)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익부가 동물로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날개 부분이 납작하고 중간 부분으로 가면서 넓어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울스키 고분군 1982-10호 쿠르간과 1898-2호 쿠르간 출토 Ⅰ-2형식(도면 17-2) 및 Ⅰ-1형식(도면 17-1)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세기 혹은 기원전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이반치크 외 2015: 96~99).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에서 출토된 철제와 청동제 재갈멈치(도면 17-18~19, 35~39)는 모두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 사실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환흑해 북부지역에서 일찍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이 지역에서 기원하였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알타이지역에는 파지리크 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에서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타이지역의 흉노-선비-유연 단계 재갈멈치를 연구한 S.S.마뜨레닌은 알타이지역 철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원형이 몽골 알타이에서 조사된 파지리크 문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1호 쿠르간 출토 목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면 17-21)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마뜨레닌 2018: 170).

파지리크 문화는 기원전 6~기원전 3세기로 폭넓게 편년되기 때문에 이 목제 재갈멈치의 연대는 북코카서스 지역 및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 출토품보다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알타이지역의 보이뜨이겜-2 고분군 및 이웃하는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

이다. 보이뜨이겜-2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 청동제 재갈멈치는 가운데 중심부에는 3개의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2개 구멍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는 다르면서 또 시기가 더 이른 형식임을 보여 주고 있다.



[도면 20] 알타이(1)와 이르티시강 유역 발견 청동제 재갈
1. 보이뜨이겜-2 고분군(아브둘가네예프 1994: 그림 1-1~2), 2.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슐가 2008: 그림 33-1)

이 재갈멈치의 양쪽 일부는 모두 넓고 평평하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특징과 일치한다(도면 20-1). 다만 한쪽은 "C"자 모양으로 굽었지만 다른 한쪽은 거의 곧거나 혹은 미약하게 굽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에 특징적인 온전한 "S"형을 가지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래가 미약하게 굽은 오른쪽 재갈멈치는 S자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재갈멈치는 기원전 8~7세기(아브둘가네예프 1994: 37~43)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슐가 2008: 62, 66, 67)로 편년된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다른 한 시원적인 형태는 보이뜨이겜-2 고분군과 그렇게 멀지 않는 이르티시강 유역의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17호 위석에서 발견되었다. 이 청동제 재갈멈치도 중심부에 3개의 구멍이 있다. 다만 한쪽 익부는 단면이 원형이고, 다른 한쪽 익부는 넓고 평평한 것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도면 20-2). 하지만 단면 원형인 익부는 "C"자 모양으로 굽어졌고, 넓고 평평한 익부는 미약하게 굽어져 어떻게 보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 고분군은 기원전 9~기원전 7세기로 편년된 적도 있지만(예르몰라예바 1987: 154~163), P.I.슐가는 이 재갈멈치를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하였다(슐가 2008: 62, 66, 67).

이와 관련하여 P.I.슐가는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출토 재갈멈치의 날개가 조금 굽었고, 한쪽만 납작한 사실과 또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재갈멈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재갈멈치는 새로운 행태 재갈멈치의 시원적 형태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출토품과 시기가 비슷한 보이뜨이겜-2 고분군 출토 S자 연상 재갈멈치는 다음 시기에 유행을 한 새로운 전통의 발생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슐가 2008: 68). 이 의견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P.I.슐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17호 위석 출토품보다는 보이뜨이겜-2 고분군 출토품이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의 시원적인 형태이자 새로운 전통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알타이지역의 마이에미르 문화 단계에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올론 쿠린 골-10 고분군 출토품(도면 17-21, 도면 19-3)과 얄로만-2 고분군 출토품(도면 17-22, 도면 19-4~6)의 예를 볼 때 그곳에서 마이에미르 문화 다음 단계인 파지리크 문화와 이후 흉노 시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타이지역은 가장 오랫동안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사용되었던 곳이다.

알타이지역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인 형태는 모두 3공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3공식 재갈멈치는 2공식 재갈멈치보다 먼저 유행한 형식이었다(멜유꼬바 1989: 96). 이 사실은 보이뜨이겜-2 고분군과 이즈마일로브까 고분군 3공 재갈멈치가 북카프카스 및 환흑해 북부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들보다 이른 형식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알타이지역에서 발생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스키타이 시대에 서쪽으로 환흑해 북부지역까지 파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알타이지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파지리크 문화 단계와 시기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전국시대에 중국 북방지역의 연하도까지 파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흉노 시기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도 오랜 지역적 전통을 가진 알타이지역에서 셀렝게강 하류 지역, 서풍-유수 지역 등으로 파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돈강 중류 지역 유타예브카 출토품(도면 17-20, 도면 19-19)은 기원전 2~기원후 2세기로 편년되는 후기 사르마트 시대에 속하는데 흉노 시대에 알타이지역에서 이곳까지 파급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웃하는 기원전 5세기 드네프르강 유역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익단이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가장 이른 형식이 기원전 6~기원전 5세기 북카프카스 쿠반강 유역에서 확인되었고, 익단이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원전 5세기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은 물론이고 알타이에서도 함께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시원적 형태로 볼 수 있는 기원전 8~기원전 7세기 혹은 기원전 7세기 말~기원전 6세기 초로 편년되는 보이뜨이겜-2 고분군 출토 3공 재갈멈치는 선익단을 가진다. 이는 어쩌면 점익단과 선익단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가 그 기원지가 달랐음을 말해 줄 수도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근원적으로 알타이지역뿐만 아니라 북코카서스 지역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북코카서스의 기원전 6~기원전 5세기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와 남바이칼, 서차구 유적 및 한반도의 기원전 2~기원후 1세기의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지나치게 먼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둘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물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를 유라시아대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기원 문제는 마구 사용의 시작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 왔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재갈멈치 중 하나가 바로 프로펠러형이기 때문이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S자형 재갈멈치의 한 종류로서 2공의 중심부는 8자 모양을 이루면서 두텁고, 날개 부분은 납작하면서 그 중간 혹은 바깥의 폭이 넓어지며, 위와 아래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S자 모양을 이루면서 굽었다. 이 특징을 가진 재갈멈치는 초기 철기시대인 스키타이 시대부터 시작하여 유라시아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그 분포 범위는 한반도를 너머 청하-제2송화강 지역, 요동반도 지역,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 낙양-서안 지역, 황하 중상류 지역, 바이칼 남쪽 지역(셀렝게강 하류 지역), 알타이지역,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 그리고 환흑해 북부 드네프르강 유역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기본적으로 2공이 있는 8자 모양 중심부와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익부(翼部)로 구성되어 있다. 익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익단(翼端)은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點翼端)과 선으로 마무리되는 선익단(線翼端)이 구분된다. 형식분류는 먼저 익단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점익단인지 혹은 선익단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A 그룹과 B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B 그룹은 다시 익단의 선이 둥그스름한 곡선익단(曲線翼端)인 B-1 그룹과 익단의 선이 곧거나 혹은 거의 곧은 직선익단(直線翼端)인 B-2 그룹으로 나누었다. 다음에는 익부의 형태와 방향, 점익단의 경우 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시 세분하였다.

다음에는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지역적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A그룹 Ⅰ형식, B-1 그룹 및 B-2 그룹 Ⅰ형식과

Ⅱ형식, 그리고 B-1 그룹 Ⅲ형식은 북코카서스, 드네프르강 유역, 돈강 중류-볼가강 하류 지역 등 서쪽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B-2 그룹 Ⅴ형식은 중국지역 한나라 시기 유적에서만 발견된다. 한반도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A 그룹 Ⅱ형식, Ⅲ형식, Ⅳ형식, B-1 그룹 Ⅴ형식, Ⅵ형식, Ⅷ형식, B-2 그룹 Ⅲ형식 등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중 A 그룹 Ⅲ형식과 B-1 그룹 Ⅷ형식은 예외적으로 한반도에서만 발견되어 한반도에 특징적인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것과 같은 형식의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의 얄로만-2 고분군, 바이칼 남쪽의 데레스뚜이 고분군, 청하-제2송화강 지역의 서차구 고분군, 영정하-호타하 사이 지역의 연하도 등에서만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형 재갈멈치의 분포 범위와 편년을 고려하여 그 기원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알타이의 보이뜨이겜-2 고분군 출토 S자 모양에 가까운 3공 재갈멈치에서 기원하며, 한반도 재갈멈치의 직접적인 기원은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서로 가까운 서풍 서차구 고분군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익단이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점익단 프로펠러형 재갈멈치는 바이칼 남쪽, 서차구 유적, 한반도에서는 모두 기원전 2세기의 것들만 확인되는 것에 반해 북코카서스 쿠반강 유역에는 이미 기원전 6~기원전 5세기에 사용되어 그 근원적인 기원지는 북코카서스 지역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투고일 2024. 4. 12 | **심사완료일** 2024. 5. 21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 國文 -

강나리, 2022, 「흉노 표비의 성립과 주변」, 『고고광장』 3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국립김해박물관, 2013, 『창원 다호리유적 10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창원 다호리 유적 11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2, 『창원 다호리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김두철, 2000, 『한국 고대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영신, 2018, 「원삼국~통일신라시대 재갈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108.

백련행, 1965, 「석암리에서 나온 고조선 유물」, 『고고민속』 4.

신경철, 1994, 「가야 초기 마구에 대하여」, 『부대사학』 18.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 Ⅲ -원삼국~조선시대 분묘-』.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울산광역시 · 우리문화재연구원.

윤무병, 1996,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 도서출판 예경.

윤서경, 2016, 『진 · 변한 재갈의 등장과 전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용진, 1981,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 -대구평리동출토 일괄유물검토-」, 『한국고고학보』 10 · 11.

이상률, 2008, 「삼한시대 표비의 수용과 획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2.

이재혁, 2022, 『영남지역 4~6세기 고분출토 재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정, 2012, 「흉노계 표비(鏢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중앙아시아연구』 17-1.

정상석, 2012, 「〈유수 노하심〉보고서 재검토를 통한 묘역구분과 조성연대에 대한 일고찰」, 『고고학』 11-1호.

정한나, 2018, 『고베고리가 부가된 재갈의 기능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충주 금릉동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 임당유적(Ⅰ) A~B지구 고분군』, 한국토지공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허미연, 2014, 「삼한시대 영남지역 철제표비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91.

황다운, 2019, 「중서부지역 마한 · 백제 재갈의 전개양상」, 『고고학』 18-2.

- 中文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1987, 『榆樹 老河深』,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3, 『姜屯漢墓』(上 · 下), 文物出版社.

遼寧省博物館 ·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編著, 2022, 『西豐西岔溝 -西漢時期東北民族墓地』, 文物出版社.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6, 「西安理工大學西漢壁畫墓發掘簡報」, 『文物』 2006-5.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2012, 「西安南郊西漢墓發掘簡報」, 『文物』 2012-10.

魏堅 編, 1998, 『內蒙古中南部漢代墓葬』,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傳天仇 主編, 1988, 『中國美術全集: 彫塑編 2 秦漢彫塑(The Great Treasury of Chinese Fine Arts: Sculpture 2 Sculpture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1963, 「洛陽西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滿城漢墓發掘報告』(上 · 下), 文物出版社.

青海省文物考古工作隊, 1981, 「青海大通縣上孫家寨」, 『文物』 1981-2.

河北省文物研究所, 1996, 『燕下都』, 北京, 文物出版社, 1996.

- 英文 -

티쉬킨 2011. Alexei A. Tishkin. 2011. Characteristic burials of the xiongnu period at Ialoman-Ⅱ in the Altai // Xiongnu archaeology perspectives of the first steppe empire in Inner Asia (Jan Bemmand ed.,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aeology BCAA).

이반치크 외 2015. Askold Ivanchik and Hermann Parzinger, 2015. The Ulskii Tumuli: Cultic and Burial Ensemble of the Scythian Period in the Northern Caucasus. Paleograph Press: Berlin, Bordeaux, Moscow.

- 露文 -

갈라니나 1977. Галанина Л.К., 1977. Скифские древности Поднепровья. САИ Д1-33. Москва. Наука.

꼬노발로프 1976. Коновалов П.Б., 1976. Хунну в Забайкалье. Улан-Удэ. Бурят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그랴즈노프 1980. Грязнов М.П., 1980.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Ленинград.

다브이도바 1995. Давыдова А.В., 1995. Иволгин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Том 1: Иволь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딸꼬-그린께비치 1999. Талько-Грынцевич Ю.Д., 1999. Материалы к палеоэтнологии Забайкаль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티쉬킨 외 2006. Тишкин А.А., Горбунов В.В., 2006. Горный Алтай в хуннуское время: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마뜨레닌 2018. Матренин С.С., 2018. Псалии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хуннуско-сяньбийско-жуж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классификация и типология. Известия АлтГУ.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и археология. № 2(100).

마호르뜨이흐 2012. Махортых С.В., 2012. Хронология Перещепинского курган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близ Бельска. Stratum plus. № 3.

멜유꼬바 1989. Мелюкова А.И, 1989. Скифская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оружие, конское снаряжение, повозки, навершия. Степ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모쉬꼬바 1989. Мошкова М.Г., 1989. Среднесарматская культура. Степ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몰로딘 외 2006. Молодин В.И., Парцингер Г., Цэвээндорж Д., Мыльников В.П., Наглер А. и др., 2006.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Монгольском Алта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ом 12.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미나예프 2007. Миняев С.С., 2007. Дыресту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뻬뜨렌꼬 1967. Петренко В.Г., 1967. Правобережье Среднего Приднепровья в вв. до. н. э., САИ Д1-4.

슐가 2008. Шульга П.И., 2008. Снаряжение верховой лошади и воинские пояса на Алтае (Часть 1. Раннескифское время). Барнаул. Азбука.

아브둘가네예프 1994. Абдулганеев М.Т., 1994. Майэмирские курганы Бойтыгема. Археолог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Барнаул.

예르몰라예바 1987. Ермолаева А.С., 1987. Измайловский погреб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от бронзы к раннему железу из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Прииртышья. Ранний железный век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Урало-Иртышского междуречья. Челябинск.

일린스까야 1968. Ильинская В.А., 1968, Скифы днепровского лесостепного левобережья (курганы Посулья), Киев, Наукова Думка.

츨레노바 1992. Членова Н.Л., Культура плиточных могил. Степная полос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осква, Наука.

http://doi.org/10.20292/jcich.2024.44.205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the propeller-shaped bits on the Eurasian continent

Jung, Suk-Bae(Dept. of Archae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e question of the origin of propeller-shaped bits is the controversial one, because it was these bits that appeared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ll the others. Propeller-shaped bits are used in such vast territories as the Korean Peninsula, China, and areas of the south of Lake Baikal, in the Altai, and west to the Dnieper River region to north of the Black Sea.

In this paper the situation in which propeller-shaped bits were discovered in each region is examined, their morphological features are studied. The author of this work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shape of the ends of the blade and the shape of the blade itself of propeller-shaped bits. Blades with a sharp end and an end that ends with a line are highlighted. The shape of the blade itself also played a major role in classification.

The situation of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ropeller-shaped bits showed that they have quite strong regional features. For example, propeller-shaped bits of type I of the group A, types I and II of the groups B-1 and B-2 were found only to the west of the Caspian Sea, namely in the areas of the middle reaches of the Don and the lower reaches of the Volga, in the Kuban region of the North Caucasus, and in the areas of the Dnieper Ri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opeller-shaped bits of type III of the group A and type VIII of the group B-1 are characteristic exclusively for the Korean Peninsula.

Propeller-shaped bits already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 began to be used in the Kuban region, and in the 5th century BC they are used in the areas of the Dnieper River and in the areas of the Don-Volga rivers. They were used in the Pazyryk culture of Altai, which dates back to the 6th-3rd centuries BC. We can find their original form in bits with three holes from the Boytygem-2 burial ground in Altai, that date back to the 8-7th centuries BC or the end of the 7th and beginning of the 6th centuries BC.

Bits similar to the propeller-shaped ones from Korea were found in the Yaloman-2 burial ground of the Hunnu era in Altai, in the Dyrestuisky burial ground in the south of Lake Baikal of the Xiongnu era, in the Yanxiadu monument of the Zhangguo era, and in the Xichagou burial ground of Xifeng county of the Buyeo (Fuyu) time. In general, it can be assumed that propeller-shaped bits that appeared in Altai, on the one hand, are distributed towards Yansiadu, and on the other hand, towards the region south of Lake Baikal and the Xifeng-Yushu regions. Apparently, the propeller-shaped bi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me bits from the Xichagou burial ground of Xifeng, because they are close in both distance and time.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origin of propeller-shaped bits with a sharp end of the blade is the North Caucasus.

Key words : Hamess, bit, bit stopper, propeller type, Eurasian continent

http://doi.org/10.20292/jcich.2024.44.245






흉노 도성지 몽골 후레트 도브의 성격과 구조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Khureet Dov, Mongolia, Xiongnu capital

오 재 진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상 록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송 상 우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S.엥흐볼드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와 흉노 도성의 성격

Ⅲ. 후레트 도브의 현황과 조사내용

Ⅳ. 후레트 도브의 구조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한국과 몽골 공동 학술발굴조사단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흉노 도성 가운데 수도 궁전지로 추정되는 몽골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헤를렌(Kherlen) 강 서쪽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도성은 후레트 도브(Khureet dov)-흉노시대의 수도(單于庭), 테렐진 두르불진(Tereljyn durvuljin)-겨울, 부르힝 두르불진(Burkhyn durvuljin)-봄, 운두르 도브(Undur dov)-가을, 고아 도브(Gua dov)-여름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레트 도브의 문지와 담장은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고,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고, 각각의 건물지는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는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지붕에 사용되었을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게르(ger)를 얹고, 게르 주위에 월대(月臺)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는 좌우에 기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 몽골, 흉노, 헤를렌 강, 후레트 도브, 흉노 도성

Ⅰ. 머리말

흉노 문화는 주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유라시아 초원의 고고학을 대표하는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흉노 고고학은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북방 고고학의 출발로 인식되었다(강인욱 2010). 더불어 한국사에서도 흉노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문화 형성에 북방 초원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인욱 2015).

몽골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1990년 몽골의 국가 체제가 변화하여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몽골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흉노의 무덤뿐만 아니라 도성과 생산 유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나 연구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몽골의 연구자들과 국제공동조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에렉젠 2014).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몽골을 포함한 북방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한반도 문화 형성에 중원 농경 문화와 더불어 북방 초원 문화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동서문물연구원은 2016년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와 몽골 내 우리 민족의 원류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고대 문화유산에 대해 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한국 고대사 정체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 · 몽골 문화유산 공동학술조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동서문물연구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조사단과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는 공동 학술발굴조사의 1단계(3개년도 사업)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바얀차간 솜의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원형 적석의 흉노 무덤 2기를,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17년 6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원형 적석의 흉노 무덤 4기(배장묘 3기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원형 적석 흉노 무덤의 구조와 특징, 축조 시기와 계층 등 연구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18년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쇼허잉 암의 몽골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셔르걸징 볼쉬(개미형무덤) 1기, 히르기수르 1기, 판석묘 3기 등 모두 5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셔르걸징 볼쉬의 분포 범위를 확장시켰고, 히르기수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 매장 유구인 것을 밝혔으며, 판석묘

에서 말 순장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 동서문물연구원 ·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이러한 1단계의 조사성과에 힘입어 공동 학술발굴조사의 2단계는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 '후레트 도브'라는 흉노의 도성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마한문화연구원, 대한문화재연구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조사단과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가 2019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도성 내부의 중심 건물지 1기와 도성 북동쪽의 외부 부속 건물지 1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1)]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2023년에 비로소 재개할 수 있었고, 한국 측은 중앙문화재연구원과 마한문화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가경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한국-몽골 조사단에서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끝으로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는 중심 건물지의 서쪽 부분과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위치하는 건물지 4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외에 도성 서쪽의 외부 부속 건물지 1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2)]

여기에서는 먼저 흉노 도성 유적 가운데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고 있는 흉노시대 5개의 도성[3)]에 대한 형태와 성격 등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5개의 도성 가운데 2019년과 2023년 조사를 진행한 후레트 도브의 중심 건물지와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조성된 건물지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2019년도 후레트 도브에 대한 1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한국 조사단에는 조상기 · 오재진 · 김우현 · 안재필(중앙문화재연구원), 조근우 · 허재원(마한문화연구원), 이영철 · 김낙현(대한문화재연구원), 권오영 · 정재택(서울대학교), 김범철 · 이윤용(충북대학교)이 참여하였다.

2) 2023년도 후레트 도브에 대한 2차 공동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한국 조사단에는 조상기 · 오재진(중앙문화재연구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김창억 · 송상우(세종문화재연구원), 오규진 · 김상록(가경고고학연구소)이 참여하였다.

3) 도성(都城)은 왕이 거주하는 왕성과 백성들의 거주 지역을 아우르도록 쌓은 성곽이다. 중국에서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읍(邑)이라 하였으며, 읍이 국(國)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합 권력의 상징인 종묘와 사직을 갖추고 있는 읍을 도(都)라 하였다. 따라서 도성은 백성의 거주 지역을 아우르는 외곽 성이 없더라도 왕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였으므로 왕도라 부르기도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856~858). 여기에서는 도성을 흉노 선우가 거주하였던 왕성(궁전)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헤를렌 강변에 위치하는 5개의 성을 설명할 때 '성터'와 '성벽'으로 표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성이 아닌 궁전지로 추정되므로 '도성'과 '담장'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와 흉노 도성의 성격

1. 흉노 성터 및 취락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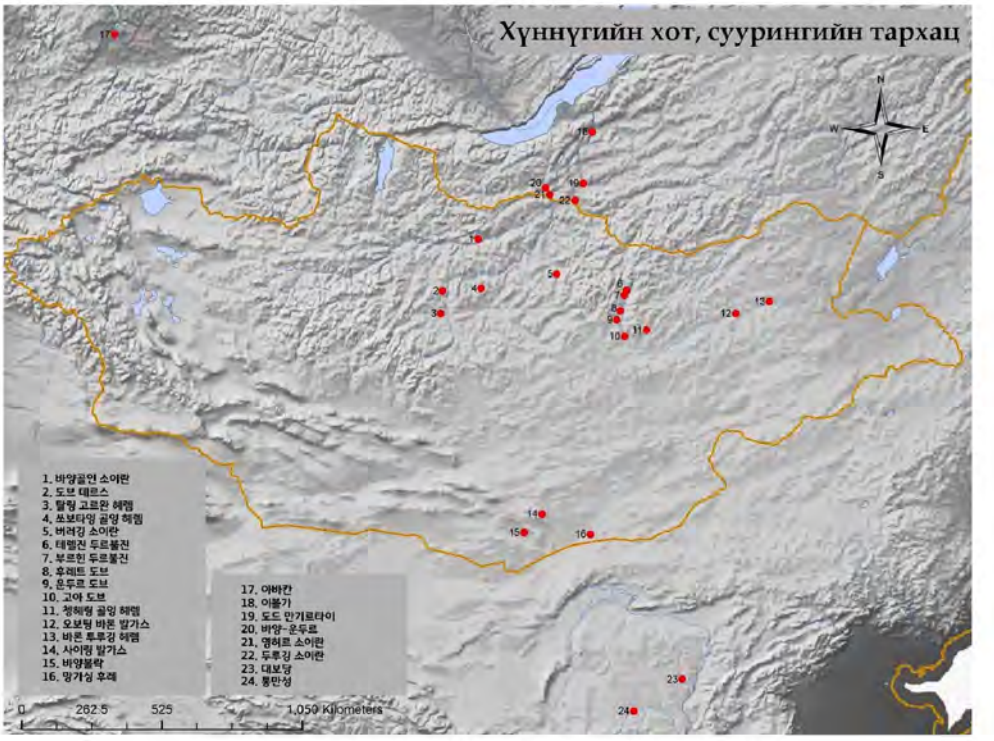
흉노(匈奴)는 기원전 4세기 말에 중국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원전 209년 묵특선우(單于:최고의 우두머리)가 등장한 이후부터 세력이 강해져 동쪽의 동호(東胡), 서쪽의 월지(月氏)와 오손(烏孫), 서북쪽의 정령(丁零)과 견곤(堅昆) 등 주변의 유목집단들을 복속시켜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설하였다. 그 영역은 남쪽으로는 만리장성,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부, 서쪽으로는 서역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아우른다. 이로써 흉노는 중앙아시아의 초원 루트를 통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나라와 대결과 화친을 반복하다 내부 갈등으로 기원후 48년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선비 등에 의해 와해되는 기원후 1세기 말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존속하였다(에렉젠 2009; 양시은 · G.에렉젠 2017; G.에렉젠 · 양시은 2017).

흉노의 유적과 유물은 몽골을 중심으로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지역에 걸쳐 남아 있다. 흉노와 관련된 고고 유적은 대부분 매장 유적이지만, 기와와 전돌 등이 출토되는 성터(또는 취락)나 각종 공방지(제철유적, 가마터) 등의 정주와 관련된 유적도 있다.

먼저 몽골에서 확인된 흉노시대 성터와 취락 유적들은 고아 도브,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운두르 도브, 후레트 도브, 첼헤링 골잉 헤렘, 바론 투루깅 헤렘, 쏘보타잉 골잉 헤렘, 바얀볼라깅 도이르, 도브 데르스니 도이르, 망가싱 후레, 탈링 고르완 헤렘, 보로 소이란, 오보팅 바론 발가스, 에깅골에 있는 바양볼락, 움누고비 아이막에 있는 사이링 발가스, 자앙허슈 유적 등 17기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몽골 국경 바깥쪽에 위치하는 흉노시대 성터와 취락 유적들은 러시아연방의 부리야트공화국에서 이볼가, 도레니(두루), 도레니-Ⅱ, 바양-운두루, 도드 만기르타이, 영허르 유적이, 하카스공화국에서 아바칸 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내몽골자치구 어얼둬쓰 통만성과 산시성의 대보당 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흉노시대에 해당하는 성터 및 취락 유적은 현재까지 몽골, 러시아연방의 부리야트공화국과 하카스공화국,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 등에서 30기 가깝게 조사되었다(그림 1).



[그림 1] 흉노시대 도성과 취락 유적 분포 현황(G.에렉젠 2017: 185 도판 1)

2. 흉노 도성의 성격

흉노시대에 해당하는 성터 및 취락 유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유적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50㎞ 정도 떨어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헤를렌(Kherlen) 강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흉노시대의 도성 5개이다. 여기에서는 이들 5개의 도성에 대한 구조와 출토유물, 성격 등을 그동안 진행된 연구 현황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G.에렉젠 2017: 185~204; G.에렉젠 · 양시은 2017: 78~107; 유롤-에르데네 2018: 72~105).

흉노시대에 해당하는 5개의 도성은 헤를렌 강 중류지역의 서쪽 강변을 따라 20~40㎞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조성되어 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의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4] 이 5개의 도성은 모두 크고 작은 강변이나 호수 근처에 입지하고 있으며, 부르힝

4) '두르불진(durvuljin)'은 '네모'를, 도브(dov)는 '언덕(마운드)' 또는 '작은 산'을 뜻한다.



[그림 2] 헤를렌 강변 흉노 도성(G.에렉젠 · 양시은 2017: 82~83 도판 73)

두르불진과 후레트 도브는 성벽 한쪽이 강물에 의해 파괴되었다(그림 2).[5]

테렐진 두르불진(Tereljyn durvuljin)은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성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진흙 담장으로 이루어진 도성 유적이다. 이 유적은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의 헤를렌 강 지류인 테렐진의 하류 동쪽 강변에 입지하며, 북쪽에서 남동쪽까지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성벽은 방형이며, 담장 바깥에는 물을 끌어들인 수로(해자)로 추정되는 얕은 물길 흔적이 보인다. 진흙 담장의 규모는 235×235m이고, 현재 남아 있는 판축한 점토층은 높이 0.6~0.8m, 너비 10~12m 정도이고, 담장 중앙에는 각각 문지가 1기씩 설치되어 있다. 도성 중앙부에는 60×32m 규모의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대형 건물지가 있다[6]. 소형 건물지는 대형 건물지에서 남서쪽으로 50m 정도 떨어져 2기, 대형 건물지에서 서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1기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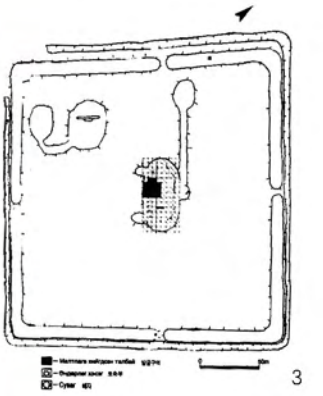
5)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강물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았지만, G.에렉젠(2017: 197)은 강물을 일부러 도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흔적으로 판단하였다.

6) 페를레는 이 대형(중심) 건물지를 두 개의 건물지로 추정하였으나, G.에렉젠(2017: 192)은 1기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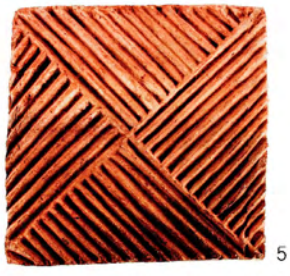












[그림 3] 테렐진 두르불진 1 · 2. 전경, 3. 평면도(윤형원 2018: 285 그림), 4. 대형 건물지, 5. 출토유물(G.에렉젠 · 양시은 2017: 89, 95 도판)

치하고 있다. 도로는 돌을 깔아 대형 건물지의 중앙부와 북서쪽을 연결하였다. 테렐진 두르불진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회랑과 유사한 시설로 연결된 궁전지(건축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림 3). 특히 이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 가운데 흉노제국 선우 씨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탐가[印章]라는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은 노용 올 흉노 귀족 계층의 무덤에서 바닥면에 'S'자형 문양이 새겨진 칠이배를 비롯하여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양의 복사뼈, 암각화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흉노 선우 씨족의 상징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르힝 두르불진(Burkhyn durvuljin)은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의 부르힝 강 오른쪽 강변에 위치한다. 도성의 규모는 180×180m이고, 내부에는 30×18m와 29×28m 규모의 건물지 2기가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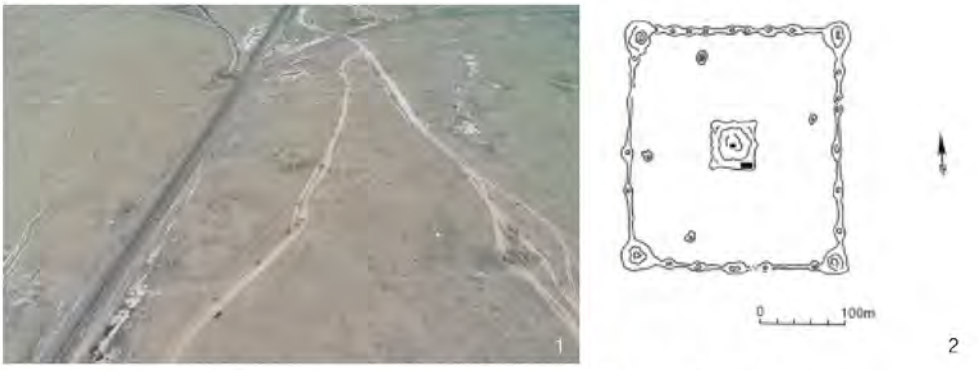
[그림 4] 부르힝 두르불진 1. 전경, 2. 건물지, 3. 평면도(G.에렉젠 · 양시은 2017: 82~83 도판 73)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도성 가운데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Khureet dov)는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60㎞ 정도 떨어진 바가노르구에서 동쪽으로 10㎞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적 중앙부와 주변은 러시아 군대의 야외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심하게 파괴되어 있고, 남쪽에 접하여 바른 바이들락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헤를렌 강에 합류한다.[7] 도성의 규모는 5개의 도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420×420m 정도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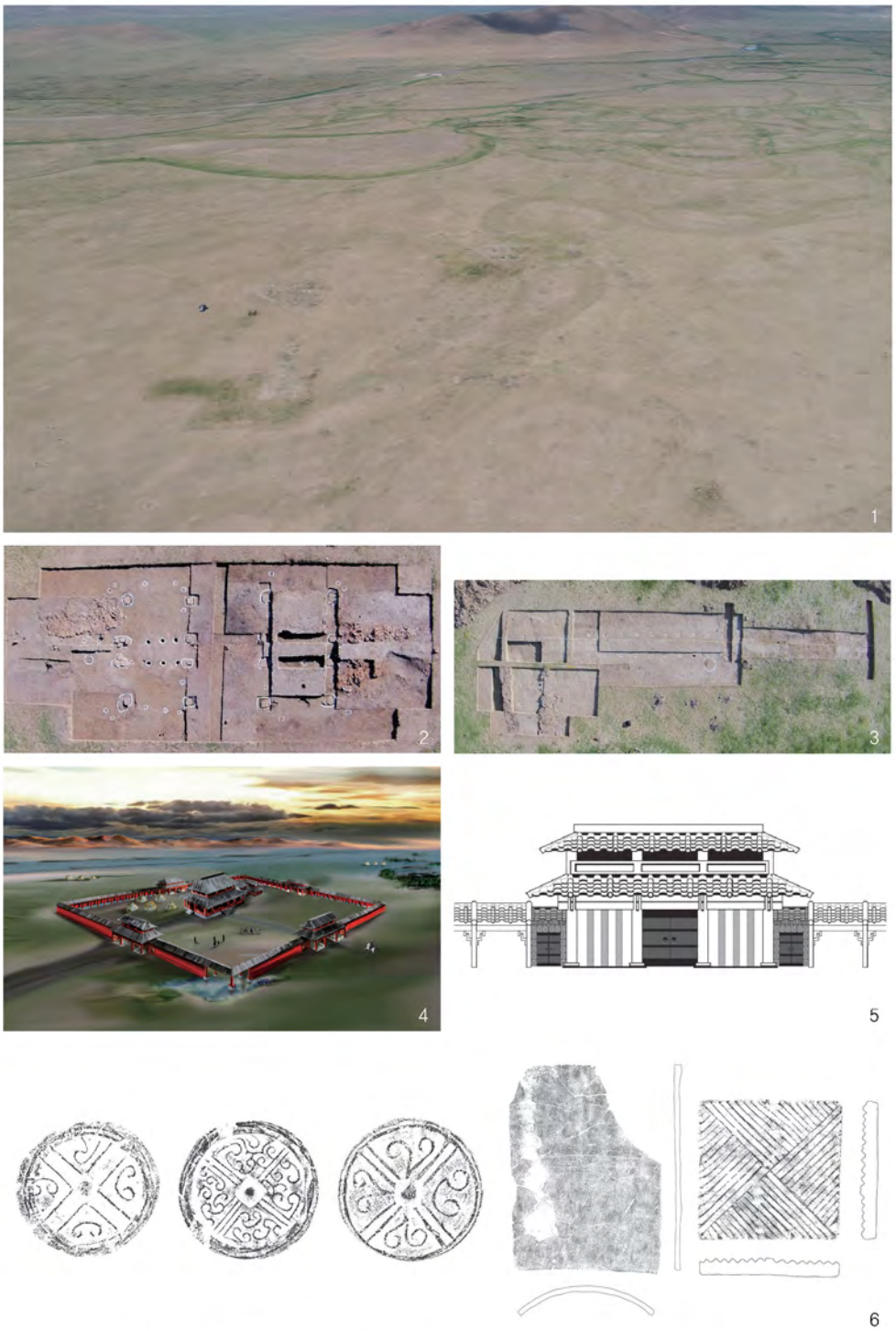
[그림 5] 후레트 도브 전경

운두르 도브(Undur dov)는 바가노르구에 속한 이흐 궁 호수와 바가 궁 호수 사이에 있는 아야가-샤나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1952년 페를레가 조사할 당시 담장의 규모는 동쪽 292m, 서쪽 285m, 남쪽 285m, 북쪽 255m이고, 높이 0.3~0.6m, 너비 2~3m 정도이다. 담장 위에는 망루가 서쪽 3개, 동쪽 6개, 남쪽 5개, 북쪽 8개, 네 모서리에 각각 1개씩 있다. 도성 중앙부와 서쪽,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에 건물의 흔적을 확인하였다(그림 6).



[그림 6] 운두르 도브 1. 전경, 2. 평면도(G.에렉젠 · 양시은 2017: 82~83 도판 73)

7) 후레트 도브는 바른 바이들락 강의 북쪽 강변에 위치하는데, G.에렉젠(2017: 197 표 1)은 '동쪽 강변'으로 방위를 잘못 파악한 듯하다.



[그림 7] 고아 도브 1. 전경, 2. 남문지, 3. 담장 동남쪽 모서리, 4. 유적 복원도, 5. 남문지 복원도 출토유물(2~5. G.에렉젠 · 양시은 2017: 91~93 도판, 6. 국립중앙박물관 외 2017: 88, 92, 104, 164, 168 도면)



[그림 8] 호스틴 볼락 유적(G.에렉젠 · 양시은 2017: 104~107 도판 재편집)
1. 전경, 2 · 3. 기와가마터, 4 · 5. 제철로, 6. 출토유물

고아 도브(Gua dov)는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는 도성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하는 유적으로 투브 아이막 바얀자르갈란 솜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방형 회랑은 동서 200(180?)m, 남북 180m이고, 회랑 중앙부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문지가 확인되었다. 대형(중앙) 건물지는 회랑 내부 북서쪽 모서리 부근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규모는 40×30m 정도이다. 소형 건물지는 대형 건물지 북쪽에 위치하며, 규모는 25×10m 정도이다. 회랑 바깥에는 2~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연못은 회랑 남동쪽 모서리에 인공적으로 시설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고아 도브는 페를레가 추정한 제사유적이 아니라 4면에 2층 대문이 설치된 방형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있는 궁전으로 추정하였으며, 더불어 기후와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여름 궁전지로 추정하였다(그림 7).

한편 헤를렌 강변에 분포하고 있는 5개의 도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은 북동쪽으로 20㎞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 호스틴 볼락이다. 호스틴 볼락(Khustyn bulag) 유적은 준 바이달락 강 동쪽의 구릉 사면에 입지하며,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에 해당하는 토기와 기와를 생산하던 가마터와 철을 제련하던 노가 조사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벽전 등은 형태와 문양이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 후레트 도브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데, 호스틴 볼락 유적에서 생산된 기와 등을 헤를렌 강을 이용하여 각 도성 유적으로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8).

1950년대에 발견된 5개의 도성은 일부 조사를 통해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실생활에 사용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당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방형 전(장식용 벽돌, 벽전)이 발견된 점, 유적의 이름이 신화나 샤먼의 노래에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흉노시대의 제사 유적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5대의 성터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지로 흉노시대의 제사 유적이 아닌 최상위 계층의 궁전지와 같은 생활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방형전(장식용 벽돌, 벽전) 역시 문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아랫부분에 부착하여 장식한 토제판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몽골제국시대에도 카한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수도인 하라호름(Kharakorum)에 머물렀고, 나머지 기간에는 하라호름의 북쪽과 남쪽에 30~70㎞ 정도 떨어져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된 계절 궁전에서 생활하였다. 이와 같이 몽골제국시대 수도와 계절 궁전과의 배치는 헤를렌 강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된 흉노시

대 5개 도성의 배치와 유사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의 흉노시대 도성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가 선우정(單于庭)[8]으로 명명된 흉노시대의 수도로, 나머지 4개의 도성은 선우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거주하던 계절 궁전지 즉, 테렐진 두르불진은 겨울, 부르힝 두르불진은 봄, 운두르 도브는 가을, 고아 도브는 여름 궁전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1).[9]

[표 1] 헤를렌 강변 흉노 성터 현황(G.에렉젠 2017: 197 표 1 일부 수정)

연번	유적명	위 치	도성 규모	유 구	추정성격	조사현황
1	테렐진 두르불진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 테렐진 강 동안	235×235m	대형 건물지 1기 소형 건물지 3기 도로	겨울 궁전지	블라디미르초프(1925년), 페를레(1952년), 다닐로프 등(2007~2008년), 크라딘 · 에르덴볼드 등(2015년)
2	부르힝 두르불진	투브 아이막 몽군모리트 솜, 부르힝 강 우안	180×180m	소형 건물지 2기	봄 궁전지	페를레(1952년)
3	후레트 도브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바론 바이들락 강 북안	420×420m	중심 건물지 1기 서쪽 건물지 4기 외부 부속 건물지 추정 연못지(?)	수도	중앙문화재연구원 · 마한문화연구원 · 대한문화재연구원 · 세종문화재연구원 · 가경문화재연구소 · 몽골 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2019년, 2023년)
4	운두르 도브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 이흐 궁 호수와 바가 궁 호수 사이	285×255m	대형 건물지 1기 소형 건물지 4기	가을 궁전지	블라디미르초프(1925년), 페를레(1952년)
5	고아 도브	투브 아이막 바얀자르갈란 솜, 헤를렌 강 동안, 차간 아랄	200(180?)×180m	중앙 건물지 부속 건물지 외부 건물지 인공 연못	여름 궁전지	페를레(1952년), 국립중앙박물관 · 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학고고학연구소 · 몽골국립박물관(2013~2015년)

8) 『사기』 흉노열전에 선우가 살면서 서로 모여서 회합을 가지던 장소로 세 군데가 언급된다. 선우정(單于庭)은 정월에 모이는 궁전으로 각 부족의 우두머리가 모이는 작은 모임을 이는 곳이고, 용성(龍城 또는 籠城)은 5월에 조상, 하늘과 땅,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말이 살찌는 가을에 큰 대회를 여는 대림(蹛林)은 그 이름으로 볼 때 건물이나 성이 아니라 회합을 가지는 숲속일 가능성이 크다(강인욱 2020).

9) 2020년 7월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약 470㎞ 떨어진 아르항가이 아이막 올지트(Ulziit) 솜 하르가나트(Xaprahat) 성터에서 초기 흉노의 글자가 새겨진 와당이 출토되어 용성으로 규정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르가나트 성터는 방형의 성으로 규모가 외벽 550×550m, 내벽 250×210m이고, 내성 중심부에서 양쪽으로 궁궐지가 위치한다. 성의 남서쪽에는 대형 인공연못지가 확인되었다. 이 성은 흉노가 중국과의 오랜 접촉으로 그 유목국가의 성격이 변하기 전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선우의 위엄을 드높이며 나아가서 흉노의 장수들이 모였던 곳으로 기능했던 초기의 건물일 가능성이 크다(강인욱 2020). 아직 자세한 성과를 접할 수 없으며, 이 성에 대한 성격은 선우정과 용성의 비정에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또한 고아 도브에서 발견된 목탄과 가축의 뼈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1세기로 확인되었고, 테렐진 두르블진의 연대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흉노시대 5개의 도성은 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1세기 초에 흉노가 고비 사막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Ⅲ. 후레트 도브의 현황과 조사내용

1. 후레트 도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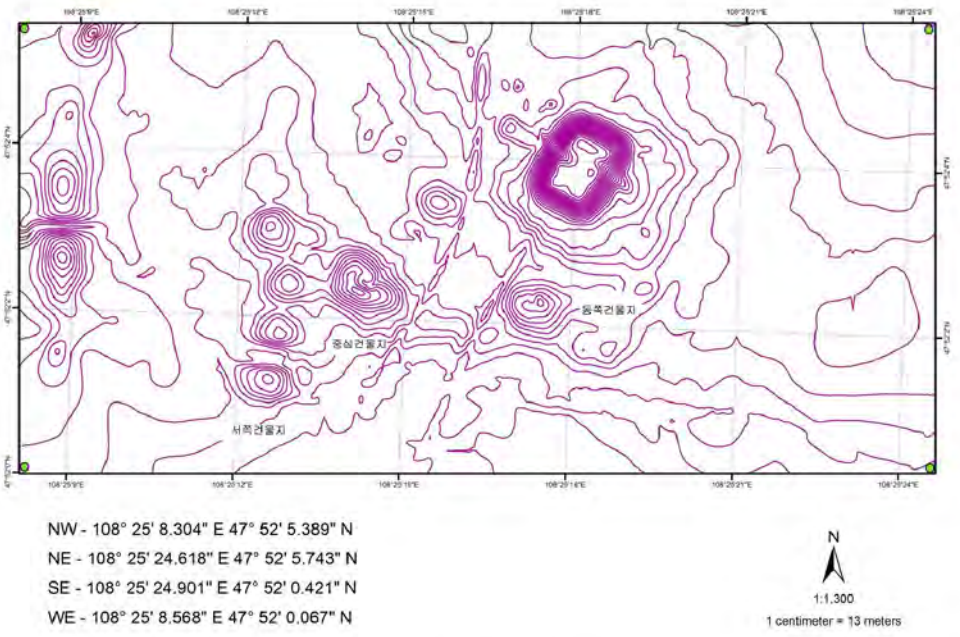
후레트 도브(Khureet dov)는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60㎞ 정도 떨어진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다. '후레트(Khureet)'는 테두리를, '도브(dov)'는 언덕(마운드) 또는 작은 산을 뜻하는 것으로 후레트 도브란 테두리가 있는 언덕(마운드)을 뜻한다.

후레트 도브는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5개의 흉노 도성 가운데 흉노의 수도로 추정되는 도성터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러시아 군대의 야외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심하게 파괴되었다. 도성 남쪽 담장에 접하여 바른 바이들락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헤를렌 강에 합류하며, 북쪽에는 러시아 군대의 포대 진지가 자리하고 있다.

도성은 규모가 420×420m인 방형이며, 문지는 동·서·북쪽 담장 중앙부에 각각 1개씩 설치되었다. 도성 내부에는 서쪽으로 치우쳐 중심 건물지가 위치하며, 중심 건물지 서쪽에 건물지 4기, 동쪽에 건물지 1기, 북동쪽에 건물지 1기가 배치되어 있고, 남동쪽으로 치우쳐 추정 연못지 1기가 확인되었다. 도성 외부



[그림 9] 후레트 도브 현황도



[그림 10] 중심 건물지 주변 현황도

북동쪽과 동쪽, 서쪽에는 부속 건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그림 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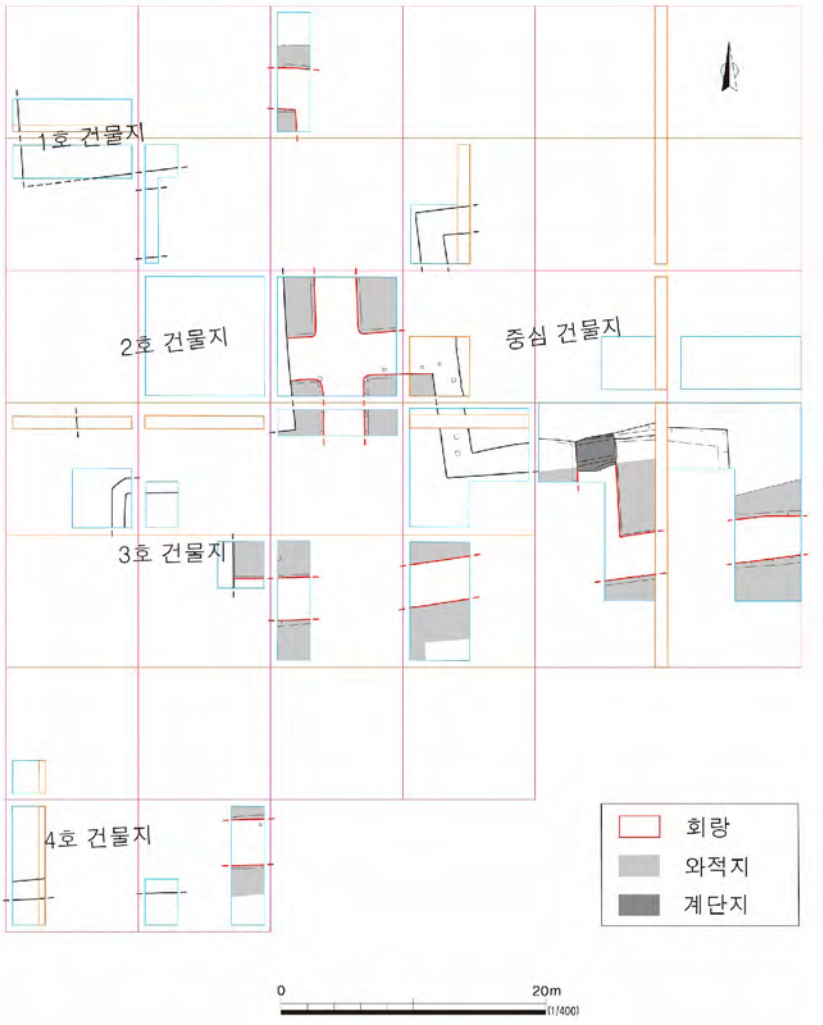
2. 후레트 도브의 조사내용

조사는 도성 서문지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져 기준점을 정하였고, 이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10×10m 크기의 그리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더불어 유구의 범위와 층위를 파악하고자 남북방향으로 길이 50m, 너비 1m, 동서방향으로 길이 30m, 너비 1m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다. 중심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에 각각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이 설치되어 있고, 남북 회랑의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동서 회랑의 동쪽 끝부분에 1기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1).

1) 회랑(그림 12)

회랑(回廊)은 중심 건물지의 남쪽에 동서의 회랑이,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남북의



[그림 11] 중심 건물지 및 서쪽 건물지 배치도

회랑이 설치되어 있다. 남북 회랑은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 회랑의 동쪽 끝부분의 북쪽에 동쪽 건물지 1기가 위치하고 있다.

회랑은 회백색 점토를 수평으로 여러 겹 다져 조성하였으며, 회랑 좌우에는 회랑 지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막새, 암키와, 수키와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남북 회랑에는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0㎝ 정도 크기의 각재가 일부 확인되었다. 동서 회랑은 현재 길이 32m 60㎝ 정도가 확인되었으나 동쪽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고, 너비 320㎝, 높이 60㎝ 정도이다. 남북 회랑은 길이 60m 40㎝, 너비 300~305㎝ 정도이다.



[그림 12] 1 · 2. 동서 회랑, 3 · 4. 남북 회랑

2) 중심 건물지(그림 13)

중심 건물지는 도성 내부 중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데, 주변보다 최고 80㎝ 정도 높이 솟아있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다.

중심 건물지는 남쪽 중앙부와 서쪽 중앙부를 출입구로 사용한 회랑이 설치된 형태로 건물지 외부에 월대(月臺)가 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서쪽 월대에는 난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와 세로가 30㎝ 정도인 각재로 된 기둥 구멍이 120㎝ 정도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남북 20m 30㎝, 동서 21m 60㎝ 정도 확인되었으며, 월대는 208~220㎝ 정도이다.

건물지의 대지는 먼저 월대 부분을 길이 20~90㎝, 두께 10㎝ 정도의 점토 블록을 사용하여 쌓은 후 그 안쪽으로 색깔과 점성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점토 블록은 최대 6단 정도가 남아 있고, 수평으로 성토한 사질점토층은 최대 12층 정도 확인되었다.

남쪽 중앙부의 회랑은 주 출입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동서 회랑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계단지와 연결되었고, 규모는 길이 580㎝, 너비 295㎝ 정도이다.

보조 출입구로 사용되었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 중앙부에 설치된 회랑은 동쪽으로 남북 회랑과 연결되었고, 규모는 길이 520㎝, 너비 295㎝ 정도이다.

계단지는 건물지 남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주 출입구로 사용된 남쪽 중앙부의 회랑 북쪽에 연결되었다. 계단지는 파괴가 심하나 회색 점토를 다져 디딤판을 5단으로



[그림 13] 중심 건물지 1. 전경, 2 · 3. 대지조성상태, 4 · 5.계단지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디딤판은 동서 295㎝, 높이 11~14㎝ 정도이다.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서쪽 중앙부의 회랑, 계단지 양쪽에는 기와가 쌓여 있으나, 건물지 내부와 외부에는 기와가 확인되지 않았다.

3) 서쪽 건물지

서쪽 건물지는 도성 내부 중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남북방향으로 모두 4기가 배치되어 있다. 주변보다 약 40㎝ 정도 높이 솟아있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다.

서쪽 건물지는 동쪽에 설치된 남북 회랑의 서쪽에 연결된 형태로 모두 4기가 확인되었고, 2호 건물지를 제외한 3기는 건물지 외부에 월대가 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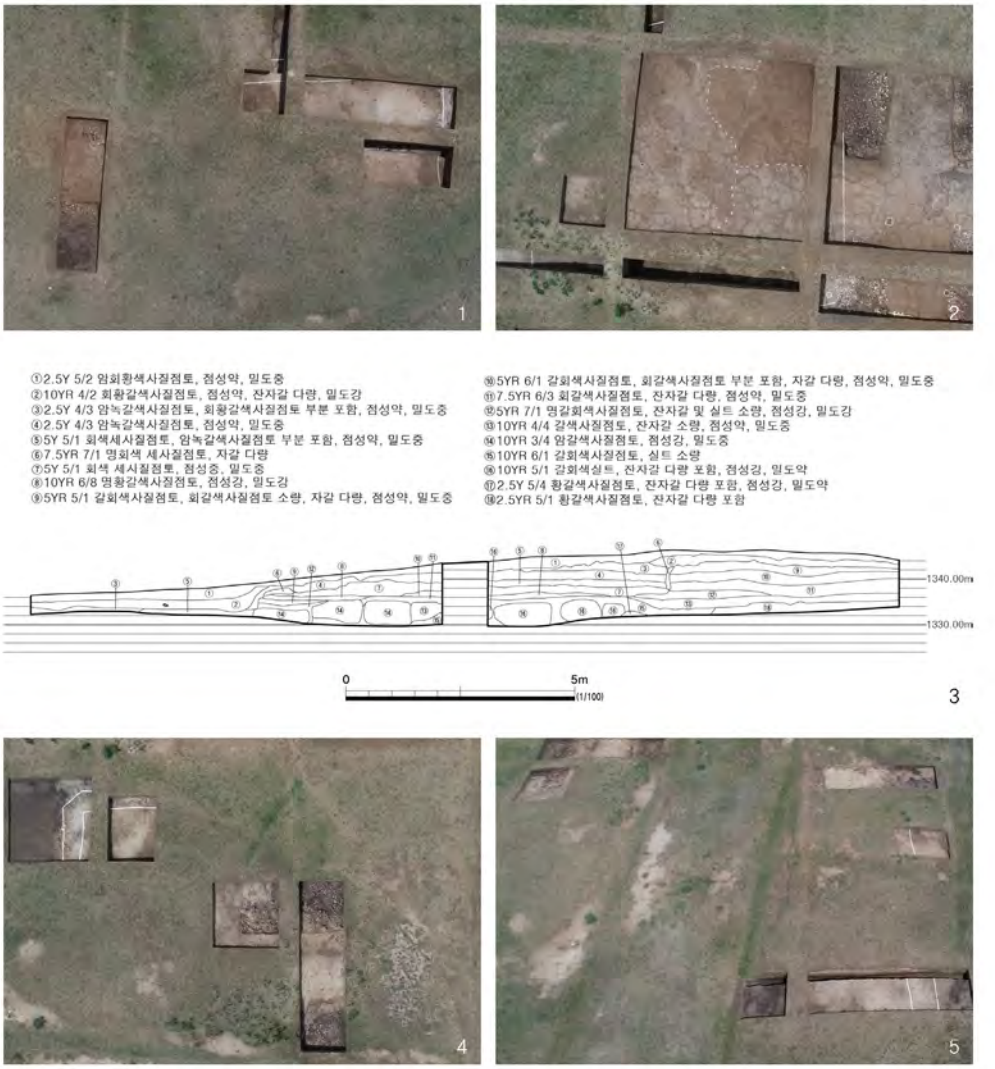
1호 건물지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남북 회랑의 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꺾여 건물지에 연결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170㎝, 남북 현재 670㎝ 정도가 확인되었고, 월대의 너비는 120㎝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현재 길이 200㎝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12㎝ 정도이다(그림 14-1).

2호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와 달리 월대가 확인되지 않았고, 건물지의 평면은 방형이다. 2호 건물지 동쪽은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과 중심 건물지의 서쪽에 설치된 회랑이 중간에 남북 회랑을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615㎝, 남북 1,425㎝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길이 220㎝, 너비 320㎝ 정도이다. 2호 건물지는 그리드의 평면에서 볼 때 서쪽과 북동쪽, 남동쪽의 사질점토가 점성과 색깔 등이 달라 세 부분으로 구획을 나누어 대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2호 건물지 남쪽에 설치된 트렌치에 나타난 층위로 볼 때 중간 부분의 명회색 세사질점토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구획을 나누어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평면에서 확인된 구획선과 일치한다. 트렌치에서 보이는 대지의 조성은 동쪽이 기반층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4~5겹 정도 수평으로 성토하였지만, 기반층이 동쪽보다 낮은 서쪽은 먼저 점토 덩어리를 기반층 위에 놓은 뒤 그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4겹 정도 수평으로 성토하였다(그림 14-2 · 3).

3호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평면은 북서모서리가 빗

변으로 처리된 상태로 확인되어 평면은 8각형으로 추정된다. 남북 회랑에서 서쪽으로 꺾여 건물지에 연결된 회랑은 동서 회랑과 일직선상으로 이어져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920㎝, 남북 현재 828㎝ 정도가 확인되었고, 월대의 너비는 94~108㎝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길이 590㎝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24㎝ 정도이다(그림 14-4).

4호 건물지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군사 도로에 의해 북쪽이 유실되었다. 건물지의 평면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현재 1,300㎝, 남



[그림 14] 서쪽 건물지 1. 1호 건물지, 2 · 3. 2호 건물지, 4. 3호 건물지, 5. 4호 건물지

북 잔존 940㎝ 정도이고, 월대의 너비는 150㎝ 정도이다. 남북 회랑에서 건물지로 연결되는 회랑은 현재 길이 300㎝ 정도가 확인되었고, 너비는 345㎝ 정도이다(그림 14-5).

Ⅳ. 후레트 도브의 구조

여기에서는 고아 도브의 담장 및 문지에 대한 조사 성과와 후레트 도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레트 도브의 문지 및 담장과 중심 건물지에 대한 구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5] 고아 도브 문지 및 담장 복원도(G.에렉젠 · 양시은 2017: 92 삽도 83)

먼저 기존에 성벽으로 불리웠던 담장은 바닥의 점토층, 점토층 좌우에 기와와 기둥 구멍으로 볼 때 점토를 다져 바닥을 만들고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지는 넓게 노출된 와전류와 그 내부에 문지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그 하부에 정면 3칸과 측면 3칸의 초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판석을 사용한 초석이 구덩이 안에 놓여 있었다. 문지는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중앙의 대문과 다시 양쪽에 소형 문이 있었던 구조로 추정된다(오세연 2017: 180~184; 에렉젠 2017: 187~191). 후레트 도브의 담장과 문지는 [그림 15]와 같이 고아 도브의 것과 유사한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는 삼문(三門)과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의 문과 담장은 몽골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다. 중심 건물지의 남쪽과 서쪽에 각각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이 설치되어 있고, 남북 회랑의 서쪽에 4기의 서쪽 건물지가, 동서

회랑의 동쪽 끝부분에 1기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16).

다음으로 중심 건물지를 비롯한 서쪽 건물지의 대지[10]를 조성하는 방식은 중심 건물지와 2호 서쪽 건물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심 건물지는 월대 부분에 점토 블록을 사용하여 쌓은 후 그 안쪽으로 색깔과 점성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2호 건물지는 기반층이 동쪽보다 낮은 서쪽이 먼저 점토 덩어리를 기반층 위에 놓은 뒤 그 상부에 점성과 색깔 등을 달리하는 사질점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였다. 따라서 중심 건물지와 2호 건물지를 비롯한 후레트 도브 건물지는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6] 후레트 도브 건물지 모식도

중심 건물지에서는 월대, 출입시설인 회랑과 계단지가, 서쪽 건물지에서는 월대와 출입시설인 회랑이 확인되었으나, 적심을 비롯한 초석 및 기둥 구멍(柱穴)과 기둥으로 사용되었을 목재 등 건물지의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계단지를 포함한 회랑 좌우에는 지붕에 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건물지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는 기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레트 도브의 건물지는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게르(ger)를 얹고, 게르 주위에 나무 기둥으로 된 난간이 있는 월대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

10) '대지'는 건축물을 조성하기에 앞서 건물이 입지할 지역을 절토나 삭토 혹은 판축이나 성토다짐 등으로 조성한 공간적 범위를 대지라 한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정지공법과 축토공법으로 구분되며, 축토공법은 판축공법과 성토다짐공법으로 세분되고, 이 중 성토다짐공법은 축토된 토양의 경사도에 따라 수평축토와 경사축토로 다시 나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지 조성토를 수평에 가깝게 축토한 수평축토의 대지 조성으로, 평지나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에 대지를 조성할 때 주로 실시하는 토목공법이다(조원창 2009: 25~39, 2012:19~28, 2018:25~60).

는 좌우에 목조 가구에 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가 쌓여 있다. 이것은 시기를 달리하지만 창덕궁 선정전의 복도각(複道閣, 그림 17)처럼 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7] 창덕궁 선정전 복도각

Ⅴ. 맺음말

한국과 몽골 공동 학술발굴조사단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흉노 도성 가운데 수도 궁전지로 추정되는 몽골 후레트 도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동쪽으로 약 150㎞ 정도 떨어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헤를렌 강 서쪽에는 북쪽에서부터 테렐진 두르불진, 부르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의 순으로 5개의 흉노 도성이 각각 20~40㎞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5개의 도성은 그동안 흉노시대의 제사 유적으로 추정된 바 있었지만, 최근 몽골제국시대 수도와 계절 궁전과의 배치 및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지로 최상위 계층의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5개의 흉노시대 도성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후레트 도브가 선우정으로 명명된 흉노시대의 수도로, 나머지 4개의 도성은 선우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거주하던 계절 궁전지 즉, 테렐진 두르불진-겨울, 부르힝 두르불진-봄, 운두르 도브-가을, 고아 도브-여름 궁전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레트 도브의 문지와 담장은 판석의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2층의 기와지붕을 올린 대문과 그 양쪽에 작은 문이 있고, 그 양쪽에 기와지붕의 담장이 연결된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성 내부에는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가 군집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지만, 동쪽 건물지는 약간 떨어져 배치된 양상이고, 각각의 건물지는 동서 회랑과 남북 회랑

으로 연결되었다.

중심 건물지와 서쪽 건물지는 상부 구조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지붕에 사용되었을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수평으로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상부에 게르를 얹고, 게르 주위에 난간이 있는 월대를 돌린 구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건물지의 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남쪽 중앙부의 회랑과 계단지는 좌우에 기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가구에 기와를 얹은 구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후레트 도브에 대한 정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건물의 형태나 구조 등이 더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며, 헤를렌 강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흉노시대 5개의 도성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2020년 조사된 몽골 하르가나트 성터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유물에 대한 분석과 가축의 뼈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해 후레트 도브의 조성연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본고의 Ⅱ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2020년 11월 개최한 〈2020 Asian Archaeology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2. 흉노 도성 유적의 연구현황'이란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4. 30 | **심사완료일** 2024. 5. 23 | **게재확정일** 2024. 5. 31

참고문헌

강인욱, 2010, 「紀元前4~紀元1세기의 考古學 資料로 본 匈奴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 구축을 겸하여-」, 『중앙아시아연구』15.

_____, 2015, 『유라시아 역사 기행-한반도에서 시베리아까지, 5천 년의 초원 문명을 걷다』, 민음사.

_____, 2020, 「고고학이 밝혀내는 흉노의 용성과 선우정」,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 고고학연구소 학술동향』.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 몽골 국립박물관, 2017,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한 · 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7책.

에렉젠, 2014, 「몽골 흉노유적의 국제공동조사사업과 성과」,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_____, 2017,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흉노 도성들의 특징과 용도」,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 몽골 국립박물관.

오세연, 2017, 「고아 도브 유적의 구조와 성격」, 『몽골 고아 도브 흉노 유적』,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 몽골 국립박물관.

오재진 외, 2020, 「몽골 후레트 도브 흉노 도성지 발굴조사」, 『2020 Asian Archaeology 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롤-에르데네, 2018, 「흉노의 도시유적」, 『흉노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2,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윤형원, 2018, 「흉노인의 의식주」, 『흉노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2,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조원창, 2009, 「백제 웅진기 이후 대지조성 공법의 연구」, 『건축역사연구』제18권 5호 통권6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_____, 2012, 『기와건물지의 조사와 해석』, 서경문화사.

_____, 2018, 『건축유적의 발굴과 해석』, 서경문화사.

중앙문화재연구원 · 동서문물연구원 ·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20, 『몽골의 무덤』,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44.

G.에렉젠 · 양시은, 2017,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6 · 동서문물연구원 학술총서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doi.org/10.20292/jcich.2024.44.245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Khureet Dov, Mongolia, Xiongnu capital

Oh, Jae-Jin(Special Researcher,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im, Sang-Lok(Researcher, Gakyung Institute of Archaeology)
Song, Sang-Woo(Researcher, Sejong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Enkhbold Sanjperlee(Researcher,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Korea-Mongolia Scientific Excavation Research Group investigated Khureet Dov, Mongolia, which is presumed to be the capital palace site among the five Xiongnu capital cities, twice in 2019 and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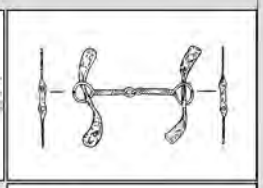
The five cities, located with regular intervals to the west of the Kherlen River, are presumed to have served the following functions respectively: Khureet Dov-the capital in the Xiongnu period, Tereljin Durvuljin-winter, Burkhyn Durvuljin-spring, Undur Dov-autumn, and Gua Dov-summer palace.

The structure of the gates and walls of Khureet Dov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nstructed with a main gate featuring a two-story tiled roof, supported by wooden pillars erected on a foundation of slab stone, with small gates on both sides, and walls with tiled roofs on both sides were connecte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fortress includes a central building area and a western building area clustered together, while the eastern building area is slightly separated. Each building area was connected by east-west and north-south corridors. The absence of facilities associated with the upper structure and the absence of excavated tiles used for roofing in the central and western building area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y were shaping the ground with

the horizontal embankment method before placing a ger(traditional Mongolian tent) on top and building a Woldae(月臺) around it. The tiles are piled up on both sides of the southern central corridor and stair site, which are presumed to be the main entrance facilities of the central building site, suggesting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ts structure was made of wooden constructions with roof tiles on top.

Key words : Mongolia, Xiongnu, Kherlen Rive, Khureet Dov, Xiongnu Capital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 · 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연구자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논문 심사평가서, 논문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집필요령에 적합한 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된 결과에 대해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논문 게재여부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결정한다.
   ① [AAA], [AAB] : 게재 가
   ② [AAC], [ABB], [ABC], [BBB] : 수정 후 게재
   ③ [AAD], [ABD], [ACC], [ACD], [BBC], [BBD], [BCC], [CCC] : 수정 후 재심사
   ④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집필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硏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흔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200매 내외의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200자 원고지 5~6매)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200자 원고지 8매)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 · 성춘향 2008), (이몽룡 · 성춘향 2008b), (이몽룡 · 성춘향

2008: 3), (이몽룡 · 성춘향 2008: 5~7) 등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은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槪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 Ⅱ』, 古蹟調査報告 第三十三册.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硏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r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 세로 20.5㎝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한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 오른쪽 30㎜, 아래쪽 13㎜, 꼬리말 17.5㎜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6) 目 · 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8) 표 · 도면 · 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에 회원가입 후 매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고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한글파일이 수록된 CD를 출력된 원고 1부와 함께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제출한다. 첨부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中央考古硏究』 연구윤리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硏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 · 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